

# 報恩郡地理誌

報恩文化院



## 發 刊 辭



人類文化는 예로부터 記錄과 더불어 발전하여 왔다. 나라에는 史記가 있으며 가정에는 家乘이 있고 鄉邑에는 鄉土史가 있습니다.

鄉土史란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文化와 歷史를 기록한 것으로 代表的인 것이 地理志로 지역의 향토사의 출발은 地理志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향토사료로서 중요한 地理志가 모두 어려운 한자로 되어있어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고장을 이해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향토사를 연구하려는 신세대들에게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보은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보은문화의 열이 살아 숨쉬고 선조들의 유업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향토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報恩地理誌」 국역본을 발간하는 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보은 지역의 人文地理를 소상하게 수록하고 있는 역대 지리지를 통하여 고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귀중한 사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국역을 맡아 수고해주신 雲岡 金秉直 先生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간행사업을 펼수 있도록 적극지원해주신 보은군 李香來 군수님과 보은군의회 沈光弘의장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08년 12월

보은문화원장 김 건 식

## 祝 刊 辭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보존·전승 및 선양 등의 사업을 펼쳐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는 보은문화원에서 보은지역의 지명, 지리, 풍속, 인물등이 수록되어 있는 역대 지리지를 총망라하고 보은지역에 관련된 기록등을 종합 고찰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주해를 달고 한글로 번역한 『보은군 지리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전통적 가치관의 혼돈과 함께 고장에 전하는 여러 가지 풍습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또한 어떠한 풍습이 있는지조차 알려줄 이와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이시대의 농촌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향토자료 수집 및 조사등의 사업을 펼쳐 우리지역 문화창달은 물론 향토애를 가꾸어 가는 보은문화원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발간된 『보은군 지리지』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지명, 지리, 풍속, 인물등 인문지리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고장의 마을과 골짜기 마다 살아있는 역사서로 우리 고장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소중한 자료로, 옛 선현들의 정신문화를 엿볼수 있는 자료로, 그리고 자라나는 후세에게 자긍심과 꿈을 심어주는 소중한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함은 물론, 우리고장의 고귀한 향토자료로 잘 간직하고 보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지역의 소중한 향토자료 발간을 위해 『보은군 지리지』 발간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건식 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보은군수 이 향 래

## 祝 刊 辭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옛 지리지를 고찰하여 우리 지역의 지명, 지리, 풍속, 인물 등을 수록한 향토역사 자료인 『보은군 지리지』가 발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향토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정을 기울여 주신 향토사학자 김건식님, 한학자 김병직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향토역사는 지금까지 전승 보존되어 오면서도 이를 알기 쉽게 수록한 자료가 빈약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고장의 유래와 풍속을 고찰하고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발간되는 『보은군 지리지』는 그 동안 잊혀져 왔던 우리 고장의 옛 문화와 지리, 풍속 등을 찾아서 선조들이 지향했던 사상이나 문화를 부각시켜 향토역사의 일부로써 이해하고, 현 시대에서 명확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은군 지리지』가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 지역의 유래와 풍속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새롭게 인식하는데 소중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우리 고장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08년 12월

보은군의회의장 심 광 홍

## “보은군 지리지” 발간을 축하하며



보은은 옛날부터 지리적으로 중요한 군사요충지였으며, 삼국의 접경 지역으로서, 수많은 선조들의 삶의 숨결이 살아 숨쉬었던 유구한 역사의 고장입니다.

특히, 우리 고장 報恩은 삼은(知恩, 感恩, 謝恩)의 고장으로서 보국안민과 외세의 불법적인 간섭을 배척한 동학정신을 실천으로 옮기는 충절의 고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는 조상들의 지나온 삶을 회고할 기회와 전통문화의 상실을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비록 늦기는 했지만 『보은군 지리지』를 발간하여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문화유산과 없어지는 보은지역에 관련된 기록들을 남겨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보은지역의 지명과 지리, 풍속, 인물 등 역대 지리지에 관련된 기록들을 총망라하고 종합 고찰하여 주해를 달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번역하여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보급하는 사업이야말로 역사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보은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자료집 발간에 수고하신 향토사학자 김건식님, 한학자 김병직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발간사업이 향토발전의 초석이 되고 전통문화의 후대 계승 및 보은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원하오며, 보은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2008년 12월

충청북도보은교육청교육장 김 중 규

## 序 文



우리 나라 地理志는 高麗仁宗23년(1145)에 金富軾이 편찬한 三國史記 地理志가 發端이 되어 世宗地理志 東國輿地勝覽 湖西勝覽 輿地圖書 道 邑志 大東地志 湖西邑誌 各郡邑誌 그리고 끝으로 李秉延이가 1936년에 발간한 朝鮮寰輿勝覽이 있다.當初에 三國史記 地理志는 建置沿革만 기록 한데 不過하였으나 漸次 進展함에 따라 地理 人物 古蹟 山川과 學校 文廟 佛宇 書院이며 孝子 烈女 田結 貢物과 民戶 軍兵 坊里 堤堰까지 다양하게 隨錄하여 多方面으로 많은 參考資料를 提供했다. 하겠다. 모든 地理志는 報恩과 懷仁이 各其隨錄이 되어 있으나 合郡된 以後에 發行된 朝鮮寰輿勝覽은 合同으로 隨錄되었으며 特히 人物을 細分化하여 大幅 增補하였다. 그러나 地理志 內容들이 全漢字으로 되어 있어 理解하기 어려움으로 金建植 文化院長께서 不佞에게 後進을 위하여 解釋을 擔當 하라 하기에 不適格함으로 再三辭讓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不得已 執筆을 하다보니 淺才薄識하여 生疎한 部分이 많아 充分한 解釋이 못됨을 慄懼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院長任 이 모든 體系를 整理하고 알찬 潤文과 아울러 註까지 걸드렸으니 모든 분들이 한번씩 接하시며는 地方地理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懇望하면서 이만 筆을 놓는다.

2008년 12월

雲岡 金秉直 謹識

## 일 러 두 기

1. 이 책은 한문으로 된 地理志 중에서 옛날의 報恩縣과 懷仁縣 그리고 지금의 보은군 일부지역이 속해있던 靑山縣의 邑誌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2. 국역에서 書名과 項目은 한문을 그대로 썼으나 내용의 한자만은 원괄호속에 한글음을 달았다.
3. 국역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原文의 뜻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意譯하였으나 예 慣用語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4. 특히 漢詩는 韻文임을 고려하여 가능한 字數를 맞추려고 필요에 따라 줄이거나 늘렸다.
5. 原文의 脫字와 誤字는 물론 잘못된 기사는 바로 잡고 그 내용을 脚註로 밝혔다.
6. 數字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干支年紀는 해당 君王의 在位年紀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考證이 어려운 것은 干支年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7. 기타의 사항들은 慣例를 따랐다.



# 目 次

##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 地理志)

삼년군(三年郡) .....	19
영현(領縣) .....	19
매곡현(昧谷縣) .....	20

## 고려사 지리지(高麗史 地理志)

보령군(報令郡) .....	23
회인현(懷仁縣) .....	24

##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 地理志)

보은현(報恩縣) .....	27
부곡(部曲) .....	27
명산(名山) .....	28
사경(四境) .....	28
호구(戶口) .....	28
군정(軍丁) .....	28
성씨(姓氏) .....	28
궐토(厥土) .....	28
간전(墾田) .....	28
토의(土宜) .....	29
토공(土貢) .....	29
약재(藥材) .....	29
토산(土產) .....	29
도기소(陶器所) .....	29
성곽(城郭) .....	29
역(驛) .....	29
봉화(烽火) .....	30

사찰(寺刹) .....	30
월경지(越境地) .....	30

회인현(懷仁縣) .....	30
산천(山川) .....	30
사경(四境) .....	31
호구(戶口) .....	31
군정(軍丁) .....	31
성씨(姓氏) .....	31
궐토(厥土) .....	31
간전(墾田) .....	31
토의(土宜) .....	31
토공(土貢) .....	32
약재(藥材) .....	32
토산(土產) .....	32
도기소(陶器所) .....	32
성곽(城郭) .....	32
봉화(烽火) .....	32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보은현(報恩縣) .....	35
건치연혁(建置沿革) .....	35
관원(官員) .....	36
군명(郡名) .....	36
성씨(姓氏) .....	36
산천(山川) .....	36
토산(土產) .....	37
누정(樓亭) .....	37
학교(學校) .....	37
역원(驛院) .....	38

불우(佛宇) .....	42
사묘(祠廟) .....	43
고적(古蹟) .....	44
명환(名宦) .....	44
우거(寓居) .....	44
효자(孝子) .....	45
제영(題詠) .....	45
<b>회인현(懷仁縣) .....</b>	<b>47</b>
건치연혁(建置沿革) .....	47
관원(官員) .....	47
군명(郡名) .....	47
성씨(姓氏) .....	47
형승(形勝) .....	47
산천(山川) .....	48
토산(土産) .....	48
학교(學校) .....	48
원우(院宇) .....	48
불우(佛宇) .....	49
사묘(祠廟) .....	49
고적(古蹟) .....	49
인물(人物) .....	49
효자(孝子) .....	50
제영(題詠) .....	50
<b>청산현(靑山縣) .....</b>	<b>51</b>
속현(屬縣) .....	51
성씨(姓氏) .....	51
역원(驛院) .....	51

### 호서승람(湖西勝覽)

보은현(報恩縣) .....	55
정도(程途) .....	55
학교(學校) .....	55

서원(書院) .....	55
산성(山城) .....	56
역원(驛院) .....	56
불우(佛宇) .....	56
전결(田結) .....	56
공물(貢物) .....	56
원곡(元穀) .....	56
민호(民戶) .....	56
군병(軍兵) .....	56
인리(人吏) .....	57
관속(官屬) .....	57
정려(旌閭) .....	57

<b>회인현(懷仁縣) .....</b>	<b>57</b>
정도(程途) .....	57
학교(學校) .....	58
태실(胎室) .....	58
불우(佛宇) .....	58
전결(田結) .....	58
공물(貢物) .....	58
원곡(元穀) .....	58
민호(民戶) .....	58
군병(軍兵) .....	58
인리(人吏) .....	59
관속(官屬) .....	59

###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보은현(報恩縣) .....	63
건치연혁(建置沿革) .....	63
관원(官員) .....	64
군명(郡名) .....	64
형승(形勝) .....	64
풍속(風俗) .....	64
산천(山川) .....	65

토산(土産) .....	66
학교(學校) .....	66
궁실(宮室) .....	66
우역(郵驛) .....	66
관량(關梁) .....	67
사묘(祠廟) .....	67
능묘(陵墓) .....	67
사찰(寺刹) .....	67
고적(古蹟) .....	68
명환(名宦) .....	68
유우(流寓) .....	69
인물(人物) .....	70
<b>회인현(懷仁縣) .....</b>	<b>71</b>
건치연혁(建置沿革) .....	71
관원(官員) .....	71
군명(郡名) .....	71
산천(山川) .....	71
토산(土産) .....	72
학교(學校) .....	72
궁실(宮室) .....	72
우역(郵驛) .....	72
사묘(祠廟) .....	73
사찰(寺刹) .....	73
고적(古蹟) .....	73
인물(人物) .....	73

## 여지도서(輿地圖書)

보은현(報恩縣) .....	77
진관(鎭管) .....	77
방리(坊里) .....	78
도로(道路) .....	87
건치연혁(建置沿革) .....	88
관원(官員) .....	88

군명(郡名) .....	89
관직(官職) .....	89
산천(山川) .....	89
성씨(姓氏) .....	90
풍속(風俗) .....	90
단묘(壇廟) .....	91
공해(公廩) .....	92
제언(堤堰) .....	92
창고(倉庫) .....	93
물산(物産) .....	93
역원(驛院) .....	93
목장(牧場) .....	94
사찰(寺刹) .....	94
고적(古蹟) .....	95
인물(人物) .....	96
진결(田結) .....	99
진공(進貢) .....	99
조적(糶糶) .....	99
전세(田稅) .....	100
대동(大同) .....	100
균세(均稅) .....	100
군병(軍兵) .....	100
<b>회인현(懷仁縣) .....</b>	<b>101</b>
진관(鎭管) .....	101
방리(坊里) .....	101
도로(道路) .....	105
건치연혁(建置沿革) .....	105
관원(官員) .....	105
군명(郡名) .....	105
형승(形勝) .....	106
관직(官職) .....	106
산천(山川) .....	106
성씨(姓氏) .....	106
단묘(壇廟) .....	106

공해(公廩) .....	107
창고(倉庫) .....	107
물산(物産) .....	107
사찰(寺刹) .....	107
고적(古蹟) .....	107
인물(人物) .....	108
전결(田結) .....	108
진공(進貢) .....	108
조적(糶糴) .....	109
전세(田稅) .....	109
대동(大同) .....	109
균세(均稅) .....	109
봉름(俸廩) .....	109
군병(軍兵) .....	110
<b>청산현(靑山縣) .....</b>	<b>110</b>
방리(坊里) .....	110
속현(屬縣) .....	111
형승(形勝) .....	111
성씨(姓氏) .....	111
창고(倉庫) .....	111

###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b>보은군(報恩郡) .....</b>	<b>115</b>
진관(鎭管) .....	115
방리(坊里) .....	116
도로(道路) .....	125
건치연혁(建置沿革) .....	126
관원(官員) .....	126
군명(郡名) .....	126
관직(官職) .....	127
산천(山川) .....	127
성씨(姓氏) .....	128
풍속(風俗) .....	128

단묘(壇廟) .....	128
공해(公廩) .....	130
제언(堤堰) .....	130
창고(倉庫) .....	131
물산(物産) .....	131
역원(驛院) .....	131
목장(牧場) .....	131
사찰(寺刹) .....	131
고적(古蹟) .....	133
성지(城池) .....	133
인물(人物) .....	134
전결(田結) .....	135
진공(進貢) .....	136
조적(糶糴) .....	136
전세(田稅) .....	136
대동(大同) .....	136
균세(均稅) .....	136
봉름(俸廩) .....	137
군병(軍兵) .....	137
청주진관(淸州鎭管) .....	137
누정(樓亭) .....	137
교량(橋梁) .....	137
책판(冊板) .....	137
형승(形勝) .....	138

<b>회인현(懷仁縣) .....</b>	<b>138</b>
진관(鎭管) .....	138
건치연혁(建置沿革) .....	138
군명(郡名) .....	139
관직(官職) .....	139
성씨(姓氏) .....	139
산천(山川) .....	139
풍속(風俗) .....	139
방리(坊里) .....	139
호구(戶口) .....	142

전부(田賦) .....	142
요역(繇役) .....	142
군액(軍額) .....	142
창고(倉庫) .....	143
학교(學校) .....	144
단묘(壇廟) .....	144
불우(佛宇) .....	144
도로(道路) .....	144
장시(場市) .....	145
형승(形勝) .....	145
고적(古蹟) .....	145
토산(土産) .....	146
진공(進貢) .....	146
봉름(奉廩) .....	146
환적(宦蹟) .....	146
과거(科擧) .....	153
인물(人物) .....	153
제영(題詠) .....	154
비관(碑板) .....	154

청산현(靑山縣) .....	155
방리(坊里) .....	155
속현(屬縣) .....	156
성씨(姓氏) .....	156
창고(倉庫) .....	156

### 대동지지(大同地志)

보은(報恩) .....	159
연혁(沿革) .....	159
읍호(邑號) .....	160
관원(官員) .....	160
방면(坊面) .....	160
산수(山水) .....	160
영로(嶺路) .....	162

성지(城池) .....	163
역참(驛站) .....	163
토산(土産) .....	163
단유(壇遺) .....	163
사원(祠院) .....	163
전고(典故) .....	164
강역(疆域) .....	164
전민(田民) .....	164

회인(懷仁) .....	165
연혁(沿革) .....	165
관원(官員) .....	165
방면(坊面) .....	165
산수(山水) .....	165
영로(嶺路) .....	166
성지(城池) .....	166
토산(土産) .....	166
전고(典故) .....	166
강역(疆域) .....	167
전민(田民) .....	167

### 호서읍지(湖西邑誌)

보은군(報恩郡) .....	171
진관(鎭管) .....	171
방리(坊里) .....	172
도로(道路) .....	177
건치연혁(建置沿革) .....	177
군명(郡名) .....	178
관직(官職) .....	178
산천(山川) .....	178
단묘(壇廟) .....	180
공해(公廩) .....	180
제언(堤堰) .....	181
군정(軍政) .....	181

조적(糶糶)	181
사창(社倉)	181
전세(田稅)	182
대동(大同)	182
물산(物產)	182
역원(驛院)	182
목장(牧場)	182
사찰(寺刹)	183
고적(古蹟)	184
성지(城池)	184
인물(人物)	185
전결(田結)	187
진공(進貢)	187
봉름(奉廩)	187
청주진관(淸州鎭管)	188
누정(樓亭)	188
교량(橋梁)	188
형승(形勝)	188
<b>회인현(懷仁縣)</b>	<b>188</b>
진관(鎭管)	188
건치연혁(建置沿革)	189
관원(官員)	189
군명(郡名)	189
관직(官職)	189
성씨(姓氏)	189
산천(山川)	190
풍속(風俗)	190
방리(坊里)	190
호구(戶口)	193
전부(田賦)	193
요역(徭役)	194
군액(軍額)	194
창고(倉庫)	195

학교(學校)	195
단묘(壇廟)	195
불우(佛宇)	195
도로(道路)	196
장시(場市)	196
형승(形勝)	197
고적(古蹟)	197
토산(土產)	197
진공(進貢)	197
봉름(奉廩)	197
과거(科擧)	198
인물(人物)	198
제영(題詠)	198
환적(宦蹟)	199
비판(碑板)	204
<b>청산현(靑山縣)</b>	<b>205</b>
방리(坊里)	205
속현(屬縣)	206
성씨(姓氏)	206
창고(倉庫)	206

### 충청북도각군읍지(忠淸北道各郡邑誌)

<b>보은군(報恩郡)</b>	<b>209</b>
진관(鎭管)	209
사계(四界)	209
방리(坊里)	210
도로(道路)	215
건치연혁(建置沿革)	216
군명(郡名)	216
관직(官職)	216
산천(山川)	216
단묘(壇廟)	218
공해(公廩)	218

제언(堤堰) .....	219
군정(軍丁) .....	219
시기전답(時起田畝) .....	219
전세(田稅) .....	220
대동(大同) .....	220
조적(糶糶) .....	220
사창(社倉) .....	220
물산(物産) .....	221
역원(驛院) .....	221
사찰(寺刹) .....	221
고적(古蹟) .....	222
성지(城池) .....	223
인물(人物) .....	223
진공(進貢) .....	225
봉름(奉廩) .....	226
청주진관(淸州鎭管) .....	226
<b>회인현(懷仁縣) .....</b>	<b>226</b>
진관(鎭管) .....	226
사계(四界) .....	226
건치연혁(建置沿革) .....	226
관원(官員) .....	227
군명(郡名) .....	227
관직(官職) .....	227
성씨(姓氏) .....	227
산천(山川) .....	227
풍속(風俗) .....	228
방리(坊里) .....	228
호구(戶口) .....	230
전부(田賦) .....	230
요역(徭役) .....	230
군액(軍額) .....	231
창고(倉庫) .....	231
학교(學校) .....	232
단묘(壇廟) .....	232

불우(佛宇) .....	232
도로(道路) .....	233
장시(場市) .....	233
형승(形勝) .....	233
고적(古蹟) .....	234
토산(土産) .....	234
진공(進貢) .....	234
봉름(奉廩) .....	234
환적(宦蹟) .....	235
과거(科擧) .....	241
인물(人物) .....	241
제영(題詠) .....	241
비판(碑板) .....	242
<b>청산군(靑山郡) .....</b>	<b>243</b>
방리(坊里) .....	243
속현(屬縣) .....	244
창고(倉庫) .....	244

###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b>보은군(報恩郡) .....</b>	<b>247</b>
사계(四界) .....	247
건치연혁(建置沿革) .....	247
신구속현(新舊屬縣) .....	248
군명(郡名) .....	248
산천(山川) .....	248
군세(軍勢) .....	252
토산(土産) .....	253
교량(橋梁) .....	253
명승(名勝) .....	253
형승(形勝) .....	254
고적(古蹟) .....	254
교궁(校宮) .....	255
궁전(宮殿) .....	255

원사(院祠) .....	255
단사(壇祠) .....	257
사찰(寺刹) .....	257
학교(學校) .....	258
수비(豎碑) .....	258
정려(旌閭) .....	259
석총(碩塚) .....	260
명묘(名墓) .....	260
누정(樓亭) .....	263
제영(題詠) .....	264
선정(先正) .....	265
유현(儒賢) .....	265
학행(學行) .....	266
유일(遺逸) .....	267
유행(儒行) .....	269
문행(文行) .....	272
훈신(勳臣) .....	275
원종훈(原從勳) .....	275
명신(名臣) .....	276
명환(名宦) .....	276
명관(名官) .....	277
청백(清白) .....	278
문원(文苑) .....	279
선시(善詩) .....	279
선화(善畫) .....	279

행의(行誼) .....	279
선행(善行) .....	280
명망(名望) .....	280
진목(賑睦) .....	281
자선(慈善) .....	283
충신(忠臣) .....	283
절의(節義) .....	284
효자(孝子) .....	286
효부(孝婦) .....	292
정열(貞烈) .....	293
여행(女行) .....	295
문과(文科) .....	295
사마(司馬) .....	295
무과(武科) .....	296
음사(蔭仕) .....	297
수직(壽職) .....	297
증직(贈職) .....	298

## 부록(附錄)

一. 1910년대의 보은·회인의 모습 .....	301
二. 1914년 통폐합된 이후의 행정지명 .....	319



#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 地理志)



##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 地理志)

□ 「三國史記」는 고려 仁宗 23년(1145)에 金富軾이 편찬한 新羅, 高句麗, 百濟의 正史인데 地理志는 卷34~卷37에 실려있다.

지금의 報恩인 '三年郡'은 卷34 地理1에, 지금의 懷仁인 '味谷縣'은 卷36 地理3 '燕山郡(지금의 淸原郡 文義)'의 領縣에 수록되어 있는데 建置沿革만 記錄한 것이 특징이다.

### 삼년군(三年郡)

○본래 삼년산군(三年山郡)으로 景德왕(景德王) 때 삼년군(三年郡)으로 고쳤으며 지금의 보령군(保齡郡)이다.

### 영현(領縣)

○청천현(靑川縣) : 본래 살매현(薩買縣)으로 景德왕(景德王) 때 청천현(靑川縣)으로 고쳐 지금에 이른다.

○기산현(耆山縣) : 본래 굴산현(屈山縣)으로 景德왕(景德王) 때 기산현(耆山縣)으로 고쳤으며 지금의 청산현(靑山縣)이다.

## 매곡현(昧谷縣)

○본래 백제의 미곡현(未谷縣)인데 신라가 통일한 뒤 경덕왕(景德王) 때 매곡현(昧谷縣)으로 고치고 연산군(燕山郡)<sup>1)</sup>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지금의 회인현(懷仁縣)이다.

---

1) 지금의 淸原郡 文義

# 고려사 지리지(高麗史 地理志)



## 고려사 지리지(高麗史 地理志)

□ 「高麗史」는 世宗의 명에 의하여 鄭麟趾등이 편찬하고 文宗 1년(1451)에 간행한 高麗의 正史인데 地理志는 志 卷10~卷12에 실려있다.

지금의 報恩인 '報令郡'은 卷11 地理2에, 지금의 懷仁인 '懷仁縣'은 卷10 地理1에 수록되어 있고 지금의 內北面의 일부인 '酒城部曲'은 卷11 地理2에 수록된 '靑山縣'말미에 기록되어 있는데 建置沿革만 기록하고 있다.

### 보령군(保令郡)

○본래 신라의 삼년산군(三年山郡)으로 경덕왕(景德王)이 삼년군(三年郡)이라 고쳤으며 고려(高麗) 초에 보령군(保齡郡)으로 고쳤다.[뒤에 齡이 令으로 변하였다]

현종(顯宗 1018) 9년에 상주목(尙州牧)에 속하였다가 명종(明宗 1072) 2년에 감무(監務)를 두다.

○속리산(俗離山) : 신라때 속리악(俗離岳)이라 불렀으며 중사(中祀)를 지냈다.

## 회인현(懷仁縣)

○본래 백제의 미곡현(未谷縣)인데 신라가 통일한 뒤 경덕왕(景德王) 때 매곡(昧谷)이라 고쳐 연산군(燕山郡)<sup>2)</sup>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高麗) 초에 지금의 이름인 회인(懷仁)으로 고쳤으며 현종(顯宗 1018) 9년에 청주목(淸州牧)에 예속되었다가 뒤에 회덕감무(懷德監務)가 겸임하다가 우왕(禡王 1383)<sup>3)</sup> 9년에 별도의 감무(監務)를 두었다.

2) 지금의 淸原郡 文義

3) 원문에 辛禡로 되어 있으나 禡王으로 고쳤다.



#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 地理志)



##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 地理志)

□ 「世宗實錄」은 端宗 2년(1454)에 鄭麟趾 등이 편찬한 世宗의 재위 32년간의 실록인데 地理志는 卷148~卷155에 실려있다.

지금의 報恩인 報恩縣과 懷仁인 懷仁縣은 卷149에 수록되어 있는데 建置沿革 이외에 地理, 人物, 古蹟 등 여러 사항을 기록한 우리나라 최초의 人文地理誌이다.

### 보은현(報恩縣)

○본래 신라의 삼년산군(三年山郡)으로 경덕왕이 삼년군(三年郡)으로 고쳤으며 고려때 보령군(保齡郡)으로 고쳤다. 현종(顯宗 1018) 무오(戊午)에 상주목(尙州牧)에 예속되었다.[뒤에 소리로 옮겨 報令이라 하였다.]

명종(明宗 1072) 임진(壬辰)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朝鮮)<sup>4</sup> 태종(太宗 1416)16년 병신(丙申)에 보령현(保寧縣)과 소리가 같다하여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고쳤다.

### 부곡(部曲)

○임언(林偃)[偃이 壇으로 잘못 부르기도 하였다.]

4) 원문에는 본조(本朝)로 되어있으나 조선(朝鮮)으로 바로잡았다.

### 명산(名山)

○속리산(俗離山): 신라때 속리악(俗離岳)이라 불렀으며 중사(中祀)를 지냈다.

### 사경(四境)

동쪽으로 상주(尙州)까지 32리, 서쪽으로 회인(懷仁)까지 10리, 남쪽으로 옥천(沃川)까지 20리, 북쪽으로 청주(淸州)까지 26리이다.

### 호구(戶口)

○호수는 3백27호이고 인구는 1천4백57명이다.

### 군정(軍丁)

시위군(侍衛軍)이 64명, 수성군(守城軍)이 1명, 선군(船軍)이 1백36명이다.

### 성씨(姓氏)

○보은(報恩)<sup>5)</sup>

토성(土姓) : 이(李) · 최(崔) · 김(金)

없어진 성(亡姓) : 손(孫) · 박(朴)

없어진 내성(亡來姓) : 송(宋) · 한(韓)

없어진 촌성(亡村姓) : 방(方)

○임언(林偃)

토성(土姓) : 홍(洪) · 석(石)

### 궤토(厥土)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메마르다.

### 간전(墾田)

밭은 5천2백29결이다[논은 3분의 1이 조금 넘는다.]

5) 원문에는 지명이 없으나 편이상 지명을 붙였다.

### 토의(土宜)

오곡(五穀)과 조(粟) · 팥(小豆) · 메밀(蕎麥) · 배나무 · 뽕나무 · 닥나무

### 토공(土貢)

별꽃 · 밀납 · 참버섯 · 석이버섯 · 종이 · 옷칠 · 지초 · 대추 · 쪽제비털 · 호도 ·  
 잣 · 노루가죽 · 샅팽이가죽

### 약재(藥材)

연꽃술 · 인삼 · 오가피 · 백복령 · 당귀 · 위령선 · 안식향

### 토산(土産)

○송이버섯 · 감초

○은석(銀石) : 고을 동쪽 판은이(板隱伊)에서 생산된다.[우리나라 여러 군현(郡縣)에서  
 생산되는 은석은 시험결과 많이 중용(中用)되지 않는다.]

### 도기소(陶器所)

고을 동쪽 외임리(外任里)에 있다.[하품(下品)이다].

### 성곽(城郭)

○오항산석성(烏項山石城) : 고을 동쪽 5리에 있다.[둘레가 1천2백20보이고 지형이 험하  
 다. 성안에 우물이 6개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않  
 으며 군창(軍倉)도 있다.]

### 역(驛)

○원암역(元巖驛)

○함림역(含林驛)

**봉화(烽火)**

○금적산(金積山) : 고을 남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청산(靑山) 박달라산(朴達羅山)과 북쪽으로 회인(懷仁) 용산점(龍山岾)으로 연락한다.

**사찰(寺刹)**

○속리사(俗離寺) : 속리산 서쪽에 있다.[교종(敎宗)에 속하고 급전(給田)이 2백결이다.]

**월경지(越境地)**

○주성부곡(酒城部曲) : 청산(靑山)에 속한 지역으로 고을 북쪽에 있는데 근거없이 북면(北面)을 넘어 들어가 있다.

**회인현(懷仁縣)**

○본래 백제의 미곡현(未谷縣)으로 신라가 매곡현(昧谷縣)으로 고치고 연산군(燕山郡)<sup>6)</sup>의 영현(領縣)을 삼았다. 고려때 회인(懷仁)이라 고치고 현종(顯宗 1018) 무오(戊午)에 청주목(淸州牧)에 예속시켰다. 뒤에 회덕감무(懷德監務)가 회인겸임(懷仁兼任)을 하다가 홍무(洪武 1383)16년 계해(癸亥)에 비로소 별도의 감무(監務)를 설치하였다. 조선(朝鮮)<sup>7)</sup> 태종(太宗 1413)13년 계사(癸巳)에 예에 따라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산천(山川)<sup>8)</sup>**

○매곡성(昧谷城) : 봄 · 가을에 회인현감(懷仁縣監)이 제사를 지낸다.

○대천(大川) : 화인진(化仁津)의 하류로 남역(南域)으로부터 들어와 주안현(周岸縣)까지 이른다.

6) 지금의 淸原郡 文義

7) 원문에 본조(本朝)로 되어있으나 조선으로 바로잡았다.

8) 원문에는 제목이 없으나 편이상 제목을 붙였다.

### 사경(四境)

동쪽으로 보은(報恩)까지 20리, 서쪽으로 문의(文義)까지 12리, 남쪽으로 주안(周岸)까지 22리, 북쪽으로 청주(淸州)까지 22리이다.

### 호구(戶口)

○호수는 1백46호이고 인구는 6백33명이다.

### 군정(軍丁)

시위군(侍衛軍)이 12명, 진군(鎭軍)이 18명, 선군(船軍)이 37명이다.

### 성씨(姓氏)<sup>9)</sup>

○회인(懷仁)<sup>10)</sup>

토성(土姓) : 이(李) · 홍(洪)

없어진 성(亡姓) : 장(張) · 신(辛)

속성(續姓) : 최(崔)[지금 향리(鄕吏)이다.]

### 궤토(厥土)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메마르며 기후가 차다.

### 간전(墾田)

밭은 1천1백46결이다.[논은 9분지1이다.]

### 토의(土宜)

기장(黍) · 피(稷) · 콩(菽) · 조(粟) · 팥(小豆) · 메밀(蕎麥) · 보리(麥) · 뽕나무(桑) · 닥나무(楮) · 배(梨)

9) 원문에는 제목이 없으나 편이상 제목을 붙였다.

10) 원문에는 지명이 없으나 편이상 지명을 붙였다.

### 토공(土貢)

벌꿀(蜂蜜) · 밀납(黃蠟) · 참버섯(眞茸)

### 약재(藥材)

백부자(白附子)

### 토산(土產)

- 석철(石鐵) : 고을 남쪽 노성산(老聖山)에서 생산된다.
- 상수정석(常水精石) : 고을 북쪽 마산(馬山)에서 생산된다.

### 도기소(陶器所)

고을 서쪽 둔안리(屯安里)에 있다.[하품(下品)이다.]

### 성곽(城郭)<sup>11)</sup>

- 호점산석성(虎岾山石城) : 고을 남쪽 9리에 있다.[둘레가 8백58보이고 지형이 험하고 무너진지 오래되었다. 성안에 우물이 1개로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다.]

### 봉화(烽火)

- 용산점(龍山岾) : 고을 서쪽에 있는데 동쪽으로 보은(報恩) 금적산(金積山)과 북쪽으로 청주(淸州) 상령성(上嶺城)으로 연락한다.

11) 원문에는 제목이 없으나 편이상 제목을 붙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新增東國輿地勝覽」은 成宗 때 편찬된 「東國輿地勝覽」을 中宗의 增修命 에 따라 李荇 등이 中宗 25년(1530)에 完成한 朝鮮前期의 代表的인 官撰地理書이다. 卷16에 지금의 報恩인 報恩縣과 懷仁인 懷仁縣 그리고 內北面의 일부인 酒城이 靑山縣에 실려있다. 「世宗實錄地理志」에 비하여 樓亭, 學校, 佛宇, 祠廟, 古蹟, 孝子, 烈女 등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 보은현(報恩縣)

○동쪽으로 경상도(慶尙道) 상주(尙州) 경계까지 44리 남쪽으로 옥천군(沃川郡) 경계까지 26리 청산현(靑山縣) 경계까지 25리 서쪽으로 회인현(懷仁縣) 경계까지 14리 북쪽으로 청주(淸州) 경계까지 28리이다. 서울까지의 거리는 3백 76리이다.

###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신라의 삼년산군(三年山郡)인데 경덕왕(景德王)이 삼년(三年)이라 고치였고 고려 때 보령(保齡) [齡이 뒤에 습으로 변하였음] 이라 고치고 현종(顯宗 1018) 9년 상주(尙州)에 속하였다가 명종(明宗 1172) 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朝鮮)<sup>12)</sup> 태종(太宗 1406) 6년에 보령현(保寧縣)과 소리가 비슷하다 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예에 따라 현감(縣監)을 두다.

13년(1413)에 경상도(慶尙道)로부터 충청도(忠淸道)에 예속하였다.

12)원문에는 본조(本朝)로 되어 있으나 조선으로 고치었다.

**관원(官員)**

현감(縣監) · 훈도(訓導) 각 1명이다.

**군명(郡名)**

삼년산(三年山) · 보령(保齡) · 삼산(三山) · 보령(保令)

**성씨(姓氏)**

○보은<sup>13)</sup>: 김(金) · 이(李) · 손(孫) · 박(朴) · 최(崔) 송(宋) · 한(韓):모두래성(來姓)

○임언: 홍(洪) · 석(石) 방(方): 촌성(村姓)

**산천(山川)**

○속리산(俗離山): 고을 동쪽 44리에 있다. 봉우리 9개가 뽀족하게 솟아 있어 구봉산(九峯山)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는 속리악(俗離岳)이라 일컬었고 중사(中祀)을 올렸다. 산 마루에 문장대(文藏臺)가 있는데 돌이 쌓인 것이 천연으로 이루어져 높게 공중에 솟았고 그 높이가 몇 길인지 알지 못한다. 그 넓이는 사람 3천명이 앉을 만하고 대(臺) 위에 구덩이가 가마솥만한 것이 있어 그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가물어도 줄지 않고 비가와도 불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세줄기로 나뉘어서 반공(半空)으로 쏟아져 내리는데 한 줄기는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洛東江)이 되고 한 줄기는 남쪽으로 흘러 금강(錦江)이 되고 또 한줄기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북으로 가서 달천(達川)이 되어 금천(金遷)으로 들어간다.

※산 아래에 8교(橋)와 9요(遙)의 이름이 있는데 산 양쪽 언덕이 빙빙 둘러 넓어져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라다보면 멀고멀어서 마치 땅이 끝인 것처럼 의심스럽다가 거기까지 가서 바라보면 또 멀고멀어서 이렇게 하기를 아홉 번 반복하여 비로소 법주사(法住寺)에 도착하는 고로 이름을 9요(遙)라 한다. 9요 속에 물 한줄기가 돌고 돌아 구비쳐 흐르는데 한 구비마다 다리가 있어 모두 여덟이기 때문에 8교(橋)라 했다. 맨 첫 다리는 수정교(水精橋)로 다리위에 비각(飛閣)이 있어 사람들이 이 각(閣)속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13)원문에는 본현(本縣)으로 되어 있으나 편이상 보은으로 고치었다.

각은 무너지고 다리만 남아 있다.

신여(信如)라는 중이 다리위에서 시(詩)를 쓰기를  
 “삼청동(三清洞)에 아홉겹 요(遙)가 있고  
 한 줄기 시냇물에 여덟 다리 있네  
 다리 아래 물 맑은데 붉은 것이 푸른빛을 시기하니  
 산에 가득한 단풍잎, 소나무가지에 의지해 있네.” 하였다.

- 함림산(含林山): 고을 북쪽 10리에 있다.
- 구봉산(九峯山): 고을 동쪽 43리에 있다.
- 사산(蛇山)·와산(蛙山)·서산(鼠山): 모두 고을 안에 있다.
- 금적산(金積山): 고을 남쪽 25리에 있다.
- 검단산(儉丹山): 고을 북쪽 37리에 있으니 청주(淸州) 경계이다. 백제(百濟)의 중 검단(儉丹)이 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오정산(烏頂山): 고을 동쪽 5리에 있다.
- 웅현(熊峴): 고을 북쪽 27리에 있다.
- 차의현(車衣峴): 고을 서쪽 15리에 있다. 회인현(懷仁縣) 경계이다.
- 용천(龍川): 고을 동쪽 3리에 있다.
- 병풍연(屏風淵): 속리산(俗離山) 아래 있으니 고을 동쪽 25리에 있다.

### 토산(土産)

송이버섯(松蕈)·무쇠(水鐵) [웅현(熊峴) 및 차의현(車衣峴)에서 생산된다.]  
 벌꿀(蜂蜜)·해송자(海松子)·영양(羚羊)·안식향(安息香)·지황(地黃)·웅담(熊膽)·  
 석이버섯(石蕈)

### 누정(樓亭)

- 삼산루(三山樓): 객관(客館) 북쪽에 있다.

### 학교(學校)

- 향교(鄕校): 고을 서쪽 1리에 있다.

### 역원(驛院)

○원암역(元岩驛): 고을 남쪽 20리에 있다. 고려 공민왕(恭愍王)이 복주(福州)에서 청주(淸州)로 올 적에 이 역(驛)에서 머물렀다.

※이색(李穡)의 칠로연집시서(七老燕集詩序)에 옛날 군자는 그 임금을 돕는데 그 의(義)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임금이 그를 예우(禮遇)하는데 있어서도 지극히 풍성하게 했다. 예우를 풍성히 함과 의를 다함에 뜻이 같고 기운이 합하여 마치 구름이 용(龍)을 쫓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늙음에 이르러서는 번갈아 쉬게 하고 번갈라 써서 백발(白髮)의 나이에 한가롭게 놀고 편안히 즐기게 하되 그 〈벼슬〉 자리를 떠났다 해서 하루라도 국가를 잊지 않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물어서 결정짓고 국난(國難)이 있으면 달려가나니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어찌 이렇게도 사이가 좋았던고 내원암(元岩) 여러 늙은이들의 연집서(謙集序)를 씌에 있어서 세 번 탄식하노라 임금이 남쪽으로 거동했을 적에 곡성 부원군(曲城府院君) 염제신(廉悌臣)과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이암(李岩)·칠원부원군(漆原府院君) 윤환(尹桓), 회산부원군(檜山府院君) 황석기(黃石奇), 당성부원군(唐城府院君) 홍원철(洪元哲), 수춘군(壽春君) 이수산(李壽山), 계성군(啓城君) 왕재(王梓)가 임금을 따르니 임금이 심히 가상히 여겨서 대우하기를 또한 극진히 하였다. 8월 병술(丙戌)에 원암(元岩)에 행차하고 정해(丁亥)에 속리산(俗離山)에 거동했는데 이튿날 큰 비가 와서 다시 원암으로 돌아와서 10일을 묵었다. 여러 늙은 이들은 이미 편안히 집에 있고 또 환도(還都)할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즐겨하여 술잔을 들어 부디치며 노래를 불러 즐기는데 대장군(大將軍) 김하적(金何赤)은 피리를 불고 장군(將軍) 김사혁(金斯革)이 아쟁을 타 창안백발(蒼顏白髮)로 웃으며 이야기 하고 수작하는 것이 바라보니 마치 신선과 같았다. 아! 난리 평정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 태평의 문채(文彩)가 이 같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 늙은이들은 이미 늙었었다.

그러나 임금께서 부소산(扶蘇山) 남쪽 궁궐 속에 계시지 못한 것을 아프게 생각하여 몸소 갑옷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에서 숙직(宿直)하며 풍우(風雨)와 춥고 더운 것을 가리지 않으며 백관(百官)들도 이것을 범받고 본받아 감히 각각 그직책을 따짐이 없이 닦았으니 인심을 감동시키고 조석으로 주선하는 사이에 국체(國體)에 유익함이 많게 되어 조정에 앉아 호령을 낼 때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도연명(陶淵明)과 죽림칠현(竹林七賢)들은 명교(名教)의 죄인이로다<sup>14</sup>). 일을 좋아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림으로 그리고 시로 읊었거든

하물며 원암(元岩)의 성한 모임이 국가의 원기(元氣)가 된 것이겠는가 다만 알지 못하거니와 지금 세상에 그림을 잘 그리는 자가 누구이며 시를 잘 부르는 자는 또 누구인가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비록 자제(子弟)의 역(役)을 맡아서 아쟁을 타고 피리를 부는 반열에 끼려해도 이미 할 수 없는 일이나, 시를 읊는데는 불초한 내가 앞장서지 않고 누가 하겠는가 이곳 경치를 보면 속리산(俗離山)은 우뚝 솟아 있어 높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우리들 후생(後生)들이 우러러 볼바가 아닌가 여러 늙은이들의 풍류(風流)와 문채(文彩)가 이 산과 서로 높은 것을 다툼다 해도 옳을 것이니 어찌 시 짓고 그림 그릴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였다.

※앞사람[이색]의 시(詩)에

“현릉(玄陵)이 남쪽으로 거둥해 멀리 갔다가 돌아올 제  
 원암(元岩)에 머무르니 산은 높고 높았네  
 나무 가리울듯 비칠 듯 들이 넓게되었는데  
 천막집(氈廬) 가운데 솟아나 티끌도 없었네  
 당시 일곱늙은이 좌우에 있었거니  
 높은 큰 덕(德)에 웅재(雄才)를 겸했었네  
 여러사람의 마음 여기 주석(柱石)과 같으니  
 단청(丹青)이 빛나는 동량(棟梁)의 재목일세  
 혼연(欣然)한 기쁜 빛으로 송악(松岳)을 향하니  
 참으로 능묘(陵廟)를 소제하는 때로다<sup>14)</sup>  
 즐겁게 술마시고 노래소리 들으니  
 태평(太平)의 화한 기운 한창오네  
 회산(檜山)이 먼저 글 쓰메 주옥(珠玉)이 떨어지니  
 반짝반짝 금소반에 무더기로 쌓여 여러 공(公)의 화답하는 글 모두 훌륭한데

14) 유교(儒敎)는 명분(名分)을 중히 여기므로 명교라 한다. 진(晉)나라 완적(阮籍)의 무리 7인이 죽림(竹林)에 모여 놀면서 노장(老莊)의 청담(淸談)을 일삼으므로 당시에 죽림칠현이라 하였는데 그들은 자연주의(自然主義)를 주장하고 예법에 구애되지 않았다. 예를들면 완적은 어머니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바둑한 판을 끝까지 두었으며 상중(喪中)에 술과 고기를 여전히 먹었다. 그러므로 명교의 죄인이라 한다.  
 15) 전란에 적병에게 서울을 빼앗겼다 다시 수복하면 왕능(王陵)과 종묘(宗廟)에 먼저 참배하고 소제한다.

익재(益齋)의 익숙한 붓 삼태성(三台星)<sup>16)</sup>에 빛나도다  
 곡성(曲城)의 생각한 것 어찌 그리 심장(深長)한가  
 그림그려 전하니 운대(雲臺)<sup>17)</sup>와 같네  
 목동(牧童)<sup>18)</sup>은 피리부는 반열에 있지 못했고  
 서(序)를 지으며 와부(瓦釜)가 우뢰같이 울리네<sup>19)</sup>  
 그 이름 그림 뒤에 거는 것 또 소원이 아니니  
 당세에 글 잘 하는 이를, 아예 시기하지 마소  
 대신(大臣)이란 국가에 원기(元氣)라  
 혈맥에 흐르고 통해야 화(禍)의 근본 없애리  
 뒷사람들 그림이라 보지 말고  
 절의(節義) 지켜 삼강(三綱) 무너지는 것 붙들어 일으키게  
 더구나 자제들이야 감히 자기(自棄)<sup>20)</sup>하리  
 돌아가서 무성한 뜰 가운데 왜나무를 보게하소<sup>21)</sup>”

※ 황석기(黃石奇)의 시(詩)에

“푸른 옥잔은 깊고 술맛은 아름다운데  
 거문고소리 느리게 나고 피리소리 길도다  
 그 중에 또 가느다란 노래 소리 들리니  
 일곱 늙은이 서로 즐기는데 수염은 서리갈네” 하였다.

16) 인간의 3정승을 하늘에 있는 3태성에 비유한 말

17)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가 빼앗겼던 나라를 중흥(中興)시켰는데 그 아들 명제(明帝)가 중흥공신 이십팔장(二十八將)을 남궁운대(南宮雲臺)에 초상을 그려서 붙였다.

18) 목은(牧隱)이 자신을 목동(牧童)이라 자칭하였다.

19) 초사(楚辭)에 “황중은 혈어 버러지고 질그릇 가마(瓦釜)가 우레처럼 울린다.” 는 구절이 있다. 황중은 음암에 십이율(十二律)의 처음 소리다. 이 글의 뜻은 좋은 음악 대신에 시원치 않은 소리를 울린다는 뜻이다.

20) 맹자에 나온 말인데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단념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21) 송나라 왕우(王祐)가 뜰에다 삼괴(三槐)를 심으면서 “내 자손이 반드시 삼공(三公)이 되는 자가 있으리라” 하더니 과연 그 아들 왕단(王旦)이 정승이 되었다. 소동파(蘇東坡)가 삼괴당명(三槐堂銘)을 지어 주면서 “집에 돌아와서 보니 왜나무 그들이 뜰에 찻네” 하는 구절이 있었다.



※고려 윤택(尹澤)의 시(詩)에

“소년 꽃 밑에 침향정(沈香亭)에 취하여  
 청평사(淸平祠) 지어 바치니 광염(光焰)이 길게 비쳤네<sup>22)</sup>  
 쇠퇴한 지금에 무고(武庫)를 보니  
 부질없이 자전(紫電)과 청상(淸霜)<sup>23)</sup>만이 남았네” 하였다.

※이암(李巖)의 시(詩)에

“가을 바람 임금 행차 길에 벼꽃(稻花) 향기로우니  
 당일 백성 생각하던 마음 또한 길었어라  
 다시 술 한잔 대해 성수(聖壽)를 비니  
 앉아서 오골이 여러번 서리빛 되는 것 보옵소서”<sup>24)</sup> 하였다.

※이제현(李齊賢)의 시(詩)에

“국화꽃 칠 늦게 향기로운 것 사랑하노니  
 잔들어 서로 권하는 뜻 또한 깊고 길었네  
 안위(安危)나 고락(苦樂)은 돌고 도는 것  
 아이들에게 말하노니 서리 밟을 제 조심하라” 하였다.

※염제신(廉悌臣)의 시(詩)에

“붓에서 구슬이 떨어지매 글짜마다 향기로우니  
 맑은 노래소리에 술잔 길게 드네  
 반쯤 취하자 다시 임금의 은혜 중한 것 깨달으며  
 밤 늦도록 앉았으니 서리 올 듯 밤도 차네” 하였다.

22) 당명황(唐明皇)이 양귀비(楊貴妃)를 데리고 모란꽃을 구경하다가 이태백(李太白)을 시켜 새 악장(樂章)을 지으라 하니 이태백이 청평사를 지어 바쳤다. 그뒤에 한유(韓愈)의 시에 “이태백 두자미(杜子美)의 문장은 광염(光焰)이 만길이나 길다” 한 구절이 있다.  
 23) 당나라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자전청상은 왕장군의 무고(武庫)로다”한 구절이 있는데 자전과 청상은 보검(寶劍)이다.  
 24) 동해바다 가운데 자라(鼈)가 삼신산(三神山)을 머리에 이고 있다 하는데 여기서는 그 자라가 죽어 흰 뼈가 되도록 오래 살라는 말이다.

- 함림역(含林驛) : 함림산(含林山) 아래에 있다.
- 마분원(馬分院) : 고을 동쪽 13리에 있다.
- 보통원(普通院) : 고을 동쪽 29리에 있다.
- 왕래원(王來院) : 구봉산(九峯山) 밑에 있으니 또한 공민왕(恭愍王)이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 남원(南院) : 고을 남쪽 1리에 있다.
- 병원(竝院) : 고을 서쪽 7리에 있다.
- 문라원(門羅院) : 고을 북쪽 13리에 있다.
- 뉴원(柎院) : 고을북쪽 27리에 있다.

**불우(佛宇)**

- 속리사(俗離寺) : 속리산(俗離山) 서쪽에 있다.

※김구용(金九容)의 시(詩)에

“달마암(達磨岩)가에 등불하나 밝았는데  
 문열고 향피우니 마음 다시 맑아라  
 혼자 깊은 밤에 앉아 잠 못 이루니  
 창 앞에 흐르는 물 술바람 소리와 섞여 들리네” 하였다.

- 법주사(法住寺) : 속리산(俗離山)에 있는데 세상에 전해오기를 신라의 중 의신(義信)이 흰 노새에 불경을 싣고 와서 이 절을 세웠고 성덕왕(聖德王)이 중수(重修)하였는 데 석조(石槽)와 석교(石橋)·석옹(石瓮)·석확(石鑊)이 있으며 절 안 산호전(珊瑚殿)에는 금신장육상(金身丈六像)이 있으며 문앞에는 구리로 부어 만든 당간(幢竿)이 있는데 모양이 몹시 높고 그 한쪽에 통화(統和) 24년(1006)에 세웠다고 새겨있다. 또 고려 밀직대언(密直代言) 이숙기(李淑琪)가 지은 중 자정(慈淨)의 비명(碑銘)이 있다.

※박효수(朴孝修)의 시(詩)에

“높다란 사면 푸른 연꽃 같은 봉우리  
 장갑(長岬)의 신령스런 근원 몇 겹이고  
 문장대(文藏臺)는 천고(千古)의 이끼 그대로 있고  
 우타굴(于陀窟) 그늘 만그루 소나무세

용이 탑속으로 들어가니 진골(眞骨)이 남았고  
 나귀가 바위앞에 누었으니 성종(聖蹤)을 찾네  
 길이 삼한(三韓)을 복되게 하는 건 누가 주인인가  
 산호전(珊瑚殿) 위에 자금용(紫金容)<sup>25)</sup>일세” 하였다.

※함부림(咸傅林)의 시(詩)에

“계원(鷄園)<sup>26)</sup>의 한가로운 일월(日月)이요  
 안탑(雁塔)에 구름과 연기 자욱하네  
 우연히 삼청동(三清洞)에 들렀더니  
 세상일 시끄러운 것 모두 잊었네” 하였다.

○복천사(福泉寺) : 법주사(法住寺) 동쪽 7리쯤 되는 곳에 있다. 절 동쪽에 샘물이 있어 돌 사이로 쏟아져 나와 식수(食水)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천순(天順) 갑신년(甲申年)에 우리 세조대왕(世祖大王)이 속리산에 거둥 했을 때 병풍연(屏風淵)에 잠시 들렀다가 이튿날 법주사로부터 이 절에 와서 경치를 구경한 다음 호종(扈從)하는 문신(文臣) 김수온(金守溫)에게 명해서 이 일을 기록하게 했다.

**사묘(祠廟)**

○사직단(社稷壇) : 고을 서쪽에 있다.

○문묘(文廟) : 향교(鄕校)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 고을 동쪽 2리에 있다.

○대자재천왕사(大自在天王祠) : 속리산(俗離山) 마루에 있다. 그 신(神)이 매년 10월 인일(寅日)에 법주사(法住寺)에 내려오면 산중 사람들이 풍류를 베풀고 신(神)을 맞아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신(神)은 45일을 머물다가 돌아간다 한다.

○여단(厲壇) : 고을 북쪽에 있다.

25) 부처의 몸빛이 자금색이었다.

26) 인도(印度)에 있는 절 이름인데 무우왕(無憂王)이 세운 것이다.

### 고적(古蹟)

- 구석(龜石) : 법주사 서쪽 봉우리에 거북바위가 있는데 천연으로 하늘이 만든 것 같아 그 등에 사람 50명이 앉을만 하고 그 머리는 우뚝하게 서쪽으로 들고 있다. 전설에는 중국(中國) 술사(術士)가 와서 보고 하는 말이 “중국의 재물과 비단이 날마다 동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무슨 까닭인지 몰랐더니 이제 알고보니 이 물건이었구나” 하고 그 머리를 잘라 방술(方術)을 하였다 한다.
- 마현박석(馬峴薄石) : 고을 동쪽 15리에 있다. 고개위에 얇은 돌이 3·4리 깔려 있는데 전설에 전해오기를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일찌기 속리산에 거둥했을 때 닦은 어로(御路)라” 한다.
- 오정산성(烏頂山城) : 고을 동쪽 5리에 있으니 즉 삼년산성(三年山城)이다. 쌓은지 3년 만에 완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3천6백99척이요 높이가 18척이며 성안에 우물5개가 있는데 지금은 반은 무너졌다.  
 ※고려 태조 11년(927)에 태조가 스스로 장군이 되어 이성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청주로 거둥했었는데 산 아래 군장동(軍藏洞)이 있었으니 세상에서 전하기를 “태조가 군사를 주둔 시킨 곳이라” 한다.
- 함림산성(含林山城) : 고을 북쪽 10리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1천4백88척이요 높이가 6척이며 성안에 큰 못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쯤 무너졌다.
- 임언부곡(林堰部曲) : 혹은 임단(臨壇)이라고도 한다. 고을 동쪽 20리에 있다.

### 명환(名宦)

- ◎ 신라(新羅)
- 열기(裂起) : 삼년산군(三年山郡) 태수(太守)

### 우거(寓居)

- ◎ 고려(高麗)
- 한유문(韓有紋) : 우리 태종(太宗)과 동년진사(同年進士)요 벼슬이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이르렀다.

○김타(金沱) : 두 번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번 요직을 거쳐 벼슬이 청주목사(淸州牧使)에 이르렀다.

**효자(孝子)**

◎ 조선(朝鮮)<sup>27)</sup>

○막동(莫同) : 사천(私賤)이다. 자기집에 불이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딸이 모두 불 속에 들어있는데 막동(莫同)은 급히 들어가 어머니를 업고 나오면서 딸은 돌아다 보지도 않고 오직 그 어머니 살린 것을 기쁘게 여겼다. 금상(今上) 14년(1519)에 정문을 내렸다.[신증(新增)]

**제영(題詠)**

○산과 내는 무릉(武陵)과 비슷하니

※권진(權軫)의 다음시의 한귀절이다

“산과 내는 무릉과 비슷하니

하필 다시 봉래도(蓬萊島)에 신선을 구하리요” 하였다.

○기름진 땅 천이랑을 연했으니

※이맹균(李孟均)의 다음 시(詩)의 한 귀절이다

“새벽밥먹고 회인(懷仁)을 떠나오니

만첩 산을 뚫고 왔네

갑자기 평평한 들 보이니

널찍하여 내 마음에 드네

관사(館舍)집은 굉장한데

여러봉우리 모두 읊(揖)하는 것 같네

기름진 땅 천 이랑을 연 했으니

백성들 살기 편안하네

또 듣건데 풍속이 순후하여

27) 원문에는 본조(本朝)로 되어있으나 조선으로 바로잡았다.

청하고 불러 음식을 서로 대접한다네  
황홀하게 도원(桃源)에 노는 것 같아서  
다시 찾을 때 길 잃을가 두려우네  
신라 때 삼년성(三年城)은  
당시에 몇 번이나 습격당했던가  
고려 말년에 바다 도둑이 잦아서  
전쟁이 오랫동안 쉬지 않았네  
지금은 임금의 덕택 깊거니  
안심하고 살면서 명절을 즐기네  
왕명(王命)을 띠고 와서 무엇하였나  
부질없이 길을 달리네” 하였다.

○산은 먼데 푸른 연기 떠있네

※이정령(李正寧)의 다음 시(詩)의 한 귀절이다

“뜰은 비었는데 푸른 풀 우거졌고  
산은 먼데 푸른연기 떠있네” 하였다.

○깊은 산골에 기이한 것 많으니 자주 말을 멈추고

※서거정(徐居正)의 다음 시(詩)의 한 구절이다.

“푸른산 두 언덕 강물을 꺾으니  
나루터에 돌아와 작은 배에 의지했네  
깊은 산골에 기이한 것 많으니 자주 말을 멈추고  
석양(夕陽)이 보기 좋아 다시 누(樓)에 오르네  
누런 구름 뭉게뭉게 벼가 처음 익었고  
붉은 비단 나무끼니 단풍이 시름이네  
초초(草草)한 이 한몸 물에 뜬 나무토막 같아서  
내일 아침 또다시 영남(嶺南) 향해 떠나네” 하였다.

## 회인현(懷仁縣)

○동쪽으로는 보은현(報恩縣) 경계까지 16리, 남쪽으로는 청주(淸州) 경계까지 32리이며 서쪽으로는 문의현(文義縣) 경계까지 16리이고 북쪽으로는 청주 경계까지 29리이며, 서울까지의 거리는 3백46리이다.

###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백제의 미곡현(未谷縣)인데 신라 때 매곡(昧谷)으로 고쳐서 연산군(燕山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초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현종(顯宗) 때 청주(淸州)에 부쳤다가 뒤에 회덕(懷德)의 겸임관(兼任官)으로 삼았다. 우왕(禑王)<sup>28</sup> 때 따로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조선(朝鮮)<sup>29</sup> 태종(太宗 1413) 13년 예(例)로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 관원(官員)

현감(縣監)·훈도(訓導) 각 1명

### 군명(郡名)

미곡(未谷)·매곡(昧谷)

### 성씨(姓氏)

○회인(懷仁)<sup>30</sup>: 이(李)·홍(洪)·장(張)·신(辛).      최(崔):속성(續姓)

### 형승(形勝)

○거듭된 멧부리와 겹겹의 고개 길은 양의 창자처럼 둘러있다.

※이승소(李承召)의 다음 시(詩) 구절이다

“거듭된 멧부리와 겹겹의 고개 멀리 서로 연결되고

28) 원문의 신우(辛禑)로 되어 있으나 우왕(禑王)으로 바로잡았다.

29) 원문에 본조(本朝)로 되어있으나 조선으로 고쳤다.

30) 원문에는 본현(本縣)으로 되어있으나 회인으로 고쳤다.

길은 양(羊)의 창자처럼 얽혀었으니 말(馬)이 나아가지 못하네” 하였다.

### 산천(山川)

- 하마산(何磨山) : 고을 서쪽 2리에 있다. 진산(鎭山)이다.
- 호점산(虎岾山) : 고을 남쪽 9리에 있다.
- 보리산(甫里山) : 고을 동쪽 2리에 있다.
- 구룡산(九龍山) : 고을 서북쪽 25리에 있다.
- 마산(馬山) : 고을 서북쪽 10리에 있다.
- 피반대령(皮盤大嶺) : 고을 북쪽 15리에 있다. 고개 길이 아홉 번 꺾이어 가장 높고 위험한 곳이다.
- 차의현(車衣峴) : 고을 동쪽 12리에 있다.
- 목감산(牧監山) : 고을 서쪽 5리에 있다.
- 노성산(老城山) : 고을 남쪽 10리에 있다.
- 매곡산(昧谷山) : 고을 동쪽 1리에 있다.
- 묵현(墨峴) : 고을 서쪽 13리에 있다.
- 말흘탄(末訖灘) : 고을 남쪽 19리에 있으니 즉 화인진(化仁津) 하류이다.
- 웅암천(熊岩川) : 고을 남쪽 1리에 있으니 근원이 구룡산에서 나와 말흘탄으로 들어간다.

### 토산(土産)

무쇠(水鐵)[노성산(老城山)에서 생산된다] · 수정석(水精石)[고을 북쪽 마산(馬山)에서 생산된다] · 벌꿀 · 잣 · 지치 · 복령 · 지황 · 안식향

### 학교(學校)

- 향교(鄕校) : 고을 북쪽 2리에 있다.

### 원우(院宇)

- 예대원(禮大院) : 고을 동쪽 10리에 있으며 옛날에는 공대원(孔大院)이라 하였다.
- 신원(新院) : 고을 북쪽 25리에 있다.



○탑원(塔院) : 고을 북쪽 5리에 있다.

### 불우(佛宇)

- 웅암사(熊岩寺) : 구룡산(九龍山)에 있다.
- 묘암사(妙岩寺) : 목감산(牧監山)에 있다.
- 마전사(麻田寺) : 노성산(老城山)에 있다.

### 사묘(祠廟)

- 사직단(社稷壇) : 고을 서쪽에 있다.
- 문묘(文廟) : 향교(鄕校)에 있다.
- 성황사(城隍祠) : 매곡산(昧谷山)에 있는데 봄·가을에 현감(縣監)이 제사를 지낸다.
- 여단(厲壇) : 고을 북쪽에 있다.

### 고적(古蹟)

- 호점산성(虎岾山城) : 돌로 쌓은 성으로 둘레가 5천1백48척이고 높이가 8척이며 안에 우물이 3개가 있는데 지금은 무너졌다.
- 매곡산성(昧谷山城) : 돌로 쌓은 성으로 둘레가 1천1백52척이고 높이가 8척이다.

### 인물(人物)

#### ◎ 고려(高麗)

- 공직(龔直) : 용맹과 지략(智略)이 있었다. 신라(新羅) 말년에 매곡현(昧谷縣)에 장군이 되어 드디어 견훤(甄萱)을 섬기다가 견훤의 무도(無道)한 것을 보고 아들 영서(英舒)와 함께 태조(太祖)에게 와서 있었다. 태조가 대상(大相)을 제수하고 벼슬이 좌승(左丞)에 이르렀으며, 시호를 봉의(奉義)라 했다.
- 공직달(龔直達) : 직(直)의 아들이다. 아우 금서(金舒)와 함께 후백제에 인질로 잡혀 갔는데 직(直)이 태조에게 붙자 견훤이 죽었다.

◎ 조선(朝鮮)<sup>31)</sup>

○홍윤성(洪允成) : 젊어서 불평객(不平客)으로 행동이 구속받지 않았다. 문종조(文宗朝)에 과거에 올랐고 세조(世祖)를 도와 정난 좌익공신(靖難佐翼功臣)이 되었으며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벼슬이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 시호는 위평(威平)이다.

효자(孝子)

◎ 조선(朝鮮)<sup>32)</sup>

○이우(李祐) : 효행이 있어 정문을 세웠다.

제영(題詠)

○저문 고개에 구름기운 흐르고

※고려 조운홀(趙云佐)의 다음 시(詩) 귀절이다

“저문 고개에 구름 기운 흐르고  
새벽 처마에 빗소리 이어지네” 하였다

○고을이 오래되니 느티나무 뿌리 늙었고

※앞사람[조운홀]의 다음 시(詩) 귀절이다

“고을이 오래되니 느티나무 뿌리 늙었고  
뜰이 비었으니 풀 빛만 깊었어라” 하였다.

○만고에 음침한 못 괴물을 감추었고

※이승소(李承召)의 다음 시(詩) 귀절이다.

“만고에 음침한 못 괴물을 감추었고  
백년 쇠잔한 성엔 거친 연기 잠겨있네” 하였다.

31) 원문에는 본조(本朝)로 되었으나 조선으로 고쳤다.

32) 원문에는 본조(本朝)로 되었으나 조선으로 고쳤다.

○고개 마루 신사에 올라오는 이 적네

※앞사람[이승소]의 다음 시(詩) 귀절이다.

“작은 고을 깊숙한데 토지는 널찍하니  
 고을 집 깨끗하게 시냇가에 서 있네  
 남쪽 추녀에 한낮이 되니 따뜻한 기운 조금 생기고  
 그늘진 골짜기에 봄이 깊어도 아직도 찬 기운 있네  
 두메산골 백성들의 풍속 검소하며 인색하고  
 고개마루 신사에 올라오는 이 적네  
 돌밭에 해마다 서리조차 일찍내려  
 조세(租稅) 바치기에 간(肝)을 베어내는 듯” 하였다.

## 청산현(靑山縣)

### 속현(屬縣)

○주성부곡(酒城部曲) : 고을 북쪽90리 보은현(報恩縣) 북촌(北村)을 뛰어넘어 있다.

※본래 상주(尙州)에 속하였는데 고려 공양왕(恭讓王 1390)2년에 청산현(靑山縣)에 감무(監務)를 둘 때 땅이 작은 고로 떼어내어 예속시켰다.

### 성씨(姓氏)

○주성(酒城) : 홍(洪) · 방(方):촌성(村姓) 김(金): 속성(續姓)

### 역원(驛院)

○주성원(酒城院) : 고을 북쪽 72리에 있다.



# 호서승람(湖西勝覽)



## 호서승람(湖西勝覽)

□ 「湖西勝覽」은 정확한 편찬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仁祖 10년(1632) 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이다. 鄕校, 書院, 邑城, 山城, 烽遂, 驛院, 倉庫, 佛宇, 田結, 貢物, 元穀, 民戶, 軍兵, 人吏, 官屬, 烈女, 節婦, 孝子 등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다.

### 보은현(報恩縣)

#### 정도(程途)

서울까지의 거리는 3백 76리이다. 동쪽으로 경상도 상주(尙州) 경계까지 44리, 남쪽으로 옥천군(沃川郡) 경계까지 26리, 청산현(靑山縣) 경계까지 25리, 서쪽으로 회인현(懷仁縣) 경계까지 14리 북으로 청주(淸州) 경계까지 28리이다.

#### 학교(學校)<sup>33)</sup>

○향교(鄕校) : 북쪽으로 5리쯤에 있고 교생(校生)이 40명이다.

#### 서원(書院)

○서원(書院) : 김충암(金冲菴) · 성대곡(成大谷)을 제향(祭享)한다.

○사우(祠宇) : 성동주(成東洲) · 조중봉(趙重峯)을 제향(祭享)하는 곳으로 읍내(邑內) 향사당(鄕射堂)이다.

33) 원문에는 제목이 없으나 편이상 제목을 붙였다.

### 산성(山城)

○삼년성(三年城) : 둘레가 3천3백99척이고 무너진 곳이 21개소 창고와 우물 2개가 있다.

### 역원(驛院)

○함림역(含林驛)

○원암역(元巖驛) : 모두 울봉(栗峯) 소속이다.

### 불우(佛宇)

○속리사(俗離寺) : 동쪽 30리 거리이다.

### 전결(田結)

원장(元帳)에는 밭(田)이 3천2백12결(結)83부(負)3속(束)이고 논(畓)이 1천2백63결37부7속이다. 임신(壬申)년을 기준으로 밭이 9백81결7부1속, 논이 6백31결26부3속이다.

### 공물(貢物)

공안(貢案)에 있다.

### 원곡(元穀)

임신(壬申)년[동등(冬等)<sup>34</sup>]이다. 회계부미(會計付米)가 2백91섬12말6되6작이고 콩이 25섬1말6되4작, 잡곡이 1천1백88섬1되7홉6작이다.

### 민호(民戶)

7백 9호이다.

### 군병(軍兵)

기병(騎兵) · 보병(步兵)은 호보(戶保)를 합하여 6백47명, 수군(水軍)은 호보를 합하

34) 등급표시이다. 즉 春等, 夏等, 秋等, 冬等 중에서 ‘冬等’을 뜻한다.



여 38명이다.

속오군(束伍軍)은 초관(哨官)이 2명이고 군(軍)은 2백2명, 출신(出身) 29명, 무학(武學) 7명, 유청(有廳) 46명, 어영군(御營軍) 12명, 신선(新選) 호보를 합하여 36명이다.

### 인리(人吏)

향리(鄉吏) 5명, 서원(書員) 2명이다.

### 관속(官屬)

관노(官奴) 24명, 관비(官婢) 9명이다. 향교노비(鄉校奴婢)는 없다.

### 정려(旌閭)

- 효자유학이몽경정문(孝子幼學李夢慶旌門) : 북쪽 5리쯤에 있다.
- 유학안철견처박씨절부정문(幼學安鐵堅妻朴氏節婦旌門) : 동쪽 40리 거리에 있다.
- 전현감김덕민처신씨의열정문(前縣監金德民妻申氏義烈旌門) : 서쪽 5리쯤 있다.
- 이조좌랑구수복처이씨절부정문(吏曹佐郎具壽福妻李氏節婦旌門) : 동쪽 40리쯤 있다.
- 충의이검의처전씨의열정문(忠義李檢妻全氏義烈旌門) : 서쪽 5리쯤에 있다.
- 전호장이휴처김소사의열정문(前戶長李休妻金召史義烈旌門) : 읍내(邑內)에 있다.
- 관노청손처관비춘덕의열정문(官奴靑孫妻官婢春德義烈旌門) : 읍내(邑內)에 있다.
- 효자박막동정문(孝子朴莫同旌門) : 서쪽 5리쯤 있다.

## 회인현(懷仁縣)

### 정도(程途)

서울까지 거리는 3백46리이다. 동쪽으로 보은현(報恩縣) 경계까지 16리, 남쪽으로 청주(淸州) 경계까지 32리, 서쪽으로 문의현(文義縣) 경계까지 16리, 북쪽으로 청주(淸州) 경계까지 29리이다.

**학교(學校)35)**

○향교(鄕校): 동쪽 3리에 있으며 교생(校生)이 12명이다.

**태실(胎室)**

○선묘공주(宣廟公主) : 마산(馬山)에 있다.

**불우(佛宇)**

○마전사(麻田寺) : 지금도 있다.

**전결(田結)**

원장(元帳)에는 밭이 1천2백94결14부2속이고 논이 2백66결38부인데 임신(壬申)년 기준으로 밭이 2백95결35부9속이고 논이 1백4결47부2속이다.

**공물(貢物)**

공안(貢案)에 있다.

**원곡(元穀)**

임신(壬申)년[동등(冬等)<sup>36)</sup>]이다. 회부미(會付米)가 63섬8말6되7홉8작이고 콩이 1백6섬14말4되1홉이고 잡곡이 합하여 5백22섬7말6되6홉이다.

**민호(民戶)**

2백 71호이다.

**군병(軍兵)**

기병(騎兵) · 보병(步兵)은 호보(戶保)를 포함하여 2백6명, 수군(水軍)은 호보를 포함하여 14명이다.

35) 원문에는 제목이 없으나 편이상 제목을 붙였다.

36) 등급표시이다. 즉 春等, 夏等, 秋等, 冬等 중에서 '冬等'을 뜻한다.

속오군(束伍軍)은 초관(哨官) 1명, 군(軍)은 56명, 무학(武學) 6명, 유청군(有廳軍) 5명, 어영군(御營軍) 17명, 신선군(新選軍)은 호보(戶保)를 포함하여 6명, 출신(出身)은 14명이다.

### 인리(人吏)

향리(鄉吏) 2명, 의생(醫生) 1명, 가리(假吏) 3명이다.

### 관속(官屬)

○관아(官衙)<sup>37)</sup> : 관노(官奴) 10명, 관비(官婢) 8명이다.

○향교(鄉校)<sup>38)</sup> : 교노(校奴) 2명, 교비(校婢) 2명이다.

37) 원문에는 ‘奴,婢’라 하였으나 ‘官衙奴婢’로 고쳤다.

38) 원문에는 ‘校奴婢’라 하였으나 ‘鄉校奴婢’로 고쳤다.



#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 「東國輿地志」는 「東國輿地勝覽」이 新增된지 130년이 지난 顯宗朝에 編纂된 것으로 壬辰倭亂을 겪은 후의 狀況을 보여주는 貴重な 資料이다.

編纂者와 編纂年代가 明示되어 있지 않아 正確한 編纂經緯를 알 수 없으나 孝宗朝까지의 內容이 記錄되어 있고 1662년에 編纂된 「陟州誌」를 參考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顯宗朝에 編纂된 것으로 推定할 뿐이다.

### 보은현(報恩縣)

○동쪽으로 경상도(慶尙道) 상주(尙州) 경계까지 44리이고 남쪽으로 옥천군(沃川郡) 경계까지 26리이고 청산현(靑山縣) 경계까지는 25리이다. 서쪽으로 회인현(懷仁縣) 경계까지 14리이며 북쪽으로 청주(淸州) 경계까지 28리이며 서울까지 거리는 3백76리이다.

밭(旱田)

논(水田)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신라(新羅)의 삼년산군(三年山郡)으로 경덕왕(景德王) 때 삼년군(三年郡)으로 고쳤으며 고려초(高麗初)에 보령(保齡)으로 고쳤다.[령(齡)은 뒤에 령(令)으로 변했다.]

현종(顯宗) 때 상주(尙州)에 폐합(廢合)시켰다가 명종초(明宗初)에 다시 보령현(保寧縣)을 두었다. 조선(朝鮮)<sup>39)</sup> 공정왕(恭定王 1406)<sup>40)</sup> 6년에 보령현(保寧縣)과 음(音)이 비슷하다하여 보은(報恩)으로 고쳤다. 13년(1413)에 경상도(慶尙道)로부터 충청도(忠淸道)<sup>41)</sup>에 예속되어 8면(面)을 관장(管掌)하다.

**관원(官員)**

현감(縣監) · 훈도(訓導) 각1인

**군명(郡名)**

삼년산(三年山) · 보령(保齡)[별호(別號)는 삼산(三山)이다]

**형승(形勝)**

○산천이 맑고 맑다.

모든 산(山)이 고을을 둘러는데 중간(中間)이 열여 화창하고 산천(山川)은 맑고 지세(地勢)는 고상한데 사방(四方)으로 가 보아도 점입가경이다.

○여러 봉우리 읍(揖)하고 기름진 땅 천 이랑을 연 했네.

본조(本朝) 이맹균(李孟詢)의 시(詩)귀절

“만첩 산을 뚫고 오니  
갑자기 평평한 들 보이네  
여러 봉우리 모두 읍(揖)하는것 같고  
기름진 땅 천 이랑을 연 했구나” 하였다.

**풍속(風俗)**

백성들의 풍속이 순후하고 밝다.[이맹균(李孟詢)의 시(詩)귀절이다.]

39)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40) 太宗을 말함

41) 원문에는 本道로 되어있으나 忠淸道로 고쳤다.



## 산천(山川)

- 속리산(俗離山) : 고을 동쪽 44리에 있는데 태백산(太白山)의 남쪽 줄기이다. 북쪽으로 조령(鳥嶺)과 이어지고 또 이산에서 두 줄기로 나뉘어 한 줄기는 북으로 뻗어 한강(漢江)이남과 금강(錦江)이북의 모든 산이되고 한줄기는 남쪽으로 뻗어 장수(長水)의 덕유산(德裕山)과 또 남쪽의 남원(南原)의 지리산(智異山)이 되었으니 이 산은 삼도(三道)의 교차점(交叉點)이 된다. 신라(新羅)때는 속리악(俗離岳)이라 부르고 중사(中祀)를 지냈다. 산세(山勢)가 웅대(雄大)하고 정상이 모두 바위로 되어있어 구름위로 솟아올라 바라보면 옥부용(玉芙蓉) 같아 세상에서 소금강산(小金剛山)이라 부른다. 정상에 문장대(文藏臺)가 있는데 겹친 돌이 하늘이 만든 것 같고 위에 구덩이가 솔가마 같아 하늘에서 비가오면 물이 그 곳에 고인다. 남쪽 정상은 천왕봉(天王峯)으로 매우 높고 험준하며 문장대(文藏臺)와 서로 바라본다.
- 구봉산(九峰山) : 고을 동쪽 42리 경상도(慶尙道) 상주(尙州) 경계에 있다. 속리산(俗離山)과 연결되어 있다.
- 함림산(含林山) : 고을 북쪽 10리에 있다.
- 금적산(金積山) : 고을 남쪽 25리에 있다.
- 검단산(儉丹山) : 고을 북쪽 37리 청주(淸州) 경계에 있다. 백제(百濟)의 중 검단(儉丹)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오정산(烏頂山) : 고을 동쪽 5리에 있다.
- 마현(馬峴) : 고을 동쪽 15리에 있다. 고개위에 3~4리에 넓고 얇은 돌이 깔려 있는데 전설에 전해오기를 러조(麗祖)<sup>42)</sup>가 속리산(俗離山)에 거동할 때 닦은 어로(御路)라 한다.
- 웅현(熊峴) : 고을 북쪽 27리에 있다.
- 차의현(車衣峴) : 고을 서쪽 15리에 있다. 회인현(懷仁縣) 경계이다.
- 구암(龜巖) : 속리산 법주사(法住寺) 서쪽 뒤편리에 있다. 바위의 생김이 거북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 위에 50인이 앉을 수 있다.
- 용천(龍川) : 수원(水源)이 둘로 되어 하나는 속리산(俗離山)에서 나오고 하나는 차의

42) 고려 太祖를 말함

현(車衣峴)에서 나와 고을 동쪽 3리에서 합쳐 남쪽으로 흘러 고을 남쪽 20리에 이르러 여러 골짜기의 물이 합쳐 청산현(靑山縣) 경계로 들어가니 그 굴곡(屈曲)이 용(龍)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병풍연(屏風淵) : 속리산 아래에 있다. 고을 동쪽 25리 거리다.

### 토산(土産)

은(銀) · 무쇠(水鐵)[웅현(熊峴)과 차의현(車衣峴)에서 생산된다] · 벌꿀 · 꿀찌거기(黃蠟) · 잣 · 대추 · 영양(羚羊) · 안식향(安息香) · 당귀(當歸) · 작약(芍藥) · 웅담(熊膽) · 천궁(芎藭) · 송이버섯 · 석이버섯

### 학교(學校)

○향교(鄕校) : 고을 서쪽 1리에 있다.

○상현서원(象賢書院) : 고을 동쪽 20리에 있다. 상현사(象賢祠)<sup>43)</sup>가 있는데 김정(金淨)과 성운(成運)을 제사(祭祀)지낸다.

### 궁실(宮室)

○객관(客館)

○향사당(鄕射堂) : 객관(客館) 남쪽에 있다.

○삼산루(三山樓) : 객관(客館) 북쪽에 있다. 앞에 연꽃이 피는 연못이 있다.

### 우역(郵驛)

○원암역(元岩驛) : 고을 남쪽 20리에 있다. 고려 공민왕(恭愍王)이 북주(福州)<sup>44)</sup>로부터 청주에 거동할 때 이 역에 머무르다.

○함림역(含林驛) : 함림산(含林山) 아래에 있다.

○마분원(馬分院) : 고을 동쪽 13리에 있다.

○보통원(普通院) : 고을 동쪽 29리에 있다.

43) 원문에는 尙賢祠로 되어있으나 象賢祠로 고쳤다.

44) 지금의 慶尙北道 安東市

- 왕래원(王來院) : 구봉산(九峯山) 아래에 있다. 또한 공민왕(恭愍王)이 머물렀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남원(南院) : 고을 남쪽 1리에 있다.
- 병원(竝院) : 고을 서쪽 10리에 있다.
- 문라원(門羅院) : 고을 북쪽 13리에 있다.

### 관량(關梁)

- 남교(南橋) : 객관(客館) 남쪽 1리에 있다.

### 사묘(祠廟)

- 사직단(社稷壇) : 고을 서쪽에 있다.
- 문묘(文廟) : 향교(鄕校)에 있다.
- 성황사(城隍祠) : 고을 동쪽 2리에 있다.
- 영모사(永慕祠) : 향사당(鄕射堂) 뒤에 있다. 고을 사람들이 성제원(成悌元) · 조헌(趙憲) · 장현광(張顯光)을 제사(祭祀) 지낸다.
- 여단(厲壇) : 고을 북쪽에 있다.
- 속리산사(俗離山祠) : 속리산(俗離山) 정상에 있다. 속칭(俗稱) 천왕사(天王祠)라 한다.

### 능묘(陵墓)

- 성운묘(成運墓) : 고을 북쪽 10리 종곡(鍾谷)에 있다.

### 사찰(寺刹)

- 속리사(俗離寺) : 속리산 서쪽에 있다.
- 법주사(法住寺) : 속리산에 있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신라(新羅)의 중 의신(義信)이 흰 노새에 불경을 실고 와서 이 절을 세웠고 성덕왕(聖德王)이 극히 넓고 크게 중수(重修)하였는데 석조(石槽)와 석교(石橋) · 석옹(石瓮) · 석확(石鑊)이 있으며 절 안 산호전(珊瑚殿)에는 금신장육상(金身丈六像)<sup>45)</sup>이 있고 문 앞에는 구리로 부어 만든 당간(幢竿)이 있는데 모양이 몹시 높고 그 한쪽에 통화(統和) 24년(1007)에 세웠다고 새

겨있다. 또 고려(高麗) 대언(代言) 이숙기(李淑琪)가 지은 중 자정(慈淨)의 비명(碑銘)이 있다.

조선(朝鮮)<sup>46)</sup> 함부림(咸傅林) 시(詩)가 있는데

“계원(鷄園)의 한가로운 일월(日月)이요

안탑(雁塔)에 구름과 연기 자욱하네

우연히 삼청동(三清洞)에 들렀더니

세상일 시끄러운 것 모두 잊었네” 하였다.

- 북천사(福泉寺) : 속리산(俗離山) 허리로 법주사(法住寺)에서 7리 거리에 있다. 절 동쪽에 샘물이 있어 돌 사이로 쏟아져 나와 식수(食水)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천순(天順) 갑신년(甲申年 1464)에 세조(世祖)가 속리산에 거둥했을 때 병풍연(屏風淵)에 머물다가 법주사(法住寺)로부터 이 절에 와서 경치를 구경한 다음 따라온 신하 김수온(金守溫)에게 명하여 이 일을 기록하게 하였다.

### 고적(古蹟)

- 오정산성(烏頂山城) : 고을 동쪽 5리에 있다. 즉 삼년산성(三年山城)이다. 신라(新羅) 자비왕(慈悲王) 때 3년을 두고 쌓았다 하여 이름 하였고 돌성(石城)인데 둘레가 3천6백99척이고 성안에 다섯 개의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은 무너졌다.

고려(高麗) 태조(太祖) 11년(928)에 스스로 장수가 되어 이 성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끝내 청주(淸州)로 행차(幸次)하였다. 산 아래에 군장동(軍藏洞)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 오기를 태조(太祖)가 군사를 주둔하였던 곳이라 한다.

- 함림산성(含林山城) : 고을 북쪽 10리에 있다. 돌로 쌓았고 둘레가 1천4백88척이고 성안에 큰 못이 있는데 지금은 반은 무너졌다.

### 명환(名宦)

#### ◎ 신라(新羅)

- 열기(裂起) : 삼년산군(三年山郡) 태수(太守)

45) 佛像임

46)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음

◎ 조선(朝鮮)<sup>47)</sup>

- 성제원(成悌元) : 공헌왕(恭憲王)<sup>48)</sup>때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정사(政事)를 어질고 인자하게 하니 유랑(流浪)하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일찍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려 하자 늙은이와 어린아이까지도 모두 울면서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틈나는 날에는 말을 물리치고 홀로 거닐며 전답(田畓)을 살피고 그 가운데 한가로움을 즐기는 취미가 있었다.
- 조헌(趙憲) : 소경왕(昭敬王)<sup>49)</sup>때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법(法)을 지키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모르는 것은 행하지 않았으며 정사(政事)를 간략하게 행하니 세상에서 이르기 를 “빙옥(氷玉)같은 지조(志操)를 갖인 사람은 반드시 헌(憲)에게 돌아간다”라 하였다.
- 장현광(張顯光) : 소경왕(昭敬王)<sup>50)</sup>때 행의(行義)로 발탁(拔擢)되어 포의(布衣)로 보은현감(報恩縣監)이 되었다. 고을에 와서 백성들의 괴로움을 물어 글을 지어 읍중(邑中)에 유시(諭示)하고 사민(士民)들을 권장하고 경계하였다. 석달(三月)을 근무하고 정치(政治)에 뜻이없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을 사람들이 그 덕(德)을 사모하여 성제원(成悌元)과 조헌(趙憲)과 함께 사당(祠堂)을 세우고 제사(祭祀)를 지낸다.

유우(流寓)

- 성운(成運) : 한성(漢城) 사람으로 고을 내 종곡리(鍾谷里)에 와서 살았다. 높은 뜻과 두터운 행실이 있었으며 사화(士禍)가 자주 일어남을 보고 세상과는 인연을 끊고 숨어 살기로 결심하였다. 조선(朝鮮)<sup>51)</sup> 명종(明宗)이 그 행의(行義)를 듣고 특별히 서울로 불러 사지(司紙)를 제수하였으나 곧 상소를 올려 돌아가길 빌었다. 선조(宣祖) 때 여러번 시정(寺正)으로 불렸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으므로 충청도(忠淸道)<sup>52)</sup>에 명하여 쌀과 고기를 보내어 우대(優待)하였다. 83세에 졸(卒)하니 입으로 남의 과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내외간에도 손님 대접 하듯하고 집이 가난해도 스스로 즐거움에 빠졌다. 호(號)는 대곡(大谷)이다.

47)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48) 明宗이다.  
 49) 宣祖를 말함  
 50) 宣祖를 말함  
 51)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52) 원문에는 本道로 되어있으나 忠淸道로 고쳤다.

### 인물(人物)

#### ◎ 조선(朝鮮)<sup>53)</sup>

- 한유문(韓有紋) : 그의 선조(先祖)는 청주인(淸州人)이다. 뒤에 고을 사람이 되었는데 어려서 권근(權近)에게 글을 배울 때 부지런하고 삼가하면서 힘써 배웠다. 세종(世宗) 때 벼슬이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이르고 가는 곳 마다 선정(善政)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 박삼길(朴三吉) : 어려서 가난하여 농사에 힘써 자급(自給)하고 독서에 힘썼다. 성종(成宗) 때 과거(科擧)에 급제하여 일찍이 회양부사(淮陽府使)가 되어 백성 사랑하기를 부모 섬기듯 하였다. 벼슬이 이조참판(吏曹參判)과 대제학(大提學)에 이르고 문장(文章)과 청백(淸白)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
- 김정(金淨) :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겨우 10여세에 이미 경서(經書)에 통달(通達)하였다. 중종(中宗) 때 과거(科擧)에 장원(壯元)으로 급제하여 발탁되어 이조좌랑(吏曹佐郎)을 거쳐 순창(淳昌)의 군수(郡守)로 나아가 박상(朴祥)과 함께 신비복위(愼妃復位)를 상소하여 인륜(人倫)을 바르게 하려 하였다가 함림역(含林驛)으로 귀양 갔다. 뒤에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임금의 사랑을 받은지 수년만에 벼슬이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이르고 지치(至治)에 협심(協心)하더니 사화(士禍)가 일어나 제주(濟州)로 귀양갔다가 나이 36세에 사사(賜死)되었다. 시호(諡號)는 문간(文簡)이다. 정(淨)은 성행(性行)이 순정(純正)하고 학문(學問)이 고명(高明)하여 세상에서 충암선생(沖菴先生)이라 부르니 문장(文章)이 웅장(雄壯)하여 고기(古氣)가 있었다. 저서(著書)로는 충암집(沖菴集)이 있어 세상에 읽힌다. 이황(李滉)이 말하기를 “충암(沖菴)의 학문(學問)이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제일이다” 하였으니 이런 식견(識見)이 있으면서 그 뜻을 펴지 못하였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53)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 회인현(懷仁縣)

○동쪽으로 보은현(報恩縣) 경계까지 16리이고 남쪽으로 청주(淸州) 경계까지 25리이며 서쪽으로 문의현(文義縣) 경계까지 16리이고 북쪽으로 청주(淸州) 경계까지 29리이다. 서울까지 거리는 3백46리이다.

**밭(旱田)**

**논(水田)**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백제(百濟)의 미곡현(未谷縣)인데 신라(新羅)가 매곡(昧谷)이라 고치고 연산군(燕山郡)<sup>54</sup>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초(高麗初)에 회인(懷仁)이라 고치고 현종(顯宗) 때 청주(淸州)에 폐합(廢合)시켰다 뒤에 회덕현(懷德縣)이 겸임(兼任)하다가 우왕(禑王)<sup>55</sup> 때 다시 회인현(懷仁縣)을 두었으며 조선(朝鮮)<sup>56</sup>에서도 그대로 하여 3면(面)을 관장(管掌)한다.

**관원(官員)**

현감(縣監) · 훈도(訓導) 각 1인

**군명(郡名)**

미곡(未谷) · 매곡(昧谷)

**산천(山川)**

○하마산(何磨山) : 고을 서쪽 2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다.

○호점산(虎岾山) : 고을 남쪽 9리에 있다.

54) 지금의 淸原郡 文義

55) 원문의 辛禑로 되어 있으나 禑王으로 고쳤다.

56) 원문에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 구룡산(九龍山) : 고을 서북쪽 25리에 있다. 또 문의현(文義縣)에도 나온다.
- 가산(駕山) : 고을 남쪽 20리에 있다.
- 피반대령(皮盤大嶺) : 고을 북쪽 15리에 있다. 고개 길이 아홉구비이며 가장 높고 험하다.
- 차의현(車衣峴) : 고을 동쪽 12리에 있다.
- 노성산(老城山) : 고을 남쪽 10리에 있다.
- 매곡산(昧谷山) : 고을 동쪽 1리에 있다.
- 묵현(墨峴) : 고을 서쪽 13리에 있다.
- 금강(錦江) : 옥천군(沃川郡) 경계로부터 흘러 와 고을 남쪽 지경을 거쳐 가는데 물이 모든 산의 중간을 지나 굽이쳐 흐른다.
- 말흘탄(末訖灘) : 고을 남쪽 19리에 있으니 곧 금강(錦江) 나루터 건널목이다. 돌이 험(險)하고 물이 급하게 흘러 방언(方言)으로 험한 것을 말흘(末訖)이라 하므로 이름한 것이다. 상하의 흐름이 급하고 여울이 매우 많다.

### 토산(土産)

무쇠(水鐵)[노성산(老城山)에서 생산된다.] · 수정석(水精石)[고을 북쪽 마산(馬山)에서 생산된다.] · 석회(石灰) · 벌꿀 · 꿀찌거기(黃蠟) · 시초(柴草) · 복령(茯苓) · 안식향(安息香)

### 학교(學校)

- 향교(鄉校) : 고을 북쪽 2리에 있다.

### 궁실(宮室)

- 객관(客館)

### 우역(郵驛)

- 예대원(禮大院) : 고을 동쪽 10리에 있다. 옛날에는 공대원(孔大院)이라 불렀다.
- 신원(新院) : 고을 북쪽 25리에 있다.
- 탑원(塔院) : 고을 북쪽 5리에 있다.



### 사묘(祠廟)

- 사직단(社稷壇) : 고을 서쪽에 있다.
- 문묘(文廟) : 향교(鄕校)에 있다.
- 성황사(城隍祠) : 매곡산(昧谷山)에 있다. 봄, 가을로 현감(縣監)이 제(祭)를 올린다.
- 여단(厲壇) : 고을 북쪽에 있다.

### 사찰(寺刹)

- 웅암사(熊巖寺) : 구룡산(九龍山)에 있다.
- 묘암사(妙巖寺) : 고을 서쪽 2리 목감산(牧監山)에 있다.
- 마전사(麻田寺) : 노성산(老城山)에 있다.

### 고적(古蹟)

- 호점산성(虎岾山城) :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5천1백48척이며 성안에 세 개의 우물이 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 매곡산성(昧谷山城) :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1천1백52척이다.

### 인물(人物)

#### ◎ 고려(高麗)

- 공직(龔直) : 용맹과 지략(智略)이 있었다. 신라(新羅) 말년(末年)에 매곡현(昧谷縣)의 장군이 되어 견훤(甄萱)을 섬기다가 흰(萱)의 무도(無道)함을 보고 아들 영서(英舒)와 함께 태조(太祖)에게 와서 붙으니 태조(太祖)가 대상(大相)을 제수하고 벼슬이 좌승(左丞)에 이르렀으며 시호(諡號)를 봉의(奉義)라 했다. 아들 직달(直達)과 금서(金舒)는 모두 견훤(甄萱)에게 인질로 잡혀 있더니 직(直)이 고려(高麗)에 붙자 흰(萱)이 살해하였다.



# 여지도서(輿地圖書)



## 여지도서(輿地圖書)

□ 「輿地圖書」는 英祖때 편찬된 것인데 내용에 己卯帳籍이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英祖36년(1760) 이후의 기록으로 보인다. 『東國輿地勝覽』에 비하여 坊里, 堤堰, 牧場, 貢稅, 俸廩 등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고 各邑誌 앞에 채색된 地圖인 輿地圖를 싣고 있음이 특색이다.

### 보은현(報恩縣)

#### 진관(鎭管)<sup>57)</sup>

○청주(淸州)에 속하였다.

동쪽으로 경상도(慶尙道) 상주목(尙州牧) 경계까지 40리, 서쪽으로 회인현(懷仁縣) 경계까지 15리, 남쪽으로 청산현(靑山縣) 경계까지 25리, 북쪽으로 청주목(淸州牧) 경계까지 30리이다.

북쪽으로 서울까지는 3백 60리로 5일길이고 서쪽으로 감영(監營)까지는 1백 40리로 2일길이고, 서북쪽으로 병영(兵營)까지는 80리로 하루길이고 서쪽으로 수영(水營)까지는 3백리로 4일길이다.

57) 원문에는 제목이 없으나 편이상 달았다.

## 방리(坊里)

### ○동쪽 사각면(思角面)

- 광석리(廣石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거리에 있으며 호수(戶數)는 20호(戶)이고 남자는 39명 여자는 38명이다.
- 길상리(吉祥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32호(戶)이고 남자는 62명 여자는 65명이다.
- 구인리(求仁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38호(戶)이고 남자는 56명 여자는 69명이다.
- 신동리(新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27호(戶)이고 남자는 43명 여자는 47명이다.
- 평각리(坪角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45호 남자는 75명 여자는 79명이다.
- 나부리(羅不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10호 남자는 18명 여자는 28명이다.
- 매화리(梅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18호 남자는 32명 여자는 37명이다.
- 용평리(龍平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18호 남자는 29명 여자는 35명이다.
- 사직리(社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30호 남자는 53명 여자는 59명이다.
- 고승리(高承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7리 거리 호수(戶數)는 50호 남자는 62명 여자는 68명이다.
- 어암리(魚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거리 호수(戶數)는 25호 남자는 39명 여자는 42명이다.
- 용천리(龍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리 거리 호수(戶數)는 29호 남자는 32명 여자는 39명이다.
- 만지리(晩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거리 호수(戶數)는 20호 남자는 32명 여자는 39명이다.

탁동리(濯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거리 호수(戶數)는 42호 남자는 69명 여자는 70명이다.

상하이평리(上下梨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리 거리 호수(戶數)는 42호 남자는 72명 여자는 85명이다.

○동쪽 속리면(俗離面)

사비랑리(沙非郎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71호 남자 1백3명 여자는 1백 12명이다.

애평리(艾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23호 남자는 43명 여자는 57명이다.

황곡리(荒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55호 남자는 1백32명 여자는 1백40명이다.

장내리(帳內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42호 남자는 82명 여자는 87명이다.

서원리(書院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31호 남자는 83명 여자는 93명이다.

삼거리(三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20호 남자는 52명 여자는 62명이다.

사내동리(舍乃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28호 남자는 45명 여자는 49명이다.

상하중판근리(上下中板斤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44호 남자는 82명 여자는 87명이다.

북암리(北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호수(戶數)는 26호 남자는 51명 여자는 65명이다.

백현리(栢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북쪽으로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12호 남자는 28명 여자는 32명이다.

오심리(吾心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41호 남자는 45명 여자는 81명이다.

○동쪽 왕래면(王來面)

임곡리(壬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8호 남자는 18명 여자는 28명이다.

적암리(赤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32호 남자는 61명 여자는 73명이다.

가을벌리(加乙伐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49호 남자는 1백5명 여자는 1백10명이다.

송현리(松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21호 남자는 33명 여자는 42명이다.

사여리(士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26호 남자는 52명 여자는 61명이다.

관기리(館基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21호 남자는 45명 여자는 53명이다.

삼거리(三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17호 남자는 35명 여자는 42명이다.

수문리(水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8호 남자는 22명 여자는 31명이다.

방하곡리(方下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39호 남자는 72명 여자는 83명이다.

임한리(林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5호 남자는 15명 여자는 25명이다.

○동남간 탄부면(炭釜面)

소여리(所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69호 남자는 1백50명 여자는 1백70명이다.

기대리(其大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70호 남자는 1백33명 여자는 1백40명이다.



관리(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56호 남자는 75명 여자는 85명이다.

장산리(長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56호 남자는 88명 여자는 99명이다.

벽지리(碧地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54호 남자는 89명 여자는 95명이다.

장암리(壯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53호 남자는 61명 여자는 73명이다.

경상리(京祥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29호 남자는 33명 여자는 53명이다.

#### ○동남간 마로면(馬老面)

한중리(閑中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40리 거리 호수(戶數)는 8호 남자는 15명 여자는 35명이다.

흘여지리(屹汝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5리 거리 호수(戶數)는 20호 남자는 29명 여자는 37명이다.

세동리(細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9호 남자는 15명 여자는 23명이다.

변둔리(卞屯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18호 남자는 23명 여자는 37명이다.

증산리(曾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13호 남자는 25명 여자는 35명이다.

갈전리(葛田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26호 남자는 29명 여자는 32명이다.

내동리(內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13호 남자는 22명 여자는 35명이다.

세중동리(世中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27호 남자는 31명 여자는 42명이다.

- 모동리(牟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28호 남자는 40명 여자는 53명이다
- 오천리(梧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50호 남자는 60명 여자는 72명이다.
- 대양리(大陽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43호 남자는 60명 여자는 83명이다.
- 망지리(望地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36호 남자는 59명 여자는 75명이다.

○남쪽 삼승면(三升面)

- 각동리(角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45호 남자는 61명 여자는 89명이다.
- 삼승리(三升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28호 남자는 31명 여자는 42명이다.
- 석남리(石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45호 남자는 62명 여자는 85명이다.
- 내외망월리(內外望月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68호 남자는 80명 여자는 92명이다.
- 원암리(元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96호 남자는 1백5명 여자는 1백20명이다.
- 온야리(溫夜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20호 남자는 33명 여자는 53명이다.
- 서원리(西原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34호 남자는 45명 여자는 61명이다.
- 탄금대리(彈琴臺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59호 남자는 70명 여자는 82명이다.
- 달산리(達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22호 남자는 29명 여자는 32명이다.

## ○남쪽 서니면(西尼面)

- 송죽리(松竹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27호 남자는 45명 여자는 51명이다.
- 황토리(黃土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31호 남자는 47명 여자는 62명이다.
- 서니동서변리(西尼東西邊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72호 남자는 80명 여자는 1백5명이다.
- 사각리(思角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16호 남자는 29명 여자는 32명이다.
- 상하둔덕리(上下屯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26호 남자는 35명 여자는 41명이다.
- 등산리(登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15호 남자는 20명 여자는 32명이다.
- 뉴항목촌동리(柎項目村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거리 호수(戶數)는 22호 남자는 29명 여자는 37명이다.
- 상하천곡리(上下泉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거리 호수(戶數)는 22호 남자는 35명 여자는 45명이다.
- 금굴리(金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거리 호수(戶數)는 34호 남자는 42명 여자는 61명이다.
- 두지동리(斗之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거리 호수(戶數)는 5호 남자는 15명 여자는 30명이다.
- 은사평리(隱士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거리 호수(戶數)는 9호 남자는 17명 여자는 25명이다.
- 내외수정리(內外水井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3리 거리 호수(戶數)는 32호 남자는 43명 여자는 57명이다.
- 잠곡리(蚕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리 거리 호수(戶數)는 27호 남자는 42명 여자는 62명이다.

○서쪽 수한면(水汗面)

은로리(隱路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18호 남자는 29명 여자는 32명이다.

평포동리(坪浦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16호 남자는 28명 여자는 37명이다.

오정리(吾丁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27호 남자는 42명 여자는 55명이다.

마문리(馬文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36호 남자는 50명 여자는 72명이다.

장선리(長先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30호 남자는 48명 여자는 82명이다.

질곳지리(秩串之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56호 남자는 85명 여자는 1백12명이다.

여리광리(於里光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12호 남자는 28명 여자는 43명이다.

거현리(巨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31호 남자는 55명 여자는 87명이다.

수한리(水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46호 남자는 62명 여자는 85명이다.

묘동리(畝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29호 남자는 33명 여자는 45명이다.

말을곳지리(末乙串之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7리 거리 호수(戶數)는 27호 남자는 48명 여자는 67명이다.

성리(星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5리 거리 호수(戶數)는 14호 남자는 22명 여자는 39명이다.

발산리(鉢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3리 거리 호수(戶數)는 10호 남자는 25명 여자는 38명이다.

거묵동리(巨墨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5리 거리 호수(戶數)는 33호 남자

는 58명 여자는 75명이다.

병원리(並院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5리 거리 호수(戶數)는 47호 남자는 79명 여자는 98명이다.

후평리(後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3리 거리 호수(戶數)는 34호 남자는 39명 여자는 73명이다.

○북쪽 내북면(內北面)

천산리(天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11호 남자는 25명 여자는 41명이다.

중티리(中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29호 남자는 42명 여자는 75명이다.

탕동리(湯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40호 남자는 69명 여자는 75명이다.

삽영리(插嶺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19호 남자는 27명 여자는 39명이다.

궁평리(宮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52호 남자는 88명 여자는 91명이다.

이원리(泥院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8호 남자는 14명 여자는 25명이다.

서지리(西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15호 남자는 25명 여자는 41명이다.

구리목리(九里目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65호 남자는 85명 여자는 1백2명이다.

상중하초개리(上中下草介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83호 남자는 1백7명 여자는 1백11명이다.

노티리(老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5리 거리 호수(戶數)는 23호 남자는 30명 여자는 45명이다.

사막리(舍幕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리 거리 호수(戶數)는 36호 남자는

58명 여자는 67명이다.

수남리(水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5리 거리 호수(戶數)는 23호 남자는 29명 여자는 30명이다.

내동리(內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7리 거리 호수(戶數)는 46호 남자는 72명 여자는 95명이다.

사력동리(舍力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리 거리 호수(戶數)는 24호 남자는 35명 여자는 43명이다.

교동리(校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리 거리 호수(戶數)는 39호 남자는 42명 여자는 43명이다.

읍내서변리(邑內西邊里) : 호수(戶數)가 1백74호 남자가 2백 2명 여자는 2백 32명이다.

○북쪽 외북면(外北面)

어온동리(於溫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5리 거리 호수(戶數)는 66호 남자는 92명 여자는 1백2명이다.

오대리(五代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41호 남자는 77명 여자는 93명이다.

원평리(元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42호 남자는 65명 여자는 95명이다.

장갑리(長甲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76호 남자는 1백5명 여자는 1백23명이다.

백석리(白石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13호 남자는 32명 여자는 43명이다.

동하목리(東下目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38호 남자는 47명 여자는 69명이다.

문암리(文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33호 남자는 53명 여자는 83명이다.

상하신곡리(上下新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69호 남자는 98명 여자는 1백3명이다.

- 운천리(雲泉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14호 남자는 22명 여자는 33명이다.
- 울지리(栗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7리 거리 호수(戶數)는 45호 남자는 81명 여자는 90명이다.
- 함림리(含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81호 남자는 1백5명 여자는 1백8명이다.
- 종곡동서변리(鍾谷東西邊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81호 남자는 1백3명 여자는 1백10명이다.
- 안양리(安良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7리 거리 호수(戶數)는 12호 남자는 22명 여자는 33명이다.
- 와평리(瓦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거리 호수(戶數)는 61호 남자는 98명 여자는 1백5명이다.
- 산직리(山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북쪽으로 3리 거리 호수(戶數)는 42호 남자는 75명 여자는 93명이다.
- 동한리(東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리 거리 호수(戶數)는 49호 남자는 82명 여자는 90명이다.
- 읍내동변리(邑內東邊里) : 호수(戶數)는 61호 남자는 83명 여자는 98명이다.
- ※ 이상 호수(戶數)가 4천 5백 47호이고, 인구는 남녀합하여 1만 4천 4백 92명으로 남자는 7천1백82명이고 여자는 7천3백10명이다.[이것은 기묘년(己卯年)<sup>58</sup>) 장적(帳籍)에 따른 것이다.]

### 도로(道路)

- 사기막대로(沙器幕大路) : 관문(官門)에서 동쪽으로 40리 길로 상주목(尙州牧) 경계로 가는 길이다.
- 추티대로(楸峙大路) : 관문(官門)에서 서쪽으로 15리 길로 회인현(懷仁縣) 경계에서 오는 길이다.

58) 英祖 35년(1759)

- 원암대로(元岩大路) : 관문(官門)에서 남쪽으로 30리 길로 청산현(靑山縣) 경계로 가는 길이다.
- 원평대로(元坪大路) : 관문(官門)에서 북쪽으로 30리 길인데 청주목(淸州牧) 경계에서 오는 길이다.
- 속리산 통로(俗離山通路) : 관문(官門)에서 동북쪽으로 30리 길이다. 북쪽의 원평(元坪)에서 속리산(俗離山)으로 직통(直通)하는 도로가 있는데 30리 거리다.
- 문티소로(文峙小路) : 서남쪽에 있는데 관문(官門)에서 20리 거리에 있으며 옥천군(沃川郡) 경계로 통하는 길이다.
- 구암대로(龜岩大路) : 동남쪽에 있으며 관문(官門)에서 40리 거리로 상주목(尙州牧) 경계로 통하는 길이다. 옥천(沃川) 둔티대로(屯峙大路)로부터 원암(元岩)·관기(館基)를 경유하여 상주목(尙州牧) 경계까지 직통(直通)하는 길로 30리 거리다.
- 연티소로(鸞峙小路) : 서북쪽에 있는데 관문(官門)에서 20리 거리며 청산(靑山) 주성창(酒城倉)으로 가는 길이다.

###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신라의 삼년산군(三年山郡)으로 경덕왕(景德王)이 삼년(三年)이라 고치고 고려 때 보령(保齡)이라 고쳤다.[령(齡)이 뒤에 슈으로 변하였다.] 현종(顯宗) 9년(1018)에 상주(尙州)에 예속되었다가 명종(明宗 1172) 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朝鮮)<sup>59)</sup> 태종(太宗 1406) 6년에 보령현(保寧縣)과 음(音)이 서로 비슷하다 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예(例)에 따라 현감(縣監)으로 하였다. 13년(1413)에 경상도(慶尙道)로부터 충청도(忠淸道)<sup>60)</sup>에 예속시켰다.

### 관원(官員)

현감(縣監)·훈도(訓導) : 각1명[훈도(訓導)는 지금 폐하였다.]

59) 원문에는 본조(本朝)로 되었으나 조선(朝鮮)으로 고쳤다.

60) 원문에는 本道로 되었으나 충청도로 고쳤다.



**군명(郡名)**

삼년산(三年山) · 보령(保齡) · 삼산(三山) · 보령(保令)

**관직(官職)**

○현감(縣監) : 음관(陰官) 6품이다. [그아래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2명, 군관(軍官) 20명, 아전(衙前) 30명, 지인(知印) 25명, 사령(使令) 22명, 관노(官奴) 10명, 관비(官婢) 9명을 두었다.]

**산천(山川)**

○속리산(俗離山) : 고을 동쪽 30리에 있다. 동북쪽인 문경(聞慶)의 화산(華山)으로부터 왔는데 두 형국(形局)이 모두 서쪽을 향하여 보은(報恩)의 주맥(主脈)이 되었고 냇물의 근원은 다른 곳에서 흘러오는 것은 없고 경내(境內)의 물이 합류하여 고을 동남쪽으로 흘러 청산현(靑山縣)을 거쳐 금강(錦江)으로 들어간다. 속리산은 9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어 구봉산(九峯山)이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신라 때는 속리악(俗離岳)이라 부르고 중사(中祀)를 올렸다. 산마루에는 문장대(文藏臺)가 있는데 겹겹이 쌓인 돌이 천연으로 이루어져 높게 공중에 솟았고 그 높이가 몇 길인지 알지 못한다. 그 넓이는 사람 3천명이 앉을만하고 대(臺)위에는 구덩이가 있는데 마치 가마솥 같고 그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가물어도 줄지않고 비가와도 불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세 줄기로 나뉘어서 반공(半空)으로 쏟아져 내리는데 한 줄기는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洛東江)이 되고 한 줄기는 남쪽으로 흘러 금강(錦江)이 되고 한 줄기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북으로 가서 달천(達川)이 되어 금천(金遷)으로 들어간다. 산아래에 8교(橋)와 9요(遙)의 이름이 있는데 산 양쪽 언덕이 빙빙둘러 넓어져서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다 보면 멀고 멀어서 마치 땅이 끝인 것처럼 의심스럽다가 거기까지 가서 바라보면 또 멀고 멀어서 이렇게 하기를 아홉 번 반복하여 비로소 법주사(法住寺)에 도착하는 고로 이름을 9요(遙)라 한다. 9요 속에 물 한 줄기가 돌고 돌아 구비처 흐르는데 한 구비마다 다리가 있어 모두 여덟이기 때문에 8교(橋)라 했다. 맨 첫다리가 수정교(水精橋)로 다리위에 비각(飛閣)이 있어 사람들이 이 각(閣) 속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작은 무너지고 다리만 남아 있다.

신여(信如)라는 중이 다리 위에서 시(詩)를 쓰기를

“삼청동(三清洞)에 아홉겹 요(遙)가 있고  
한줄기 시냇물에 여덟다리 있네  
다리 아래 물 맑은데 붉은 것이 푸른 빛을 시기하니  
산에 가득한 단풍잎 소나무 가지에 의지해 있네” 하였다.

- 함림산(含林山) : 고을북쪽 10리에 있다.
- 구봉산(九峯山) : 고을동쪽 43리에 있다.
- 사산(蛇山) · 와산(蛙山) · 서산(鼠山) : 고을 안에 있다.
- 금적산(金積山) : 고을 남쪽 25리에 있다.
- 검단산(儉丹山) : 고을 북쪽 37리에 청주(淸州) 경계에 있다. 백제(百濟)의 중 검단(儉丹)이 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오정산(烏頂山) : 고을 동쪽 5리에 있다.
- 웅 현(熊峴) : 고을 북쪽 27리에 있다.
- 차의현(車衣峴) : 고을 서쪽 15리 회인현(懷仁縣) 경계에 있다.
- 용 천(龍川) : 고을 동쪽 3리에 있다.
- 병풍연(屏風淵) : 속리산(俗離山) 아래에 있으니 고을 동쪽 25리 지점이다.

**성씨(姓氏)**

- 보은(報恩)<sup>61)</sup> : 김(金) · 이(李) · 손(孫) · 박(朴) · 최(崔) · 송(宋) · 한(韓) [모두  
래성(來姓)]
- 임언(林堰) : 홍(洪) · 석(石) · 방(方)[촌성(村姓)]

**풍속(風俗)**

문학(文學)을 높이 숭상하고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다.

61) 원문에는 없으나 편이상 붙였다.

**단묘(壇廟)**

○사직단(社稷壇) : 고을 서쪽에 있다.

○문 묘(文 廟) : 고을 북쪽 향교(鄕校)에 있다.

○여 단(厲 壇) : 고을 북쪽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 고을 남쪽 2리에 있다.

○상현서원(象賢書院) : 고을 동쪽 25리에 있다,

※문간공(文簡公) 김정(金淨) : 자(字)는 원충(元冲)으로 본고을에서 출생하였다. 중종(中宗) 때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냈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贈職)된 기묘명현(己卯名賢)<sup>62</sup>이다.

※대곡(大谷) 성운(成運) : 자(字)는 건축(健叔)으로 본고을 대곡(大谷)에 은거하였다. 선조 때 사재감정(司宰監正)을 지냈고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검경연참찬관(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에 증직(贈職)된 을사명현(乙巳名賢)<sup>63</sup>이다.

※만력(萬曆) 38년(1610) 경술(庚戌)에 사액(賜額)을 받았다.

※동주(東洲) 성제원(成悌元) : 자(字)는 자경(子敬)으로 가정(嘉靖) 계축(癸丑)(1553)에 본 고을에 와서 문교(文教)를 크게 천명(闡明) 하였다. 명종(明宗)때 보은현감(報恩縣監)을 지냈다.

※문열공(文烈公) 중봉조헌(重峯趙憲) : 자(字)는 여식(汝式)으로 만력(萬曆) 임오(壬午 1582)년에 본 고을에 와서 유학(儒學)을 크게 일으켰다. 선조(宣祖) 때 보은현감(報恩縣監) · 공주제독(公州提督) ·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을 지냈다.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지경연춘추관(知經筵春秋館) 성균관(成均館) 의금부(義禁府) 세자대빈객(世子大賓客)에 추증(追贈)되었다. 명(明)나라가 망한 뒤 18년 신유(辛酉) 12월 조선(朝鮮)<sup>64</sup> 숙종대왕(肅宗大王 1681) 7년에 추향(追享)되었다.

※문정공(文正公) 우암송시열(尤菴宋時烈) : 자(字)는 영보(英甫)로 병자호란(丙子胡亂)<sup>65</sup> 때 우리 고을에 우거(寓居)하였다. 현종(顯宗)때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

62) 기묘사화로 화를 당한 어진 선비

63) 을사사화로 화를 당한 어진 선비

64) 원문에 야조(我朝)로 되었으나 조선으로 고쳤다.

65) 원문에 丙丁은 즉 丙子 丁丑년을 말하는 것으로 병자호란 때를 말함

大夫) 의정부(議政府)겸영경연감(兼領經筵監) 춘추관(春秋館)관상감사(觀象監事) 세자부(世子傳)로 치사(致仕)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지금 임금 때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었다. 승정재을해(崇禎再乙亥) 2월 조선(朝鮮)<sup>66)</sup> 숙종대왕(肅宗大王 1695) 10년에 추향(追享)되었다.

**공해(公廡)**

- 객사벽대청(客舍壁大廳) : 3칸 전후퇴
- 동상실(東上室) : 5칸 전후퇴
- 서상실(西上室) : 4칸 전후퇴
- 중문(中門) : 3칸
- 외문(外門) : 3칸
- 내동헌(內東軒) : 12칸 전후퇴
- 외동헌(外東軒) : 6칸 전후퇴
- 아사(衙舍) : 33칸
- 향청(鄉廳) : 12칸
- 무학당(武學堂) : 7칸
- 작대청(作隊廳) : 4칸
- 현사(縣司) : 3칸
- 군관청(軍官廳) : 5칸
- 아전청(衙前廳) : 16칸
- 지인청(知印廳) : 3칸
- 사령청(使令廳) : 3칸
- 관노청(官奴廳) : 4칸이다.

**제언(堤堰)**

- 둔덕제언(屯德堤堰) : 고을 남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3백 14척(尺)이고 제방의 길이

66) 원문에는 ‘我朝’로 되어있으나 조선으로 고쳤다.

는 1백 35척(尺)이고 수심(水深)은 4척(尺)이다.

- 신둔제언(薪屯堤堰) : 고을 남쪽 20리에 있다. 둘레는 4백 16척(尺)이고 제방(堤防)의 길이는 1백16척(尺)이고 수심(水深)은 7척(尺)이다.
- 달산제언(達山堤堰) : 고을 남쪽 20리에 있다. 둘레는 4백20척이고 제방의 길이는 1백 67척이고 수심은 6척이다.
- 망월제언(望月堤堰) : 고을 남쪽 35리에 있다. 둘레는 2백 40척 제방의 길이는 1백40척이고 수심은 4척이다.
- 신동제언(新洞堤堰) : 고을 동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3백 15척 제방의 길이는 1백50척이고 수심은 5척이다

### 창고(倉庫)

- 읍창(邑倉) : 45칸이다
- 좌기청(坐起廳) : 6칸이다
- 저치고(儲置庫) : 2칸이다
- 관수고(官需庫) : 3칸이다

### 물산(物産)

송이버섯(松蕈) · 무쇠(水鐵) · 벌꿀(蜂蜜) · 잣(海松子) · 영양(羚羊) · 안식향(安息香) · 지황(地黃) · 웅담(熊膽) · 돌버섯(石蕈) · 대추(大棗) · 더덕(沙蔘) · 도라지(桔梗)

### 역원(驛院)

- 함림역(含林驛) : 고을 북쪽 10리에 있는데 대마(大馬) 2마리, 기마(騎馬) 3마리, 복마(卜馬) 5마리와 역리(驛吏) 30명 역노(驛奴)가 40명이다.
  - 원암역(元岩驛) : 고을 남쪽 30리에 있는데 대마(大馬) 1마리, 기마(騎馬) 4마리, 복마(卜馬) 5마리와 역리(驛吏) 30명 역노(驛奴)가 15명이다.
- ※ 두역은 울봉찰방(栗峯察訪) 소속이다.

목장(牧場)

분양마(分養馬) 1마리를 8월에 받아 길러서 4월에 사복시(司僕寺)에 바친다

사찰(寺刹)

○속리사(俗離寺) : 고을 동쪽 30리거리로 속리산(俗離山) 서쪽에 있다.

※김구용(金九容)의 시(詩)가 있는데

“달마암(達磨岩)가에 등불 하나 밝았는데  
문열고 향 피우니 마음 다시 맑아라  
혼자 깊은 밤에 앉아 잠 못 이루니  
창 앞에 흐르는 물 솔바람 소리와 섞어 들리네” 하였다.

○법주사(法住寺) : 속리산(俗離山)에 있는데 세상에 전해오기를 신라의 중 의신(義信)이 흰 노새에 불경을 싣고 와서 이 절을 세웠고 성덕왕(聖德王)이 중수(重修)하였는데 석조(石槽)와 석교(石橋) · 석옹(石瓮) · 석확(石鑊)이 있으며 절 안 산호전(珊瑚殿)에 금신장육상(金身丈六像)이 있으며 문 앞에는 구리로 부어 만든 짓대(幢)가 있는데 모양이 몹시 높고 그 한쪽에 통화(統和) 24년(1006)에 세웠다고 새겨있다. 또 고려 밀직대언(密直代言) 이숙기(李叔琪)가 지은 중 자정(慈淨)의 비명(碑銘)이 있다.

※박효수(朴孝修)의 시(詩)가 있는데

“높다란 사면 푸른 연꽃같은 봉우리  
장갑(長岬)의 신령스런 근원 몇겹인고  
문장대(文藏臺)는 천고(千古)의 이끼 그대로 있고  
우타굴(于陀窟) 그늘 만 그루 소나무세  
용이 탐속으로 들어가니 진골(眞骨)이 남았고  
나귀가 바위앞에 누웠으니 성종(聖蹤)을 찾네  
길이 삼한(三韓)을 복되게 하는건 누가 주인인가  
산호전(珊瑚殿)에 자금용(紫金容)<sup>67)</sup> 일세” 하였다.

67) 부처의 몸빛이 자금색이다.

※함부림(咸傅霖)의 시(詩)는

“계원(鷄園)<sup>68</sup>의 한가로운 일월(日月)이요  
안탑(雁塔)<sup>69</sup>에 구름과 연기 자욱하네  
우연히 삼청동(三清洞)에 들렀더니  
세상일 시끄러운 것 모두 잊었네” 하였다.

- 북천사(福泉寺) : 법주사(法住寺) 동쪽 7리에 있다. 절 동쪽에 샘물이 있어 돌 사이로 쏟아져 나와 식수(食水)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천순(天順) 갑신년(甲申年 1464)에 우리 세조대왕(世祖大王)이 속리산에 거둥하실 때 병풍연(屏風淵)에 머물다가 이튿날 법주사(法住寺)로부터 이 절에 오시여 경치를 구경한 다음 호종(扈從)하는 문신(文臣) 김수온(金守溫)에게 명하여 이 일을 기록하게 하였다.
- 중사자암(中獅子菴) : 고을 동쪽 35리 속리산(俗離山) 아래 있는데 원종대왕(元宗大王)의 원당(願堂)이다.

### 고적(古跡)

- 구석(龜石) : 법주사의 서쪽 봉우리에 거북바위가 있는데 천연으로 하늘이 만든 것 같고, 등 위에는 사람 50명이 앉을 수 있으며, 그 머리가 앙연(昂然)하게도 서쪽을 향해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중원술사(中原術士)가 와서 보고 이르기를 “중국의 채물과 비단이 날마다 동쪽으로 넘어 오는 것을 무슨 까닭인지 몰랐더니 이제 알고보니 이 물건이었구나”하고 그 머리를 자르게 하였다 한다.
- 마현박석(馬峴薄石) : 고을 동쪽 15리에 있다. 고개 위에 얇은 돌로 3~4리를 깔아놓았는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고려 태조(太祖)가 일찌기 속리산에 거둥했을 때 닦은 어로(御路)라” 한다.
- 오정산성(烏頂山城) : 고을 동쪽 5리에 있으니 즉 삼년산성(三年山城)이다. 쌓은지 3년 만에 완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3천6백99척

68) 인도(印度)에 있는 절이름인데 무우왕(無憂王)이 세운 것이다.

69) 인도의 왕사성(王舍城)에 안탑이 있는데 중들이 기러기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회롱하는 말로 “우리들이 배가 고프니 보살(菩薩)이 기러기를 가르킨 말은 몸으로 포시(布施)하시오”하였더니 기러기가 스스로 죽어서 떨어졌다. 중들이 감동되어 기러기의 탑을 세웠다 한다.

이요 높이가 18척이며 성안에 우물이 5개 있는데 지금은 반쯤 무너졌다. 고려 태조 11년(927)에 태조 스스로가 장군이 되어 이 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청주로 거동하였다. 산 아래 군장동(軍藏洞)이 있었으니 세상에 전해오기를 “태조가 군대를 주둔 시킨곳이라” 한다

○함림산성(含林山城) : 고을 북쪽 10리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1천 4백 88척이고 높이가 6척이며 성안에 큰 못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쯤 무너졌다.

### 인물(人物)

◎ 우거(寓居) 고려(高麗)

○한유문(韓有文) : 우리 태종(太宗)과 동년진사(同年進士)로 벼슬이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이르렀다.

○김타(金沱) : 두 번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번 청백(清白)한 요직(要職)을 지냈으며 벼슬이 청주목사(淸州牧使)에 이르렀다.

◎효자(孝子) 조선(朝鮮)<sup>70)</sup>

○막동(莫同) : 사천(私賤)이다. 자기 집에 불이 나서 자기 어머니와 딸이 모두 불속에 들어 있는데 막동(莫同)이 급히 들어가 어머니를 업고 나오면서 딸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그 어머니 살린 것을 기쁘게 여겼다. 중종(中宗 1519)14년<sup>71)</sup>에 정문을 내렸다.

○이창경(李昌慶) · 이원경(李元慶) · 이명경(李鳴慶) 삼형제 :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12세손(世孫)이고 눌헌(訥軒) 이사균(李思鈞)의 6세손으로 사인(士人) 이환(李換)의 아들들이다. 현종(顯宗) 을사년(乙巳年 1665)에 명화적(明火賊) 강도떼들이 집에 달려들어 아버지를 해치려고 할 때 세 아들이 함께 있었으나 어린 나이로 큰아들 창경(昌慶)은 23세이고 둘째 아들 원경(元慶)은 17세, 막내아들 명경(鳴慶)은 15세로 옆방에서 글을 읽고 있다가 도적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자 세 아들이 함께 몸을 날려 아버지를 가로막고 죽기로서 칼날과 싸워 세사람이 모두 전신(全身)에 칼날이 뼈까지 미쳐 유혈(流血)이 낭자하여 사경(死境)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으나 개의치 아니하고 가로 막

70)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71) 원문에는 “今上十四年”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그대로 쓴 것으로 바로잡았다.



으며 “차라리 우리를 죽일망정 우리 아버지는 해치지말라” 하니 도적들도 감동(感動)하여 서로 이르기를 “만약 이런 사람을 해치면 우리들도 양화(殃禍)를 받는다” 하며 그 아버지를 노아주고 가장(家莊)만 챙겨갔고 그 아버지는 한곳도 상처를 입지 않고 무사하였다. 이듬해 병오(丙午)에 특명으로 정문을 세우도록 하고 벼슬자리를 주도록 하였으나 큰 아들 창경(昌慶)과 막내 명경(鳴慶)은 일찍 죽었으므로 숙종(肅宗)때 원경(元慶)만 벼슬을 주어 현감(縣監)에 이른다. 삼형제의 정려현판(旌閭懸板)은 우암(尤庵) 송선생(宋先生)과 수암(遂菴) 권선생(權先生)이 선후(先後)로 손수 써서 익재영당(益齋影堂) 앞에 세웠다

### ◎ 열녀(烈女)

○김씨(金氏) :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계남(金悌男)의 형 참판(參判) 효남(孝男)의 증손녀(曾孫女)요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15세손(世孫) 이영간(李榮幹)의 처(妻)다. 영조(英祖)12년 병진(丙辰 1736)<sup>72)</sup>에 그의 남편 영간(榮幹)이 병으로 일찍 죽었으나 시부모님이 계심으로 슬퍼하거나 통곡도 할 수 없었다. 염습(殮襲)을 마치고 여러 동서들에게 말하기를 “한 아들을 이미 두었으니 후사(後嗣)는 이을 것이요 자손(子孫)들이 앞에 있어 시부모를 봉양할 수 있으니 나는 마땅히 죽기로 결심하고 남편을 따라 갈 것이다” 하더니 다음날 새벽 성복(成服)한 뒤 사람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소금탄 물을 마시고 이불을 쓰고 죽었다. 영조(英祖)23년 정묘(丁卯 1747)<sup>73)</sup>에 정문을 내리니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가 현판(懸板)을 손수 쓰고 정문은 익재영당(益齋影堂) 앞 시할아버지인 이원경(李元慶) 삼형제 정문 오른쪽에 세웠다. 마을 앞을 지나는 이들이 공경하여 마을 이름을 삼강촌(三綱村)이라 하였다.

### ◎ 효자(孝子)

○구이극(具爾極) : 본래 효성이 지극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있더니 현종(顯宗) 을미(乙未)년<sup>74)</sup> 7월 30일 밤 갑자기 명화적(明火賊)들이 들어 닦쳤는데 이극(爾極)이 늙은

72) 원문에는 “今上丙辰年”이라 하였으나 英祖 12년으로 고쳤다.

73) 원문에는 “今上丁卯”라 하였으나 英祖 23년으로 고쳤다.

74) 원문에는 “顯廟朝乙未年”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종년간에는 乙未년이 없다.

착오인듯하다. 具爾極이 孝宗 9年(1658) 出生하였으므로 乙未年은 肅宗 41年(1715)으로 추측할 수

어머니가 도적들에게 다칠까 두려워서 몸으로 가로 막고 여러 도적들에게 애걸하다가 머리에 칼을 맞고 파열되었으나 아버지는 화를 면하였다. 장계(狀啓)를 올리니 정문을 세우라 명하여 기해(己亥)년<sup>75)</sup> 2월에 정문을 세웠다.

- 구시영(具始英) : 구이극(具爾極)의 조카이다. 나이 19세에 도적의 변을 같이 만나 조모(祖母)와 숙부(叔父)를 가로막아 보호하다가 몸에 칼을 맞았다. 같이 장계를 올리니 현종(顯宗) 같은 해에 정문을 세웠다.

◎열녀(烈女)

- 오씨(吳氏) : 김중은(金重殷)의 처(妻)다. 일찍이 남편을 잃었는데 그의 천얼(賤孽) 김지겸(金志謙)이 밤을 틈타 들어와 겁간(劫姦)하려고 할 때 오씨(吳氏)가 큰소리로 크게 꾸짖으니 이웃 사람들이 구원하여 욕을 면하였으나 반드시 복수(復讐)하고 싶어 관(官)에 알렸으나 일을 더디게 지체함으로 관정(官庭)에 들어가 호소하고 그날 밤 사창(司倉) 서까래에 목을 매 자결하였다. 무진(戊辰)년에 심리(審理)하고 한익기(韓翼基)가 장계를 써올려 현종(顯宗) 기사(己巳)<sup>76)</sup> 2월에 정문을 세웠다.
- 김성원(金聲遠) : 증영의정(贈領議政) 문간공(文簡公) 충암(沖菴) 김(金)선생 정(淨)의 손(孫)으로 외북면(外北面) 성족리(聲足里)에 살면서 문열공(文烈公) 중봉(重峯) 조(趙)선생에게 수업(受業)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중봉(重峯)과 더불어 금산(錦山)에서 함께 순절(殉節)하였다. 선조(宣祖)때 도사(都事)에 추증(追贈)되고 숙종(肅宗 1720)46년 8월 19일 정문을 세웠다.
- 이여(李勵) : 영의정(領議政) 정숙공(貞肅公) 탁(鐸)의 손자이며 이조참판(吏曹參判) 약포(藥圃) 해수(海壽)의 조카이며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追贈)한 문간공(文簡公) 김충암(金沖菴) 정(淨)의 외손(外孫)이다. 외북면(外北面) 누저리(樓底里) 사괴정(四槐亭) 아래에 살면서 문열공(文烈公) 중봉(重峯) 조선생(趙先生)에게 수업(受業)하더니 임진년(壬辰年)에 조선생(趙先生)이 사괴정(四槐亭)에 왔다가 천구성(天狗星)이 떨어지

있다.

75) 원문에는 ‘己亥十二月’이라고 하였으나 顯宗年間에는 己亥年이 없다. 착오인듯하다. 具爾極 出生과 연 관하여 肅宗 45年(1719) 己亥로 추측할 수 있다.

76) 원문에는 “顯廟朝己巳二月日堅立旌門”으로 되어있으나 顯宗年間에는 己巳年이 없어 착오인듯하다. 報恩郡誌(1970年刊)에는 肅宗14年(1688) 戊辰 12월에 命旌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는 소리를 듣고 여(勵)에게 하는 말이 “오늘 왜구(倭寇)가 바다를 건너오니 나는 마땅히 의병(義兵)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대는 능히 일을 같이 하겠는가” 하니 여(勵)가 대답하기를 “따른다”하고 같이 금산(錦山) 싸움에 함께 순절(殉節)하였다. 선조(宣祖) 때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추증(追贈)되고 숙종(肅宗 1720)46년 8월 19일 정문을 세웠다.

### 전결(田結)

- 밭 : 원장(元帳)에는 3천7백94결69부2속인데 여기서 진잡이(陳雜頃) 2천3백22결52부9속을 제하면 기묘(己卯)년 기준으로 1천4백72결16부3속이다.
- 논 : 원장(元帳)에는 1천1백1결93부2속인데 여기서 진잡이(陳雜頃) 3백75결49부를 제하면 기묘(己卯)년 기준으로 7백26결44부이다.

### 진공(進貢)

산돼지(山猪) 한마리를 3년에 2차례하는데 영동현(永同縣)과 같이한다. 약제(藥材)는

- 정월령(正月令) : 벌꿀 3되, 백급(白芨) 3냥, 태수(胎水) 1홉
- 3월령(三月令) : 백출(白朮) 3냥5전, 도라지 10냥, 황백피(黃柏皮) 6냥, 전호(前胡) 9냥, 백급(白芨) 2냥, 진잠(秦岑) 10냥, 모향(毛香) 8근6냥
- 6월령(六月令) : 금은화(金銀花) 3냥, 봉리궤(封裏櫃) 1좌
- 7월령(七月令) : 안식향(安息香) 1근14냥, 백급(白芨) 3냥, 태수(胎水) 2홉
- 8월령(八月令) : 대추 2말
- 9월령(九月令) : 벌꿀 5되
- 10월령(十月令) : 전호(前胡) 11냥, 오미자(五味子) 5냥8전, 금은화(金銀花) 1냥
- 11월령(十一月令) : 오가피(五加皮) 11냥, 위령선(威靈仙) 6냥, 연교(連翹) 4전
- 진하시(進賀時) : 대추 2말, 산평(活雉) 6마리
- 도계시(到界時) : 백자(柏子) 6말6되

### 조적(糶糶)

- 삼창회부미(三倉會付米) : 쌀 1천2백84섬6말, 피각곡(皮各穀) 9천1백32섬11말
- 영진곡(營賑穀) : 1천5백17섬8말 [9월에 창고를 열고 11월에 닫는다.]

### 전세(田稅)

- 무명 32통5필 [정월(正月)부터 수납하여 3월달에 육로로 회인(懷仁) · 문의(文義) · 청주(淸州) · 천안(天安) · 진위(振威) · 과천(果川)을 거쳐 5일만에 서울에 도착하여 호조(戶曹)에 상납한다.]

### 대동(大同)

- 저치미(儲峙米) : 쌀 1백6섬 9말
- 무명: 57통 25필
- 세작목(稅作木) : 5통 28필 13척 [정월(正月)부터 수납하여 3월말에 육로로 회인 · 문의 · 청주 · 천안 · 진위 · 과천을 거쳐 5일만에 서울에 도착하여 선혜청(宣惠廳)에 상납한다.]

### 균세(均稅)

- 전세(田稅) : 무명 1통 24필
- 결전(結錢) : 1천 33냥
- 도무포(道武布) : 45필
- 대동목(大同木) : 3통 [정월(正月)부터 수납하여 3월달에 육로로 회인 · 문의 · 청주 · 천안 · 진위 · 과천까지 운반하여 5일내에 서울에 도착 균역청(均役廳)에 상납한다.]

### 군병(軍兵)

- 편오(編伍) : 천총(千摠) 1명, 파총(把摠) 1명, 초관(哨官) 4명, 기패관(旗牌官) 6명, 마병(馬兵) 89명, 보군(步軍) 4백 70명이다.
- 병영(兵營) : 신선(新選) 1백 56명이다.
- 수영(水營) : 수군(水軍) 59명이다.
- 병조(兵曹) : 기병(騎兵) 6백 56명, 보병(步兵) 1백 16명, 유청군(有廳軍) 14명, 금복직(禁狝直) 27명이다.
- 훈련도감(訓練都監) : 포보(砲保) 2백 29명이다.

- 금위영(禁衛營) : 상번군(上番軍) 80명, 자보(資保) 86명, 상납보(上納保) 2백61명이다.
  - 어영청(御營廳) : 상번군(上番軍) 80명 자보(資保) 86명, 상납보(上納保) 2백14명이다.
  - 장악원(掌樂院) : 악공(樂工) 4명, 보(保) 28명, 악생보(樂生保) 3명이다.
  - 선공감(繕工監) : 선공감보(繕工監保) 58명이다.
- ※ 이상 모두 2천 7백 28명이다.

## 회인현(懷仁縣)

### 진관(鎭管)77)

○청주(淸州)에 속하였다.

동쪽으로 보은(報恩) 경계까지 16리, 서쪽으로 문의(文義) 경계까지 16리, 남으로 청주(淸州)경계까지 32리, 북으로 청주(淸州)경계까지 29리이다. 서울까지는 북으로 3백 46리로 5일 걸리고 서쪽으로 감영(監營)까지는 1백 20리로 1일 반(半) 일정이고 북으로 병영(兵營)까지는 50리로 한나절 걸린다. 서쪽에 있는 수영(水營)까지는 3백리로 4일 걸린다.

### 방리(坊里)

○동면(東面)

만지동리(晩旨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28호이고 남자는 30명 여자는 41명이다.

법주리(法住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12호이고 남자는 23명 여자는 20명이다.

웅암리(熊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3리 거리 호수(戶數)는 6호이고, 남자는 29명 여자는 14명이다.

계암리(桂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11호이고 남자는 12명 여자는 13명이다.

77) 원문에는 제목이 없으나 편이상 달았다.

신문리(新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21호이고 남자는 27명  
여자는 21명이다.

오동리(梧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15호이고 남자는 20명  
여자는 21명이다.

세촌리(世村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3리 거리 호수(戶數)는 16호이고 남자는 27명  
여자는 24명이다.

고초천리(高草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32호이고 남자는  
56명 여자는 38명이다.

애티리(艾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5리 거리 호수(戶數)는 33호이고 남자는 53명 여  
자는 44명이다.

건천리(乾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14호 남자는 34명 여자  
는 28명이다.

노성산리(老城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21호 남자는 35명  
여자는 34명이다.

○서면(西面)

가정자리(加亭子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5리 거리 호수(戶數)는 15호 남자는 32명 여  
자는 38명이다.

용두리(龍頭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 호수(戶數)는 40호 남자는 57명 여자  
는 62명이다.

거교리(巨橋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2리 거리 호수(戶數)는 18호 남자는 24명 여자  
는 25명이다.

거구리(巨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31호 남자는 44명 여자  
는 47명이다.

남대문리(南大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3리 거리 호수(戶數)는 7호 남자는 12명 여  
자는 15명이다.

신읍리(新邑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6리 거리 호수(戶數)는 23호 남자는 22명 여자  
는 25명이다.

양중지리(陽中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6리 거리 호수(戶數)는 16호 남자는 29명 여자는 32명이다.

묘암리(妙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20호 남자는 23명 여자는 25명이다.

동막리(東幕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12호 남자는 11명 여자는 15명이다.

마구리(馬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14호 남자는 12명 여자는 17명이다.

#### ○남면(南面)

추동리(楸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2리 거리 호수(戶數)는 35호 남자는 29명 여자는 34명이다.

명곡리(鳴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 호수(戶數)는 19호 남자는 33명 여자는 23명이다.

판장리(板藏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6리 거리 호수(戶數)는 16호 남자는 31명 여자는 16명이다.

분저곡리(分諸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21호 남자는 31명 여자는 39명이다.

서당평리(書堂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2리 거리 호수(戶數)는 4호 남자는 4명 여자는 4명이다.

음중지리(陰中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9리 거리 호수(戶數)는 22호 남자는 45명 여자는 41명이다.

사탄리(沙灘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20호 남자는 40명 여자는 25명이다.

#### ○강외면(江外面)

사음동리(舍音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19호 남자는 30명 여자는 44명이다.

매산리(梅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 25리 거리 호수(戶數)는 28호 남자는 27명  
여자는 57명이다.

법수리(法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36호 남자는 57명  
여자는 62명이다.

○북면(北面)

수곡리(首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67호 남자는 73명 여자  
는 79명이다.

계산리(桂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 호수(戶數)는 34호 남자는 43명 여자  
는 48명이다.

지경동리(地境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30리 거리 호수(戶數)는 58호 남자는 62명  
여자는 63명이다.

○읍내면(邑內面)

마근동리(馬斤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 1리 거리 호수(戶數)는 52호 남자는 91  
명 여자는 82명이다.

저리(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 1리 거리 호수(戶數)는 23호 남자는 31명 여자  
는 36명이다.

벌리(伐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 1리 거리 호수(戶數)는 19호 남자는 29명 여자  
는 26명이다.

눌곡리(訥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 3리 거리 호수(戶數)는 45호 남자는 66명  
여자는 39명이다.

황평리(黃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 4리 거리 호수(戶數)는 39호 남자는 35명  
여자는 34명이다.

교동리(校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 2리 거리 호수(戶數)는 17호 남자는 16명  
여자는 23명이다.

개동리(介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 3리 거리 호수(戶數)는 27호 남자는 20명  
여자는 33명이다.



※ 이상 호수(戶數)가 9백 64호이고 인구는 남자가 1천3백98명이고 여자는 1천4백 47명이다 [이것은 기묘(己卯)년<sup>78</sup>)의 장적(帳籍)에 따른 것이다.]

### 도로(道路)

- 노령대로(蘆嶺大路) : 보은(報恩)경계로 가는 길로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6리 거리이다.
- 묵령대로(墨嶺大路) : 문의(文義) 경계에서 오는 길로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 거리이다.
- 남소로(南小路) : 청주(淸州) 경계로 가는 길로 관문(官門)으로부터 32리 거리이다.
- 피반령대로(皮盤嶺大路) : 청주(淸州) 경계에서 오는 길로 관문(官門) 서북쪽 29리 거리이다.
- 북소로(北小路) : 청산(靑山) 경계로 가는 길로 관문(官門)으로부터 25리 거리이다.

###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백제(百濟)의 미곡현(未谷縣)으로 신라(新羅)가 매곡(昧谷)으로 고치고 연산군(燕山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高麗) 현종(顯宗)때 청주(淸州)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회덕(懷德)의 겸임관(兼任官)을 두었다. 우왕(禡王)<sup>79</sup> 때 별도로 감무(監務)를 두고 조선(朝鮮)<sup>80</sup> 태종(太宗 1413)13년에 예(例)에 따라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 관원(官員)

현감(縣監) · 훈도(訓導) 각 1인 이다.

### 군명(郡名)

미곡(未谷) · 매곡(昧谷)

78) 영조 35년(1759)임

79) 원문의 辛禡로 되어 있으나 禡王으로 고쳤다.

80) 원문에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형승(形勝)**

○거듭된 멧부리와 겹겹의 고개길은 양의 창자처럼 둘러있다.

※이승소(李承召)의 다음과 같은 시(詩) 귀절이다.

“거듭된 멧부리와 겹겹의 고개 멀리 서로 연결되고  
길은 양(羊)의 창자처럼 얽히었으니  
말(馬)이 나아가지 못하네” 하였다.

**관직(官職)**

○현감(縣監) : 음관(陰官) 6품이다. [그 아래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1명, 군관(軍官) 8명, 아전(衙前) 14명, 지인(知印) 9명, 사령(使令) 11명, 관노(官奴) 10명, 관비(官婢) 11명을 두었다.]

**산천(山川)**

○구룡산(九龍山) : 보은(報恩) 속리산(俗離山)으로부터 내려온 주맥(主脈)이다.  
○말흘탄(末訖灘) : 옥천(沃川) 화인진(化仁津)으로부터 흘러와서 회덕(懷德) 형각진(荊角津)으로 흘러간다.

**성씨(姓氏)**

○회인(懷仁)<sup>81)</sup>: 이(李) · 홍(洪) · 장(張) · 신(辛) · 최(崔) [속성(續姓)이다.]

**단묘(壇廟)**

○사직단(社稷壇) : 고을 서쪽에 있다.  
○향교(鄉校) : 고을 북쪽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 매곡산(昧谷山)에 있다.  
○여단(厲壇) : 고을 북쪽에 있다.

81) 원문에는 本縣으로 되어있으나 懷仁으로 고쳤다.

**공해(公廩)**

- 객사(客舍) : 20칸
- 관아(官衙) : 18칸
- 향청(鄉廳) : 6칸
- 현사(縣司) : 5칸
- 작청(作廳) : 6칸
- 군기청(軍器廳) : 3칸
- 형옥(刑獄)

**창고(倉庫)**

- 읍창(邑倉) : 16칸이다.

**물산(物産)**

무쇠(水鐵) · 벌꿀(蜂蜜) · 시초(柴草) · 복령(茯苓) · 지황(地黃) · 안식향(安息香) · 더덕(沙蔘) · 도라지(桔梗) · 대추

**사찰(寺刹)**

- 웅암사(熊岩寺) : 구룡산(九龍山)에 있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 묘암사(妙岩寺) : 목감산(牧監山)에 있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 마전사(麻田寺) : 노성산(老城山)에 있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 은선암(隱仙菴) : 고을 서쪽 목령산(墨嶺山)에 있다. 기묘(己卯)82)년에 창건하였다.

**고적(古蹟)**

- 호점산성(虎岾山城) :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5천1백48척이고 높이는 8척이며 성안에 우물 3개가 있다.
- 매곡산성(昧谷山城) :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1천1백52척이고 높이는 8척이다.

---

82) 英祖 35년(1759) 己卯임

### 인물(人物)

#### ○ 고려(高麗)

○공직(龔直) : 용맹과 지략(智略)이 있었다. 신라말(新羅末)에 매곡현(昧谷縣)의 장군이 되어 견훤(甄萱)을 섬기다가 견훤의 무도(無道)한 것을 보고 아들 영서(英舒)와 함께 태조(太祖)에게 왔다. 태조가 대상(大相)을 제수하고 벼슬이 좌승(左丞)에 이르렀다. 시호를 봉의(奉義)라 했다.

○공직달(龔直達) : 직(直)의 아들이다. 아우 금서(金舒)와 함께 후백제에 인질로 잡혀 갔는데 직(直)이 태조(太祖)에게 붙자 견훤이 죽었다.

#### ○ 조선(朝鮮)<sup>83)</sup>

○홍윤성(洪允成) : 문종(文宗) 때 급제(及第)하였다. 세조(世祖)를 도와 정난(靖難) · 좌익(佐翼) 공신(功臣)이 되고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에 봉해지고 벼슬이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 시호는 위평(威平)이다.

○이우(李祐) : 효행(孝行)으로 정문을 세웠다.

○지성동(池性東) : 병자(丙子)<sup>84)</sup>년에 효행(孝行)으로 복호(復戶)<sup>85)</sup>를 주었다.

### 전결(田結)

○밭 : 원장(元帳)에는 9백87결34복7속인데 진이(陣頃) 6백64결18복3속을 제하면 기묘(己卯)년 기준으로 3백23결16복4속이다.

○논 : 원장(元帳)에는 1백60결53복4속인데 진이(陣頃) 92결92복1속을 제하면 기묘(己卯)년 기준으로 73결61복3속이다.

### 진공(進貢)

○2월령(二月令) : 벌꿀(淸蜜) 2되

○3월령(三月令) : 모향(茅香) 8근6냥 · 전호(前胡) 1근5냥 · 도라지(桔梗) 9냥 · 진규(眞奎) 10냥 · 백급(白芨) 2냥 · 건지황(乾地黃) 2냥

83) 원문에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84) 英祖 32년(1756) 병자임

85) 부역과 조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

- 7월령(七月令) : 안식향(安息香) 1근5냥 · 백급(白芨) 2냥 4전 · 태수(胎水) 1홉 · 꿀벌(淸蜜) 2되
- 10월령(十月令) : 대추(大棗) 1말5되 · 전호(前胡) 14냥 · 산약(山藥) 5냥8전 · 유지(油紙) 1장
- 진하진상(陳賀進上) : 대추(大棗) 2말2되 · 말린꿩(乾雉) 4마리
- 도계진상(道界進上) : 벌꿀(淸蜜) 1되 9홉 · 산꿩(活雉) 3마리

### 조적(糶糶)

- 삼창회부미(三倉會付米) : 1백 11섬 · 피각곡(皮各穀) 4백8섬
- 진곡(賑穀) : 피각곡(皮各穀) 2백섬
- 영곡미(營穀米) : 2섬 · 피각곡(皮各穀) 4백 56섬 [10월에 창고를 열고 12월에 닫는다]

### 전세(田稅)

- 무명 : 6통19필28자3치 [정월(正月)부터 수납하여 3월 보름전 5일까지 육로로 운반하여 호조(戶曹)에 상납(上納)한다.]

### 대동(大同)

- 무명 : 5통 [2월부터 수납하여 3월안 5일까지 육로로 운반하여 선혜청(宣惠廳)에 상납한다.]
- 저치미(儲峙米) : 58섬 8말

### 균세(均稅)

- 결전(結錢) : 2백 6냥
- 면세결전세(免稅結田稅) : 무명 11필
- 대동(大同) : 무명 24필 [전세(田稅)를 상납할 때 함께 균역청(均役廳)에 상납한다.]

### 봉름(奉廩)

- 일년월름미(一年月廩米) : 1백섬

-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 10섬과 유청지가미(油淸紙價米) 39섬을 합하여 1백49섬
- 아록(衙祿) : 55결인데 쌀로 9섬과 콩 5섬
- 일년잡역미(一年雜役米) : 1백 20섬

### 군병(軍兵)

- 어영군(御營軍) : 정군(正軍)31명 · 자보(資保)33명 · 상납보(上納保)42명
  - 금위군(禁衛軍) : 정군(正軍)20명 · 자보(資保)21명 · 상납보(上納保)41명
  - 기병(騎兵)과 호보(戶保) : 30명
  - 보병(步兵)과 호보(戶保) : 22명
  - 신선(新選) : 3명
  - 포보(砲保) : 6명
  - 금보(禁保) : 16명
  - 수군(水軍) : 9명
  - 편오군(編伍軍) : 초관(哨官) 2명 · 기패관(旗牌官) 3명 · 군(軍) 1백15명
- ※ 이상 잡색(雜色)까지 3백 94명이다.

## 청산현(靑山縣)

### 방리(坊里)

- 주성면(朱城面)
  - 도엽리(桃葉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90리 거리 호수(戶數)는 1백83호이고 남자는 2백93명 여자는 3백52명이다.
  - 봉황리(鳳凰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85리 거리 호수(戶數)는 51호이고 남자는 1백55명 여자는 2백94명이다.
  - 묵동리(墨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80리 거리 호수(戶數)는 99호이고 남자는 1백87명 여자는 2백87명이다.

**속현(屬縣)**

- 주성부곡(朱城部曲) : 고을 북쪽 90리 보은현(報恩縣) 북촌(北村)을 월경(越境)하여 있다. 본래는 상주(尙州)에 속하였으나 고려 공양왕(恭讓王 1390) 2년 청산현(靑山縣)에 감무(監務)를 둘 때 땅이 협소하다하여 배어 예속시켰다.

**형승(形勝)**

- 봉황대(鳳凰臺) : 북쪽 90리 주성면(朱城面)에 있다. 바위가 층수를 이루웠고 아래는 깊은 웅덩이가 있다.

**성씨(姓氏)**

- 주성(朱城) : 홍(洪) 방(方) · [촌성] 김(金) [속성]

**창고(倉庫)**

- 외주성창(外朱城倉) : 8칸





#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 『忠淸道邑誌』는 憲宗 초기에 편찬된 것인데 『東國輿地勝覽』과 『輿地圖書』를 증보한 것으로 現存 最古의 邑誌로서 高宗代 以前의 忠淸道 各邑의 地方史를 비롯한 各種 資料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總 51冊으로 懷仁縣은 14冊에 報恩郡은 17冊에 靑山縣은 20冊에 실려 있고 『報恩邑誌』는 戶口調査가 丙午帳籍(1786年)을 基準으로 하였으며 邑號가 報恩郡으로 되어 있다.

報恩縣이 1806年 純祖大王 胎室을 俗離山에 奉安한 후 報恩郡으로 昇格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純祖~憲宗 年間に 作成된 것으로 보인다.

### 보은군 (報恩郡)

○동쪽으로 경상도(慶尙道) 상주목(尙州牧) 경계까지 40리, 서쪽으로 회인현(懷仁縣) 경계까지 25리, 남쪽으로 청산현(淸山縣) 경계까지 25리이고 북쪽으로 청주목(淸州牧) 경계까지 30리이고 북쪽의 서울까지는 3백60리로 5일간 일정이고 서쪽의 감영(監營)은 1백 40리로 2일 일정이고 서북쪽 병영(兵營)은 80리로 하루 걸리고 서쪽의 수영(水營)까지 거리는 3백리로 4일 일정이다.

### 진관(鎭管)

청주(淸州)이다

## 방리(坊里)

### ○동쪽 사각면(思覺面)

광석리(廣石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 5리로 호수(戶數)는 32호, 남자는 59명 여자는 38명이다.

길상리(吉祥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 10리로 호수(戶數)는 27호, 남자는 62명 여자는 65명이다.

구인리(求仁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 10리로 호수(戶數)는 36호, 남자는 56명 여자는 67명이다.

신동리(新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호수는 27호, 남자(男子)는 45명 여자(女子)는 28명이다.

평각리(坪角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호수는 44호, 남자(男子)는 61명 여자(女子)는 68명이다.

나부리(羅浮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호수는 20호, 남자(男子)는 45명 여자(女子)는 53명이다.

매화리(梅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호수는 27호, 남자(男子)는 32명 여자(女子)는 36명이다.

용평리(龍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호수는 26호, 남자(男子)는 43명 여자(女子)는 31명이다.

사직리(社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호수는 22호, 남자(男子)는 58명 여자(女子)는 40명이다.

고승리(高升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7리 호수는 46호, 남자(男子)는 72명 여자(女子)는 69명이다.

어암리(漁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호수는 18호, 남자(男子)는 45명 여자(女子)는 32명이다.

용천리(龍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리 호수는 38호, 남자(男子)는 60명 여자(女子)는 45명이다.

만지리(晩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호수는 17호, 남자(男子)는 46명 여자(女子)는 29명이다.

탁동리(濯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호수는 17호, 남자(男子)는 39명  
여자(女子)는 34명이다.

상하이평리(上下梨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리 호수는 24호, 남자(男子)  
는 54명 여자(女子)는 61명이다.

○속리면(俗離面)

사비랑리(沙比郎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호수는 58호, 남자(男子)는  
72명 여자(女子)는 69명이다.

애평리(艾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호수는 35호, 남자(男子)는 52명  
여자(女子)는 41명이다.

황곡리(荒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호수는 42호, 남자(男子)는 63명  
여자(女子)는 59명이다.

장내리(帳內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호수는 46호, 남자(男子)는 65명  
여자(女子)는 57명이다.

서원리(書院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호수는 32호, 남자(男子)는 29명  
여자(女子)는 51명이다.

삼거리(三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호수는 25호, 남자(男子)는 42명  
여자(女子)는 50명이다.

사내동리(舍乃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호수는 31호, 남자(男子)는  
69명 여자(女子)는 52명이다.

상하중판근리(上下中板斤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호수는 69호, 남자  
(男子)는 69명 여자(女子)는 87명이다.

북암리(北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호수는 29호, 남자(男子)는 45명  
여자(女子)는 49명이다.

백고개리(栢古介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호수는 13호, 남자(男子)는  
37명 여자(女子)는 24명이다.

오심리(悟心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호수는 23호, 남자(男子)는 42명  
여자(女子)는 41명이다.

○왕래면(旺來面)

임곡리(壬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호수는 31호, 남자(男子)는 52명  
여자(女子)는 59명이다.

적암리(赤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호수는 43호, 남자(男子)는 72명  
여자(女子)는 65명이다.

갈벌리(袞伐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호수는 55호, 남자(男子)는 45명  
여자(女子)는 63명이다.

송현리(松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호수는 37호, 남자(男子)는 50명  
여자(女子)는 59명이다.

사여리(士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호수는 31호, 남자(男子)는 58명  
여자(女子)는 23명이다.

관기리(館基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호수는 37호, 남자(男子)는 47명  
여자(女子)는 37명이다.

삼거리(三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5리 호수는 14호, 남자(男子)는 20  
명 여자(女子)는 19명이다.

수문리(水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호수는 18호, 남자(男子)는 31명  
여자(女子)는 15명이다.

방하곡리(方下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호수가 39호, 남자(男子)는  
47명 여자(女子)는 51명이다.

임한리(林閑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호수는 29호, 남자(男子)는 42명  
여자(女子)는 25명이다.

○탄부면(炭釜面)

소여리(所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호수가 79호, 남자(男子)는 1백  
17명 여자(女子)는 1백9명이다.

기대리(其大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30리 호수는 69호, 남자(男子)는 1백  
3명 여자(女子)는 79명이다.

관리(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5리 호수는 56호, 남자(男子)는 85명 여자(女子)는 74명이다.

장산리(長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5리 호수는 51호, 남자(男子)는 94명 여자(女子)는 85명이다.

벽지리(碧池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호수는 52호, 남자(男子)는 59명 여자(女子)는 59명이다.

장암리(壯巖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호수는 53호, 남자(男子)는 45명 여자(女子)는 57명이다.

경상리(京祥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호수는 54호, 남자(男子)는 68명 여자(女子)는 50명이다.

#### ○마로면(馬老面)

한중리(閑中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40리 호수는 28호, 남자(男子)는 42명 여자(女子)는 35명이다.

흘여지리(屹汝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40리 호수는 27호, 남자(男子)는 45명 여자(女子)는 40명이다.

세동리(細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5리 호수는 27호, 남자(男子)는 49명 여자(女子)는 50명이다.

변둔리(卞屯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호수는 27호, 남자(男子)는 41명 여자(女子)는 39명이다.

증산리(甑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호수는 25호, 남자(男子)는 22명 여자(女子)는 35명이다.

갈전리(葛田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호수는 27호, 남자(男子)는 35명 여자(女子)는 66명이다.

내동리(內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호수는 16호, 남자(男子)는 35명 여자(女子)는 33명이다.

세중리(細中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호수는 26호, 남자(男子)는 31명 여자(女子)는 15명이다.

모동리(牟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호수는 21호, 남자(男子)는 42명 여자(女子)는 59명이다.

오천리(梧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5리 호수는 55호, 남자(男子)는 65명 여자(女子)는 73명이다.

대양리(大陽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호수는 41호, 남자(男子)는 63명 여자(女子)는 45명이다.

성지리(城池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호수는 41호, 남자(男子)는 55명 여자(女子)는 67명이다.

○삼승면(三升面)

각동리(角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호수는 49호, 남자(男子)는 69명 여자(女子)는 64명이다.

삼승리(三升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호수는 33호, 남자(男子)는 51명 여자(女子)는 35명이다.

석남리(石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호수는 45호, 남자(男子)는 65명 여자(女子)는 67명이다.

내망월리(內望月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30리 호수는 34호, 남자(男子)는 45명 여자(女子)는 49명이다.

원암리(元巖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5리 호수는 91호, 남자(男子)는 1백 35명 여자(女子)는 1백 50명이다.

온야리(溫夜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5리 호수는 38호, 남자(男子)는 52명 여자(女子)는 55명이다.

서원리(西原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호수는 32호, 남자(男子)는 59명 여자(女子)는 73명이다.

탄금대리(彈琴臺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호수는 28호, 남자(男子)는 53명 여자(女子)는 63명이다.

달산리(達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호수는 29호, 남자(男子)는 45명 여자(女子)는 46명이다.



## ○서니면(西尼面)

송죽리(松竹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호수는 25호, 남자(男子)는 42명  
여자(女子)는 41명이다.

황토리(黃土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호수는 34호, 남자(男子)는 57명  
여자(女子)는 61명이다.

서니동서변리(西尼東西邊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호수는 81호, 남자  
(男子)는 1백32명 여자(女子)는 1백50명이다.

사각리(思覺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호수는 31호, 남자(男子)는 35명  
여자(女子)는 28명이다.

상하둔덕리(上下屯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호수는 27호, 남자(男子)  
는 33명 여자(女子)는 35명이다.

등산암리(登山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호수는 25호, 남자(男子)는  
34명 여자(女子)는 48명이다.

유항리(柳項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호수는 28호, 남자(男子)는 35명  
여자(女子)는 14명이다.

상하천곡리(上下泉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호수는 25호, 남자(男子)  
는 33명 여자(女子)는 28명이다.

금굴리(金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호수는 25호, 남자(男子)는 56명  
여자(女子)는 77명이다.

두지동리(斗芝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호수는 13호, 남자(男子)는 27  
명 여자(女子)는 28명이다.

은사평리(隱士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호수는 28호, 남자(男子)는 41  
명 여자(女子)는 50명이다.

내외수정리(內外水井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3리 호수는 19호, 남자(男子)  
는 50명 여자(女子)는 60명이다.

잠곡리(蠶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리 호수는 27호, 남자(男子)는 51명  
여자(女子)는 52명이다.

○수한면(水汗面)

은로리(隱路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 호수는 26호, 남자(男子)는 38명  
여자(女子)는 42명이다.

평포동리(坪浦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호수는 39호, 남자(男子)는  
62명 여자(女子)는 51명이다.

오정리(梧亭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호수는 32호, 남자(男子)는 55명  
여자(女子)는 59명이다.

마문리(馬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 호수는 36호, 남자(男子)는 71명  
여자(女子)는 69명이다.

장선리(長先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 호수는 32호, 남자(男子)는 55명  
여자(女子)는 50명이다.

질곶리(秩串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 호수는 51호, 남자(男子)는 93명  
여자(女子)는 90명이다.

어이광리(於二光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 호수는 24호, 남자(男子)는  
25명 여자(女子)는 40명이다.

거현리(巨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 호수는 22호, 남자(男子)는 45명  
여자(女子)는 51명이다.

수한리(水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호수는 30호, 남자(男子)는 88명  
여자(女子)는 82명이다.

묘동리(畝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호수는 35호, 남자(男子)는 53명  
여자(女子)는 55명이다.

말곶리(末串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7리 호수는 28호, 남자(男子)는 45명  
여자(女子)는 41명이다.

성리(星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5리 호수는 16호, 남자(男子)는 25명 여자  
(女子)는 31명이다.

발산리(鉢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3리 호수는 18호, 남자(男子)는 32명  
여자(女子)는 40명이다.

거묵동리(巨墨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5리 호수는 35호, 남자(男子)는 50

명 여자(女子)는 55명이다.

병원리(並院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5리 호수는 50호, 남자(男子)는 72명  
여자(女子)는 75명이다.

후평리(後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3리 호수는 15호, 남자(男子)는 33명  
여자(女子)는 47명이다.

○내북면(內北面)

천산리(天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호수는 16호, 남자(男子)는 32명  
여자(女子)는 35명이다.

중티리(中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호수는 18호, 남자(男子)는 32명  
여자(女子)는 40명이다.

탕동리(湯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호수는 23호, 남자(男子)는 41명  
여자(女子)는 50명이다.

삽영리(插嶺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 호수는 25호, 남자(男子)는 32명  
여자(女子)는 35명이다.

궁평리(宮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 호수는 45호, 남자(男子)는 61명  
여자(女子)는 70명이다.

이원리(泥院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호수는 21호, 남자(男子)는 43명  
여자(女子)는 40명이다.

서지리(西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호수는 21호, 남자(男子)는 35명  
여자(女子)는 30명이다.

구이목리(九二目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호수는 43호, 남자(男子)는  
61명 여자(女子)는 50명이다.

상중하초계리(上中下草芥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호수는 86호, 남자  
(男子)는 1백35명 여자(女子)는 1백49명이다.

노티리(老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5리 호수는 34호, 남자(男子)는 50명  
여자(女子)는 60명이다.

사막리(舍幕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3리 호수는 53호, 남자(男子)는 85명

여자(女子)는 1백명이다.

수남리(水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7리 호수는 35호, 남자(男子)는 67명  
여자(女子)는 49명이다.

내동리(內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7리 호수는 27호, 남자(男子)는 50명  
여자(女子)는 33명이다.

사내동리(舍內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리 호수는 37호, 남자(男子)는 65  
명 여자(女子)는 59명이다.

교동리(校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리 호수는 36호, 남자(男子)는 40명  
여자(女子)는 45명이다.

읍내서변리(邑內西邊里) : 호수는 1백47호, 남자(男子)는 2백50명 여자(女子)는 2백85  
명이다.

○외북면(外北面)

어온동리(於溫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5리 호수는 52호, 남자(男子)는  
57명 여자(女子)는 69명이다.

오대리(五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호수는 30호, 남자(男子)는 69명  
여자(女子)는 67명이다.

원평리(元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호수는 51호, 남자(男子)는 79명  
여자(女子)는 88명이다.

장갑리(長甲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호수는 57호, 남자(男子)는 94명  
여자(女子)는 1백4명이다.

백석리(白石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 호수는 34호, 남자(男子)는 63명  
여자(女子)는 75명이다.

동하목리(東下目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 호수는 55호, 남자(男子)는  
84명 여자(女子)는 1백1명이다.

문암리(文巖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호수는 38호, 남자(男子)는 55명  
여자(女子)는 59명이다.

신곡리(新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호수는 67호, 남자(男子)는 93명

여자(女子)는 1백20명이다.

운천리(雲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호수는 32호, 남자(男子)는 57명  
여자(女子)는 53명이다.

울지리(栗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호수는 36호, 남자(男子)는 45명  
여자(女子)는 60명이다.

함림리(含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호수는 71호, 남자(男子)는 1백  
20명 여자(女子)는 1백30명이다.

종곡동서변리(鍾谷東西邊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호수는 92호, 남자  
(男子)는 1백51명 여자(女子)는 1백65명이다.

안양리(安良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7리 호수는 24호, 남자(男子)는 45명  
여자(女子)는 50명이다.

와평리(瓦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호수는 23호, 남자(男子)는 25명  
여자(女子)는 50명이다.

산직리(山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리 호수는 46호, 남자(男子)는 68명  
여자(女子)는 75명이다.

동한리(東閑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리 호수는 31호, 남자(男子)는 48명  
여자(女子)는 50명이다.

읍내동변리(邑內東邊里) : 호수는 90호, 남자(男子)는 1백50명 여자(女子)는 1백20명이다.

※ 이상 원호수(元戶數)는 4천7백54호이고 인구(人口)는 남녀합계 1만4천7백92명으로  
남자가 7천3백70명, 여자가 7천4백22명이다. [병오(丙午)년 장적(帳籍) 기준이다.]

## 도로 (道路)

○동쪽으로 사기막(沙器幕)큰길이 있는데 관문(官門)에서 40리로 상주목(尙州牧) 경계로  
가는 길이다.

○서쪽으로 추티(楸峙)큰길이 있는데 관문(官門)에서 15리 거리로 회인현(懷仁縣) 경계로  
가는 길이다.

○남쪽으로 원암(元岩)큰길이 있는데 관문(官門)에서 30리 거리로 청산현(靑山縣) 경계로  
가는 길이다.

- 북쪽으로 원평(元坪)큰길이 있는데 관문(官門)에서 30리 거리로 청주목(淸州牧) 경계로 가는 길이다.
- 동북쪽으로 속리산(俗離山)가는길이 있는데 관문(官門)에서 30리 거리로 북쪽 원평(元坪)길에서 속리산(俗離山)으로 직통(直通)하는 길로 그 사이가 30리이다.
- 서남쪽으로 문티(文時)길이 있는데 관문(官門)에서 20리로 옥천군(沃川郡)경계로 가는 길이다
- 동남쪽으로 구암(龜岩)큰길이 있는데 관문(官門)에서 40리로 상주목(尙州牧)경계로 가는 길이며 옥천(沃川)둔치(屯峙)큰길에서 원암(元巖), 관기(館基)를 지나 상주목(尙州牧) 경계로 직통(直通)하는 길로 그 사이가 30리이다.
- 서북쪽으로 연티(燕時)길이 있는데 관문(官門)에서 20리로 청산현(靑山縣)주성(酒城)경계로 가는 길이다.

### 건치연역(建置沿革)

본래 신라(新羅)의 삼년산(三年山)인데 경덕왕(景德王) 때 삼년(三年)으로 고쳤으며 고려(高麗) 때 보령(保齡)[晦이 뒤에 슈으로 바뀌었다.]으로 고쳤다. 현종(顯宗) 9년(1018)에 상주(尙州)에 예속되었다가 명종(明宗 1172) 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朝鮮)<sup>86)</sup> 태종(太宗 1406) 6년에 보령현(保寧縣)과 음(音)이 비슷하다 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현감(縣監)을 두었다. 13년(1413)에 경상도(慶尙道)로부터 충청도(忠淸道)<sup>87)</sup>에 귀속하였다.

### 관원(官員)

○현감(縣監)·훈도(訓導) 각 1인이었으나 훈도(訓導)는 지금은 폐지 하였다.

### 군명(郡名)

삼년산(三年山)·보령((保齡)·삼산(三山)·보령(保令)

86) 원문에는 本朝로 되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87) 원문에는 來隸本으로 되어있으나 충청도로 고쳤다.

## 관직 (官職)

○군수(郡守) : 음관(蔭官) 4품(品)이다.[그아래 좌수(座首)1인, 별감(別監)2인 · 군관(軍官)20인, 아전(衙前)35인, 지인(知印)25인, 사령(使令)27명, 관노(官奴)15명, 관비(官婢)12명을 두었다.

## 산천 (山川)

○속리산(俗離山) : 고을 동쪽 30리에 있으며 동북쪽 문경(聞慶) 화산(華山)에서 뻗어와 형국(形局)이 모두 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보은(報恩)의 주맥(主脉)이었다. 물의 근원은 다른 곳에서 흘러오는 것이 없고 경내(境內)의 물이 모여 고을 동남간을 거쳐 청산현(靑山縣)을 지나 금강(錦江)으로 들어간다. 속리산은 아홉 개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어 구봉산(九峯山)이라 부르기도 하며 신라 때는 속리악(俗離岳)이라 부르고 중사(中祀)를 올렸다. 산마루에는 문장대(文藏臺)가 있는데 겹겹이 쌓인 돌이 천연으로 이루어져 높게 공중에 솟았고 그 높이가 몇 길인지 알지 못한다. 그 넓이는 사람 3천명이 앉을만 하고 대(臺)위에는 구덩이가 있는데 마치 가마솥 같고 그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가물어도 줄지 않고 비가와도 불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세줄기로 나뉘어서 반공(半空)으로 쏟아져 내리는데 한줄기는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洛東江)이 되고, 한줄기는 남쪽으로 흘러 금강(錦江)이 되고 한줄기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북쪽으로 흐르면서 달천(達川)이 되어 금천(金遷)으로 들어간다. 산아래에 팔교(八橋)와 구요(九遙)가 있는데 산 양쪽의 언덕이 빙빙 둘러 있다가 확 넓어져서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보면 멀고 멀어서 마치 땅이 끝인 것처럼 의심스럽다가 거기까지 가서 바라보면 또 멀고 멀어서 이렇게 하기를 아홉 번 반복하여 비로소 법주사(法住寺)에 도착하는 고로 이름을 9요(遙)라 한다. 9요속에 한 줄기 물이 돌고 돌아 구비처 흐르는데 한 구비마다 다리가 있어 모두 여덟이기 때문에 8교(橋)라 했다. 맨 첫 다리가 수정교(水精橋)로 다리위에 비각(飛閣)이 있어 사람들이 이 각(閣) 속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각은 무너지고 다리만 남아 있다.

신여(信如)라는 중이 다리 위에서 시(詩)를 쓰기를

“삼청동(三清洞)에 아홉겹 요(遙)가 있고,

한 줄기 시냇물에 여덟다리 있네

다리 아래 물 맑은데 붉은 것이 푸른 빛을 시기하니  
산에 가득한 단풍잎 소나무 가지에 의지해 있네” 하였다.

- 함림산(含林山) : 고을 동산리(東山里)에 있다.
- 구봉산(九峯山) : 고을 동쪽 40리에 있다.
- 사산(蛇山)·와산(蛙山)·저산(猪山) : 고을 안에 있다.
- 금적산(金積山) : 고을 안 25리에 있다.
- 검단산(儉丹山) : 고을 북쪽 37리 청주목(淸州牧) 경계에 있으며 백제(百濟)의 중 검단(儉丹)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오정산(烏頂山) : 고을 동쪽 5리에 있다.
- 웅현(熊峴) : 고을 북쪽 27리에 있다.
- 차의현(車衣峴) : 고을 서쪽 15리 회인현(懷仁縣) 경계에 있다.
- 용천(龍川) : 고을 동쪽 2리에 있다.
- 병풍연(屏風淵) : 속리산(俗離山) 아래에 있는데 고을 동쪽 25리이다.

**성씨 (姓氏)**

- 보은(報恩)<sup>88)</sup> : 김(金)·이(李)·손(孫)·박(朴)·최(崔)·송(宋)·한(韓)[모두  
래성(來姓) 이다.]
- 임언(林堰) : 홍(洪)·석(石)·방(方)[촌성(村姓)]

**풍속 (風俗)**

문학(文學)을 높이 숭상하고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다.

**단묘 (壇廟)**

- 사직단(社稷壇) : 고을 서쪽에 있다.
- 문묘(文廟) : 고을 북쪽 향교(鄕校)에 있다.

88) 원문에는 구분이 없으나 편의 상 구분하였다.



○여단(厲壇) : 고을 북쪽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 고을 남쪽 2리에 있다.

○상현서원(象賢書院) : 고을 동쪽 25리에 있다.

※문간공김정(文簡公金淨) : 자(字)는 원충(元冲)으로 고을 출신이다. 중종(中宗) 때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냈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贈職)된 기묘명현(己卯名賢)<sup>89)</sup>이다.

※대곡성운(大谷成運) : 자(字)는 건숙(健叔)으로 고을 대곡(大谷)에 숨어 살았다. 선조(宣祖) 때 사재감정(司宰監正)을 지냈고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경경연참찬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에 증직(贈職)된 을사명현(乙巳名賢)<sup>90)</sup>이다. 만력(萬曆) 38(1610)년 경술(庚戌)에 사액(賜額)을 받았다.

※동주성제원(東洲成悌元) : 자(字)는 자경(子敬)으로 가정(嘉靖) 계축(癸丑 1553)에 고을에 와서 학문을 배울것을 밝혔다. 명종(明宗) 때 보은현감(報恩縣監)을 지냈다.

※문열공중봉조헌(文烈公重峯趙憲) : 자(字)는 여식(汝式)으로 만력(萬曆) 임오(壬午 1582)에 고을에 와서 학문을 크게 일으켰다. 선조(宣祖) 때 보은현감(報恩縣監) · 공주제독(公州提督)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을 지냈다. 자헌대부이조판서홍문관대제학지경연춘추관성균관의금부세자대빈객(資憲大夫吏曹判書弘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義禁府世子大賓客)에 추증(追贈)되었다. 명(明)나라가 망한 후 신유(辛酉) 12월 조선(朝鮮)<sup>91)</sup> 숙종대왕(肅宗大王 1681) 7년에 추향(追享)되었다.

※문정공우암송시열(文正公尤菴宋時烈) : 자(字)는 영보(英甫)로 병자호란(丙子胡亂)<sup>92)</sup> 때 고을에 와서 살았다. 현종(顯宗) 때 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좌의정경영경연감춘추관관상감사세자부(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sup>93)</sup>兼領經筵監春秋館觀象監事世子傅)로 치사(致仕)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영조(英祖)<sup>94)</sup> 때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하였다. 승정재을해(崇禎再乙亥) 2월 조선(朝鮮)<sup>95)</sup> 숙종대왕(肅宗大王 1695) 10년에 추향(追享)하였다.

89) 己卯土禍 때 화를 입은 선비

90) 乙巳土禍로 화를 당한 선비

91) 원문의 我朝를 朝鮮으로 고쳤다.

92) 원문의 丙丁은 丙子 丁丑 년을 말하는 것으로 병자호란 임

93) 원문에 議政府兼云云은 좌의정이 누락되었으므로 삽입하였다.

94) 원문의 英宗朝는 英祖를 말함

95) 원문의 我朝를 朝鮮으로 고쳤음

### 공해(公廡)

- 객사벽대청(客舍壁大廳) : 3칸전후퇴
- 동상실(東上室) : 4칸전후퇴
- 서상실(西上室) : 4칸전후퇴
- 중문(中門) : 3칸
- 외삼문(外三門) : 3칸
- 내동헌(內東軒) : 12칸전후퇴
- 외동헌(外東軒) : 6칸전후퇴
- 아사(衙舍) : 33칸
- 향청(鄉廳) : 12칸
- 무학당(武學堂) : 7칸
- 작대청(作隊廳) : 4칸
- 현사(縣司) : 3칸
- 군관청(軍官廳) : 5칸
- 아전청(衙前廳) : 16칸
- 지인청(知印廳) : 3칸
- 사령청(使令廳) : 3칸
- 관노청(官奴廳) : 4칸

### 제언(堤堰)

- 둔덕제언(屯德堤堰) : 고을 남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3백14척, 독의 길이 1백35척, 깊이는 4척이다.
- 신둔제언(薪屯堤堰) : 고을 남쪽 20리에 있다. 둘레는 4백16척, 독의 길이 1백16척, 깊이는 7척이다.
- 달산제언(達山堤堰) : 고을 남쪽 20리에 있다. 둘레는 4백27척, 독의 길이 1백67척, 깊이는 7척이다.
- 망월제언(望月堤堰) : 고을 남쪽 35리에 있다. 둘레는 2백40척, 독의 길이 1백40척, 깊이는 4척이다.

○신동제언(新洞堤堰) : 고을 동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3백15척, 독의 길이 1백15척, 깊이는 5척이다.

### 창고(倉庫)

- 읍창(邑倉) : 45칸
- 좌기청(坐起廳) : 6칸
- 문간(門間) : 2칸
- 저치고(儲置庫) : 3칸
- 관수고(官需庫) : 3칸

### 물산(物産)

송이버섯(松蕈) · 무쇠(水鐵) · 벌꿀(蜂蜜) · 잣(海松子) · 영양(羚羊) · 안식향(安息香)  
· 지황(地黃) · 웅담(熊膽) · 석이버섯(石蕈) · 대추(大棗) · 더덕(沙蔘) · 도라지(桔梗)

### 역원(驛院)

- 함림역(含林驛) : 고을 7리에 있다. 대마(大馬) 2마리, 기마(騎馬) 2마리 복마(卜馬) 5마리를 두었고 역리(驛吏) 30명, 노(奴) 40명이 근무한다.
- 원암역(元巖驛) : 고을 남쪽 30리에 있다. 대마(大馬) 1마리, 기마(騎馬) 4마리, 복마(卜馬) 5마리를 두었고 역리(驛吏) 30명, 노(奴) 15명이 근무하며 울봉찰방(栗峯察訪) 소속이다.

### 목장(牧場)

분양마(分養馬) 1마리를 8월에 받아와서 4월에 사복시(司僕寺)에 상납(上納)한다.

### 사찰(寺刹)

- 속리사(俗離寺) : 고을 동쪽 30리에 있는데 속리산(俗離山) 서쪽에 있다.

※김구용(金九容)의 시(詩)가 있다.

“달마암(達磨岩)가에 등불 하나 밝았는데  
문열고 향피우니 마음 다시 맑아라  
혼자 깊은 밤에 앉아 잠 못이루니  
창 앞에 흐르는 물 슬바람 소리와 섞어 들리네” 하였다.

○법주사(法住寺) : 속리산(俗離山)에 있는데 세상에 전해오기를 신라의 중 의신(義信)이 흰노새에 불경을 실고 와서 이 절을 세웠고 성덕왕(聖德王)이 중수(重修) 하였는데 석조(石槽)와 석교(石橋) · 석옹(石瓮) · 석확(石鑊)이 있으며 절 안 산호전(珊瑚殿)에 금신장육상(金身丈六像)<sup>96)</sup>이 있으며 문 앞에는 구리로 부어 만든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있는데 몹시 높고 그 한쪽에 통화(統和) 24년(1006)에 세웠다고 새겨있다. 또 고려 밀직대언(密直代言) 이숙기(李叔琪)가 지은 중 자정(慈淨)의 비명(碑銘)이 있다.

※박효수(朴孝修)의 시(詩)가 있다.

“높다란 사면 푸른 연꽃같은 봉우리  
장갑(長岬)의 신령스런 근원 몇 겹인고  
문장대(文藏臺)는 천고(千古)의 이끼그대로 있고  
우타굴(于陀窟) 그늘 만 그루 소나무세  
용이 탐속으로 들어가니 진골(眞骨)이 남았고  
나귀가 바위앞에 누웠으니 성종(聖蹤)을 찾네  
길이 삼한(三韓)을 복되게 하는건 누가 주인인가  
산호전(珊瑚殿)에 자금용(紫金龍)<sup>97)</sup>일세” 하였다.

※함부림(咸傅霖)의 시(詩)는

“계원(鷄園)<sup>98)</sup>의 한가로운 일월(日月)이요

96) 佛像인

97) 부처의 몸빛이 자금색이다.

98) 인도(印度)에 있는 절 이름

안탑(雁塔)<sup>99</sup>에 구름과 연기 자욱하네  
우연히 삼청동(三清洞)에 들렀더니  
세상일 시끄러운 것 모두 잊었네” 하였다.

○북천사(福泉寺) : 법주사 동쪽 7리쯤에 있다. 절 동쪽에 샘물이 있어 돌 틈으로 쏟아져 나와 식수(食水)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천순(天順) 갑신년(甲申年 1464)에 우리 세조대왕(世祖大王)이 속리산에 거동할 때 병풍연(屏風淵)에 머물다가 이튿날 법주사(法住寺)로부터 이 절에 행차하여 주변의 경치를 살펴보고 수행한 대신 김수온(金守溫)에게 명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 고적(古跡)

○구암(龜巖) : 법주사(法住寺)의 서쪽 봉우리에 거북바위가 있는데 천연으로 하늘이 만 든 것 같아 등 위에는 사람 3천명이 앉을 수 있고 그 머리가 묘하게도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전해오는 말에 중원(中原) 술사(術士)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중원(中原)<sup>100</sup>의 재물과 비단이 날마다 동쪽으로 넘어 오는 것을 무슨 까닭인지 몰랐더니 이제 알고보니 이 물건이었구나” 하고 그 머리를 자르게 하였다 한다.

○마현박석(馬峴薄石) : 고을 동쪽 15리에 있다. 고개위에 넓고 얇게 뜬 돌로 3~4리를 깔아 놓았는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고려 태조가 일찍이 속리산에 거동할 때 닦은 어로(御路)라 한다.

### 성지(城池)

○오정산성(烏頂山城) : 고을 동쪽 5리에 있으니 즉 삼년산성(三年山城)이다. 쌓은지 3년 만에 완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3천6백99척이고 높이는 18척이다. 성안에 우물이 5개 있는데 지금은 반은 무너졌다.

99) 인도 왕사성(王舍城)에 안탑이 있는데 중들이 기러기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희롱하는 말로 “우리들이 배가 고프니 보살(菩薩)이 기러기를 가르킨 말은 몸으로 포시(布施)하시오” 하였더니 기러기가 스스로 죽어서 떨어졌다 중들이 감동되어 기러기의 탑을 세웠다 한다.

100) 中國을 말함

고려태조(太祖 927) 11년에 태조가 스스로 장군이 되어 이 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청주(淸州)로 거둥하였다.

산 아래 군장동(軍藏洞)이 있으니 세상에 전해오기를 “태조가 군대를 주둔 시켰던 곳”이라 한다.

○함림산성(含林山城) : 고을 북쪽 10리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1천4백88척이고 성 안에 큰 못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은 무너졌다.

### 인물우거(人物寓居)

#### ◎ 고려 (高麗)

○한유문(韓有文) : 우리 태종(太宗)과 같은 해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벼슬이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이르렀다.

○김타(金沱) : 과거에 두 번 급제하여 여러 번 청백(淸白)한 요직을 지냈으며 벼슬이 청주목사(淸州牧使)에 이르렀다.

#### ◎ 효자 조선(孝子 朝鮮)<sup>101)</sup>

○막동(莫同) : 사천(私賤)이다. 자기 집에 불이 나서 어머니와 딸이 모두 불속에 들어 있는데 막동(莫同)이 급히 들어가 어머니를 업고 나오면서 딸은 죽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어머니 살린 것을 기쁘게 여겼다. 영조(英祖 1734)<sup>102)</sup> 10년<sup>103)</sup> 정문을 세웠다.

○이창경(李昌慶) · 이원경(李元慶) · 이명경(李鳴慶) 삼형제 :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12세손(世孫)이고 눌헌(訥軒) 이사균(李思鈞)의 6세손으로 사인(士人) 이환(李換)의 세 아들이다. 현종(顯宗)<sup>104)</sup> 을사년(乙巳年 1665)에 명화적(明火賊)들이 달려들어 아버지를 해치려 할 때 세 아들이 함께 있었으나 어린 나이로 큰 아들 창경(昌慶)은 23세이고 둘째 아들 원경(元慶)은 17세, 막내아들 명경(鳴慶)은 15세로 곁에서 글을 읽고 있다가 도적이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들자 세 아들이 함께 몸을 날려 아버지를

101) 원문에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02) 원문에 英宗朝로 되어있으나 英祖로 고쳤다.

103) 莫同의 旌閭는 東國輿地勝覽에 今上十四年으로 기록하여 中宗14년(1519)임을 기록하고있어 년대에 착오가 있다.

104) 원문에 顯廟朝로 되어있으나 顯宗으로 고쳤다.

가로막고 죽기로서 칼날과 싸워 세 사람이 모두 전신에 칼날이 뼈까지 미쳐 유혈(流血)이 낭자하여 사경(死境)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으나 개의치 않고 “차라리 우리를 죽일망정 우리 아버지는 해치지 말라” 하니 도적들이 감동하여 서로 하는 말이 “만약 이런 사람을 해치면 우리들은 재앙을 받는다” 하며 그 아버지를 놓아두고 살림만 챙겨 갔고 그 아버지는 한 곳도 상처를 입지 않고 무사하였다.

이듬해 병오(丙午 1666)에 특명으로 정문을 세우도록 하고 벼슬자리를 주도록 하였으나 큰 아들 창경과 막내 명경은 일찍 죽었으므로 숙종(肅宗)<sup>105</sup>때 모두 좌랑(佐郎)으로 추증(追贈)하고 원경은 벼슬을 주어 현감(縣監)에 이르렀다. 삼형제의 정문현판(懸板)은 우암(尤菴) 송선생(宋先生)과 수암(遂菴) 권선생(權先生)이 앞과 뒤에 손수 써서 익재영당(益齋影堂) 앞에 세웠다.

#### ◎ 열녀(烈女)

- 김씨(金氏) :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의 형 참판(參判) 효남(孝男)의 증손녀(曾孫女)요 익재(益齋)이제현(李齊賢)의 15세손(世孫) 이영간(李榮幹)의 처(妻)다. 영조(英祖)<sup>106</sup> 병진년(丙辰年 1736)에 그의 남편 영간이 병으로 일찍 죽었으나 시부모가 계심으로 통곡을 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을 할 수 없더니 염습(殮襲)을 마치고 여러 동서들에게 말하기를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후사(後嗣)를 이을 것이요. 자손(子孫)들이 앞에 있으니 시부모를 봉양할 수 있으니 나는 마땅히 죽어 남편을 따라 갈 것이다” 하더니 이튿날 새벽 성복(成服)한 뒤 사람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소금물을 마시고 이불을 쓰고 죽었다. 영조(英祖) 정묘(丁卯 1747)에 특별히 정문을 세우도록 하니 병계(屏溪)윤봉구(尹鳳九)가 손수 현판을 쓰고 익재영당(益齋影堂)앞 시할아버지 이원경(李元慶) 삼형제 정문 오른쪽에 세웠다. 마을 앞을 지나는 이들이 공경하며 마을 이름을 삼강촌(三綱村)이라 하였다.

#### 전결(田結)<sup>107</sup>

- 밭(旱田) : 원장부(元帳付)에 3천7백94결69부2속내에서 밭을 경작(起田)한다.

105) 원문에 肅廟朝로 되어 있으나 肅宗으로 고쳤다.

106) 원문에 英宗朝로 되어있으나 英祖로 고쳤다.

107) 제목이 없으나 편의상 제목을 달았다.

○답(수전) : 원장부(元帳付)에 1천1백1결93부2속내에서 논을 경작(起畓)한다.

**진공(進貢)**

멧돼지 한 마리를 3년에 2차례 영동현(永洞縣)과 함께 하였으나 기유년(己酉年 1729)에 혁파(革罷)하였다. 약제(약제)는

- 정월령(正月令) : 벌꿀 3되, 백급(白芨) 3냥, 태수(胎水) 1흡
- 3월령(三月令) : 백출(白朮) 3냥5전, 도라지 10냥, 황백피(黃柏皮) 6냥, 전호(前胡) 9냥, 백급(白芨) 2냥, 진령(秦苓) 10냥, 모향(毛香) 8근6냥
- 6월령(六月令) : 금은화(金銀花) 3냥, 봉리궤(封裏櫃) 1좌
- 7월령(七月令) : 안식향(安息香) 1근14냥, 백급(白芨) 3냥, 태수(胎水) 2흡
- 8월령(八月令) : 대추 2말
- 9월령(九月令) : 꿀 5되
- 10월령(十月令) : 전호(前胡) 11냥, 오미자(五味子) 5냥8전, 금은화(金銀花) 1냥
- 11월령(十一月令) : 오가피(五加皮) 11냥, 위령선(威靈仙) 6냥, 연교(蓮翹) 4전
- 진하시(陣賀時) : 대추 2말, 산닭(活鷄) 6마리
- 도계시(到界時) : 백자(栢子) 6말 6되

**조적(糶糶)**

○삼창회부(三倉會付)

**전세(田稅)**

해마다 틀리다.

**대동(大同)**

해마다 틀리다.

**균세(均稅)**

○전세(田稅) : 무명 1통 24필



○결전(結錢) : 해마다 틀리다.

○선무보(善武布) : 45필

### 봉름(棒廩)

○공수위(公須位) : 55결

○잡역상정미(雜役詳定米) : 420섬

○치계시탄등잡물가(雉鷄柴炭等雜物價)는 같이 포함되었다.

○월름미(月廩米) : 240섬10말

○관수유청공사지사객지공미(官需油淸公事紙使客支供米)는 같이 포함되었다.

### 군병(軍兵)

2천1백40명중 경색목(京色目)이 1천9백25명, 수영(水營)소속이 59명, 병영(兵營)소속이 1백56명이다.

### 청주진관(淸州鎭管)

편오군병(編伍軍兵) 5백70명중 천총(千摠) 1명, 파총(把摠) 1명, 초관(哨官) 4명 기패관(旗牌官) 6명, 마병(馬兵) 89명, 보군(步軍) 4백 70명이다.

### 누정(樓亭)

객사(客舍) 북쪽에 옛날에 삼산루(三山樓)가 있었으나 세번 지나간 임진년(壬辰年)에 실화로 타버리고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다.

### 교량(橋梁)

고을 남쪽에 옛날에 석교(石橋)가 있었는데 오래되어 무너지고 지금은 목교(木橋)이고 고을 동쪽에도 목교(木橋)가 있다.

### 책판(冊板)

옛날에 성대곡집(成大谷集)과 충암집(沖菴集)이 상현서원(象賢書院)에 보관되어 있었다.

**형승(形勝)**

군의 동쪽 20리 거리에 상현서원(象賢書院)이 있으니 즉 5선생(五先生)을 제향하는 곳이다. 산형(山形)이 수절(秀絶)하고 수색(水色)이 기려(奇麗)하여 세상을 뛰어 넘는 뜻이 있다.

**봉수(烽燧)**

**진보 (鎭堡)**

————→ 없다

**능침 (陵寢)**

**관애 (關陜)**

**회인현(懷仁縣)**

**진관(鎭管)**

청주(淸州)이다.

○동쪽으로 보은(報恩) 경계까지 16리이고 서쪽으로 문의(文義) 경계까지 16리, 남쪽으로 청주(淸州) 경계까지 32리, 북쪽으로 청주(淸州) 경계까지 29리이며, 북쪽의 서울까지는 3백 46리로 5일 일정이고 서쪽의 감영(監營)까지는 1백 20리로 하루 만나질 걸리고 북쪽의 병영(兵營)까지는 50리로 만나질 걸리고 서쪽의 수영(水營)까지는 3백 리이다.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백제(百濟)의 미곡현(未谷縣)으로 신라(新羅)가 매곡(昧谷)으로 고치고 연산군(燕山郡)<sup>108</sup>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高麗) 현종(顯宗) 때 청주(淸州)에 예속시켰다

108) 지금의 청원군 문의

가 뒤에 회덕(懷德)의 겸임관(兼任官)이 되었다.

우왕(禍王)<sup>109</sup> 때 별도로 감무(監務)를 두고 조선(朝鮮)<sup>110</sup> 태종(太宗 1413) 13년에 예(例)에 따라 현감(縣監)으로 고치고 관원(官員)으로 현감(縣監)과 훈도(訓導) 각 1인을 두었다.

### 군명(郡名)

미곡(未谷), 매곡(昧谷)

### 관직(官職)

○현감(縣監) : 음관(蔭官) 6품이다. [그 아래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1인, 군관(軍官) 8인, 아전(衙前) 14인, 지인(知印) 9인, 사령(使令) 11명, 관노(官奴) 6명, 관비(官婢) 4명을 두었다.]

### 성씨(姓氏)

○회인(懷仁)<sup>111</sup> : 이(李) · 홍(洪) · 장(張) · 신(辛) · 최(崔) [속성(續姓)]

### 산천(山川)

○구룡산(九龍山) : 보은(報恩) 속리산(俗離山)으로부터 뻗어 와서 주맥(主脉)이 되었다.  
○말흘탄(末訖灘) : 옥천(沃川) 화인진(化仁津)에서 흘러와 회덕(懷德) 형각진(荊角津)으로 흘러간다.

### 풍속(風俗)

검소(儉素)함을 숭상하고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다.

### 방리(坊里)

○동면(東面)

109) 원문에 辛禍로 되어 있으나 우왕으로 고쳤다.

110)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 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11) 원문에는 本縣으로 되어있으나 懷仁으로 고쳤다.

- 만지동리(晩旨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 법주리(法住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 능암리(能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3리 거리에 있다.
- 계암리(桂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용사동리(龍師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2리 거리에 있다.
- 신문리(新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오동리(梧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아차곡리(峩次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 세촌리(世村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3리 거리에 있다.
- 고초천리(高草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보곡리(甫古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7리 거리에 있다.
- 애치리(艾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5리 거리에 있다.
- 건천리(乾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노성산리(老城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서면(西面)

- 가정자리(加亭子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5리 거리에 있다.
- 용두리(龍頭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남대문리(南大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3리 거리에 있다.
- 거교리(巨橋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2리 거리에 있다.
- 거구리(巨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 신읍리(新邑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6리 거리에 있다.
- 양중지리(陽中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6리 거리에 있다.
- 묘암리(妙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 마구리(馬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남면(南面)

- 신대리(新垔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8리 거리에 있다.

- 추동리(楸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2리 거리에 있다.  
 명곡리(鳴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판장리(板藏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6리 거리에 있다.  
 도요목리(都要目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7리 거리에 있다.  
 분저곡리(分諸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서당평리(書堂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2리 거리에 있다.  
 음중지리(陰中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9리 거리에 있다.  
 사탄리(沙灘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 ○강외면(江外面)

- 사음동리(舍音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5리 거리에 있다.  
 매산리(梅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5리 거리에 있다.  
 법수리(法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30리 거리에 있다.

## ○북면(北面)

- 수곡리(首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계산리(桂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등곡리(登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5리 거리에 있다.  
 지경동리(地境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30리 거리에 있다.

## ○읍내면(邑內面)

- 마근동리(馬斤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리 거리에 있다.  
 사직동리(社稷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리 거리에 있다.  
 저리(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리 거리에 있다.  
 벌리(伐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리 거리에 있다.  
 눌곡리(訥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3리 거리에 있다.  
 황평리(黃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4리 거리에 있다.  
 교동리(校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리 거리에 있다.

개동리(介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3리 거리에 있다.

**호구(戶口)**

- 편호(編戶) : 1천2백44호이다.
- 남자(男子) : 2천3백70명
- 여자(女子) : 2천44명이다. [병자(丙子)년 장적(帳籍)기준이다.]

**전부(田賦)**

- 밭(旱田) : 원장부의 1천40결4복2속 중에서 묵는 것이 6백59결23복이고 경작하는 것이 3백80결81복2속이다.
- 논(水田) : 원장부의 1백19결63복2속 중에서 묵는 것이 52결3복8속이고 경작하는 것이 67결32복4속이다.
- 전세목(田稅木) : 7통34필19척5치[정월(正月)부터 수납하여 3월 보름전에 육로로 운반하여 호조(戶曹)에 납부한다.]
- 대동목(大同木) : 13통25필[2월부터 수납하여 3월 내에 육로로 운송하여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한다.]
- 균세(均稅) : 결전(結錢) 2백65냥2전, 면세전세(免稅田稅)11필, 대동(大同)24필은 전세(田稅)상납(上納)할 때 균역청(均役廳)에 납부한다.

**요역(繇役)**

1결(結)에 전(錢)으로 5전1푼이고 전세목(田稅木)이 23척3촌, 삼목(三木)8척7촌, 대동목(大同木) 9척8촌, 관수미(官需米)4말5되, 잡역미 3말[돈으로 낼때는 6전3푼] 전세역가(田稅役價) 2전5푼, 태가(駄價) 2전2푼이다.

**군액(軍額)**

- 어영군(御營軍) : 31명
- 자보(資保) : 33명
- 상납보(上納保) : 42명

- 금위군(禁衛軍) : 20명
- 자보(資保) : 21명
- 상납보(上納保) : 41명
- 기병(騎兵) : 호보(戶保)를 합하여 30명
- 보병(步兵) : 호보(戶保)를 합하여 22명
- 신선(新選) : 4명
- 포보(砲保) : 6명
- 금보(禁保) : 16명
- 수군(水軍) : 9명
- 편오군(編伍軍) : 초관(哨官)2명, 기패관(旗牌官)3명, 군(軍)1백15명 이상 잡색(雜色)으로 3백 95명이다.

### 성지(城池)

### 창고(倉庫)

- 삼창회부미(三倉會付米) : 3백46섬7말
- 피각곡(皮各穀) : 2천1백13섬3말
- 진창각곡(賑倉各穀) : 3백97섬10말
- 영곡미(營穀米) : 10섬14말3되
- 전미(田米) : 2섬2말9되
- 피각곡(皮各穀) : 4백10섬2말이다.

### 관방(關防)

### 진보(鎭堡)

### 봉수(烽燧)

**학교(學校)**

○향교(鄕校) : 고을 북쪽에 있다.

**단묘(壇廟)**

○사직단(社稷壇) : 고을 서쪽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 매곡산(昧谷山)에 있다.

○여단(厲壇) : 고을 북쪽에 있다.

**능묘(陵墓)**

**불우(佛宇)**

○웅암사(熊岩寺) : 구룡산(九龍山)에 있다. 다만 빈터만 있다.

○묘암사(妙岩寺) : 목감산(牧監山)에 있다. 다만 빈터만 있다.

○마전사(麻田寺) : 고을 남쪽 노성산(老城山)에 있다.

○은선암(隱僊菴) : 고을 서쪽 묵령산(墨嶺山)에 있다.

**궁실(宮室)**

**누정(樓亭)**

**도로(道路)**

○노령대로(蘆嶺大路) : 보은(報恩) 경계로 가는 길로 관문(官門)에서 동쪽으로 16리 거리이다.

○묵령대로(墨嶺大路) : 문의(文義) 경계로 가는 길로 관문(官門)에서 서쪽으로 15리 거리이다.

○남소로(南小路) : 청주(淸州) 경계로 가는 길로 관문(官門)에서 30리 거리이다.

○피반령대로(皮盤嶺大路) : 청주(淸州) 경계로 가는 길로 관문(官門)에서 서북쪽으로 29리 거리이다.



○북소로(北小路) : 청산(靑山) 경계로 가는 길로 관문(官門)에서 25리이다.

교량(橋梁)

어염(魚鹽)

제언(堤堰)

역원(驛院)

도서(島嶼)

장시(場市)

○두산시장(斗山市場) : 북면(北面)에 있는데 관문(官門)에서 20리 거리이고 3일과 8일에 열린다.

목장(牧場)

형승(形勝)

○거듭된 멧부리와 겹겹의 고개길은 양의 창자처럼 둘러있다.

※이승소(李承召)의 다음과 같은 시(詩) 구절이다.

“거듭된 멧부리와 겹겹의 고개 멀리 서로 연결되고  
길은 양(羊)의 창자처럼 얽히었으니 말이 나아가지 못하네”

고적(古蹟)

○호점산성(虎岾山城) : 돌로 쌓았다. 둘레가 5천1백48척이고 높이가 8척이다. 성안에 우물이 3개 있다.

○매곡산성(昧谷山城) : 돌로 쌓았다. 둘레가 1천1백52척이고 높이가 8척이다.

**토산(土産)**

무쇠(水鐵) · 벌꿀 · 시초 · 복령(茯苓) · 지황(地黃) · 안식향(安息香) · 더덕 · 도라지 · 대추

**진공(進貢)**

- 2월령(二月令) : 벌꿀(淸蜜) 2되
- 3월령(三月令) : 모향(茅香) 8근6냥 · 전호(前胡) 1근5냥 · 도라지9냥 · 진규(眞奎)10냥 · 백급(白芨) 2냥 · 건지황(乾地黃) 2냥
- 7월령(七月令) : 안식향(安息香) 1근5냥 · 백급(白芨)2냥4전 태수(胎水)1홉 · 벌꿀 2되
- 10월령(十月令) : 대추 1말5되 · 전호(前胡)14냥 · 산약(山藥)5냥8전 · 유지(油紙)1장
- 진하진상(陳賀進上) : 대추 2말2되 말린 꿩(乾雉) 4마리
- 도계진상(到界進上) : 벌꿀1되9홉 · 산꿩(活雉) 3마리이다.

**봉름(奉廩)**

- 일년월름미(一年月廩米) : 1백섬
-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 10섬
- 유청지지가미(油淸紙地價米) : 39섬 합계 1백49섬이다.
- 아록(衙祿) : 55결이나 쌀 9섬, 콩 5섬과 잡역미(雜役米)로 1백20섬으로 대치한다.

**환적(宦蹟)**

- 만력(萬曆) 신해(辛亥 1611)년부터 시작한다.
- 조언범(趙彦範) : 신해(辛亥 1611)에 도임(到任)하여 같은 해 그만두다.
- 윤겸선(尹兼善) : 신해(辛亥 1611)에 도임(到任)하여 임자(壬子 1612)에 그만두다.
- 김명남(金命男) : 임자(壬子 1612)에 도임(到任)하여 갑인(甲寅 1614)에 그만두다.
- 송경조(宋景祚) : 갑인(甲寅 1614)에 도임(到任)하여 정사(丁巳 1617)에 그만두다.
- 남진(南鎭) : 정사(丁巳 1617)에 도임(到任)하여 기미(己未 1619)에 부모의 상(喪)을 입었다.

- 성창열(成昌烈) : 기미(己未 1619)에 도임(到任)하여 같은 해에 부모 상(喪)을 입었다.
- 심달(沈闈) : 기미(己未 1619)에 도임(到任)하여 신유(辛酉 1621)에 적성현감(積城縣監)으로 전출(轉出)갔다.
- 이덕언(李德言) : 신유(辛酉 1621)에 도임(到任)하여 같은 해에 석성현감(石城縣監)으로 전출(轉出)갔다.
- 김업남(金業男) : 신유(辛酉 1621)에 도임(到任)하여 계해(癸亥 1623)에 그만두다.
- 허겸(許兼) : 계해(癸亥 1623)에 도임(到任)하여 계해(癸亥 1624)에 그만두다.
- 박홍소(朴弘詔) : 갑자(甲子 1624)에 도임(到任)하여 병인(丙寅 1626)에 그만두다. 거사비(去思碑)<sup>112)</sup>가 있다.
- 성급(成茂) : 병인(丙寅 1626)에 도임(到任)하여 신미(辛未 1631)에 임기가 차서 다른 곳으로 갈려갔다.
- 이회(李瀼) : 신미(辛未 1631)에 도임(到任)하여 같은 해 옥천군수(沃川郡守)로 옮겨갔다.
- 조흥빈(趙興賓) : 신미(辛未 1631)에 도임(到任)하여 같은 해에 갈려갔다.
- 이건봉(李堅峰) : 임신(壬申 1632)에 도임(到任)하여 갑술(甲戌 1634)에 갈려갔다.
- 이덕염(李德濂) : 갑술(甲戌 1634)에 도임(到任)하여 병자(丙子 1636)에 그만두다.
- 유익화(柳益華) : 병자(丙子 1636)에 도임(到任)하여 경진(庚辰 1640)에 별세(別世)하였다.
- 조정란(趙廷蘭) : 경진(庚辰 1640)에 도임(到任)하여 같은 해 바뀌었다.
- 홍성해(洪成海) : 경진(庚辰 1640)에 도임(到任)하여 신사(辛巳 1641)에 잡혀가 파직되었다.
- 구영(具瑩) : 신사(辛巳 1641)에 도임(到任)하여 같은 해에 그만두다.

112) 善政碑 · 頌德碑 등을 말함

- 권근중(權謹中) : 신사(辛巳 1641)에 도임(到任)하여 감사(監司)와 상피(相避)관계로 바뀌었다.
- 이홍조(李弘祚) : 계미(癸未 1643)에 도임(到任)하여 병술(丙戌 1646)에 스스로 관직을 버렸다.
- 김근행(金謹行) : 병술(丙戌 1646)에 도임(到任)하여 무자(戊子 1648)에 그만두다.
- 이창한(李昌漢) : 기축(己丑 1649)에 도임(到任)하여 같은 해에 별세(別世)하였다.
- 박인(朴潁) : 기축(己丑 1649)에 도임(到任)하여 신묘(辛卯 1651)에 그만두다.
- 최로(崔櫓) : 신묘(辛卯 1651)에 도임(到任)하여 감사(監司)와 상피(相避)관계로 바뀌었다.
- 김하현(金夏鉉) : 신묘(辛卯 1651)에 도임(到任)하여 임진(壬辰 1652)에 바뀌었다.
- 이명빈(李命賓) : 임진(壬辰 1652)에 도임(到任)하여 계사(癸巳 1653)에 그만두다.
- 이순남(李順男) : 문과(文科)급제. 계사(癸巳 1653)에 도임(到任)하여 기해(己亥 1659)에 임기가 차서 교체되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정백기(鄭伯基) : 기해(己亥 1659)에 도임(到任)하여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이민도(李敏道) : 계묘(癸卯 1663)에 도임(到任)하여 같은 해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조현소(趙見素) : 계묘(癸卯 1663)에 도임(到任)하여 을사(乙巳 1665)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되었다.
- 송유제(宋孺悌) : 을사(乙巳 1665)에 도임(到任)하여 병오(丙午 1666)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이빈(李愼) : 병오(丙午 1666)에 도임(到任)하여 임자(壬子 1672)에 임기가 차서 다른 곳으로 갈려갔다.
- 이태하(李泰夏) : 임자(壬子 1672)에 도임(到任)하여 계축(癸丑 1673)에 어사

(御使)가 국왕에게 아뢰어 파직시켰다

- 황진구(黃震耆) : 을묘(乙卯 1675)에 도임(到任)하여 기미(己未 1679)에 사헌부(司憲府)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우정(禹鏞) : 문과(文科)에 급제, 기미(己未 1679)에 도임(到任)하여 경신(庚申 1680)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되었다.
- 한전(韓典) : 신유(辛酉 1681)에 도임(到任)하여 병인(丙寅 1686)에 임기가 차서 교체되었다.
- 최신(崔愼) : 병인(丙寅 1686)에 도임(到任)하여 무진(戊辰 1688)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이태기(李泰祺) : 문과(文科)급제, 무진(戊辰 1688)에 도임(到任)하여 신미(辛未 1691)에 별세(別世)하였다.
- 윤형래(尹亨來) : 신미(辛未 1691)에 도임(到任)하여 임신(壬申 1692)에 별세(別世)하였다.
- 송엽(宋爌) : 임신(壬申 1692)에 도임(到任)하여 정축(丁丑 1697)에 임기가 차서 교체되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이대령(李大嶺) : 정축(丁丑 1697)에 도임(到任)하여 임오(壬午 1702)에 부모상(喪)을 입었다.
- 정지상(鄭至祥) : 임오(壬午 1702)에 도임(到任)하여 병술(丙戌 1706)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양득중(梁得中) : 병술(丙戌 1706)에 도임(到任)하여 무자(戊子 1708)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정서하(鄭瑞河) : 무자(戊子 1708)에 도임(到任) 전에 부모상(喪)을 입었다.
- 서종적(徐宗積) : 무자(戊子 1708)에 도임(到任)하여 계사(癸巳 1713)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조상건(趙尙健) : 문과(文科)급제, 계사(癸巳 1713)에 도임(到任)하여 갑오(甲午 1714)에 지평(持平)으로 옮겨갔다.
- 이명세(李明世) : 문과(文科)급제, 갑오(甲午 1714)에 도임(到任)하여 을미(乙未 1715)에 별세(別世)하였다.

- 이회(李薈) : 을미(乙未 1715)에 도임(到任)하여 무술(戊戌 1718)에 별세(別世)하였다.
- 박종양(朴宗陽) : 무술(戊戌 1718)에 도임(到任)하여 임인(壬寅 1722)에 부모상(喪)을 입었다.
- 이성환(李星煥) : 문과(文科)급제, 임인(壬寅 1722)에 도임(到任)하여 같은 해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신성집(申成集) : 임인(壬寅 1722)에 도임(到任)하여 갑진(甲辰 1724)에 국왕에게 아뢰어 파직시켰다.
- 김도응(金道應) : 문과(文科)급제, 갑진(甲辰 1724)에 도임(到任)하여 무신(戊申 1728)에 법망(法網)에 걸려 죽임을 당하였다.
- 변관하(卞觀夏) : 무신(戊申 1728)에 도임(到任)하여 같은 해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되었다.
- 송국경(宋國經) : 문과(文科)급제, 기유(己酉 1729)에 도임(到任)하여 경술(庚戌 1730)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되었다.
- 이하영(李夏英) : 경술(庚戌 1730)에 도임(到任)하여 갑인(甲寅 1734) 국왕에게 아뢰어 파직되었다.
- 이현(李炫) : 갑인(甲寅 1734)에 도임(到任)하여 기미(己未 1739)에 임기가 차서 다른 곳으로 갈려감
- 김진억(金鎭億) : 문과(文科)급제, 기미(己未 1739)에 도임(到任)하여 경신(庚申 1740)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강재항(姜再恒) : 경신(庚申 1740)에 도임(到任)하여 갑자(甲子 1744)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정희태(鄭希泰) : 갑자(甲子 1744)에 도임(到任)하여 정묘(丁卯 1747)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이동빈(李東賓) : 정묘(丁卯 1747)에 도임(到任)하여 기사(己巳 1749)에 자진하여 사표를 내고 다른 곳으로 감
- 이종원(李宗遠) : 기사(己巳 1749)에 도임(到任)하여 같은 해 사헌부(司憲府)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 윤동철(尹東喆) : 기사(己巳 1749)에 도임(到任)하여 계유(癸酉 1753)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홍옥보(洪沃輔) : 계유(癸酉 1753)에 도임(到任)하여 같은 해 부모상(喪)을 입었다.
- 이언제(李彦濟) : 계유(癸酉 1753)에 도임(到任)하여 을해(乙亥 1755)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심겸(沈鉞) : 을해(乙亥 1755)에 도임(到任)하여 정축(丁丑 1757)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이익현(李益炫) : 무인(戊寅 1758)에 도임(到任)하여 경진(庚辰 1760)에 밀양부사(密陽府使)로 옮겨갔다.
- 최도흥(崔道興) : 신사(辛巳 1761)에 도임(到任)하여 을유(乙酉 1765)에 임기가 차서 갈려갔다.
- 이언수(李彦秀) : 병술(丙戌 1766)에 도임(到任)하여 경인(庚寅 1770)에 임기가 차서 갈려갔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김택동(金宅東) : 신묘(辛卯 1771)에 도임(到任)하여 병신(丙申 1776)에 임기가 되자 가을 전에 임기를 마쳤다.
- 이수빈(李壽彬) : 병신(丙申 1776)에 도임(到任)하여 기해(己亥 1779)에 부모상(喪)을 입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송위명(宋瑋明) : 기해(己亥 1779)에 도임(到任)하여 신축(辛丑 1781)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되었다.
- 홍경(洪徹) : 신축(辛丑 1781)에 도임(到任)하여 계묘(癸卯 1783)에 별세(別世)하였다.
- 안정택(安廷鐸) : 계묘(癸卯 1783)에 도임(到任)하여 갑진(甲辰 1784)에 고부군수(古阜郡守)로 옮겨갔다.
- 이지형(李趾馨) : 을사(乙巳 1785)에 도임(到任)하여 정미(丁未 1787)에 국왕에게 아뢰어 파직시켰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유진구(柳鎭九) : 무신(戊申 1788)에 도임(到任)하여 기유(己酉 1789)에 별세(別世)하였다.

- 변위진(卞緯鎭) : 기유(己酉 1789)에 도임(到任)하여 계축(癸丑 1793)에 온양군수(溫陽郡守)로 옮겨갔다.
- 이노재(李魯在) : 계축(癸丑 1793)에 도임(到任)하여 병진(丙辰 1796)에 안산군수(安山郡守)로 옮겨갔다.
- 이가운(李可運) : 병진(丙辰 1796)에 도임(到任)하여 신유(辛酉 1801)에 임기가 차서 다른 곳으로 갈려갔다.
- 김기희(金箕熙) : 신유(辛酉 1801)에 도임(到任)하여 임술(壬戌 1802)에 자진해서 사표를 냈다.
- 이후식(李厚植) : 임술(壬戌 1802)에 도임(到任)하여 정묘(丁卯 1807)에 임기가 차서 다른 곳으로 갈려갔다.
- 김완(金腕) : 정묘(丁卯 1807)에 도임(到任)하여 무진(戊辰 1808)에 어사(御使)가 국왕에게 아뢰어 파직시켰다.
- 조명한(趙明漢) : 무진(戊辰 1808)에 도임(到任)하여 계유(癸酉 1813)에 품계를 낮춰 파직시켰다.
- 이재겸(李在謙) : 계유(癸酉 1813)에 도임(到任)하여 정축(丁丑 1817)에 품계를 낮춰 파직시켰다.
- 박종염(朴宗濂) : 무인(戊寅 1818)에 도임(到任)하여 계미(癸未 1823)에 임기가 차서 교체되었다.
- 이시좌(李時佐) : 계미(癸未 1823)에 도임(到任)하여 정해(丁亥 1827)에 김포군수(金浦郡守)로 옮겨갔다.
- 이화(李鐸) : 정해(丁亥 1827)에 도임(到任)하여 무자(戊子 1828)에 국왕에게 아뢰어 파직시켰다.
- 이시학(李時學) : 무자(戊子 1828)에 도임(到任)하여 기축(己丑 1829)에 어사(御使)가 국왕에게 아뢰어 파직시켰다.
- 김효기(金孝基) : 기축(己丑 1829)에 도임(到任)하여 경인(庚寅 1830)에 이조(吏曹)에서 품계를 강등 시켰다.
- 한진서(韓鎭書) : 신묘(辛卯 1831)에 도임(到任)하여 계사(癸巳 1833)에 부모상(喪)을 입었다.



- 김영진(金永進) : 계사(癸巳 1833)에 도임(到任)하여 같은 해에 이조(吏曹)에서 품계를 강등시켰다.
- 김계흠(金啓洽) : 갑오(甲午 1834)에 도임(到任)하여 무술(戊戌 1838)에 임기가 차서 교체되었다.
- 정원기(鄭元夔) : 무술(戊戌 1838)에 도임(到任)하여 계묘(癸卯 1843)에 잡혀 갔다.

### 과거(科擧)

#### ◎ 조선(朝鮮)<sup>113)</sup>

- 홍윤성(洪允成) : 문종(文宗) 때 등과(登科)하고 세조(世祖)를 도와 정난·좌익(靖難·佐翼) 공신이 되고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에 봉해지고 벼슬이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 시호(諡號)가 위평(威平)이다.

### 인물(人物)

#### ◎ 고려(高麗)

- 공직(龔直) : 용맹과 지략이 있었다. 신라말(新羅末)에 매곡현(昧谷縣)의 장군이 되어 견훤(甄萱)을 섬기다가 견훤의 무도(無道)한 것을 보고 아들 영서(英舒)와 함께 태조에게 왔다. 태조가 대상(大相)을 제수하고 벼슬이 좌승(左丞)에 이르렀다. 시호가 봉의(奉義)이다.
- 공직달(龔直達) : 직(直)의 아들이다. 아우 금서(金舒)와 함께 후백제에 인질로 잡혀갔는데 직(直)이 태조(太祖)에게 붙자 견훤이 죽었다.

#### ◎ 조선(조선)<sup>114)</sup>

- 이우(李祐) : 효행(孝行)으로 정문을 세웠다.
- 지성동(池性東) : 효행(孝行)으로 병자(丙子)에 복호(復戶)<sup>115)</sup>를 하였다가 2년후 조령(朝令)으로 복호를 파(罷)하였다.

113)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14) 원문에는 本朝로 되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15) 부역과 조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

### 제영(題詠)

관찰사(觀察使) 홍수주(洪受疇)가 시(詩)를 지어 현판(懸板)하였는데

“험난한 산악 중간이 틈어 경계는 분명치 않으나 너그럽고

읍내와 마을 모두 합쳐도 얼마되지 않구나

관아(官衙)의 규모는 작아 가을 햇살같이 박하고

나그네 수심은 빗소리에 차구나

가난한 백성에게 길쌈을 가르치니

숨은 사람이 기둥을 잡고 버티는 듯

다소간 관심사를 말벗할 사람없고

먼지 붙은 벽에 쓰고자 하니 시심(詩心) 번거롭다” 하였다.

### 비판(碑版)

어사(御使)를 임명하여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불러 들여 편히 살도록 할 때를 전후하여 임금의 말씀이 “지금 대신들의 주청을 들으니 단양(丹陽)과 회인(懷仁)의 일이 가없도다. 수찬(修撰) 홍경해(洪景海)를 단양(丹陽)과 회인(懷仁)의 안집어사(安集御使)로 삼으니 즉시 가서 백성들을 불러들이되 모든 일은 하교(下教)를 보고 관찰사와 서로 상의하여 같이 성의를 다하여 봉행하고 그 일을 마친 뒤 봉명하라” 하셨다.

대신들이 주청한 것을 들으니 단양(丹陽)과 회인(懷仁) 두 고을에 백성들이 흩어져 지난 날 천호(千戶)이던 것이 지금은 수백호(數百戶)에 불과하며 유민(流民) 중에 숙식(宿食)이 어려운 자도 있다는 것이니 특별히 어사(御使)를 보내어 백성을 달래어 다시 돌아와 살게 하라는 것이다.

아! 안토(安土) 두 글자는 옛사람들이 “너희들은 여기서 즐겁게 살아야지 어찌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하고 이르는 것이다. 무릇 수령(守令)이 착하지 못하고 환곡(還穀)의 출납(出納)을 양반이 독점하여 곡식이 이미 떨어지니 백성들이 어찌 살아갈 것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굶주림이 만약 나에게 있다면 곡물(穀物)이 있는 뒤에 백성을 불러 모을 수 있음으로 어사가 이미 하교(下教)를 받았으니 마땅히 관찰사(觀察使)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 비록 망극한 중에도 어찌 백성을 기만할 것인가 모름지기 의심 없이 백성을 불러

모을 어사의 직분으로 나의 이 마음을 펼칠 것이다.

호서(湖西)의 유치미 3백석(三百石)을 어사에게 나누어주니 비록 두 갈래 길이지만 단양과 회인 백성들에게 먼저 이런 취지를 알리고 갖고 가서 분부를 행하라 이제 호서 안집(安集)어사의 장계를 보니 단양과 회인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 온 자가 3분의 2가 넘는다 하니 심히 다행스럽다.

아! 처음 아뢰는 말을 듣고 어사를 임명하였으나 마음에 걱정이 되어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않았는데 이제 두 고을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어찌 내 가르치는 말에 감동한 것인가 이는 아버지가 비록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비록 불효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음이라

아! 지극히 어리석어도 신통한 것은 백성들이다. 어사의 장계를 보니 얼굴에 화색이 도니 하나는 명령을 어김없이 실행한 것이요. 또 하나는 힘써 백성을 구휼한 것이다. 다시는 단양촌에서 구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와 같은 특명에 대하여 어사가 끝부분만 알아듣고 백성을 속인다면 아! 늙은 나이에 백성을 기만하는 일이니 죽음을 마다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는구나

이제 단양과 회인에 대하여 특별히 세금을 받거나 받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니 이것은 팔도 백성을 균등하게 보려는 왕자(王者)의 길이다. 인종(仁宗)황제가 유사에게 묻지 않고는 때를 기다리지 못 하였듯이 받지 않거나 나라에 납부하는 것은 세법에 따른 것이지만 탕감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어사는 나의 뜻을 헤아려 백성의 뜻에 맞춰 성의를 다하여 백성을 불러 모으도록 하라

아! 백성 하나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사가 무슨 낮으로 복명할 것이며 나도 또한 무슨 낮으로 어사를 만날 것인가

이와 같은 나의 뜻을 헤아리어 정원(政院)에 하명하니 즉시 유시(諭示)를 내려보내라

## 청산현(靑山縣)

### 방리(坊里)

○주성면(酒城面) : 북쪽 보은군(報恩郡) 경계를 넘어 80리다.

도엽리(桃葉里) : 관문(官門)과의 거리 90리이다. 1백83호(戶)에 남자 3백31명, 여자

3백52명이다.

봉황리(鳳凰里) : 관문(官門)과의 거리 85리이다. 55호(戶)에 남자 1백55명, 여자 2백94명이다.

묵동리(墨洞里) : 관문(官門)과의 거리 80리이다. 1백5호(戶)에 남자 1백97명, 여자2백87명이다.

### 속현(屬縣)

○주성부곡(酒城部曲) : 고을 북쪽 90리 보은군(報恩郡) 북촌(北村)을 월경(越境)하여 있다. 본래는 상주(尙州)에 속하였으나 고려(高麗) 공양왕(恭讓王 1390)2년 청산현(靑山縣)에 감무(監務)를 둘 때 땅이 협소하다 하여 배어 예속시켰다.

### 성씨(姓氏)

○주성(酒城) : 홍(洪) · 방(方)[촌성] 김(金)[속성]

### 창고(倉庫)

○외주성창(外酒城倉) : 6칸이다.

# 대동지지(大同地志)



## 대동지지(大東地志)

□ 『大東地志』는 金正浩가 편찬한 筆寫本인데 高宗원년(1865)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大東輿地圖와 자매편으로 그 내용은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여 다른 地誌에서 볼 수 없는 典故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 보은(報恩)

#### 연혁(沿革)

본래 신라(新羅)의 삼년산(三年山)으로 경덕왕(景德王 757) 16년에 삼년군(三年郡)으로 고치고 영현(領縣)으로 청천(靑川)과 기산(耆山)의 그 현(縣)을 거느렸다.

고려(高麗) 태조(太祖 940) 23년에 보령(保寧)[령(令)을 또한 령(嶺)으로 썼다.]으로 고쳤다. 현종(顯宗 1018) 9년에 상주(尙州)에 예속시켰다가 명종(明宗 1172) 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朝鮮)<sup>116)</sup> 태종(太宗 1406) 6년에 보은(報恩)이라 고치고[이는 보령현(保寧縣)과 소리가 비슷함으로 고친 것이다.] 13년(1413)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경상도(慶尙道)로부터 충청도(忠淸道)<sup>117)</sup>에 편입되었다.] 순조(純祖) 때 군수(郡守)로 승격되었다.

116)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17) 원문에는 本道로 되어있으나 忠淸道로 고쳤다.

**읍호(邑號)**

○삼산(三山)

**관원(官員)**

○현감(縣監) : 청주진관(淸州鎭管)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를 겸하였다.

**방면(坊面)**

- 내북(內北) : 처음은 3리이고 끝은 30리이다.
- 외북(外北) : 동북쪽으로 처음은 3리이고 끝은 30리이다.
- 속리(俗離) : 동북쪽으로 처음은 15리이고 끝은 45리이다.
- 왕래(王來) : 동쪽으로 처음은 30리이고 끝은 40리이다.
- 마로(馬老) : 동남쪽으로 처음은 30리이고 끝은 45리이다.
- 삼승(三升) : 남쪽으로 처음은 17리이고 끝은 30리이다.
- 탄부(炭釜) : 남쪽으로 처음은 15리이고 끝은 40리이다.
- 서니(西尼) : 서쪽으로 처음은 3리이고 끝은 20리이다.
- 수한(水汗) : 서쪽으로 처음은 3리이고 끝은 30리이다.
- 사각(思角) : 북쪽으로 처음은 4리이고 끝은 20리이다.

**산수(山水)**

- 사산(蛇山) : 고을 북쪽에 있다.
- 와산(蛙山) : 고을 남쪽<sup>118)</sup>에 있다.
- 서산(鼠山) : 고을 서쪽<sup>119)</sup>에 있다.
- 오정산(烏頂山) : 동쪽 5리에 있다.
- 대덕산(大德山) : 서남쪽 10리에 있다.
- 금적산(金積山) : 남쪽 25리 청산(靑山) 경계에 있다.
- 검단산(儉丹山) : 북쪽 35리 청주(淸州) 경계에 있다.

118) 원문에는 서쪽으로 되어있으나 바로 잡았다.

119) 원문에는 남쪽으로 되어있으나 바로 잡았다.



- 귀암산(歸岩山) : 동남쪽 40리 상주(尙州) 경계에 있다.
- 속리산(俗離山) : 동북쪽 45리 보은(報恩)<sup>120</sup>과 청주(淸州) · 문경(聞慶) · 상주(尙州)의 경계에 걸쳐 있다. 바위가 높고 겹쳤으며 봉우리가 높이 솟아 마치 창을 벌려 세운 듯 하며 산 아래는 모두 돌로 된 골짜기이다. 돌아서 가려하나 다른 골짜기도 마찬가지로 깊고 샘물과 기암(奇巖)과 팔교(八橋)와 구요(九遙)의 명소가 있으니 산의 두 언덕이 구불구불하여 막히다가 확 열리길 아홉 번이나 하고 매 구비마다 다리가 있어 모두 여덟이라 첫 번째 다리가 수정교(水精橋)이다.
- ※속리사(俗離寺) : 산 서쪽에 있다.
- ※법주사(法住寺) : 산 남쪽에 있다. 신라의 의신(義信)이란 중이 세웠으며 성덕왕(聖德王)이 중수(重修)하였는데 석조(石槽)와 석교(石橋) · 석옹(石瓮) · 석환(石鑊)이 있고 절 안에는 산호전(珊瑚殿) 오층각(五層閣)이 있다. 장육금신불(丈六金身佛) 3좌(三座)가 있다. 구리로 부어 만든 깃대의 높이는 아주 높으며 결안(契丹) 통화(統和) 24년(1006)에 만들었다.
- ※북천사(福泉寺) : 법주사 동쪽 7리에 있는데 절의 동쪽의 샘이 있어 돌 사이로 쏟아져 내린다.
- ※천왕봉(天王峯) : 속리사(俗離寺) 남쪽에 있는데 문장대(文藏臺)와 서로 대치(對峙)하고 있다.
- ※수정봉(水晶峯) : 법주사 서쪽에 있다. 태봉(胎峯)이 있고 앞에 대불사(大佛寺)가 있다.
- 문장대(文藏臺) : 속리산(俗離山) 최정상(最頂上)에 있다. 하늘이 이루어 놓은 듯 겹겹이 쌓인 돌무더기가 창공(蒼空)에 솟아 있는데 그 높이가 아주 높고 넓이는 3천명이 족히 앉을 수 있다. 문장대 위에는 구덩이가 있는데 마치 가마솥과 같으며 그 안에서 물이 나오는데 가물어도 줄지 않고 비가와도 불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세 줄기로 나뉘어서 반공(半空)으로 쏟아져 내리는데 한 줄기는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洛東江)의 한 근원이 되고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달천강(達川江)으로 흘러 들어가고 한 줄기는 남쪽의 금강(錦江)으로 들어간다.
- 구석(龜石) : 법주사 서쪽에 있다. 천연(天然)으로 되어있고 그 등에는 50명이 앉을 만

120) 원문에는 本邑으로 되어있으나 報恩으로 고쳤다.

하고 그 머리는 앙연(昂然)히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함림산(含林山) : 북쪽 10리에 있다.

○원평(元坪) : 북쪽 20리에 있다.

### 영로(嶺路)

○회류치(回踰峙) : 동북쪽 속리산(俗離山) 가는 산길이다.

○웅치(熊峙) : 서북쪽 30리 청주(淸州) 경계이며 청주로 가는 길이다.

○차의현(車衣峴) : 서쪽으로 15리 회인((懷仁)가는 큰길이다.

○문치(文峙) : 서남쪽으로 25리 옥천(沃川)으로 가는 큰길이다.

○연치(燕峙) : 서북쪽 청산(靑山) 주성면(酒城面)으로 가는 길이다.

○구치(龜峙) : 북쪽 12리에 있다.

○뉴치(柎峙) : 북쪽 30리 화양동(華陽洞) 가는 길이다.

○마현(馬峴) : 동쪽 15리로 고개위에 얇은 돌을 3~4리에 깔아 놓았는데 고려 태조(太祖) 때 했다고 한다.

○증항(甌項) : 동쪽 40리 상주(尙州) 함창(咸昌)으로 가는 셋길이며 증항(甌項) 서쪽 10리에 관기(館基)가 있는데 들이 넓고 땅이 비옥하여 일읍(一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며 대추를 팔아 살아간다.

○용천(龍川) : 문장대(文藏臺)에서 나와서 서남쪽으로 흘러 고을 동쪽 3리에서 오른쪽으로 웅치천(熊峙川)을 지나 동남쪽으로 흘러 용천(龍川)이 되고 청산현(靑山縣) 이르러 남천(南川)이 되니 바로 금강(錦江)의 지류(支流)이다.

○웅치천(熊峙川) : 웅치(熊峙)에서 나와서 동남쪽으로 흘러 용천(龍川)에 들어간다.

○대탄천(大灘川) : 문장대(文藏臺)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흐르다 휘돌아 서쪽으로 흘러 원평(元坪)과 주성(酒城)을 지나 청주(淸州) 땅에 이르러 달천(達川)의 지류(支流)가 되니 그래서 흐르는 곳이 대탄(大灘)이 된다.

○마천(馬川) : 동남쪽으로 40리로 용천(龍川)으로 들어간다.

○병풍연(屏風淵) : 동북쪽 25리 대탄천(大灘川)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복천(福泉)이 되고 그 것이 서쪽으로 흘러 크게 꺾이는 것이 대탄(大灘)이 되고 병연(屏淵)이 된다.

**성지(城池)**

○오정산고성(烏頂山古城) : 신라 자비왕(慈悲王 430) 13년에 쌓았는데 둘레가 3천6백 99척이고 우물이 5개, 못이 1개가 있다.

※산 아래 군장동(軍藏洞)이 있는데 고려 태조(太祖)가 군사를 주둔시켰던 곳이라 한다.

○함림고성(含林古城) : 둘레가 1천4백88척이고 큰 못이 있다.

**역참(驛站)**

○원암역(元岩驛) : 남쪽 20리에 있다.

○함림역(含林驛) : 북쪽 10리에 있다.

**토산(土産)**

철(鐵) · 잣(海松子) · 대추(棗) · 감(柿) · 벌꿀 · 송이버섯 · 석이버섯

**단유(壇遺)**

○속리악단(俗離岳壇) : 신라와 고려 때 모두 중사(中祀)를 모셨고 조선에서도 본읍(本邑)에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다.

○가아악(嘉阿岳) : 신라 사전(祀典)에 삼년군(三年郡)의 명산(名山)이라 하고 소사(小祀)를 올렸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미상이다.

**사원(祠院)**

○상현서원(象賢書院) : 명종(明宗) 기유년(己酉年 1549)에 창건하고 광해주(光海主) 경술년(庚戌年 1610)에 사액(賜額)을 받았다.

※김정(金淨) : 청주(淸州)를 참고하라

※성운(成運) : 자(字)는 건숙(健叔) 호(號)는 대곡(大谷)으로 창령인(昌寧人)이다. 벼슬은 사첨시정(司瞻寺正)으로 좌승지(左承旨)에 추증(追贈)되었다.

※성제원(成悌元) : 공주(公州)를 참고하라

※조헌(趙憲) : 김포(金浦)를 참고하라

※송시열(宋時烈) : 문묘(文廟)를 참고하라

### 전고(典故)

- 신라 소지왕(炤智王 486) 8년에 일선(一善)의 장정 3천명을 징발하여 삼년(三年) · 굴산(屈山) [청산(靑山)]의 두 성을 개축하였다.]
- 고려 태조(太祖 928) 11년에 스스로 장군(將軍)이 되어 삼년산성(三年山城)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청주(淸州)로 갔다.
- ※공민왕(恭愍王 1361) 11년에 왕이 복주(福州)로부터 상주(尙州)까지 와서 속리사(俗離寺)에 거둥할 때 원암역(元岩驛)에서 10일간 머물다가 청주로 행차(幸次)하였다. [청주(淸州) 전고(典故)에 자세하게 나온다.]
- ※우왕(禡王 1383)<sup>121)</sup> 9년 왜구(倭寇)가 보령(報令)을 함락시키다.
- 조선(朝鮮)<sup>122)</sup> 세조(世祖 1463) 9년에 왕이 중궁(中宮)과 왕세자(王世子)와 함께 속리산(俗離山)에 거둥하실 때 병풍연(屏風淵)에 머물다가 법주(法住) · 복천(福泉) 두 곳에 행차(行次)하다.
- ※선조(宣祖 1592) 25년에 왜적(倭賊)이 보은(報恩)을 함락하다.

### 강역(疆域)

- 상주(尙州)까지 46리
- 청산(靑山) · 옥천(沃川)까지 30리
- 회인(懷仁)까지 15리
- 청주(淸州)까지 30리

### 전민(田民)

- 전(田) : 3천 7백 94결
- 답(畓) : 1천 1백 1결
- 민호(民戶) : 4천 4백 8호
- 인구(人口) : 1만 5천 2백 59명
- 군보(軍保) : 3천 7백 51명

121) 원문에는 辛禡 되어있으나 우왕으로 고쳤다.

122)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있으나 조선으로 고쳤다.

## 회인(懷仁)

### 연혁(沿革)

본래 백제(百濟)<sup>123</sup>의 미곡(未谷)인데 경덕왕(景德王 757) 16년에 매곡(昧谷)으로 고치고 연산군(燕山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高麗) 태조(太祖 940) 23년에 회인(懷仁)으로 고쳤고 현종(顯宗 1018) 9년에 청주(淸州)에 예속시켰다. 뒤에 회덕(懷德) 감무(監務)와 겸무(兼務)하였다가 우왕(禑王 1383)<sup>124</sup> 9년에 별도의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朝鮮)<sup>125</sup> 태종(太宗 1413) 13년에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 관원(官員)

○현감(縣監) : 청주진관(淸州鎭管)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를 겸(兼)하였다.

### 방면(坊面)

- 현내(縣內) : 끝이 5리
- 동면(東面) : 처음은 3리 끝은 15리
- 남면(南面) : 처음은 5리 끝은 15리
- 서면(西面) : 처음은 2리 끝은 10리
- 북면(北面) : 처음은 10리 끝은 20리
- 강외(江外) : 서남쪽으로 처음은 15리 끝은 30리이다.

### 산수(山水)

- 하마산(何磨山)<sup>126</sup> : 서쪽 2리
- 보리산(甫里山) : 동쪽 2리
- 매곡산(昧谷山) : 동북쪽 1리
- 호점산(虎帖山) : 남쪽 9리
- 마산(馬山) : 서북쪽 10리

123) 원문에는 新羅로 되어있으나 百濟로 바로 잡았다.

124) 원문에는 辛로禑 되어있으나 우왕으로 고쳤다.

125)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26) 원문에는 阿磨山 으로 되었으나 何磨山 으로 바로 잡았다.

○목감산(牧監山) : 서북쪽 10리 산 아래에 옛날의 목장(牧場) 터가 있는데 고려사(高麗史)에 이르기를 청주 회인장(淸州懷仁場)이라고 하였다.

○가산(駕山) : 남쪽 20리

○노성산(老城山) : 남쪽 10리

### 영로(嶺路)

○피반령(皮盤嶺) : 서북쪽 20리 청주로 통하는 대로(大路)이다. 높고 험하며 꾸불꾸불하다.

○차의현(車衣峴) : 동쪽 15리 보은(報恩) 경계이다.

○노령(蘆嶺) : 동쪽 10리 보은(報恩)으로 통하는 대로(大路)이다.

○묵현(墨峴) : 서쪽 13리 문의(文義) 가는 대로(大路)이다.

○말흘령(末訖嶺) : 서남쪽 20리 문의(文義) 경계로 회덕(懷德)으로 가는 길이다.

○말흘탄(末訖灘) : 남쪽 25리 옥천(沃川) 화인진(化仁津) 하류로 문의(文義) 형각진(荊角津)의 상류로 나루는 옥천(沃川)으로 통한다.

○웅암천(熊岩川) : 피반령(皮盤嶺)에서 나와 구룡산(九龍山) 남쪽으로 흐르고 고을 동쪽을 지나 다시 돌아 고을 앞을 지나 굽어 꺾이여 말흘탄(末訖灘)으로 들어간다.

### 성지(城池)

○고성(古城) : 북쪽 1리 매곡산(昧谷山)에 있으며 둘레가 1천 1백 52척이다.

○호점산고성(虎岾山古城) : 둘레가 5천 1백 48척이고 우물이 하나 있으며 고성(古城)이 있는 곳을 달리 노성산(老城山)이라고도 한다.

### 토산(土産)

철(鐵) · 잣(海松子) · 시초(柴草) · 꿀(蜂蜜) · 감(柿) · 대추(棗) ·

### 전고(典故)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1361) 10년 왕이 보은(報恩)에서 이 곳에 거둥하여 머물다가 청주(淸州)로 갔다.

**강역(疆域)**

- 보은(報恩)까지 15리
- 옥천(沃川)까지 30리
- 문의(文義)까지 15리
- 청주(淸州)까지 25리

**전민(田民)**

- 밭 : 1천 40결
- 논 : 1백 19결
- 민호(民戶) : 1천 1백 47호
- 인구(人口) : 4천 4백 45명
- 군보(軍保) : 7백 38명





# 호서읍지(湖西邑誌)



## 호서읍지(湖西邑誌)

□ 『湖西邑誌』는 高宗 8년(1871)에 忠淸道 各 郡縣에서 作成한 邑誌와 事例들을 合編한 忠淸道 道誌로서 總 17冊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忠淸道 54個邑의 邑誌를 모두 수록한 唯一한 忠淸道 邑誌로서 19世紀 後半의 各邑의 實情을 알려주는 貴重한 資料이다. 반면에 이전 邑誌들을 저본으로 하여 전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타 邑誌들과 비교 검토할 需要가 있다.

여기에 수록한 것은 8冊에 실려있는 報恩郡과 7冊의 懷仁縣과 靑山縣 一部이다.

報恩郡의 內容 中 坊里條에는 기록이 없으나 杜倉條에 山外·山內·九峙·壯才 등의 새로운 面; 里名이 기록되어 行政區域 改編을 알 수 있고 懷仁縣의 경우 宦蹟條에 『忠淸道邑誌』보다 10名이 追加되어 있다.

### 보은군(報恩郡)

#### 진관(鎭管)

청주(淸州)이다.

○동쪽으로 慶尙道(慶尙道) 상주목(尙州牧) 境界까지 40리에 이르고 서쪽으로 懷仁縣(懷仁縣) 境界까지 15리에 이르고 서북쪽으로 沃川郡(沃川郡) 境界까지 20리에 이르고 남쪽으로 靑山縣(靑山縣) 境界까지 30리에 이르고 북쪽으로 淸州牧(淸州牧) 境界까지 30리에 이르고 북쪽으로 서울까지의 거리는 3백60리로 5일 걸리고 서쪽으로 監營(監營)까지의 거리는 1백50리로 이틀 걸리고 서북쪽으로 兵營(兵營)까지의 거리는 80리로 하루 걸리고 서쪽으로 水營(水營)까지의 거리는 3백리로 나흘 걸린다

**방리(坊里)**

○동사각면(東思角面)

- 광석리(廣石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 길상리(吉祥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 구인리(求仁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 신동리(新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 평각리(坪角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 나부리(羅浮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 매화리(梅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 용평리(龍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 사직리(社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 고승리(高升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7리 거리에 있다.
- 어암리(漁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 용천리(龍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리 거리에 있다.
- 만지리(晩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 탁동리(濯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 주평리(舟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리 거리에 있다.

○동속리면(東俗離面)

- 봉비리(鳳飛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 애평리(艾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 장내리(帳內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 황곡리(荒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 서원리(書院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 삼거리(三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 사내동리(舍乃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 상하중판리(上下中板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 북암리(北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백현리(栢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북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오심리(五心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동왕래면(東旺來面)

임곡리(壬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적암리(赤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갈평리(葛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송현리(松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사여리(士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관기리(館基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삼거리(三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수문리(水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방하곡리(方下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임한리(林閑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탄부면(炭釜面)

상중하소여리(上中下所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상하기대리(上下其大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상중하관리(上中下官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상하장산리(上下長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벽지리(碧池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장암리(壯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동남마로면(東南馬老面)

한중리(閑中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흘여지리(屹汝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5리 거리에 있다.

세동리(細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변둔리(卞屯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5리 거리에 있다.

- 증산리(甌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 갈전리(葛田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 내동리(內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 세중리(細中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 모동리(牟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 오천리(梧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 대양리(大陽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 성지리(成之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남삼승명(南三升面)

- 각동리(角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 삼승리(三升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 상하석남리(上下石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 내외망월리(內外望月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 상하원암리(上下元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 온야리(溫夜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 서원리(西元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 탄금리(彈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 달산리(達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서남서니면(西南西尼面)

- 송죽리(松竹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 황토리(黃土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 서니동서변리(西尼東西邊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 사각리(思角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 뉴항리(紐項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 상하둔덕리(上下屯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 등산암리(登山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 상하천곡리(上下泉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금굴리(金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두지동리(斗之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은사평리(隱土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내외수정리(内外水井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3리 거리에 있다.  
 잠곡리(蚕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리 거리에 있다.

## ○서수한면(西水汗面)

- 은로리(隱路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평포리(坪浦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오정리(梧丁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마문리(馬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장선리(長善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질곶리(秩串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어이광리(於二光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거현리(巨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수한리(水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묘동리(畝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말곶리(末串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7리 거리에 있다.  
 성리(星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7리 거리에 있다.  
 발산리(鉢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3리 거리에 있다.  
 거묵동리(巨墨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병원리(並院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후평리(後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3리 거리에 있다.

## ○북내북면(北內北面)

- 천산리(天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중터리(中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 탕동리(湯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삽영리(插嶺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궁평리(宮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이원리(泥院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서지리(西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구리목리(九里目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상중하초개리(上中下草介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노티리(老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사막리(舍幕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3리 거리에 있다.  
수남리(水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7리 거리에 있다.  
내동리(內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7리 거리에 있다.  
사례동리(士禮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리 거리에 있다.  
교동리(校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리 거리에 있다.  
정현리(旌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리 거리에 있다.

○북외북면(北外北面)

- 어온동리(於溫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오대리(五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원평리(元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장갑리(長甲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백돌리(白疇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동하목리(東下目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문암리(門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신곡리(新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팔류리(八柳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울지리(栗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함림리(舍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종곡리(鍾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 안량리(安良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7리 거리에 있다.  
 와평리(瓦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7리 거리에 있다.  
 강청리(江淸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7리 거리에 있다.  
 산직리(山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3리 거리에 있다.  
 상하동한리(上下東閑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동북쪽으로 3리 거리에 있다.

### 도로(道路)

- 동쪽 사기막(沙器幕)큰길 : 관문(官門)으로부터 40리 거리로 상주목(尙州牧) 경계로 통하는 길이다.  
 ○서쪽 추티(楸峙)큰길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로 회인현(懷仁縣) 경계로 통하는 길이다.  
 ○남쪽 원암(元岩)큰길 : 관문(官門)으로부터 30리 거리로 청산현(靑山縣) 경계로 통하는 길이다.  
 ○북쪽 원평(元坪)큰길 : 관문(官門)으로부터 30리 거리로 청주목(淸州牧) 경계에서 오는 길이다.  
 ○동북쪽 속리산(俗離山)통로(通路) : 관문(官門)에서 30리 거리로 북쪽 원평(元坪)길에서 속리산(俗離山)으로 직통하는 길인데 그 사이가 30리이다.  
 ○서남쪽 문티소로(文峙小路) : 관문(官門)에서 20리 거리로 옥천군(沃川郡) 경계로 가는 길이다.  
 ○동남쪽 구암(龜岩)큰길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로 상주목(尙州牧) 경계로 가는 길로 옥천(沃川)큰길 둔티(屯峙)에서 원암(元岩)·관기(館基)큰길을 거쳐 상주목(尙州牧) 경계로 가는 길이다. 그 사이가 30리이다.  
 ○서북쪽 연티소로(鸞峙小路)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로 청산현(靑山縣) 주성(酒城) 경계로 가는 길이다.

###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신라(新羅)의 삼년산군(三年山郡)으로 경덕왕(景德王)이 삼년(三年)이라 고치고

고려(高麗) 때 보령(保齡)으로 고쳤다.[령(嶺)은 뒤에 령(令)으로 변했다] 현종(顯宗 1018) 9년에 상주(尙州)에 예속되었다가 명종(明宗 1172) 2년에 감무(監務)를 두고 조선(朝鮮)<sup>127)</sup> 태종(太宗 1406) 6년에 보령현(保寧縣)과 발음(發音)이 같다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하였다. 가경(嘉慶) 11년(1806) 병인(丙寅)<sup>128)</sup>에 순조대왕(純祖大王) 태실(胎室)을 속리산(俗離山)에 봉안(奉安)한 후 군(郡)으로 승격(陞格)되었다.

### 군명(郡名)

삼년산(三年山) · 보령(保齡) · 삼산(三山) · 보령(保令)

### 관직(官職)

○군수(郡守) : 음직(陰職) 5품(品)이다.[그 아래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2인, 관군관(官軍官) 4인, 아전(衙前) 33인, 지인(知印) 12인, 사령(使令) 20명, 관노(官奴) 9명, 관비(官婢) 4명이다.]

### 산천(山川)

○속리산(俗離山) : 고을 동쪽 30리에 있다. 동북쪽인 문경(聞慶)의 화산(華山)으로부터 왔는데 그 형국이 모두 서쪽을 바라보고 본 고을의 주맥(主脉)이 되었고 냇물의 근원은 다른 곳에서 흘러오는 것은 없고 경내(境內)의 물이 합류하여 군의 동남쪽으로 흘러 청산현(靑山縣)을 거쳐 금강(錦江)으로 들어간다. 속리산은 9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어 구봉산(九峯山)이라 불리기도 한다. 신라 때는 속리악(俗離岳)이라 부르고 중사(中祀)를 올렸다. 사자(獅子) 정상에는 문장대(文藏臺)가 있는데 겹겹이 쌓인 돌이 천연으로 이루어져 높게 공중에 솟았고 그 높이가 몇길인지 알지 못한다. 그 넓이는 사람 3천 명이 앉을만하고 대(臺)위에는 구덩이가 있는데 마치 가마솥 같고 그 속에서 물이 흘러 나와서 가뭄에도 줄지않고 비가와도 불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세 줄기로 나뉘어서 반공(半空)으로 쏟아져 내리는데 한 줄기는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洛東江)이 되고 한 줄기

127)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28) 원문에는 庚午로 되어있으나 庚午년은 嘉慶15년 純祖10년(1810) 임으로 바로잡았다.

는 남쪽으로 흘러 금강(錦江)이 되고 한 줄기는 서북쪽으로 가서 달천(達川)이 되어 금천(金遷)으로 들어간다. 산 아래에 8교(橋)와 9요(遙)의 이름이 있는데 산 양쪽 언덕이 빙빙둘러 넓어져서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다 보면 멀고 멀어서 마치 땅이 끝인 것처럼 의심스럽다가 거기까지 가서 바라보면 또 멀고 멀어서 이렇게 하기를 아홉번 반복하여 비로소 법주사(法住寺)에 도착하는 고로 이름을 9요(遙)라 한다. 9요속에 물 한줄기가 돌고 돌아 구비쳐 흐르는데 한 구비마다 다리가 있어 모두 여덟이기 때문에 8교(橋)라 했다. 맨 첫다리가 수정교(水精橋)로 다리 위에 비각(飛閣)이 있어 사람들이 이 각(閣)속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각은 무너지고 다리만 남아있다.

신여(信如)라는 중이 다리 위에서 시(詩)를 쓰기를

“삼청동(三清洞)에 아홉겹 요(遙)가 있고  
한 줄기 시냇물에 여덟다리 있네  
다리 아래 물 맑은데 붉은 것이 푸른 빛을 시기하니  
산에 가득한 단풍잎 소나무 가지에 의지해 있네” 하였다.

가경(嘉慶) 11년(1806) 병인(丙寅)<sup>129</sup> 순조대왕(純祖大王)의 태실(胎室)을 큰절로부터 동쪽 10리 거리에 봉안(奉安)하고 수호(守護)하는 감관(監官) 1인과 산직(山直) 30명을 예조(禮曹)에서 차출하여 정한다.

- 함림산(含林山) : 군의 동쪽 10리에 있다.
- 구봉산(九峯山) : 군의 동쪽 40리에 있다.
- 사산(蛇山) · 와산(蛙山) · 저산(猪山) : 읍 안에 있다.
- 금적산(金積山) : 군내 15리에 있다.
- 검단산(儉丹山) : 군의 북쪽 37리 청주목(淸州牧) 경계에 있다. 백제(百濟)의 중 검단(儉丹)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오정산(烏頂山) : 군의 동쪽 5리에 있다.
- 웅 현(熊 峴) : 군의 북쪽 27리에 있다.
- 차 령(車 嶺) : 군의 서쪽 15리 회인(懷仁) 경계에 있다.
- 용 천(龍 川) : 군의 동쪽 2리에 있다.

129) 원문에는 庚午로 되어있으나 庚午년은 嘉慶15년 純祖10년(1810) 임으로 바로잡았다.

○병풍연(屏風淵) : 속리산(俗離山)아래 군의 동쪽 25리 거리에 있다.

### 단묘(壇廟)

- 사직단(社稷壇) : 군의 서쪽에 있다.
- 문 묘(文 廟) : 향교(鄕校)에 있는데 군의 북쪽이다.
- 여 단(厲 壇) : 군의 북쪽에 있다.
- 성황사(城隍祠) : 군의 남쪽 2리에 있다.

### 공해(公廡)

- 객사벽대청(客舍壁大廳) : 3칸 전후퇴
- 동 상 실(東 上 室) : 5칸 전후퇴
- 헌(軒) : 12칸 전후퇴
- 중문(中門) : 3칸
- 외삼문(外三門) : 3칸
- 내동헌(內東軒) : 12칸 전후퇴
- 외동헌(外東軒) : 6칸 전후퇴
- 아 사(衙 舍) : 33칸
- 향 청(鄕 廳) : 12칸
- 무학당(武學堂) : 7칸
- 작대청(作隊廳) : 4칸
- 군사청(軍司廳) : 4칸
- 군관청(軍官廳) : 5칸
- 아전청(衙前廳) : 16칸
- 지인청(知印廳) : 3칸
- 사령청(使令廳) : 3칸
- 군 기(軍 器) : 5칸
- 관노청(官奴廳) : 4칸

**제언(堤堰)**

- 둔덕제언(屯德堤堰) : 군 남쪽 10리에 있다. 둘레가 3백14자 독의 길이 1백35자 물깊이 4자이다.
- 신둔제언(薪屯堤堰) : 군 남쪽 20리에 있다. 둘레가 4백16자 독의 길이 1백16자 물깊이 7자이다.
- 달산제언(達山堤堰) : 군 남쪽 20리에 있다. 둘레가 4백27자 독의 길이 1백67자 물깊이 6자이다.
- 망월제언(望月堤堰) : 군 남쪽 35리에 있다. 둘레가 2백40자 독의 길이 1백40자 물깊이 4자이다.
- 신동제언(新洞堤堰) : 군 동쪽 15리에 있다. 둘레가 3백15자 독의 길이 1백15자 물깊이 5자이다.

**군정(軍政)**

- 경안부(京案付) : 2천 72명이다.
- 영안부(營案付) : 3백 51명이다.

**조적(糶糶)**

창고가 읍(邑)에 1군데 있는데 12칸이다.

- 죄기청(坐起廳) : 6칸이다.
- 문 간(門 間) : 2칸이다.
- 유고미(留庫米) : 5백 85섬이다.

**사창(社倉)**

각면에 흙으로 지은 곳간(倉庫)이 11군데 있다.

- 산외(山外) : 구티리(九峙里) 1군데로 3칸이며 감산미(歛散米) 1백90섬을 저장한다.
- 산내(山內) : 감동리(甘東里) 1군데로 3칸이며 감산미(歛散米) 1백70석을 저장한다.
- 내북(內北) : 초포리(草浦里) 1군데로 3칸이며 감산미(歛散米) 3백4섬을 저장한다.
- 수한(水汗) : 묘동리(畝東里) 1군데로 3칸이며 감산미(歛散米) 2백65섬을 저장한다.

- 서니(西尼) : 지산리(芝山里) 1군데로 4칸이며 감산미(歛散米) 1백71섬을 저장한다.
- 삼승(三升) : 탄금리(彈琴里) 1군데로 3칸이며 감산미(歛散米) 2백97섬을 저장한다.
- 마로(馬老) : 대양리(大陽里) 1군데로 4칸이며 감산미(歛散米) 2백49섬을 저장한다.
- 탄부(炭釜) : 관리(官里) 1군데로 4칸이며 감산미(歛散米) 2백59섬을 저장한다.
- 왕래(旺來) : 갈평리(葛坪里) 1군데로 3칸이며 감산미(歛散米) 2백37섬을 저장한다.
- 속리(俗離) : 장재리(壯才里) 1군데로 4칸이며 감산미(歛散米) 2백35섬을 저장한다.
- 사각(思角) : 구인리(求仁里) 1군데로 4칸이며 감산미(歛散米) 3백15섬을 저장한다.

### 전세(田稅)

정묘(丁卯)에 무명 43통이었으나 해마다 같지 않다.

### 대동(大同)

정묘(丁卯)에 참반목(參半木) 36통 돈 4천7백냥이었으나 해마다 같지 않다.

### 물산(物產)

송이버섯 · 벌꿀 · 지황(地黃) · 석이벚섯 · 대추 · 더덕 · 도라지 택사(澤瀉)

### 역원(驛院)

- 함림역(含林驛) : 군의 북쪽 7리에 있다. 대마(大馬) 1마리, 기마(騎馬) 2마리, 복마(卜馬) 5마리를 두었고 역리(驛吏) 30명, 노(奴) 40명이 근무한다.
- 원암역(元岩驛) : 군의 남쪽 30리에 있다. 대마(大馬) 1마리, 기마(騎馬) 4마리, 복마(卜馬) 5마리를 두었고, 역리(驛吏) 30명, 노(奴) 15명이 근무한다.

※ 모두 율봉찰방(栗峰察訪) 소속이다.

### 목장(牧場)

분양마(分養馬) 1마리를 8월에 받아와서 길러 4월에 사복시(司僕寺)에 상납(上納)하였는데 혁과(革罷)한 뒤에는 외양간(外養間)<sup>130)</sup> 값을 납부한다.

## 사찰(寺刹)

○속리사(俗離寺) : 군의 동쪽 30리에 있는데 속리산 서쪽에 있다.

※김구용(金九容)의 시(詩)가 있다.

“달마암(達磨岩)가에 등불하나 밝았는데  
문열고 향 피우니 마음 다시 맑아라  
혼자 깊은 밤에 앉아 잠 못이루니  
창 앞에 흐르는 물 솔바람 소리와 섞어 들리네” 하였다.

○법주사(法住寺) : 속리산(俗離山)에 있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신라의 중 의신(義信)이 흰 노새에 불경을 실고 와서 이절을 세웠다고 한다. 성덕왕(聖德王)이 중수(重修)하였는데 석조(石槽)와 석교(石橋)·석옹(石瓮)·석환(石鑊)이 있고 절 안 산호전(珊瑚殿)에 금신장육상(金身丈六像)<sup>131)</sup>이 있고 문 앞에는 구리로 부어 만든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있는데 몹시 높고 그 한쪽에 통화(統和) 24년(1006)에 세웠다고 새겨 있다. 또 고려(高麗)의 밀직대언(密直代言) 이숙기(李淑琪)가 지은 중 자정(慈淨)의 비명(碑銘)이 있다.

※박효수(朴孝修)의 시(詩)가 있다.

“높다란 사면 푸른 연꽃같은 봉우리  
장갑(長岬)의 신령스런 근원 몇겹인고  
문장대(文藏臺)는 천고(千古)의 이끼 그대로 있고  
우타굴(于陀窟) 그늘 만 그루 소나무세  
용이 탐속으로 들어가니 진골(眞骨)이 남았고  
나귀가 바위앞에 누웠으니 성종(聖蹤)을 찾네  
길이 삼한(三韓)을 복되게 하는건 누가 주인인가  
산호전(珊瑚殿)에 자금용(紫金容)<sup>132)</sup>일세” 하였다.

※함부림(咸傅林)<sup>133)</sup> 시(詩)는

“계원(鷄園)<sup>134)</sup>의 한가로운 일월(日月)이요

130) 말이나 소를 기르는 집

131) 佛像임.

132) 부처의 몸빛이 자금색이다.

133) 원문에 咸僧林으로 되어있으나 咸傅林으로 바로잡았다

안탑(雁塔)<sup>135</sup>에 구름과 연기 자욱하네  
우연히 삼청동(三清洞)에 들렀더니  
세상일 시끄러운 것 모두 잊었네” 하였다.

○북천사(福泉寺) : 법주사(法住寺) 동쪽 7리쯤에 있다. 절 동쪽에 샘물이 있어 돌 틈으로 쏟아져 나와 식수(食水)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천순(天順)<sup>136</sup> 갑신(甲申 1464)에 우리 세조대왕(世祖大王)이 속리산에 거동할 때 병풍연(屏風淵)에 머물다가 이튿날 법주사(法住寺)로부터 이 절에 행차(幸次)하여 주변의 경치를 살펴보고 수행하는 대신 김수온(金守溫)에게 명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 고적(古跡)

○구암(龜巖) : 법주사(法住寺)의 서쪽 봉우리에 거북바위가 있는데 천연으로 하늘이 만든 것 같아 등 위에는 사람이 3천명 앉을 수 있고 그 머리는 묘하게도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전해오는 말에 중원(中原)<sup>137</sup> 술사(術士)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중원(中原)의 재물과 비단이 날마다 동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무슨 까닭인지 몰랐더니 이제 알고 보니 이 물건이었구나” 하고 그 머리를 자르게 하였다 한다.

○마현박석(馬峴薄石) : 군의 동쪽 15리에 있다. 고개 위에 넓고 얇게 뜬 돌로 3~4리를 깔아 놓았는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고려 태조가 일찍이 속리산에 거동할 때 닦은 어로(御路)라 한다.

### 성지(城池)

○오정산성(烏頂山城) : 군의 동쪽 5리에 있으니 즉 삼년산성(三年山城)이다. 쌓은지 3년 만에 완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3천6백99척이고 높이가 18척이다. 성 안에 우물이 5개 있는데 지금은 반은 무너졌다. 고려 태조

134) 인도(印度)에 있는 절이름

135) 인도 왕사성(王舍城)에 안탑이 있는데 중들이 기러기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회통하는 말로 “우리들이 배가 고프니 보살(菩薩)이 기러기를 가르킨 말은 몸으로 포시(布施)하시오” 하였더니 기러기가 스스로 죽어서 떨어졌다. 중들이 감동되어 기러기의 탑을 세웠다 한다.

136) 원문에는 千順으로 되어있으나 天順으로 바로잡았다.

137) 中國을 말함



11년(927)에 태조가 스스로 장군이 되어 이 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청주(淸州)로 거둥하였다. 산아래에 군장동(軍藏洞)이 있으니 세상에 전해오기를 “태조가 군대를 주둔 시켰던 곳” 이라 한다.

○백봉산성(栢峰山城) : 군의 북쪽 10리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1천4백88척이고 성안에 깊은 못이 있는데 지금은 반은 무너졌다.

## 인물(人物)

◎ 우거(寓居) 고려(高麗)

○한유문(韓有文) : 우리 태종(太宗)과 같은 해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벼슬이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이르렀다.

○김타(金沱) : 과거에 두 번 급제 하고 여러번 청백(淸白)한 요직을 지냈으며 벼슬이 청주목사(淸州牧使)에 이르렀다.

◎ 효자(孝子) 조선(朝鮮)<sup>138)</sup>

○막동(莫同) : 사천(私賤)이다. 일찍이 집에 불이 나서 어머니와 딸이 모두 불속에 들어 있는데 막동(莫同)이 급히 들어가 어머니를 업고 나오면서 딸이 죽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어머니 살린 것을 기쁘게 여겼다. 영조(英祖 1734)<sup>139)</sup> 10년에<sup>140)</sup> 정문을 세웠다.

○이창경(李昌慶) · 이원경(李元慶) · 이명경(李鳴慶) 삼형제(三兄弟) :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12세손(世孫)이고 눌헌(訥軒) 이사균(李思鈞)의 6세손으로 사인(士人) 이환(李換)의 세 아들이다. 현종(顯宗)<sup>141)</sup> 을사년(乙巳年 1665)에 명화적(明火賊)들이 달려들어 아버지를 해치려할 때 세 아들이 함께 있었으나 어린 나이로 큰아들 창경(昌慶)은 23세이고 둘째 아들 원경(元慶)은 17세, 막내아들 명경(鳴慶)은 15세로 곁에서 글을 읽고 있다가 도적이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들자 세 아들이 함께 몸을 날려 아버지를 가로막고 죽기로서 칼날과 싸워 세 사람 모두 전신에 칼날이 뼈까지 미쳐 유헬(流血)이 낭자하여 사경(死境)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으나 개의치 않고 “차라리 우리를 죽

138)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39) 원문에는 英宗으로 되어있으나 英祖로 고쳤다.

140) 東國輿地勝覽에 今上十四年으로 기록되어 있어 中宗14년(1519)임을 기록하고 있어 年代에 착오가 있다.

141) 원문에는 顯廟朝로 되어있으나 顯宗으로 고쳤다.

일망정 우리 아버지는 해치지 말라” 하니 도적들이 감동하여 서로 하는 말이 “만약 이런 사람을 해치면 우리들도 재앙을 받는다” 하며 그 아버지를 놓아주고 살림만 챙겨 갔고 그 아버지는 한 곳도 상처를 입지 않고 무사 하였다. 이듬해 병오(丙午 1666)에 특명으로 정문을 세우도록하고 벼슬자리를 주도록 하였으나 큰 아들 창경과 막내 명경은 일찍 죽었으므로 숙종(肅宗)<sup>142</sup>때 모두 좌랑(佐郎)으로 추증(追贈)하고 원경은 벼슬을 주어 현감(縣監)에 이르렀다. 삼형제의 정문의 현판(懸板)은 우암(尤庵) 송선생(宋先生)과 수암(遂菴) 권선생(權先生)이 앞과 뒤에 손수 써서 익재영당(益齋影堂) 앞에 세웠다.

◎ 열녀(烈女)

○ 김씨(金氏) :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의 형 참판(參判) 효남(孝男)의 증손녀(曾孫女)요.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15세손(世孫) 이영간(李榮幹)의 처(妻)다. 영조(英祖)<sup>143</sup> 병진년(丙辰年 1736)에 그의 남편 영간이 병으로 일찍 죽었으나 시부모가 계심으로 통곡을 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을 할 수 없더니 염습(殮襲)을 마치고 여러 동서들에게 말하기를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후사(後嗣)를 이을 것이요 자손들이 앞에 있으니 시부모를 봉양할 수 있으니 나는 마땅히 죽어 남편을 따라갈 것이다” 하더니 이튿날 새벽 성복(成服)한 뒤 사람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소금물을 마시고 이불을 쓰고 죽었다. 영조(英祖) 정묘(丁卯 1747)에 특별히 정문을 세우도록하니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가 손수 현판을 쓰고 익재영당 앞 시할아버지인 이원경(李元慶) 삼형제 정문 오른쪽에 세웠다. 마을 앞을 지나는 이들이 공경하며 마을 이름을 삼강촌(三綱村)이라 하였다.

○ 옥랑(玉郎) : 관비(官婢)로서 임오년(壬午年)에 그 남편이 죽으니 울면서 뛰지는 못하지만 손수 염습(殮襲)을 하고 약을 먹고 남편을 따라 죽기로 하니 시부모는 이미 죽었으나 친어머니가 살아 있는지라 돌아보며 한탄하는 말이 “어머니는 세 아들이 있으니 내가 죽어도 무엇을 걱정하리요. 그러나 내 자식이 겨우 강보(襁褓)를 면하였으니 길러 줘야 무후(無後)를 면할 것이니 어머니만 믿는다.” 하고 환한 얼굴로 운명(殞命)하니 그 어머니와 형들이 매우 슬퍼하고 또 정모(貞慕)의 열(烈)에 감동하여 남편과 합장(合

142) 원문에는 肅廟朝로 되어있으나 肅宗으로 고쳤다.

143) 원문에는 英宗으로 되어있으나 英祖로 고쳤다.

葬)하는 날에 군수(郡守) 이공(李公)이 친히 글을 지어 제사하고 비(碑)에 쓰기를 “열녀 관비 옥랑의 묘(烈女官婢玉郎之墓)”라 하고 그 자녀(子女)들에게 복호(復戶)<sup>144)</sup> 해주었다. 계사년(癸巳年) 봄에 암행어사(暗行御史) 김공(金公)이 그 사실을 듣고 6년 뒤 무술(戊戌)에 정문을 세워줄 것을 장계(狀啓)하였다.

### 전결(田結)<sup>145)</sup>

지금 경작하는 밭과 논의 합계가 2천1백7결81부1속이다.

### 진공(進貢)

멧돼지 한 마리를 3년에 2차례 영동현(永同縣)과 함께 하였으나 기유년(己酉年)에 계청(啓請)에 의하여 혁파(革罷)되었다.

- 정월령(正月令) : 벌꿀3되, 백급(白芨)3냥, 태수(胎水)1흡
- 3월령(三月令) : 백출(白朮)3냥5전, 도라지10냥, 황백피(黃柏皮)6냥, 전호(前胡)9냥, 백급(白芨)2냥, 진령(秦崙)10냥, 모향(毛香)8근6냥
- 6월령(六月令) : 금은화(金銀花)3냥, 봉리궤(封裏櫃)1좌
- 7월령(七月令) : 안식향(安息香)1근14냥, 백급(白芨)3냥, 태수(胎水)2흡
- 8월령(八月令) : 대추2말
- 9월령(九月令) : 벌꿀5되
- 10월령(十月令) : 전호(前胡)11냥, 오미자(五味子)5냥8전, 금은화(金銀花)1냥
- 11월령(十一月令) : 오가피(五加皮)11냥, 위령선(威靈仙)6냥, 연교(連翹)4전
- 진하(進賀) : 대추2말, 산평6마리

### 봉름(棒廩)

- 공수위(公須位) : 55결(結)
- 잡역상정미(雜役詳定米) : 4백20섬
- 치계시탄등잡물가(雉鷄柴炭等雜物價)는 같이 포함되었다.

144) 부역과 조세를 면제하여 주는 일

145) 제목이 없으나 편이상 제목을 달았다.

○월름미(月廩米): 2백42섬10말

○관수유청공사지사객지공가미(官需油淸公事紙使客支供價米)는 같이 포함되었다.

### 청주진관(淸州鎭管)

편오군(編伍軍)5백70명 중 천총(千摠)1인, 파총(把摠)1인, 초관(哨官)4인, 기괘관(旗牌官)6인, 마병(馬兵)89명, 보군(步軍)4백70명이다.

### 누정(樓亭)

객사(客舍) 북쪽에 옛날에 삼산루(三山樓)가 있었으나 세 번 지난 임진년(壬辰年)에 실화(失火)로 타버리고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다.

### 교량(橋梁)

고을 남쪽에 옛날에 돌다리(石橋)가 있었는데 오래되어 무너지고 지금은 나무다리(木橋)로 되어있고 고을 동쪽에도 역시 나무다리(木橋)가 있다.

### 형승(形勝)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40리 거리 적암촌(赤巖村) 뒷산이 동증(東甌)으로 상주(尙州) 화령(化寧)접경이고 서쪽으로 20리 거리 질곶촌(秩串村) 뒷산이 서증(西甌)으로 옥천(沃川) 접경이고 남쪽으로 40리 거리 증산촌(甌山村) 뒷산이 남증(南甌)이고, 북쪽으로 30리 거리 백운동(白雲洞) 뒷산이 북증(北甌)이니 청산 주성(靑山酒城) 접경이다.

## 회인현(懷仁縣)

### 진관(鎭管)

청주(淸州)이다.

○동쪽으로 보은(報恩) 경계 까지 16리에 이르고 서쪽으로 문의(文義) 경계까지 16리에 이르고 남쪽으로 청주(淸州) 경계까지 32리에 이르고 북쪽으로 청주(淸州) 경계까지

29리에 이르고 북쪽으로 서울까지의 거리는 3백46리로 5일 걸리고 서쪽으로 감영(監營)까지의 거리는 1백20리로 하루 반 걸리고 북쪽으로 병영(兵營)까지의 거리는 50리로 만나질 걸리고 서쪽으로 수영(水營)까지의 거리는 3백리이다.

###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백제(百濟)의 미곡현(未谷縣)으로 신라(新羅)가 매곡(昧谷)으로 고치고 연산군(燕山郡)<sup>146)</sup>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高麗) 현종(顯宗) 때 청주(淸州)에 예속되었다가, 뒤에 회덕(懷德)의 겸임관(兼任官)이 되었다. 우왕(禡王)<sup>147)</sup> 때 별도로 감무(監務)를 두고 조선(朝鮮)<sup>148)</sup> 태종(太宗 1413) 13년 예(例)에 따라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 관원(官員)

현감(縣監) · 훈도(訓導) 각 1인 이다.

### 군명(郡名)

미곡(未谷) · 매곡(昧谷)

### 관직(官職)

○현감(縣監) : 음직(陰職) 6품이다.[그 아래에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1인, 군관(軍官) 8인, 아전(衙前) 14인, 지인(知印) 9인, 사령(使令) 11명, 관노(官奴) 6명, 관비(官婢) 4명을 두었다.]

### 성씨(姓氏)

회인(懷仁)<sup>149)</sup>: 이(李) · 홍(洪) · 장(張) · 신(辛) · 최(崔)[속성(續姓)이다]

146) 지금의 淸原郡 文義

147) 원문의 辛禡로 되어 있으나 禡王으로 고쳤다.

148) 원문에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49) 원문에는 本縣으로 되어있으나 懷仁으로 고쳤다.

### 산천(山川)

- 구룡산(九龍山) : 보은(報恩) 속리산(俗離山)으로부터 뺏어나와 주맥(主脉)이 되었다.
- 말흘탄(末訖灘) : 옥천(沃川) 화인진(化仁津)으로부터 흘러와서 회덕(懷德) 형각진(荊角津)으로 흘러간다.

### 풍속(風俗)

검소한 것을 숭상하고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다.

### 방리(坊里)

#### ○동면(東面)

- 평리(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괴정리(槐亭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오동리(梧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신문리(新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계암리(桂巖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능암리(能巖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3리 거리에 있다.
- 초개동리(草介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3리 거리에 있다.
- 법주리(法住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 염둔리(鹽屯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 용흥동리(龍興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 궁평리(宮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 신평리(新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 세촌리(世村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 갈치리(葛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산척동리(山尺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 차령리(車嶺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 후율리(後栗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 동정리(東井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노성산리(老城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지경리(地境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5리 거리에 있다.

#### ○서면(西面)

가정자리(佳亭子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5리 거리에 있다.

명곡리(鳴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7리 거리에 있다.

용두리(龍頭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거교리(巨橋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2리 거리에 있다.

남대문리(南大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3리 거리에 있다.

만지동리(晚旨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거구리(巨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신읍리(新邑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6리 거리에 있다.

후곡리(後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6리 거리에 있다.

양중지리(陽中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어성리(漁城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염치리(鹽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묘암리(妙巖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7리 거리에 있다.

마장리(馬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동막동리(東幕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7리 거리에 있다.

마구리(馬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 ○남면(南面)

신대리(新垔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8리 거리에 있다.

추동리(楸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2리 거리에 있다.

금곡리(金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2리 거리에 있다.

지승동리(地承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3리 거리에 있다.

조곡리(鳥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사담리(沙潭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 판장리(板藏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6리 거리에 있다.
- 탕산리(宕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7리 거리에 있다.
- 음중지리(陰中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8리 거리에 있다.
- 풍계리(楓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8리 거리에 있다.
- 분저곡리(分諸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 서당평리(書堂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 송포리(松浦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 사탄리(沙灘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북면(北面)

- 계산리(桂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 수곡리(首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 등곡리(登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5리 거리에 있다.
- 지경동리(地境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30리 거리에 있다.

○강외면(江外面)

- 사음리(舍音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5리 거리에 있다.
- 매산리(梅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5리 거리에 있다.
- 행정리(杏亭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7리 거리에 있다.
- 법수리(法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30리 거리에 있다.

○읍내면(邑內面)

- 사동리(社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리 거리에 있다.
- 마근동리(馬斤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리 거리에 있다.
- 벌리(伐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리 거리에 있다.
- 창리(昌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리 거리에 있다.
- 눌곡리(訥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3리 거리에 있다.
- 죽암리(竹巖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5리 거리에 있다.



- 자송리(紫松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4리 거리에 있다.  
 황평리(黃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4리 거리에 있다.  
 건천리(乾川里) : 관문(官門)으로 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애치리(艾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5리 거리에 있다.  
 지산리(池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3리 거리에 있다.  
 보고곡리(甫古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7리 거리에 있다.  
 고초천리(高草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입석리(立石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5리 거리에 있다.  
 개동리(介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4리 거리에 있다.  
 용상동리(龍床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3리 거리에 있다.  
 신촌리(新村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리 거리에 있다.  
 교동리(校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리 거리에 있다.

### 호구(戶口)

- 편호(編戶) : 1천2백44호이다.  
 ○남자(男子) : 2천6백69명  
 ○여자(女子) : 2천1백93명이다[경오 장적기준이다]

### 전부(田賦)

- 밭(旱田) : 원장(元帳)의 9백91결34복7속 중에서 묵는 것이 5백95결88복9속이고 경작하는 것이 3백95결45복8속이다.  
 ○논(水田) : 원장(元帳)의 1백68결32복7속 중에서 묵는 것이 81결38복이고 경작하는 것이 86결94복7속이다.  
 ○전세(田稅) : 무명6통43필9자이다.[정월(正月)부터 수납하여 3월(三月) 보름 전까지 육로로 운반하여 호조(戶曹)에 납부한다]  
 ○대동(大同) : 무명6통27필, 돈 6백54냥, 약재값(藥材價)2필, 돈5냥이다.[2월(二月)부터 수납하여 3월(三月)안으로 육로로 운반하여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한다.]

○저치미(儲置米) : 55섬이다.

○균세(均稅) : 결전(結錢) 2백37냥9전6푼과 면세목(免稅木) 27필이다.[4월내로 수송하여 균역청(均役廳)에 납부한다.]

### 요역(徭役)

토지 1결(結)에 대하여 전(錢)으로 5전1푼이고 전세목(田稅木) 23자3치, 삼목(三木) 8자7치, 대동목(大同木) 9자3치를 전(錢)으로 5전이다. 관수미(官需米) 4말5되, 저치미(儲置米) 1말4되, 잡역미(雜役米) 3말[대전(代錢)은 6전3푼이다], 전세역값(田稅役價)은 2전5푼이고 태가(駄價)는 1전2푼이다.

### 군액(軍額)

○어영군(御營軍) : 31명

○자보(資保) : 33명

○납보(納保) : 42명

○금위군(禁衛軍) : 20명

○자보(資保) : 21명

○상납보(上納保) : 41명

○기병(騎兵) : 호보(戶保)를 합쳐 30명

○보병(步兵) : 호보(戶保)를 합쳐 22명

○신선(新選) : 4명

○포보(砲保) : 6명

○금보(禁保) : 16명

○수군(水軍) : 9명

○편오군초관(編伍軍哨官) : 2인

○기패관(旗牌官) : 3인

○군(軍) : 1백15명

※ 이상 잡색(雜色)으로 3백95명이다.

**성지(城池)****창고(倉庫)**

- 읍창(邑倉) : 환미(還米)가 4백27섬9말1되2홉으로 6석(石)5리(利)이다.
- 남사창(南社倉) : 환미(還米) 3백94섬13말4되를 저장해둔다.
- 동사창(東社倉) : 환미(還米) 3백23섬1말4되를 저장해둔다.

**관방(關防)****진보(鎭堡)****봉수(烽燧)****학교(學校)**

- 향교(鄕校) : 고을 북쪽에 있다.

**단묘(壇廟)**

- 사직단(社稷壇) : 고을 서쪽에 있다.
- 성황사(城隍祠) : 매곡산(昧谷山)에 있다.
- 여단(厲壇) : 고을 북쪽에 있다.

**능묘(陵墓)****불우(佛宇)**

- 웅암사(熊巖寺) : 구룡산(九龍山)에 있다. 다만 빈터만 남아있다.
- 묘암사(妙巖寺) : 목감산(牧監山)에 있다. 다만 빈터만 남아있다.
- 마전사(麻田寺) : 고을 남쪽 노성산(老城山)에 있다.
- 은선암(隱仙菴) : 고을 서쪽 목령산(墨嶺山)에 있다. 다만 빈터만 남아있다.

궁실(宮室)

누정(樓亭)

도로(道路)

- 노령대로(蘆嶺大路) : 보은(報恩)경계로 가는 큰길로 관문(官門)으로부터 동쪽으로 16리 거리에 있다.
- 묵령대로(墨嶺大路) : 문의(文義) 경계에서 오는 큰길로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 남소로(南小路) : 청주(淸州) 경계로 가는 길로 관문(官門)으로부터 32리 거리에 있다.
- 피반령대로(皮盤嶺大路) : 청주(淸州) 경계에서 오는 큰길로 관문(官門)으로부터 29리 거리에 있다.
- 북소로(北小路) : 청산(靑山) 경계로 가는 길로 관문(官門)으로부터 25리 거리에 있다.

교량(橋梁)

제언(堤堰)

도서(島嶼)

장시(場市)

- 두산시장(斗山市場) : 북면(北面)에 있는데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이고 3, 8일에 열린다.

어염(魚鹽)

역원(驛院)

**목장(牧場)****형승(形勝)**

- 거듭된 멧부리와 겹겹의 고개길은 양의 창자와 같다.  
     ※이승소(李承召)의 다음과 같은 시(詩) 귀절이다.  
     “거듭된 멧부리와 겹겹의 고개 멀리 서로 연결되고  
     길은 양의 창자처럼 얽히었으니 말이 나아가지 못하네”

**고적(古蹟)**

- 호점산성(虎岾山城) : 돌로 쌓았다. 둘레가 5천1백48자이고 높이가 8자이다. 성안에 우물이 세 개있다.
- 매곡산성(昧谷山城) : 돌로 쌓았다. 둘레가 1천1백52자이고 높이가 8자이다.

**토산(土産)**

- 무쇠(水鐵) · 벌꿀 · 시초 · 복령(茯苓) · 지황(地黃) · 안식향(安息香) · 더덕 · 도라지 · 대추

**진공(進貢)**

- 2월령(二月令) : 벌꿀(淸蜜) 2되
- 3월령(三月令) : 모향(茅香) 8근6냥 · 전호(前胡) 1근5냥 · 도라지9냥 · 진규(眞奎) 10냥 · 백급(白芨) 2냥 · 건지황(乾地黃) 2냥
- 7월령(七月令) : 안식향(安息香) 1근5냥 · 백급(白芨) 2냥4전 태수(胎水) 1홉 · 벌꿀 2되
- 10월령(十月令) : 대추 1말5되 · 전호(前胡) 14냥 · 산약(山藥) 5냥8전 · 유지(油紙) 1장
- 진하진상(陳賀進上) : 대추 2말2되 · 말린 꿩(乾雉) 4마리 등이다.

**봉름(棒廩)**

- 일년월름미(一年月廩米) : 1백섬
-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 10섬

- 유청지지가미(油淸紙地價米) : 39섬 합계 1백49섬이다.
- 아록(衙祿) : 55결이나 쌀 9섬, 콩 5섬과 잡역미(雜役米)로 1백20섬으로 대치한다.

### 과거(科擧)

#### ◎ 조선(朝鮮)<sup>150</sup>

- 홍윤성(洪允成) : 문종(文宗)때 급제하여 세조(世祖)를 도와 정난, 좌익(靖難, 佐翼) 공신이 되고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으로 봉해지고 벼슬이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 시호(諡號)는 위평(威平)이다.

### 인물(人物)

#### ◎ 고려(高麗)

- 공직(龔直) : 용맹과 지략이 있었다. 신라말에 매곡현(昧谷縣)의 장군이 되어 견훤(甄萱)을 섬기다가 견훤의 무도(無道)한 것을 보고 아들 영서(英舒)와 함께 태조(太祖)에게 왔다. 태조가 대상(大相)을 제수하고 벼슬이 좌승(左丞)에 이르렀다. 시호(諡號)가 봉의(奉義)이다.
- 공직달(龔直達) : 직(直)의 아들이다. 아우 금서(金舒)와 함께 후백제에 인질로 잡혀갔는데 직(直)이 태조(太祖)에게 분자 견훤이 죽었다.

#### ◎ 조선(朝鮮)<sup>151</sup>

- 이우(李祐) : 효행(孝行)으로 정문을 세웠다.
- 지성동(池性東) : 효행(孝行)으로 병자(丙子)에 복호(復戶)<sup>152</sup>를 하였다가 2년후 조령(朝令)으로 복호를 파(罷)하다.

### 제영(題詠)

관찰사(觀察使) 홍수주(洪受疇)가 시(詩)를 지어 현판(懸板)하였는데  
 “험난한 산악 중간이 터어 경계는 분명치 않으나 너그럽고

150) 원문에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51) 원문에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52)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여 주는 것

읍내와 마을 모두 합쳐도 얼마되지 않구나  
 관아의 규모는 작아 가을 햇살같이 박하고  
 나그네 수심은 빗소리에 차구나  
 가난한 백성에게 길삼을 가르치니  
 숨은 사람이 기둥을 잡고 버티는 듯  
 다소간 관심사를 말벗할 사람없고  
 먼지 앉은 벽에 쓰고자 하니 詩心이 번거롭다” 하였다.

### 환적(宦蹟)

만력(萬曆) 신해(辛亥 광해군 3년 1611)부터 시작한다.

- 조언범(趙彦範) : 신해(辛亥 1611)에 도임하여 같은 해에 그만두다.
- 윤겸선(尹兼善) : 신해에 도임하여 임자(壬子 1612)에 그만두다.
- 김명남(金命男) : 임자에 도임하여 갑인(甲寅 1614)에 그만두다.
- 송경조(宋敬祚) : 갑인에 도임하여 정사(丁巳 1617)에 그만두다.
- 남 진(南 鎭) : 정사에 도임하여 기미(己未 1619)에 부모상(喪)을 당하였다.
- 성창열(成昌烈) : 기미에 도임하였으나 부모상(喪)을 당하였다.
- 심 달(沈 闕) : 기미에 도임하여 신유(辛酉 1621)에 적성(積城)으로 진출하였다.
- 이덕언(李德言) : 신유에 도임하였다가 석성(石城)으로 진출하였다.
- 김업남(金業男) : 신유에 도임하여 계해(癸亥 1623)에 그만두다.
- 허 겸(許 兼) : 계해에 도임하여 갑자(甲子 1624)에 그만두다.
- 박홍소(朴弘韶) : 갑자에 도임하여 병인(丙寅 1626)에 그만 두었으며 거사비(去思碑)<sup>153)</sup>가 세워졌다.
- 성 급(成 茂) : 병인에 도임하여 신미(辛未 1631)에 임기를 마쳐 바뀌었다.
- 이 회(李 瀼) : 신미에 도임하여 같은해 옥천(沃川)으로 옮겼다.
- 조흥빈(趙興賓) : 신미에 도임하였다가 교체되었다.
- 이건봉(李堅峰) : 임신(壬申 1632)에 도임하여 갑술(甲戌 1634)에 그만두다.

153) 善政 · 頌德碑등을 말함

- 이덕염(李德濂) : 갑술에 도입하여 병자(丙子 1636)에 그만두다.
- 유익화(柳益華) : 병자에 도입하여 경진(庚辰 1640)에 별세하였다.
- 조정란(趙廷蘭) : 경진에 도입하여 같은해에 교체되었다.
- 홍성해(洪成海) : 경진에 도입하여 신사(辛巳 1641)에 잡혀 갔다.
- 구 영(具 瑩) : 신사에 도입하여 같은 해에 그만두다.
- 권근중(權謹中) : 신사에 도입하였으나 감사와 상피(相避) 관계로 교체되었다.
- 이홍조(李弘祚) : 계미(癸未 1643)에 도입하여 병술(丙戌 1646)에 벼슬을 버렸다.
- 김근행(金謹行) : 병술에 도입하여 무자(戊子 1648)에 그만두다.
- 이창한(李昌漢) : 기축(己丑 1649)에 도입하여 그 해에 별세 하였다.
- 박 인(朴 潏) : 기축에 도입하여 신묘(辛卯 1651)에 그만두다.
- 최 로(崔 櫓) : 신묘에 도입하였으나 감사와 상피(相避)관계로 교체되었다.
- 김하현(金夏鉉) : 신묘에 도입하여 임진(壬辰 1652)에 교체되었다.
- 이명빈(李命賓) : 임진에 도입하여 계사(癸巳 1653)에 그만두다.
- 이순남(李順男) : 문과(文科) 급제자로 계사에 도입하여 기해(己亥 1659)에 임기를 마쳤으며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정백기(鄭伯基) : 기해에 도입하여 임인(壬寅 1662)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이민도(李敏道) : 계묘(癸卯 1663)에 도입하여 같은 해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조현소(趙見素) : 계묘에 도입하여 을사(乙巳 1665)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송유제(宋孺悌) : 을사에 도입하여 병오(丙午 1666)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이 빈(李 櫛) : 병오에 도입하여 임자(壬子 1672)에 임기를 마쳐 교체 되었다.
- 이태하(李泰夏) : 임자에 도입하여 계축(癸丑 1673)에 여사(御史)의 주청(奏請)으로 파직되었다.
- 황진구(黃震耆) : 을묘(乙卯 1625)에 도입하여 기미(己未 1679)에 사헌부(司憲府)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우 정(禹 鏞) : 문과(文科) 급제자로 기미에 도입하여 경신(庚申 1680)에 품계를 낮춰 파직시켰다.
- 한 전(韓 堧) : 신유(辛酉 1681)에 도입하여 병인(丙寅 1686)에 임기를 마쳐 교체



되었다.

- 최 신(崔 愼) : 병인에 도임하여 무진(戊辰 1688)에 품계를 낮춰 파직시켰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이태기(李泰棋) : 문과(文科) 급제자로 무진에 도임하여 신미(辛未 1691)에 별세하였다.
- 윤형래(尹亨來) : 신미에 도임하여 임신(壬申 1692)에 별세 하였다.
- 송 엽(宋 燾) : 임신에 도임하여 정축(丁丑 1697)에 임기를 마쳐 교체되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이대영(李大齡) : 정축에 도임하여 임오(壬午 1702)에 부모상을 당하였다.
- 정지상(鄭至祥) : 임오에 도임하여 병술(丙戌 1706)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양득중(梁得中) : 병술에 도임하여 무자(戊子 1708)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정서하(鄭瑞河) : 무자에 임명을 받았으나 도임 전에 부모 상(喪)을 당하였다.
- 서종적(徐宗積) : 무자에 도임하여 계사(癸巳 1713)에 품계를 낮춰 파직시켰다.
- 조상건(趙尙健) : 문과(文科) 급제자로 계사에 도임하여 갑오(甲午 1714)에 지평(持平)으로 옮겨갔다.
- 이명세(李命世) : 문과(文科) 급제자로 갑오에 도임하여 을미(乙未 1715)에 별세하였다.
- 이 회(李 薈) : 을미에 도임하여 무술(戊戌 1718)에 별세하였다.
- 박종양(朴宗陽) : 무술에 도임하여 임인(壬寅 1722)에 부모 상(喪)을 입었다.
- 이성환(李星煥) : 문과(文科) 급제자로 임인에 도임하여 같은해 품계를 낮춰 파직시켰다.
- 신성집(申成集) : 임인에 도임하여 갑진(甲辰 1724)에 주청(奏請)으로 파직되었다.
- 김도응(金道應) : 문과급제자. 갑진에 도임하여 무신(戊申 1728)에 법망(法網)에 걸려 죽임을 당하였다.
- 변관하(卞觀夏) : 무신에 도임하여 같은해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송국경(宋國經) : 문과(文科) 급제자. 기유(己酉 1729)에 도임하여 경술(庚戌 1730)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이하영(李夏英) : 경술에 도임하여 갑인(甲寅 1734)에 주청(奏請)으로 파직되었다.
- 이 현(李 炫) : 갑인에 도임하여 기미(己未 1739)에 임기를 마쳐 교체되었다.
- 김진억(金鎭億) : 문과(文科) 급제자. 기미에 도임하여 경신(庚申 1740)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강재항(姜再恒) : 경신에 도임하여 갑자(甲子 1744)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정희태(鄭希泰) : 갑자에 도임하여 정묘(丁卯 1747)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이동빈(李東賓) : 정묘에 도임하여 기사(己巳 1749)에 사직(辭職)함으로 교체되었다.
- 이종원(李宗遠) : 기사에 도임하여 같은해 사헌부(司憲府)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 윤동철(尹東喆) : 기사에 도임하여 계유(癸酉 1753)에 품계를 낮춰 파직시켰다.
- 홍옥보(洪沃輔) : 계유에 도임하여 같은해 부모 상(喪)을 당하였다.
- 이언제(李彦濟) : 계유에 도임하여 을해(乙亥 1755)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심 겸(沈 鉞) : 을해에 도임하여 정축(丁丑 1757)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이익현(李益炫) : 무인(戊寅 1758)에 도임하여 경진(庚辰 1760)에 밀양(密陽)으로 옮겨갔다.
- 최도흥(崔道興) : 신사(辛巳 1761)에 도임하여 을유(乙酉 1765)에 임기를 마쳐 교체되었다.
- 이언수(李彦秀) : 병술(丙戌 1766)에 도임하여 경인(庚寅 1770)에 임기를 마쳐 교체되었다.
- 김택동(金宅東) : 신묘(辛卯 1771)에 도임하여 병신(丙申 1776)에 임기를 마쳐 교체되었다.
- 이수빈(李壽彬) : 병신에 도임하여 기해(己亥 1779)에 부모상을 당하였다.
- 송위명(宋瑋明) : 기해에 도임하여 경자(庚子 1780)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홍 경(洪 徹) : 신축(辛丑 1781)에 도임하여 갑진(甲辰 1784)에 별세하였다.
- 안정탁(安廷鐸) : 갑진에 도임하여 같은해 고부(古阜)로 옮겨갔다.
- 이지형(李趾馨) : 을사(乙巳 1785)에 도임하여 정미(丁未 1787)에 주청(奏請)으로 파직되었다.
- 유진구(柳鎭九) : 무신(戊申 1788)에 도임하여 기유(己酉 1789)에 별세하였다.
- 변위진(卞緯鎭) : 기유에 도임하여 계축(癸丑 1793)에 온양(溫陽)으로 옮겨갔다.
- 이노재(李魯在) : 계축에 도임하여 병진(丙辰 1796)에 안산(安山)으로 옮겨갔다.
- 이가운(李可運) : 병진에 도임하여 신유(辛酉 1801)에 임기를 마쳐 교체되었다.
- 김기희(金箕熙) : 신유에 도임하여 임술(壬戌 1802)에 사직(辭職)하였다.
- 이후식(李厚植) : 임술에 도임하여 정묘(丁卯 1807)에 임기를 마쳐 교체되었다. 거사

비(去思碑)가 있다.

- 김 완(金 琯) : 정묘에 도임하여 무진(戊辰 1808)에 어사(御史) 장계(狀啓)로 파직되었다.
- 조명한(趙明漢) : 무진에 도임하여 계유(癸酉 1813)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이재겸(李在謙) : 계유에 도임하여 정축(丁丑 1817)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박종염(朴宗濂) : 무인(戊寅 1818)에 도임하여 계미(癸未 1823)에 임기를 마쳐 교체되었다.
- 이시좌(李時佐) : 계미에 도임하여 정해(丁亥 1827)에 김포(金浦)로 옮겨갔다.
- 이 화(李 鑄) : 정해에 도임하여 무자(戊子 1828)에 주청(奏請)으로 파직되었다.
- 이시학(李時學) : 무자에 도임하여 기축(己丑 1829)에 어사(御史) 주청(奏請)으로 파직되었다.
- 김효기(金孝基) : 기축에 도임하여 경인(庚寅 1830)에 이조(吏曹)에서 품계를 강등시켰다.
- 한진서(韓鎭書) : 신묘(辛卯 1831)에 도임하여 계사(癸巳 1833)에 상(喪)을 당하였다.
- 김영진(金永進) : 계사년에 도임하여 같은해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김계흠(金啓洽) : 갑오(甲午 1834)에 도임하여 무술(戊戌 1838)에 임기를 마쳐 교체되었다.
- 정원기(鄭元夔) : 무술에 도임하여 계묘(癸卯 1843)에 잡혀갔다.
- 박종천(朴宗天) : 계묘에 도임하여 정미(丁未 1847)에 임기를 마쳐 교체되었다.
- 이건영(李建榮) : 무신(戊申 1848)에 도임하여 기유(己酉 1849)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김장원(金長遠) : 기유에 도임하여 같은해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이규영(李奎英) : 경술(庚戌 1850)에 도임하여 임자(壬子 1852)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시켰다.
- 박풍수(朴豐壽) : 임자에 도임하여 무오(戊午 1858)에 임기를 마쳐 교체되었다.
- 서호순(徐護淳) : 무오에 도임하여 계해(癸亥 1863)에 적성(積城)으로 옮겨갔다.
- 김형순(金衡淳) : 계해에 도임하여 그 해에 별세하였다.
- 홍현주(洪鉉周) : 계해에 도임하여 병인(丙寅 1866)에 경성(鏡城)으로 옮겨갔다.

○박이정(朴履定) : 병인에 도입하여 정묘(丁卯 1867)에 옥천(沃川)으로 옮겨갔다.

○김조헌(金祖憲) : 무진(戊辰 1868)에 도입하여 경오(庚午 1870)에 간성(杆城)으로 옮겨갔다.

### 비판(碑板)

어사(御史)를 임명하여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불러들이어 편히 살도록 할 때를 전후하여 임금의 말씀이 “지금 대신들의 주청을 들으니 단양(丹陽)과 회인(懷仁)의 일이 가없도다. 수찬(修撰) 홍경해(洪景海)를 단양(丹陽)과 회인(懷仁)의 안집어사(安集御史)로 삼으니 즉시 가서 백성들을 불러 들이되 모든 일은 하교(下教)를 보고 관찰사(觀察使)와 서로 상의하여 같이 성의를 다하여 봉행하고 그 일을 마친뒤 복명(復命)하라” 하셨다. 대신들이 주청한 것을 들으니 단양(丹陽)과 회인(懷仁) 두 고을에 백성들이 흩어져 지난 날 천호(千戶) 이던 것이 지금은 수백호(數百戶)에 불과하며 유민(流民) 중에는 숙식(宿食)이 어려운 자도 있다는 것이니 특별히 어사(御史)를 보내어 백성을 달래어 다시 돌아와 살게 하라는 것이다.

아! 안토(安土) 두 글자는 옛사람들이 “너희들은 여기서 즐겁게 살어야지 어찌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하고 이르는 것이다. 무릇 수령(守令)이 착하지 못하고 환곡(還穀)의 출납(出納)을 양반이 독점하여 곡식이 이미 떨어지니 백성들이 어찌 살어 갈 것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굶주림이 만약 나에게 있다면 곡물(穀物)이 있는 뒤에 백성을 불러 모을 수 있으므로 어사가 이미 하교(下教)를 받았으니 마땅히 관찰사(觀察使)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 비록 망극한 중에도 어찌 백성을 기만할 것인가 모름지기 의심없이 백성을 불러모을 어사의 직분으로 나의 이 마음을 펼칠 것이다.

호서(湖西)의 유치미(留置米) 3백섬을 어사에게 나누어 주니 비록 두 갈래 길이지만 단양과 회인 백성들에게 먼저 이런 취지를 알리고 갖고 가서 분부를 행하라. 이제 호서 안집어사(安集御史)의 장계(狀啓)를 보니 단양과 회인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자가 3분의 2가 넘는다하니 심히 다행스럽다.

아! 처음 아뢰는 말을 듣고 어사를 임명하였으나 마음에 걱정이 되어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않았는데 이제 두 고을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 왔으니 어찌 내 가르치는 말에 감동한

것인가 이는 아버가 비록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참아 불효할 수 없는 것과 같음이라. 아! 지극히 어리석어도 신통한 것은 백성들이다. 어사의 장계를 보니 얼굴에 화색이 도니 하나는 명령을 어김없이 실행한 것이요. 또 하나는 힘써 백성을 구출한 것이다. 다시는 단양 촌에서 구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와 같은 특명에 대하여 어사가 끝 부분만 알아듣고 백성을 속인다면 아! 늙은 나이에 백성을 기만하는 일이니 죽음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는구나.

이제 단양과 회인에 대하여 특별히 세금을 받거나 받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니 이것은 팔도 백성을 균등하게 보려는 왕자(王者)의 길이다. 인종(仁宗) 황제가 유사에게 묻지 않고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듯이 받지 않거나 나라에 납부하는 것은 세법에 따른 것이지만 탐감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어사는 나의 뜻을 헤아려 백성의 뜻에 맞춰 성의를 다하여 백성을 불러 모으도록 하라.

아! 백성하나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사가 무슨 낮으로 복명(復命) 할 것이며 나도 또한 무슨 낮으로 어사를 만날 것인가

이와같은 나의 뜻을 헤아리어 정원(政院)에 하명(下命)하니 즉시 유시(諭示)를 내려보내라  
 승정(崇禎)3정축(丁丑 1757)에 여름 단회안집어사(丹懷安集御史)

신(臣) 홍경해(洪景海) 삼가 씀

## 청산현(靑山縣)

### 방리(坊里)

○주성면(酒城面) 북쪽 보은군(報恩郡) 경계를 넘어 80리다.

도엽리(桃葉里) : 관문(官門)과의 거리 90리이다. 인호(人戶)는 1백83호(戶)에 남자 3백31명이고 여자 3백52명이다.

봉황리(鳳凰里) : 관문(官門)과의 거리 85리이다. 인호(人戶)는 55호(戶)에 남자 1백55명이고 여자 2백94명이다.

묵동리(墨洞里) : 관문(官門)과의 거리 80리이다. 인호(人戶)는 1백5호(戶)에 남자 1백97명이고, 여자2백87명이다.

### 속현(屬縣)

○주성부곡(酒城部曲) : 고을 북쪽 90리 보은군(報恩郡) 북촌(北村)을 월경(越境)하여 있다. 본래는 상주(尙州)에 속하였으나 고려 공양왕(恭讓王 1390) 2년 청산현(靑山縣)에 감무(監務)를 둘 때 땅이 협소하다 하여 배어 예속시켰다.

### 성씨(姓氏)

○주성(酒城) : 홍(洪) 방(方)[촌성] 김(金)[속성]

### 창고(倉庫)

○주사창(酒社倉) : 10칸으로 관문(官門)과의 거리가 80리이다.

# 충청북도각군읍지(忠淸北道各郡邑誌)





## 충청북도각군읍지(忠淸北道各郡邑誌)

□ 『忠淸北道 各 郡 邑誌』는 1890년대 일본인들이 정리한 필사본으로 알려졌으나 報恩郡邑誌와 懷仁郡邑誌는 1899년에 편찬된 것으로 채색지도가 첨부되었으며 내용은 역대 地理誌를 요약한 것으로 1冊으로 되어있다.

報恩郡邑誌는 忠淸北道 報恩 兼任靑山郡守 金炳高 편저로 표지는 『忠淸北道報恩郡邑誌與地圖』로 되어있다.

特記할 事項은 光武年間に 개사한 읍지라는 점이고 懷仁郡邑誌는 표지에는 『忠淸北道懷仁郡邑誌』로 되어있다.

『東國輿地勝覽』 내용을 그대로 전사한데 불과하나 宦蹟條에 117명의 邑倅 名單을 열거한 것이 특징이다.

### 보은군 (報恩郡)

#### 진관(鎭管)

청주(淸州)이다

#### 사계(四界)

동쪽으로 경상도(慶尙道) 상주군(尙州郡) 경계까지 40리, 서쪽으로 회인현(懷仁縣) 경계까지 15리, 서남쪽으로 옥천군(沃川郡) 경계까지 20리이고 남쪽으로 청산군(靑山郡) 경계까지 30리이며 북으로 청주군(淸州郡) 경계까지 30리이다. 북방으로 서울까지의 거

리는 3백60리로 5일 걸리고 서방으로 감영(監營)은 1백 50리로 2일 걸리고 서방으로 수영(水營)까지 거리는 3백리로 4일 걸린다.

**방리(坊里)**

○동사각면(東思角面)

- 광석리(廣石里) : 관문(官門) 동쪽 5리 거리에 있다.
- 길상리(吉祥里) : 관문(官門) 동쪽 10리 거리에 있다.
- 구인리(求仁里) : 관문(官門) 동쪽 10리 거리에 있다.
- 신동리(新洞里) : 관문(官門) 동쪽 10리 거리에 있다.
- 평각리(坪角里) : 관문(官門) 동쪽 10리 거리에 있다.
- 나부리(羅浮里) : 관문(官門) 동쪽 15리 거리에 있다.
- 매화리(梅花里) : 관문(官門) 동쪽 10리 거리에 있다.
- 용평리(龍坪里) : 관문(官門) 동쪽 10리 거리에 있다.
- 사직리(社稷里) : 관문(官門) 동쪽 10리 거리에 있다.
- 고승리(高升里) : 관문(官門) 동남쪽 7리 거리에 있다.
- 어암리(漁巖里) : 관문(官門) 동쪽 5리 거리에 있다.
- 용천리(龍川里) : 관문(官門) 동쪽 3리 거리에 있다
- 만지리(晩旨里) : 관문(官門) 동쪽 5리 거리에 있다
- 탁동리(濯洞里) : 관문(官門) 동쪽 5리 거리에 있다
- 상하주평리(上下舟坪里) : 관문(官門) 동쪽으로 3리 거리에 있다

○동속리면(東俗離面)

- 봉비리(鳳飛里) : 관문 동쪽 20리 거리에 있다.
- 애평리(艾坪里) : 관문 동쪽 15리 거리에 있다.
- 황곡리(荒谷里) : 관문 동쪽 15리 거리에 있다.
- 장내리(帳內里) : 관문 동쪽 15리 거리에 있다.
- 서원리(書院里) : 관문 동쪽 20리 거리에 있다.
- 삼거리(三巨里) : 관문 동쪽 25리 거리에 있다.

- 사내동(舍乃洞) : 관문 동쪽 30리 거리에 있다.  
 상하중판근리(上下中板斤里) : 관문 동쪽 20리 거리에 있다.  
 북암리(北巖里) : 관문 동쪽 25리 거리에 있다.  
 백현리(栢峴里) : 관문 동북쪽 25리 거리에 있다.  
 오심리(五心里) : 관문 동쪽 15리 거리에 있다.

## ○동왕래면(東旺來面)

- 임곡리(壬谷里) : 관문 동쪽 30리 거리에 있다.  
 적암리(赤巖里) : 관문 동쪽 30리 거리에 있다.  
 갈평리(葛坪里) : 관문 동쪽 25리 거리에 있다.  
 송현리(松峴里) : 관문 동쪽 25리 거리에 있다.  
 사여리(士余里) : 관문 동쪽 25리 거리에 있다.  
 관기리(館基里) : 관문 동쪽 25리 거리에 있다.  
 삼거리(三巨里) : 관문 동남쪽 25리 거리에 있다.  
 수문리(水門里) : 관문 동쪽 25리 거리에 있다.  
 방하곡리(方下谷里) : 관문 동쪽 25리 거리에 있다.  
 임한리(林閑里) : 관문 동쪽 20리 거리에 있다.

## ○동남탄부면(東南炭釜面)

- 상중하소여리(上中下所余里) : 관문 동쪽 30리 거리에 있다.  
 상하기대리(上下其大里) : 관문 동남쪽 30리 거리에 있다.  
 상중하관리(上中下館里) : 관문 동남쪽 30리 거리에 있다.  
 상하장산리(上下長山里) : 관문 동남쪽 25리 거리에 있다.  
 벽지리(碧池里) : 관문 동쪽 20리 거리에 있다.  
 장암리(壯巖里) : 관문 동쪽 15리 거리에 있다.

## ○동남마로면(東南馬老面)

- 한중리(閑中里) : 관문 동쪽 40리 거리에 있다.

흘여지리(屹汝只里) : 관문 동쪽 30리 거리에 있다.

세동리(細洞里) : 관문 동쪽 30리 거리에 있다.

변둔리(卞屯里) : 관문 동쪽 30리 거리에 있다.

증산리(甌山里) : 관문 동쪽 30리 거리에 있다.

갈전리(葛田里) : 관문 동쪽 30리 거리에 있다.

내동리(內洞里) : 관문 동쪽 30리 거리에 있다.

세중리(細中里) : 관문 동쪽 30리 거리에 있다.

모동리(牟洞里) : 관문 동쪽 30리 거리에 있다.

오천리(梧川里) : 관문 동남쪽 25리 거리에 있다.

대양리(大陽里) : 관문 동쪽 20리 거리에 있다.

성지리(成之里) : 관문 동쪽 20리 거리에 있다.

○남삼승면(南三升面)

각동리(角洞里) : 관문 남쪽 20리 거리에 있다.

삼승리(三升里) : 관문 남쪽 20리 거리에 있다.

상하석남리(上下石南里) : 관문 남쪽 20리 거리에 있다.

내외망월리(內外望月里) : 관문 남쪽 30리 거리에 있다

상하원암리(上下元巖里) : 관문 남쪽 25리 거리에 있다

온야리(溫夜里) : 관문 남쪽 25리 거리에 있다

서원리(西元里) : 관문 남쪽 20리 거리에 있다

탄금리(彈琴里) : 관문 남쪽 20리 거리에 있다

달산리(達山里) : 관문 남쪽 20리 거리에 있다

○남서서니면(南西西尼面)

송죽리(松竹里) : 관문 남쪽 10리 거리에 있다.

황토리(黃土里) : 관문 남쪽 10리 거리에 있다.

서니동서변리(西尼東西邊里) : 관문 남쪽 10리 거리에 있다.

사각리(思角里) : 관문 남쪽 10리 거리에 있다.

상하둔덕리(上下屯德里) : 관문 남쪽 10리 거리에 있다.

등산암리(登山巖里) : 관문 남쪽 10리 거리에 있다.

뉴항리(紐項里) : 관문 남쪽 5리 거리에 있다.

상하천곡리(上下泉谷里) : 관문 남쪽 5리 거리에 있다.

금굴리(金堀里) : 관문 남쪽 5리 거리에 있다.

두지동리(斗芝洞里) : 관문 남쪽 5리 거리에 있다.

은사평리(隱土坪里) : 관문 남쪽 5리 거리에 있다.

내외수정리(內外水井里) : 관문 남쪽 3리 거리에 있다.

잠곡리(蚕谷里) : 관문 남쪽 2리 거리에 있다.

#### ○서수한면(西水汗面)

은로리(隱路里) : 관문 서쪽 20리 거리에 있다.

평포리(坪浦里) : 관문 서쪽 10리 거리에 있다

오정리(梧亭里) : 관문 서쪽 20리 거리에 있다

마문리(馬門里) : 관문 서쪽 20리 거리에 있다

장선리(長善里) : 관문 서쪽 20리 거리에 있다

질곶리(秩串里) : 관문 서쪽 10리 거리에 있다

어이광리(於二光里) : 관문 서쪽 15리 거리에 있다

거현리(巨峴里) : 관문 서쪽 15리 거리에 있다

수한리(水汗里) : 관문 서쪽 10리 거리에 있다

묘동리(畝洞里) : 관문 서쪽 10리 거리에 있다

말곶리(末串里) : 관문 서쪽 7리 거리에 있다

성리(星里) : 관문 서쪽 5리 거리에 있다

발산리(鉢山里) : 관문 서쪽 3리 거리에 있다

거묵리(巨墨里) : 관문 서쪽 5리 거리에 있다

병원리(並院里) : 관문 서쪽 5리 거리에 있다

후평리(後坪里) : 관문 서쪽 3리 거리에 있다

○북내북면(北內北面)

- 천산리(天山里) : 관문 북쪽 30리 거리에 있다.
- 중티리(中峙里) : 관문 북쪽 30리 거리에 있다.
- 탕동리(湯洞里) : 관문 북쪽 25리 거리에 있다.
- 삽영리(插嶺里) : 관문 북쪽 20리 거리에 있다.
- 궁평리(宮坪里) : 관문 북쪽 30리 거리에 있다.
- 이원리(泥院里) : 관문 북쪽 10리 거리에 있다.
- 서지리(西枝里) : 관문 북쪽 10리 거리에 있다.
- 구이목리(九二目里) : 관문 북쪽 10리 거리에 있다.
- 상중하초개리(上中下草介里) : 관문 북쪽 10리 거리에 있다.
- 노티리(老峙里) : 관문 북쪽 15리 거리에 있다.
- 사막리(舍幕里) : 관문 북쪽 3리 거리에 있다.
- 수남리(水南里) : 관문 북쪽 7리 거리에 있다.
- 내동리(內洞里) : 관문 북쪽 7리 거리에 있다.
- 사례동리(謝禮洞里) : 관문 북쪽 3리 거리에 있다.
- 교동리(校洞里) : 관문 북쪽 3리 거리에 있다.

○북외북면(北外北面)

- 어온리(於溫里) : 관문 북쪽 35리 거리에 있다.
- 오대리(五大里) : 관문 북쪽 30리 거리에 있다.
- 원평리(院坪里) : 관문 북쪽 30리 거리에 있다.
- 장갑리(長甲里) : 관문 북쪽 30리 거리에 있다.
- 백석리(白石里) : 관문 북쪽 20리 거리에 있다.
- 동하목리(東下目里) : 관문 북쪽 20리 거리에 있다.
- 문암리(文巖里) : 관문 북쪽 10리 거리에 있다.
- 신곡리(新谷里) : 관문 북쪽 10리 거리에 있다.
- 팔유리(八柳里) : 관문 북쪽 10리 거리에 있다.
- 울지리(栗枝里) : 관문 북쪽 10리 거리에 있다.

- 함림리(含林里) : 관문 북쪽 10리 거리에 있다.  
 종곡리(鍾谷里) : 관문 북쪽 10리 거리에 있다.  
 안양리(安良里) : 관문 북쪽 7리 거리에 있다.  
 와평리(瓦坪里) : 관문 북쪽 10리 거리에 있다.  
 강청리(江淸里) : 관문 북쪽 5리 거리에 있다.  
 산직리(山直里) : 관문 북쪽 3리 거리에 있다.  
 동한리(東閑里) : 관문 북쪽 3리 거리에 있다.

### 도로 (道路)

- 동쪽 사기막대로(沙器幕大路) : 관문(官門)으로부터 40리로 상주군(尙州郡) 경계로 가는 길이다.  
 ○서쪽 추티대로(楸峙大路)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로 회인현(懷仁郡) 경계로 가는 길이다.  
 ○남쪽 원암대로(元巖大路) : 관문(官門)으로부터 30리 거리로 청산군(靑山郡) 경계로 가는 길이다.  
 ○북쪽 원평대로(元坪大路) : 관문(官門)으로부터 30리 거리로 청주군(淸州郡) 경계에서 오는 길이다.  
 ○동북쪽 속리산통로(俗離山通路) : 관문(官門)으로부터 30리 거리로 원평(元坪)길에서 속리산(俗離山)으로 직통(直通)하는 길로 그 사이가 30리이다.  
 ○서남쪽 문티소로(文峙小路)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로 옥천군(沃川郡) 경계로 가는 길이다  
 ○동남쪽 구암대로(龜岩大路)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로 상주군(尙州郡) 경계로 가는 길이며 옥천(沃川) 둔티대로(屯峙大路)에서 원암(元巖), 관기(館基)를 거쳐 상주군(尙州郡) 경계로 가는 큰 길인데 그 사이가 30리이다.  
 ○서북쪽 연티소로(鸞峙小路)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로 청산군(靑山郡) 주성(酒城)으로 가는 길이다.

###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신라(新羅)의 삼년산군(三年山郡)으로 경덕왕(景德王)이 삼년(三年)으로 고치고 고려(高麗)가 보령(保齡)이라 고쳤다.[령(齡)이 뒤에 수(守)로 변했다.]

현종(顯宗 1018) 9년에 상주(尙州)에 예속되었다가 명종(明宗 1172) 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조선(朝鮮)<sup>154</sup> 태종(太宗 1406) 6년에 보령현(保寧縣)과 발음(發音)이 같다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하였다. 가경(嘉慶) 15년(1810) 경오(庚午)<sup>155</sup> 순조대왕(純祖大王) 태실(胎室)을 속리산(俗離山)에 봉안(奉安)한 후에 군(郡)으로 승격(陞格) 시켰다.

### 군명 (郡名)

삼년산(三年山) · 보령((保齡) · 삼산(三山) · 보령(保令)

### 관직 (官職)

○군수(郡守) : 음직(陰職) 5품(品)이다.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2인, 관군관(官軍官) 4인, 아전(衙前) 22인, 지인(知印) 10인, 사령(使令) 15명, 관노(官奴) 6명, 관비(官婢) 2명은 폐기하였고 향장(鄉長) 1인, 순교(巡校) 4인, 서기(書記) 7인, 통인(通引) 2인, 사령(使令) 6명, 사용(使傭) 2명, 사동(使童) 2명, 객사직(客舍職), 1명 향교직(鄉校職) 1명이 있다.]

### 산천 (山川)

○속리산(俗離山) : 군의 동쪽 30리에 있다. 동북쪽 문경(聞慶)의 화산(華山)으로부터 왔는데 그 형국이 모두 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본군(本郡)의 주맥(主脉)이 되었고 냇물의 근원은 다른 곳에서 흘러오는 것이 없고 경내(境內)의 물이 합류하여 군의 동남간을 거쳐 청산군(靑山郡)을 지나 금강(錦江)으로 들어간다. 속리산은 9개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어 구봉산(九峯山)이라 부르기도 한다. 신라 때는 속리악(俗離岳)이라 부르고 중사

154) 원문에는 本朝로 되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55) 湖西邑誌에는 嘉慶 11年 庚午로 기록되어 있어 年代와 干支가 맞지 않으나 年代와 干支를 일치 시켰다. 그러나 純祖大王胎室碑는 嘉慶 11年으로 刻字되어있다. 따라서 胎室奉安은 嘉慶 11年(純祖 6년 1806)에 하고 陞郡은 가경 15년(순조 10년 1810) 경오(庚午)에 된 것으로 보인다.



(中祀)를 올렸다. 사자(獅子) 정상에는 문장대(文藏臺)가 있는데 겹겹이 쌓인 돌이 천 연으로 이루어져 높게 공중에 솟았고 그 높이가 몇 길인지 알지 못한다. 그 넓이는 사람 30명이 앉을만 하고 대(臺)위에는 구덩이가 있는데 마치 가마솥 같고 그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가물어도 줄지 않고 비가와도 불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세 줄기로 나뉘어서 반공(半空)으로 쏟아져 내리는데 한줄기는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洛東江)이 되고, 한줄기는 남쪽으로 흘러 금강(錦江)이 되고 한줄기는 서쪽으로 흐르다 북쪽으로 흐르면서 달천(達川)이 되어 금천(金遷)으로 들어간다. 산 아래에 구요(九遙)가 있는데 언덕이 구불구불 잇대어 가다가 벌어지며 넓어져서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보면 또 멀고 멀어서 마치 땅이 끝인 것처럼 의심스럽다가 거기까지 가서 바라보면 또 멀고 멀어서 이렇게 하기를 아홉 번 반복하여 비로소 법주사(法住寺)에 도착하는 고로 이름을 9요(遙)라 하며 9요(遙) 가운데로 한 줄기 물이 돌고 돌아 구비처 흐르는데 한 구비마다 다리가 있어 모두 여덟이기 때문에 8교(橋)라 이름하고 맨 첫 다리가 수정교(水精橋)로 다리위에 비각(飛閣)이 있어 사람들이 이 각(閣) 속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작은 무너지고 다리만 남아 있다.

신여(信如)라는 중이 다리 위에서 시(詩)를 쓰기를

“삼청동(三清洞)에 돌아드는 아홉구비  
한 줄기 시냇물에 여덟 다리  
다리 밑 푸른물을 시샘하는 붉은 빛  
은 산 단풍잎이 솔가지랑 엷겼구나” 하였다.

가경(嘉慶) 15년(1810) 경오(庚午)<sup>156</sup> 순조대왕(純祖大王) 태실(胎室)을 큰절 동쪽 10리 이곳에 봉안하고 수호 감독관(監督官) 1인과 산직이 30명을 예조(禮曹)에서 차출하여 정한다.

○함림산(含林山) : 군의 동쪽 10리에 있다.

156) 湖西邑誌에는 嘉慶 11年 庚午로 기록되어 있어 年代와 干支가 맞지 않으나 年代와 干支를 일치 시켰다. 그러나 純祖大王胎室碑는 嘉慶 11年으로 刻字되어있다. 따라서 胎室奉安은 嘉慶 11年(純祖 6년 1806)에 하고 陞郡은 가경 15년(순조 10년 1810) 경오(庚午)에 된 것으로 보인다.

- 구봉산(九峯山) : 군의 동쪽 40리에 있다.
- 사산(蛇山) · 와산(蛙山) · 저산(猪山) : 모두 같이 읍내에 있다.
- 금적산(金積山) : 군의 남쪽 15리에 있다.
- 검단산(儉丹山) : 군의 북쪽 37리 청주군(淸州郡) 경계에 있다. 백제(百濟)의 중 검단(儉丹)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오정산(烏頂山) : 군의 동쪽 5리에 있다.
- 웅현(熊峴) : 군의 북쪽 27리에 있다.
- 차령(車嶺) : 군의서쪽 15리 회인군(懷仁郡) 경계에 있다.
- 용천(龍川) : 군의 동쪽 2리에 있다.
- 병풍연(屏風淵) : 군의 동쪽 25리 속리산(俗離山) 아래에 있다.

#### 단묘 (壇廟)

- 사직단(社稷壇) : 군의 서쪽에 있다.
- 문묘(文廟) : 향교(鄕校)에 있는데 군의 북쪽이다.
- 여단(厲壇) : 군의 북쪽에 있다.
- 성황사(城隍祠) : 군의 남쪽에 2리에 있다.

#### 공해(公廡)

- 객사벽대청(客舍壁大廳) : 3칸전후퇴
- 동상실(東上室) : 5칸전후퇴
- 헌(軒) : 12칸 전후퇴이나 기우려 쓰러졌다.
- 중문(中門) : 3칸이다.
- 외삼문(外三門) : 3칸이다.
- 내동헌(內東軒) : 12칸 전후퇴이다.
- 외동헌(外東軒) : 6칸 전후퇴이다.
- 아사(衙舍) : 33칸이다.
- 향청(鄕廳) : 12칸이다.
- 무학당(武學堂) : 7칸이다.

- 작대청(作隊廳) : 4칸이다.
- 군사청(郡司廳) : 4칸이다.
- 군관청(軍官廳) : 5칸이다.
- 아전청(衙前廳) : 16칸이다.
- 지인청(知印廳) : 3칸이다.
- 사령청(使令廳) : 3칸이다.
- 관노청(官奴廳) : 4칸이다.

### 제언 (堤堰)

- 둔덕제언(屯德堤堰) : 군의 남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3백14자, 독의 길이 1책35자, 물깊이는 4자이다.
- 신둔제언(薪屯堤堰) : 군의 남쪽 20리에 있다. 둘레는 4백16자, 독의 길이 1백16자, 물깊이는 7자이다.
- 달산제언(達山堤堰) : 군의 남쪽 20리에 있다. 둘레는 4백27자, 독의 길이 1백67자, 물깊이는 6자이다.
- 망월제언(望月堤堰) : 군의 남쪽 30리에 있다. 둘레는 2백40자, 독의 길이 1백40자, 물깊이는 4자이다.
- 신동제언(新洞堤堰) : 군의 동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3백15자, 독의 길이 1백15자, 물깊이는 5자이다.

### 군정 (軍丁)

- 경안부(京案付) : 2,072명이다.
- 영안부(營案付) : 3백51명이다.

### 시기전답 (時起田畝)

모두 2천2백64결59복 내에서 역허결(驛虛結)이 63결 6복이다.

**전세 (田稅)**

무명 43통이나 해마다 틀리다가 폐기되었다.

**대동 (大同)**

참반목(參半木) 36통과 전(錢) 4천7백냥이나 해마다 틀리다가 폐기되었다.

**조적(糶糶)**

창고(倉庫)가 읍내 한 곳에서 칸수 12칸이었으나 무너졌다.

○좌기청(坐起廳) : 6칸이다.

○문간(門間) : 2칸이나 무너졌다.

○유고미(留庫米) : 5백85섬11말7되6석2리와 역환미(驛還米)62섬8말6되1홉5석, 합미(合米) 6백48섬5말4되1홉1석2리는 나눠서 각면 사창(社倉)에 보관해 둔다.

**사창(社倉)**

각면에 흙으로 지은 곳간(倉庫)이 11곳 있다.

○산외(山外) : 구티리(九峙里) 한 곳으로 3칸에 감산미(歛散米) 33섬 11말 4되 2홉이다.

○산내(山內) : 감동리(甘東里) 한 곳으로 3칸에 감산미(歛散米) 76섬 8말 6되 1홉5석이다.

○내북(內北) : 초포리(草浦里) 한 곳으로 3칸에 감산미(歛散米) 87섬 7말 5되이다.

○수한(水汗) : 중리(中里) 한 곳으로 2칸이며 감산미(歛散米) 54섬이다.

○서니(西尼) : 구량리(九良里) 한 곳에 3칸이며 감산미(歛散米) 35섬이다.

○삼승(三升) : 탄금리(彈琴里) 한 곳에 3칸이며 감산미(歛散米) 1백섬 11말이다.

○마로(馬老) : 대양리(大陽里) 한 곳으로 3칸에 감산미(歛散米) 32섬 6말 5되이다.

○탄부(炭釜) : 관리(官里) 한 곳으로 3칸에 감산미(歛散米) 57섬 12말 5되이다.

○왕래(旺來) : 갈평리(葛坪里) 한 곳으로 3칸에 감산미(歛散米) 29섬 2되 1홉이다.

○속리(俗離) : 서원리(書院里) 한 곳으로 3칸에 감산미(歛散米) 65섬이다.

○사각(思角) : 관동리(館洞里) 한 곳으로 3칸에 감산미(歛散米) 76섬 7말 6되 6홉6석 2리이다.

**물산(物産)**

송이버섯, 벌꿀, 석이버섯, 대추, 더덕, 도라지, 택사(澤瀉)

**역원(驛院)**

- 함림역(含林驛) : 군의 북쪽 7리에 있다. 대마(大馬) 2마리, 기마(騎馬) 2마리, 복마(卜馬) 5마리를 두었고 역리(驛吏) 30명, 노(奴) 40명이 근무한다.
- 원암역(元巖驛) : 군의 남쪽 30리에 있다. 대마(大馬) 1마리, 기마(騎馬) 4마리, 복마(卜馬) 5마리를 두었고 역리(驛吏) 30명, 노(奴) 15명이 근무한다.

※ 모두 율봉찰방(栗峯察訪) 소속이었으나 폐기되었다.

**사찰(寺刹)**

- 속리사(俗離寺) : 군의 동쪽 30리에 있는데 속리산 서쪽에 있다.

※김구용(金九容)의 시(詩)가 있다.

“달마암(達磨岩)가에 등불 하나 밝았는데

문열고 향피우니 마음 다시 맑아라

혼자 깊은 밤에 앉아 잠 못이루니

창 앞에 흐르는 물 술바람 소리와 섞어 들리네” 하였다.

- 법주사(法住寺) : 속리산(俗離山)에 있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신라(新羅)의 중 의신(義信)이 흰노새에 불경을 싣고 와서 이 절을 세웠다고 한다. 성덕왕(聖德王)이 중수(重修)하였는데 석조(石槽)와 석교(石橋) · 석옹(石瓮) · 석환(石鑊)이 있고 절 안 산호전(珊瑚殿)에 금신장육상(金身丈六像)이 있고 문 앞에는 구리로 부어 만든 당간(幢竿)이 있는데 몹시 높고 그 한쪽에 통화(統和) 24년(1006)에 세웠다고 새겨있다. 또 고려 밀직대언(密直代言) 이숙기(李叔琪)가 지은 중 자정(慈淨)의 비명(碑銘)이 있다.

※박효수(朴孝修)의 시(詩)가 있다.

“높다란 사면 푸른 연꽃같은 봉우리

장갑(長岬)의 신령스런 근원 몇 겹이고

문장대(文藏臺)는 천고(千古)의 이끼 그대로 있고

우타굴(于陀窟) 그늘 만 그루 소나무세  
용이 탑속으로 들어가니 진골(眞骨)이 남았고  
나귀가 바위앞에 누웠으니 성종(聖蹤)을 찾네  
길이 삼한(三韓)을 복되게 하는건 누가 주인인가  
산호전(珊瑚殿)에 자금용(紫金容)일세” 하였다.

※함부림(咸傅林)의 시(詩)는

“계원(鷄園)의 한가로운 일월(日月)이요  
안탑(雁塔)에 구름과 연기 자욱하네  
우연히 삼청동(三清洞)에 들렀더니  
세 상일 시끄러운 것 모두 잊었네” 하였다.

○북천사(福泉寺) : 법주사 동쪽 7리쯤에 있다. 절 동쪽에 샘물이 있어 돌 틈으로 쏟아져 나와 식수(食水)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천순(天順) 갑신년(甲申年)(1464)에 우리 세조대왕(世祖大王)이 속리산에 거동할 때 병풍연(屏風淵)에 머물다가 이튿날 법주사(法住寺)로부터 이 절에 행차하여 주변의 경치를 살펴보고 수행한 대신 김수온(金守溫)에게 명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 고적(古跡)

○구암(龜巖) : 법주사(法住寺)의 서쪽 봉우리에 거북바위가 있는데 천연으로 하늘이 만든 것 같아 등 위에는 사람 3천명이 앉을 수 있고 그 머리가 묘하게도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전해오는 말에 중원(中原)술사(術士)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중원(中原)<sup>157)</sup>의 재물과 비단이 날마다 동쪽으로 넘어 오는 것을 무슨 까닭인지 몰랐더니 이제 알고보니 이 물건이었구나” 하고 그 머리를 자르게 하였다 한다.

○마현박석(馬峴薄石) : 군의 동쪽 15리에 있다. 고개위에 넓고 얇게 뜯 돌로 3~4리를 깔아 놓았는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고려(高麗) 태조가(太祖) 일찍이 속리산에 거동할 때 닦은 어로(御路)라 한다.

157) 中國을 말함

## 성지(城池)

○오정산성(烏頂山城) : 군의 동쪽 5리에 있으니 즉 삼년성(三年城)이다. 쌓은지 3년만에 완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3천6백99척이고 높이는 18척이다. 성안에 우물이 5개 있는데 지금은 반은 무너졌다.

고려태조(太祖) 11년(927)에 태조가 스스로 장군이 되어 이 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 지 못하고 마침내 청주(淸州)로 거동했다.

산 아래 군장동(軍藏洞)이 있으니 세상에 전해오기를 “태조가 군대를 주둔 시켰던 곳” 이라 한다.

○백봉산성(栢峯山城) : 군의 북쪽 10리에 있다.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1천4백88척이고 성 안에 깊은 연못이 있는데 지금은 반은 무너졌다.

## 인물(人物)

### ◎ 우거(寓居)

○한유문(韓有文) : 우리 태종(太宗)과 같은 해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벼슬이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이르렀다.

○김타(金沱) : 두 번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번 청요직(淸要職)을 지냈으며 벼슬이 청주 목사(淸州牧使)에 이르렀다.

### ◎ 효자 조선(孝子 朝鮮)<sup>158)</sup>

○막동(莫同) : 사천(私賤)이다. 일찍이 집에 불이 나서 어머니와 딸이 모두 불속에 들어 있었는데 막동(莫同)이 급히 들어가 어머니를 업고 나오면서 딸이 죽는것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어머니 살린 것은 기쁘게 여겼다. 영조(英祖 1734) 10년<sup>159)</sup> 정문을 세웠다.

○이창경(李昌慶) · 이원경(李元慶) · 이명경(李鳴慶) 삼형제(三兄弟) :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12세손(世孫)이고 눌헌(訥軒) 이사균(李思鈞)의 6세손으로 사인(士人)

158) 원문에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59) 東國輿地勝覽에는 今上十四年으로 기록하고있어 中宗14년(1519)에 정문을 세웠다 하였으므로 年代에 착오가 있다.

이환(李換)의 세 아들이다.

현종(顯宗)<sup>160</sup> 을사년(乙巳年 1665)에 명화적(明火賊)들이 달려들어 아버지를 해치려 할 때 세 아들이 함께 있었으나 어린 나이로 큰 아들 창경(昌慶)은 23세이고 둘째 아들 원경(元慶)은 17세, 막내아들 명경(鳴慶)은 15세로 곁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도적이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들자 세 아들이 칼날을 몸으로 가로막다가 세사람 모두 몸에 중상을 입고 칼날이 뼈까지 미쳐 유혈(流血)이 낭자하여 사경(死境)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으나 개의치 않고 “차라리 우리를 죽일망정 우리 아버지는 해치지 말라” 하니 도적들이 감동하여 서로 하는 말이 “만약 이런 사람을 해치면 우리들은 재앙을 받는다” 하며 그 아버지를 놓아 두고 살림만 챙겨 갔고 그 아버지는 한곳도 상처를 입지 않고 무사하였다.

이듬해 병오(丙午 1666)에 특명으로 정문을 세우도록 하고 벼슬자리를 주도록 하였으나 큰 아들 창경과 막내 명경은 일찍 죽었으므로 숙종(肅宗)<sup>161</sup>때 모두 좌랑(佐郎)으로 추증(追贈)하고 원경은 벼슬을 주어 현감(縣監)에 이르렀다.

삼형제의 정문의 현판(懸板)은 우암(尤菴)송선생(宋先生)과 수암(遂菴)권선생(權先生)이 앞과 뒤에 손수 써서 익재영당(益齋影堂) 앞에 세웠다.

### ◎ 열녀(烈女)

○김씨(金氏) :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의 형 참판(參判) 효남(孝男)의 증손녀(曾孫女)요,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15세손(世孫) 이영간(李榮幹)의 처(妻)다. 영조(英祖)<sup>162</sup> 병진년(丙辰年 1736)에 남편 영간이 병으로 일찍 죽었으나 시부모가 살아계심으로 통곡을 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을 할 수 없더니 염습(殮襲)을 마치고 여러 동서들에게 말하기를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후사(後嗣)를 이을 것이요, 자손(子孫)들이 앞에 있으니 시부모를 봉양할 수 있으니 나는 마땅히 죽어 남편을 따라 갈 것이다” 하더니 이튿날 새벽 성복(成服)한 뒤 사람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소금 물을 마시고 이불을 쓰고 죽었다.

160) 원문에 顯廟朝로 되어있으나 顯宗으로 고쳤다.

161) 원문에 肅廟朝로 되어 있으나 肅宗으로 고쳤다.

162) 원문에 英宗朝로 되어있으나 英祖로 고쳤다.



영조(英祖) 정묘(丁卯 1747)에 특별히 정문을 세우도록 하니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가 손수 현판을 쓰고 익재영당(益齋影堂) 앞 시할아버지 이원경(李元慶) 삼형제 정문 오른쪽에 세웠다. 마을 앞을 지나는 이들이 공경하며 마을 이름을 삼강촌(三綱村)이라 하였다.

- 옥랑(玉郎) : 관비(官婢)로서 임오년(壬午年)에 그 남편이 죽으니 울면서 비록 뛰지는 못하지만 손수 염습(殮襲)을 하고 남편을 따라가고자 약을 먹고 죽음에 이르자 시부모는 이미 죽었으나 친어머니가 살아 있음으로 돌아보며 한탄하는 말이 “어머니는 세 아들이 있으니 내가 죽어도 무엇을 걱정하리오 그러나 내 자식이 겨우 강보(襁褓)를 면하였으니 길러줘야 무후(無後)를 면할 것이니 어머니만 믿는다” 하고 웃는 얼굴로 운명(殞命)하니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매우 슬퍼하고 또 그 정열(貞烈)에 감동하여 남편과 합장(合葬)하는 날에 군수(郡守) 이공(李公)이 친히 글을 지어 제사하고 비(碑)에 쓰기를 “열녀관비옥랑의묘(烈女官碑玉郎之墓)”라 하고 그 자녀들에게 복호(復戶)해 주었다. 계사년(癸巳年) 봄에 암행어사(暗行御史) 김공(金公)이 그 사실을 듣고 6년 뒤 무술(戊戌)에 정문을 세워줄 것을 장계(狀啓)하였다.

### 진공(進貢)

멧돼지 한 마리를 3년에 두차례 영동현(永洞縣)과 함께 하였으나 기유(己酉)에 계청(啓請)에 의하여 혁파되었으며 약제(藥材)는

- 정월령(正月令) : 벌꿀 3되, 백급(白芨) 3냥, 태수(胎水) 1홉  
 ○3월령(三月令) : 백출(白朮) 3냥5전, 도라지 10냥, 황백피(黃柏皮) 6냥, 전호(前胡) 9냥, 백급(白芨) 2냥, 진령(秦蒼) 10냥, 모향(毛香) 8근6냥  
 ○6월령(六月令) : 금은화(金銀花) 3냥, 봉리궤(封裏櫃) 1좌  
 ○7월령(七月令) : 안식향(安息香) 1근14냥, 백급(白芨) 3냥, 태수(胎水) 2홉  
 ○8월령(八月令) : 대추 2말  
 ○9월령(九月令) : 벌꿀 5되  
 ○10월령(十月令) : 전호(前胡) 11냥, 오미자(五味子) 5냥8전, 금은화(金銀花) 1냥  
 ○11월령(十一月令) : 오가피(五加皮) 11냥, 위령선(威靈仙) 6냥, 연교(蓮翹) 4전

**봉름(奉廩)**

- 공수위(公須位) : 55결
- 잡역상정미(雜役詳定米) : 4백20섬
- 름미(廩米) : 2백40섬10말
- 관수유청공사지사객지공미(官需油淸公事紙事客支供米) : 포함하였다가 폐기

**청주진관 (淸州鎭管)**

편오군(編伍軍) : 5백70명 중 천총(千摠) 1명. 파총(把摠) 1인. 초관(哨官) 4인, 기패관(旗牌官) 6인, 마병(馬兵) 89명, 보군(步軍) 4백 70명이다. 갑오(甲午 1894)이후 폐기되었다.

충청북도 보은 겸임 청산군수 김병설(忠淸北道 報恩 兼任 靑山郡守 金炳髙)

**회인현(懷仁縣)**

**진관(鎭管)**

청주(淸州)이다.

**사계(四界)**

동쪽으로 보은(報恩) 경계까지 16리이고 서쪽으로 문의(文義) 경계까지 16리, 남쪽으로 청주(淸州) 경계까지 32리, 북쪽으로 청주(淸州) 경계까지 29리이며, 북쪽의 서울까지는 3백 46리로 5일 일정이고 서쪽의 감영(監營)까지는 1백 20리로 하루 만나질 걸리고 북쪽의 병영(兵營)까지는 50리로 만나질 걸리고 서쪽의 수영(水營)까지는 3백리이다.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백제(百濟)의 미곡현(未谷縣)으로 신라(新羅)가 매곡(昧谷)으로 고치고 연산군(燕山郡)<sup>163</sup>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高麗) 현종(顯宗) 때 청주(淸州)에 예속시켰다

163) 지금의 淸原郡 文義

가 뒤에 회덕(懷德)의 겸임관(兼任官)이 되었다.

우왕(禍王)<sup>164</sup> 때 별도로 감무(監務)를 두고 조선(朝鮮)<sup>165</sup> 태종(太宗 1413) 13년에 예(例)에 따라 현감(縣監)으로 고치고 관원(官員)으로 현감(縣監)과 훈도(訓導) 각 1인을 두었다.

### 관원 (官員)

○현감(縣監)·훈도(訓導) 각 1인이다.

### 군명 (郡名)

미곡(未谷), 매곡(昧谷)

### 관직 (官職)

○현감(縣監) : 음직(陰職) 6품이다. [그 아래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1인, 군관(軍官) 8인, 아전(衙前) 14인, 지인(知印) 9인, 사령(使令) 11명, 관노(官奴) 6명, 관비(官婢) 4명을 두었다.]

### 성씨 (姓氏)

○회인(懷仁)<sup>166</sup> : 이(李)·홍(洪)·장(張)·신(辛)·최(崔) [속성(續姓)]

### 산천 (山川)

○구룡산(九龍山) : 보은(報恩) 속리산(俗離山)으로부터 뻗어와 주맥(主脉)이 되었다.

○말흘탄(末訖灘) : 옥천(沃川) 화인진(化仁津)에서 흘러와 회덕(懷德) 형각진(荊各津)으로 흘러간다.

164) 원문에 辛禍로 되어 있으나 禍王으로 고쳤다.

165)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 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66) 원문에는 本縣로 되어 있으나 懷仁으로 고쳤다.

**풍속(風俗)**

검소한 것을 숭상하고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다.

**방리(坊里)**

○동면(東面)

- 만지동리(晩旨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 법주리(法住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거리에 있다.
- 능암리(能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3리 거리에 있다.
- 계암리(桂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용사동리(龍師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2리 거리에 있다.
- 신문리(新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오동리(梧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아차곡리(峩次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 세촌리(世村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3리 거리에 있다.
- 고초천리(高草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보곡리(甫古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7리 거리에 있다.
- 애치리(艾峙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5리 거리에 있다.
- 건천리(乾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노성산리(老城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서면(西面)

- 가정자리(加亭子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5리 거리에 있다.
- 용두리(龍頭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 거교리(巨橋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2리 거리에 있다.
- 남대문리(南大門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 거구리(巨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 신읍리(新邑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6리 거리에 있다.
- 양중지리(陽中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6리 거리에 있다.

- 묘암리(妙岩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동막리(東幕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마구리(馬九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 ○남면(南面)

- 신대리(新垔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8리 거리에 있다.  
 추동리(楸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2리 거리에 있다.  
 명곡리(鳴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5리 거리에 있다.  
 판장리(板莊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6리 거리에 있다.  
 도요목리(都要目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7리 거리에 있다.  
 분저곡리(分諸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서당평리(書堂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2리 거리에 있다.  
 음중지리(陰中旨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9리 거리에 있다.  
 사탄리(沙灘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 ○강외면(江外面)

- 사음동리(舍音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5리 거리에 있다.  
 매산리(梅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5리 거리에 있다.  
 법수리(法水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30리 거리에 있다.

## ○북면(北面)

- 수곡리(首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계산리(桂山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0리 거리에 있다.  
 등곡리(登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5리 거리에 있다.  
 지경동리(地境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30리 거리에 있다.

## ○읍내면(邑內面)

- 마근동리(馬斤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리 거리에 있다.

사직동리(社稷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리 거리에 있다.

저리(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리 거리에 있다.

벌리(伐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1리 거리에 있다.

눌곡리(訥谷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3리 거리에 있다.

황평리(黃坪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4리 거리에 있다.

교동리(校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2리 거리에 있다.

개동리(介洞里) : 관문(官門)으로부터 3리 거리에 있다.

### 호구(戶口)

○편호(編戶) : 1천1백14호 내에

○남자(男子) : 2천1백60명

○여자(女子) : 1천9백72명이다. [병자(丙子)년 장적(帳籍)기준이다.]

### 전부(田賦)

○밭(旱田) : 원장부(元帳付)의 9백87결34부7속 중에서 묵는 것이 5백85결88부9속이고 경작하는 것이 4백1결45부8속이다.

○논(水田) : 원장부(元帳付)의 1백66결53부4속 중에서 묵는 것이 66결21부4속이고 경작하는 것이 1백10결32부이다.

○전세목(田稅木) : 무명 8통39필1척9치 정월(正月)부터 수납하여 3월(三月) 보름전에 육로로 운반하여 호조(戶曹)에 납부한다.

○대동(大同) : 무명 10통25필 2월(二月)부터 수납하여 3월안에 육로로 운송하여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한다.

○저치미(儲置米) : 33섬 14말이다.

○균세(均稅) : 결전(結錢) 2백61냥3전8푼과 면세전세(免稅田稅) 11필, 대동(大同) 24 필은 전세(田稅) 납부할 때 함께 수송하여 균역청(均役廳)에 납부한다.

### 요역(徭役)

○토지1결(結)의 소출에 대하여 돈으로 5전1푼이고 전세목(田稅木)이 23척3치, 삼목(三

木) 8척7촌, 대동목(大同木) 9척3치, 전(錢)으로 5전이다.

○관수(官需)는 4말5되, 저치미(儲置米) 1말4되, 잡역미(雜役米) 3말을 돈으로 납부할 때는 6전 3푼이다.

○전세역가(田稅役價)는 2전 5푼, 태가(駄價) 1전 2푼

### 군액 (軍額)

○어영군(御營軍) : 31명

○자보(資保) : 33명

○상납보(上納保) : 42명

○금위군(禁衛軍) : 20명

○자보(資保) : 21명

○상납보(上納保) : 41명

○기병(騎兵)과 호보(戶保) : 30명

○보병(步兵)과 호보(戶保) : 22명

○신선(新選) : 4명

○포보(砲保) : 6명

○금보(禁保) : 16명

○수군(水軍) : 9명

○편오군(編伍軍) : 초관(哨官)2인, 기패관(旗牌官)3인, 군(軍)1백15명 이상 잡색(雜色)으로 3백 95명이다.

### 성지(城池)

### 창고(倉庫)

○삼창회부미(三倉會付米) : 45섬14말4되

○피각곡(皮各穀) : 1천4백71섬2말

○진창피각곡(賑倉皮各穀) : 4백61섬1말

○영곡전미(營穀田米) : 1섬7말

○미(米) : 7섬3되

○피각곡(皮各穀) : 4백13섬9말이다.

### 관방(關防)

### 진보(鎭堡)

### 봉수(烽燧)

### 학교(學校)

○향교(鄕校) : 고을 북쪽에 있다.

### 단묘(壇廟)

○사직단(社稷壇) : 고을 서쪽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 매곡산(昧谷山)에 있다.

○여단(厲壇) : 고을 북쪽에 있다.

### 능묘(陵墓)

### 불우(佛宇)

○웅암사(熊巖寺) : 구룡산(九龍山)에 있으나 다만 빈터만 있다.

○묘암사(妙巖寺) : 목감사(牧監山)에 있으나 다만 빈터만 있다.

○마전사(麻田寺) : 고을 남쪽 노성산(老城山)에 있다.

○은선암(隱仙菴) : 고을 서쪽 묵령산(墨嶺山)에 있다.

### 궁실(宮室)

### 누정(樓亭)



**도로(道路)**

- 노령대로(蘆嶺大路) : 보은(報恩) 경계로 가는 큰길로 관문(官門)에서 동쪽으로 16리 거리이다.
- 묵령대로(墨嶺大路) : 문의(文義) 경계에서 오는 큰길로 관문(官門)에서 서쪽으로 15리 거리이다.
- 남소로(南小路) : 청주(淸州) 경계로 가는 길로 관문(官門)에서 32리 거리이다.
- 피반령대로(皮盤嶺大路) : 청주(淸州) 경계에서 오는 큰길로 관문(官門)에서 서북쪽으로 29리 거리이다.
- 북소로(北小路) : 청산(靑山) 경계로 가는 길로 관문(官門)에서 25리이다.

**교량(橋梁)****제언(堤堰)****도서(島嶼)****장시(場市)**

- 두산시(斗山市) : 북면(北面)땅에 있는데 관문(官門)에서 20리 거리이고 3일과 8일에 열린다.

**어염(魚鹽)****역원(驛院)****목장(牧場)****형승(形勝)**

- 거듭된 멧부리와 겹겹의 고개길은 양의 창자처럼 둘러있다.

※이승소(李承召)의 다음 시(詩) 귀절이다.

“거듭된 멧부리와 겹겹의 고개 멀리 서로 연결되고  
길은 양(羊)의 창자처럼 얽히었으니 말이 나아가지 못하네”

**고적(古蹟)**

- 호점산성(虎岾山城) : 돌로 쌓았다. 둘레가 5천1백48자이고 높이가 8자이다. 성안에 우물이 3개 있다.
- 매곡산성(昧谷山城) : 돌로 쌓았다. 둘레가 1천1백52자이고 높이가 8자이다.

**토산(土産)**

무쇠(水鐵) · 벌꿀 · 자초(紫草) · 복령(茯苓) · 지황(地黃) · 안식향(安息香) · 더덕 · 도라지 · 대추

**진공(進貢)**

- 2월령(二月令) : 벌꿀 2되
- 3월령(三月令) : 모향(茅香) 8근6냥 · 전호(前胡) 1근5냥 · 도라지9냥 · 진규(眞奎)10냥 · 백급(白芨) 2냥 · 건지황(乾地黃) 2냥
- 7월령(七月令) : 안식향(安息香) 1근5냥 · 백급(白芨)2냥4전 태수(胎水)1홉 · 벌꿀 2되
- 10월령(十月令) : 대추 1말5되 · 전호(前胡)14냥 · 산약(山藥)5냥8전 · 유지(油紙)1장
- 진하진상(陳賀進上) : 대추 2말2되 · 말린 꿩(乾雉) 4마리
- 도계진상(到界進上) : 벌꿀1되9홉 · 산꿩(活雉) 3마리이다.

**봉름(棒廩)**

- 일년월름미(一年月廩米) : 1백섬
-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 10섬
- 유청지지가미(油淸紙地價米) : 39섬 합계 1백49섬이다.
- 아록(衙祿) : 55결(結)이나 대신 쌀 9섬, 콩 5섬과 1년간 잡역미(雜役米)로 1백20섬으로 대치한다.

**환적(宦蹟)**

- 만력(萬曆) 신해(辛亥 광해3 1611년)부터 시작한다.
- 조언범(趙彦範) : 신해(辛亥 광해3 1611)에 도입하여 같은 해 그만두다.
- 윤겸선(尹兼善) : 신해에 도입하여 임자(壬子 1612)에 그만두다.
- 김명남(金命男) : 임자에 도입하여 갑인(甲寅 1614)에 그만두다.
- 송경조(宋景祚) : 갑인에 도입하여 정사(丁巳 1617)에 그만두다.
- 남진(南鎭) : 정사에 도입하여 기미(己未 1619)에 부모의 상(喪)을 입었다.
- 성창열(成昌烈) : 기미에 도입하여 같은 해에 부모 상(喪)을 입었다.
- 심달(沈闐) : 기미에 도입하여 신유(辛酉 1621)에 적성(積城)으로 진출(轉出)했다.
- 이덕언(李德言) : 신유에 도입하여 같은 해에 석성(石城)으로 진출(轉出)했다.
- 김업남(金業男) : 신유에 도입하여 계해(癸亥 인조1 1623)에 그만두다.
- 허겸(許兼) : 계해(癸亥)에 도입하여 갑자(甲子 1624)에 그만두다.
- 박홍소(朴弘韶) : 갑자에 도입하여 병인(丙寅 1626)에 그만두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성급(成茂) : 병인에 도입하여 신미(辛未 1631)에 임기가 차서 다른 곳으로 갈러갔다.
- 이회(李瀼) : 신미에 도입하여 같은 해 옥천(沃川)로 옮겨갔다.
- 조흥빈(趙興賓) : 신미에 도입하여 같은 해에 갈러갔다.
- 이견봉(李堅峰) : 임신(壬申 1632)에 도입하여 갑술(甲戌 1634)에 갈러갔다.
- 이덕염(李德濂) : 갑술에 도입하여 병자(丙子 1636)에 그만두다.
- 유익화(柳益華) : 병자에 도입하여 경진(庚辰 1640)에 별세(別世)하였다.
- 조정란(趙廷蘭) : 경진에 도입하여 같은 해 바뀌었다.
- 홍성해(洪成海) : 경진에 도입하여 신사(辛巳 1641)에 잡혀가 파직되었다.
- 구영(具瑩) : 신사(辛巳 1641)에 도입(到任)하여 같은 해에 그만두다.
- 권근중(權謹中) : 신사에 도입하여 감사(監司)와 상피(相避)관계로 바뀌었다.
- 이홍조(李弘祚) : 계미(癸未 1643)에 도입하여 병술(丙戌 1646)에 스스로 관직을 버렸다.
- 김근행(金謹行) : 병술에 도입하여 무자(戊子 1648)에 그만두다.

- 이창한(李昌漢) : 기축(己丑 1649)에 도임하여 같은 해에 별세(別世) 하였다.
- 박인(朴潁) : 기축에 도임하여 신묘(辛卯 효종2 1651)에 그만두다.
- 최로(崔櫓) : 신묘에 도임하여 감사(監司)와 상피(相避)관계로 바꾸었다.
- 김하현(金夏鉉) : 신묘에 도임하여 임진(壬辰 1652)에 바뀌었다.
- 이명빈(李命賓) : 임진에 도임하여 계사(癸巳 1653)에 그만두다.
- 이순남(李順男) : 문과(文科)급제. 계사에 도임하여 기해(己亥 1659)에 임기가 차서 교체되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정백기(鄭伯基) : 기해에 도임하여 임인(壬寅 현종3 1642)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이민도(李敏道) : 계묘(癸卯 1663)에 도임하여 같은 해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조현소(趙見素) : 계묘에 도임하여 을사(乙巳 1665)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되었다.
- 송유제(宋孺悌) : 을사에 도임하여 병오(丙午 1666)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이빈(李櫛) : 병오에 도임하여 임자(壬子 1672)에 임기가 차서 다른 곳으로 갈려갔다.
- 이태하(李泰夏) : 임자에 도임하여 계축(癸丑 1673)에 어사(御史)가 국왕에게 아뢰어 파직시켰다
- 황진구(黃震耆) : 을묘(乙卯 숙종1 1675)에 도임하여 기미(己未 1679)에 사헌부(司憲府)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우정(禹鏞) : 문과급제(文科及第), 기미에 도임하여 경신(庚申 1680)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되었다.
- 한전(韓堧) : 신유(辛酉 1681)에 도임하여 병인(丙寅 1686)에 임기가 차서 교체 되었다.
- 최신(崔愼) : 병인에 도임하여 무진(戊辰 1688)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이태기(李泰祺) : 문과급제(文科及第), 무진에 도임하여 신미(辛未 1691)에 별세(別世)하였다.
- 윤형래(尹亨來) : 신미에 도임하여 임신(壬申 1692)에 별세(別世)하였다.
- 송엽(宋燁) : 임신에 도임하여 정축(丁丑 1697)에 임기가 차서 교체되었다. 거

사비(去思碑)가 있다.

- 이대영(李大嶺) : 정축에 도입하여 임오(壬午 1702)에 부모상(喪)을 입었다.
- 정지상(鄭至祥) : 임오에 도입하여 병술(丙戌 1706)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양득중(梁得中) : 병술에 도입하여 무자(戊子 1708)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정서하(鄭瑞河) : 무자에 도입 전에 부모상(喪)을 입었다.
- 서종적(徐宗積) : 무자에 도입하여 계사(癸巳 1713)에 품계는 낮춰 파직되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조상건(趙尙健) : 문과급제(文科及第), 계사에 도입하여 갑오(甲午 1714)에 지평(持平)으로 옮겨갔다.
- 이명세(李明世) : 문과급제(文科及第), 갑오에 도입하여 을미(乙未 1715)에 별세(別世)하였다.
- 이회(李薈) : 을미에 도입하여 무술(戊戌 1718)에 별세(別世)하였다.
- 박종양(朴宗陽) : 무술에 도입하여 임인(壬寅 1722)에 부모상(喪)을 입었다.
- 이성환(李星煥) : 문과급제(文科及第), 임인에 도입하여 같은 해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신성집(申成集) : 임인에 도입하여 갑진(甲辰 1724)에 국왕에게 아뢰어 파직시켰다.
- 김도응(金道應) : 문과급제(文科及第), 갑진에 도입(到任)하여 무신(戊申 1728) 영조4(1728)에 법망(法網)에 걸려 죽임을 당하였다.
- 변관하(卞觀夏) : 무신에 도입하여 같은 해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되었다.
- 송국경(宋國經) : 문과급제(文科及第), 기유(己酉 1729)에 도입하여 경술(庚戌 1730)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되었다.
- 이하영(李夏英) : 경술에 도입하여 갑인(甲寅 1734)에 국왕에게 아뢰어 파직되었다.
- 이현(李炫) : 갑인에 도입하여 기미(己未 1739)에 임기가 차서 다른 곳으로 갈려감
- 김진억(金鎭億) : 문과급제(文科及第), 기미에 도입하여 경신(庚申 1740)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강재항(姜再恒) : 경신에 도임하여 갑자(甲子 1744)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정희태(鄭希泰) : 갑자에 도임하여 정묘(丁卯 1747)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이동빈(李東賓) : 정묘에 도임하여 기사(己巳 1749)에 자진하여 사표를 내고 다른 곳으로 감
- 이종원(李宗遠) : 기사에 도임하여 같은 해 사헌부(司憲府)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 윤동철(尹東喆) : 기사(己巳 1749)에 도임(到任)하여 계유(癸酉 1753)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홍옥보(洪沃輔) : 계유에 도임하여 같은 해 부모상(喪)을 입었다.
- 이언제(李彦濟) : 계유에 도임하여 을해(乙亥 1755)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심겸(沈鉞) : 을해에 도임하여 정축(丁丑 1757)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이익현(李益炫) : 무인(戊寅 1758)에 도임하여 경진(庚辰 1760)에 밀양부사(密陽府使)로 옮겨갔다.
- 최도흥(崔道興) : 신사(辛巳 1761)에 도임하여 을유(乙酉 1765)에 임기가 차서 갈려갔다.
- 이언수(李彦秀) : 병술(丙戌 1766)에 도임하여 경인(庚寅 1770)에 임기가 차서 갈려갔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김택동(金宅東) : 신묘(辛卯 1771)에 도임하여 병신(丙申 1776)에 임기가 되자 가을 전에 임기를 마쳤다.
- 이수빈(李壽彬) : 병신에 도임하여 기해(己亥 정조3 1779)에 부모상(喪)을 입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 송위명(宋瑋明) : 기해에 도임하여 신축(辛丑 1781)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되었다.
- 홍경(洪徹) : 신축에 도임하여 계묘(癸卯 1783)에 별세(別世)하였다.
- 안정택(安廷鐸) : 계묘에 도임하여 갑진(甲辰 1784)에 고부군수(古阜郡守)로 옮겨갔다.
- 이지형(李趾馨) : 을사(乙巳 1785)에 도임하여 정미(丁未 1787)에 국왕에게 아뢰어 파직시켰다.
- 유진구(柳鎭九) : 무신(戊申 1788)에 도임하여 기유(己酉 1789)에 별세(別世)
- 변위진(卞緯鎭) : 기유에 도임하여 계축(癸丑 1793)에 온양(溫陽)으로 옮겨갔다.

- 이노재(李魯在) : 계축에 도입하여 병진(丙辰 1796)에 안산(安山)으로 옮겨갔다.
- 이가운(李可運) : 병진에 도입하여 신유(辛酉 순조1 1801)에 임기가 차서 다른 곳으로 갈려갔다.
- 김기희(金箕熙) : 신유에 도입하여 임술(壬戌 1802)에 자진해서 사표를 냈다.
- 이후식(李厚植) : 임술에 도입하여 정묘(丁卯 1807)에 임기가 차서 다른 곳으로 갈려갔다.
- 김완(金椀) : 정묘에 도입하여 무진(戊辰 1808)에 어사(御史)가 국왕에게 아뢰어 파직시켰다.
- 조명한(趙明漢) : 무진에 도입하여 계유(癸酉 1813)에 품계를 낮춰 파직시켰다.
- 이재겸(李在謙) : 계유에 도입하여 정축(丁丑 1817)에 품계를 낮춰 파직시켰다.
- 박종염(朴宗濂) : 무인(戊寅 1818)에 도입하여 계미(癸未 1823)에 임기가 차서 교체되었다.
- 이시좌(李時佐) : 계미에 도입하여 정해(丁亥 1827)에 김포(金浦)로 옮겨갔다.
- 이화(李鐸) : 정해에 도입하여 무자(戊子 1828)에 국왕에게 아뢰어 파직시켰다.
- 이시학(李時學) : 무자에 도입하여 기축(己丑 1829)에 어사(御史)가 국왕에게 아뢰어 파직시켰다.
- 김효기(金孝基) : 기축에 도입하여 임인(壬寅 1830)에 이조(吏曹)에서 품계를 강등 시켰다.
- 한진서(韓鎭書) : 신묘(辛卯 1831)에 도입하여 계사(癸巳 1833)에 모친상(喪)을 입었다.
- 김영진(金永進) : 계사에 도입하여 같은 해에 이조(吏曹)에서 품계를 강등시켰다.
- 김계흡(金啓洽) : 갑오(甲午 1834)에 도입하여 무술(戊戌 현종4 1838)에 임기가 차서 교체되었다.
- 정원기(鄭元夔) : 무술에 도입하여 계묘(癸卯 1843)에 잡혀갔다.
- 박종천(朴宗天) : 계묘에 도입하여 정미(丁未 1847)에 임기가 차서 교체되었다.
- 이건영(李建榮) : 무신(戊申 1848)에 도입하여 기유(己酉 1849)에 이조(吏曹)에서 품계를 강등 시켰다.
- 김장원(金長遠) : 기유에 도입하여 같은 해에 이조(吏曹)에서 품계를 강등 시켰다.

- 이규영(李奎英) : 경술(庚戌 철종1 1850)에 도입하여 임자(壬子 1852)에 품계를 낮추어 파직 시켰다.
- 박풍수(朴豐壽) : 임자년 도입하여 무오(戊午 1858)에 바뀌었다.
- 서호순(徐護淳) : 무오에 도입하여 계해(癸亥 1863)에 적성(積城)으로 옮겨갔다.
- 김형순(金衡淳) : 계해에 도입하여 같은 해에 별세(別世)하였다.
- 홍현주(洪鉉周) : 계해에 도입하여 병인(丙寅 고종3 1863)에 경성(鏡城)으로 옮겨갔다.
- 박이정(朴履定) : 병인에 도입하여 정묘(丁卯 1867)에 옥천(沃天)으로 옮겨갔다.
- 김조헌(金祖憲) : 무진(戊辰 1868)에 도입하여 경오(庚午 1870)에 간성(杆城)으로 옮겨갔다.
- 정해주(鄭海周) : 신미(辛未 1821)에 도입하여 임신(壬申 1872)에 품계를 낮춰 파직되었다.
- 왕정우(王庭羽) : 계유(癸酉 1873)에 도입하여 을해(乙亥 1875)에 연천(連川)으로 진출하였다.
- 이수면(李需冕) : 을해 도입하여 무인(戊寅 1878)에 평창(平昌)으로 옮겨갔다.
- 김정식(金正植) : 무인에 도입하여 경진(庚辰 1880)에 지평(砥平)으로 옮겨갔다.
- 이인면(李寅冕) : 신사(辛巳1881)에 도입하여 임오(壬午1882)에 전의(全義)로 옮겨갔다.
- 조희백(趙熙百) : 임오에 도입하여 같은 해에 내상(內喪)을 당하였다.
- 김사공(金思兢) : 계미(癸未 1883)에 도입하여 병술(丙戌 1886)에 진천(鎭川)으로 옮겨 갔다.
- 이종태(李鍾泰) : 병술에 도입하여 정해(丁亥 1887)에 용담(龍潭)으로 옮겨갔다.
- 신태선(申台善) : 정해에 도입하여 무자(戊子 1888)에 비안(比安)으로 옮겨갔다.
- 조석영(趙奭永) : 무자에 도입하여 같은 해에 예안(禮安)으로 옮겨갔다.
- 박문하(朴文夏) : 무자에 도입하여 기축(己丑 1889)에 단성(丹城)으로 옮겨갔다.
- 한용원(韓龍源) : 기축에 도입하여 신묘(辛卯 1891)에 흥해(興海)로 옮겨갔다.
- 전양묵(全良默) : 신묘에 도입하여 갑오(甲午 1894)에 갈려 갔다.
- 유필환(兪弼煥) : 갑오에 도입하여 병신(丙申 1896)에 갈려 갔다.



- 박제홍(朴齊洪) : 병신에 도입하여 정유(丁酉 광무1 1897)에 내상(內喪)을 만나다.
- 이하섭(李夏燮) : 정유에 도입하여 기해(己亥 1899)에 무주(茂朱)로 옮겨갔다.

## 과거(科擧)

### ◎ 조선(朝鮮)<sup>167)</sup>

- 홍윤성(洪允成) : 문종(文宗) 때 과거에 급제하여 세조(世祖)를 도와 정난·좌익(靖難·佐翼) 공신이 되고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에 봉해지고 벼슬이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 시호(諡號)가 위평(威平)이다.

## 인물(人物)

### ◎ 고려(高麗)

- 공직(龔直) : 용맹과 지략이 있었다. 신라말(新羅末)에 매곡현(昧谷縣)의 장군이 되어 견훤(甄萱)을 섬기다가 견훤의 무도(無道)한 것을 보고 아들 영서(英舒)와 함께 태조에게 왔다. 태조가 대상(大相)을 제수하고 벼슬이 좌승(左丞)에 이르렀다. 시호가 봉의(奉義)이다.
- 공직달(龔直達) : 직(直)의 아들이다. 아우 금서(金舒)와 함께 후백제에 인질로 잡혀갔는데 직(直)이 태조(太祖)에게 붙자 견훤이 죽었다.

### ◎ 조선(조선)<sup>168)</sup>

- 이우(李祐) : 효행(孝行)으로 정문을 세웠다.
- 지성동(池性東) : 효행(孝行)으로 병자(丙子)에 복호(復戶)되었으나 2년후 조령(朝令)으로 복호를 파(罷)하였다.

## 제영(題詠)

관찰사(觀察使) 홍수주(洪受疇)의 현판시(懸板詩)다

167)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168) 원문에는 本朝로 되어있으나 朝鮮으로 고쳤다.

“험난한 산악 중간이 띄어 경계는 분명치 않으나 너그럽고  
 읍내와 마을 모두 합쳐도 얼마되지 않구나  
 관아의 규모는 작아 가을 햇살같이 박하고  
 나그네 수심은 빗소리에 차구나  
 가난한 백성에게 길쌈을 가르치니  
 숨은 사람이 기둥을 잡고 버티는 듯  
 다소간 관심사를 말벗할 사람없고  
 먼지 앉은 벽에 쓰고자 하니 詩心 번거롭다” 하였다.

### 비판(碑板)

어사(御史)를 임명하여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불러 들여 편히 살도록 할 때를 전후하여 임금의 말씀이 “지금 대신들의 주청을 들으니 단양(丹陽)과 회인(懷仁)의 일이 가없도다. 수찬(修撰) 홍경해(洪景海)를 단양(丹陽)과 회인(懷仁)의 안집어사(安集御史)로 삼으니 즉시 가서 백성들을 불러모으되 모든 일은 하교(下敎)를 보고 관찰사와 서로 상의하여 같이 성의를 다하여 봉행하고 그 일을 마친 뒤 봉명하라” 하셨다.

대신들이 주청한 것을 들으니 단양과 회인 두 고을에 백성들이 흩어져 지난 날 천호(千戶)이던 것이 지금은 수백호(數百戶)에 불과하며 유민(流民) 중에 숙식(宿食)이 어려운 자도 있다는 것이니 어찌 이런 처지를 앉아서 넘기리오 특별히 어사(御史)를 보내어 백성들을 달래어 다시 돌아와 살게 하라는 것이다.

아! 안토(安土) 두 글자는 옛사람들이 “너희들은 여기서 즐겁게 살아야지 어찌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하고 타이르는 것이다. 무릇 수령(守令)이 착하지 못하고 환곡(還穀)의 출납(出納)을 양반이 독점하여 곡식이 이미 떨어지니 백성들이 어찌 살아갈 것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굶주림이 만약 나에게 있다면 곡물(穀物)이 있는 뒤에 백성을 불러 모을 수 있음으로 어사가 이미 하교(下敎)를 받았으니 마땅히 관찰사(觀察使)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 비록 망극한 중에도 어찌 백성을 기만할 것인가 모름지기 의심 없이 백성을 불러 모을 어사의 직분으로 나의 이 마음을 펼칠 것이다.

호서(湖西)의 유치미(留置米) 3백섬을 어사에게 나누어주니 비록 두 갈래 길이지만 단

양과 회인 백성들에게 먼저 이런 취지를 알리고 갖고 가서 분부를 행하라

이제 호서 안집(安集)어사의 장계를 보니 단양과 회인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 온 자가 3분의 2가 넘는다 하니 심히 다행스럽다.

아! 처음 아뢰는 말을 듣고 어사를 임명하였으나 마음에 걱정이 되어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않았는데 이제 두 고을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어찌 내 가르치는 말에 감동한 것인가 이는 아버지가 비록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참아 불효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 지극히 어리석어도 신통한 것은 백성이다. 어사의 장계를 보니 얼굴에 화색이 도니 하나는 명령을 어김없이 실행한 것이요. 또 하나는 힘써 백성을 구출한 것이다. 다시는 단양촌에서 구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와 같은 특명에 대하여 어사가 끝부분만 알아듣고 백성을 속인다면 아! 늙은 나이에 백성을 기만하는 일이니 죽음을 마다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는구나

이제 단양과 회인에 대하여 특별히 세금을 받거나 받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니 이것은 팔도 백성을 균등하게 보려는 왕자(王者)의 길이다. 인종(仁宗)황제가 유사에게 묻지 않고는 때를 기다리지 못 하였듯이 받지 않거나 나라에 납부하는 것은 세법에 따른 것이지만 탕감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어사는 나의 뜻을 헤아려 백성의 뜻에 맞춰 성의를 다하여 백성을 불러 모으도록 하라

아! 백성 하나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사가 무슨 낮으로 복명할 것이며 나도 또한 무슨 낮으로 어사를 만날 것인가

이와 같은 나의 뜻을 헤아리어 정원(政院)에 하명(下命)하니 즉시 유시(諭示)를 내려보내라

## 청산군(靑山郡)

### 방리(坊里)

○주성면(朱城面) : 북쪽 보은군(報恩郡) 경계를 넘어서 80리다

도엽리(桃葉里) : 관문(官門)에서 거리 90리로 인호(人戶)는 1백48호(戶)에 남자 2백96명, 여자 2백45명이다.

봉황리(鳳凰里) : 관문(官門)에서 거리 85리로 인호(人戶)는 1백51호(戶)에 남자 3백2명, 여자 2백34명이다.

묵동리(墨洞里) : 관문(官門)에서 거리 80리로 인호(人戶)는 1백47호(戶)에 남자 2백84명, 여자2백34명이다.

### 속현(屬縣)

○주성부곡(朱城部曲) : 군의 북쪽 90리 보은군(報恩郡) 북촌(北村)을 월경(越境)하여 있다. 본래는 상주(尙州)에 속하였으나 고려(高麗) 공양왕 2년(恭讓王 1390) 청산현(靑山縣)에 감무(監務)를 둘 때 땅이 협소하다 하여 배어 예속시켰다.

### 창고(倉庫)

○외주성창(外朱城倉) : 3칸이다.

#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 「朝鮮寰輿勝覽」은 1928년부터 數年에 걸쳐서 편찬된 各 郡의 地理志이다. 全國地志의 체제로 편집을 계획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郡단위로 책을 따로 하여 꾸미고 있음이 특징이다. 著作者 李秉延은 1930년까지는 忠南 論山에 살다가 이듬해에는 大田으로 이사하면서 이 著作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冊數는 113冊으로 방대한 제작임을 알 수 있다. 報恩郡篇은 1936년에 발행되었다. 懷仁郡이 報恩郡에 統合된 報恩郡邑誌로 역대 邑誌를 참고하고 거기에 新式學校를 추가하고 특히 人物을 세분하여 대폭 증보한 것이 특징이다.

### 보은군(報恩郡)

#### 사계 (四界)169)

동쪽으로 상주군(尙州郡) 경계까지 30리, 서쪽으로 대전군(大田郡) 경계까지 50리, 남쪽으로 옥천군(沃川郡) 경계까지 30리, 북쪽으로 청주군(淸州郡) 경계까지 40리이다.

#### 건치연혁(建治沿革)

본래 신라(新羅)의 삼년산군(三年山郡)인데 경덕왕(景德王)이 삼년(三年)으로 고치고 고려(高麗) 때 보령(保齡)이라 고쳤다. 뒤에 그릇 전해져 보령(保令)이 되었다. 현종(顯宗) 때 상주(尙州)에 예속되었고 명종(明宗) 때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朝鮮) 태종(太宗 1406) 6년 병술(丙戌)에 보령(保寧)과 발음(發音)이 같다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예

169) 원문에는 제목이 없으나 편이상 불렀다.

(例)대로 현감(縣監)을 두었으며 경상도(慶尙道)로부터 본도(本道)에 예속되었다. 순조(純祖)의 태실(胎室)을 속리산(俗離山)에 봉안(奉安)하고 군(郡)으로 승격(陞格) 시키고 군수(郡守)를 두었다.

순종(純宗) 융희(隆熙) 4년(1910) 경술(庚戌) 후 대정(大正) 3년(1914) 갑인(甲寅)에 회인(懷仁)을 폐하여 편입하였으며 청산(靑山)의 일부를 편입하고 회인(懷仁)의 일부를 청주(淸州)에 이속하고 군수를 두었는데 지금까지 내려온다.

### 신구속현(新舊屬縣)

○회인폐현(懷仁廢縣) : 본래 백제(百濟)의 미곡현(未谷縣)인데 신라(新羅)가 매곡(昧谷)으로 고치고 연산군(燕山郡)<sup>170)</sup>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高麗) 초에 회인(懷仁)이라 고쳤으며 현종(顯宗) 때 청주(淸州)에 예속되었으며 뒤에 회덕(懷德)의 겸임관(兼任官)이 되었으며 우왕(禡王)<sup>171)</sup> 때 따로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朝鮮) 태종(太宗) 때 예(例)대로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고종(高宗 1895) 32년에 예(例)대로 군(郡)으로 고치고 군수(郡守)를 두었다. 순종(純宗) 융희(隆熙) 4년(1910) 경술(庚戌) 뒤 갑인(甲寅)에 혁파하여 본군(本郡)에 편입되었다.

### 군명(郡名)

삼년산(三年山) · 보령(保齡) · 삼산(三山) · 보은(報恩) [미곡(未谷) · 매곡(昧谷) · 회인(懷仁)]

### 산천(山川)

○사산(蛇山) : 군(郡)의 북쪽 1리에 있으니 읍(邑)의 진산(鎭山)이다.

○와산(蛙山) : 군의 남쪽 2리에 있으니 읍의 안산(案山)이다.

○저산(猪山) : 군 서쪽 2리에 있다.

※이상 산의 모양이 서로 상극(相克)이라하여 옛부터 이름하여 삼산(三山)이라 하였다.

○태음산(太陰山) : 수한면(水汗面) 교암리(教岩里)에 있다.

170) 지금의 靑原郡 文義

171) 원문에는 王禡로 되어있으나 우왕으로 고쳤다.



- 금적산(金積山) : 삼승면(三升面) 서원리(西原里) 옥천(沃川) 경계에 있다.
- 국사봉(國仕峯) : 탄부면(炭釜面) 벽지리(碧池里)에 있는데 약물샘(藥泉)이 있다.
- 속리산(俗離山) : 속리면(俗離面)에 있다. 아홉 봉우리가 불쑥 솟았다하여 구봉산(九峯山)이라 부르고 혹은 광명산(光明山) · 미지산(彌知山) · 지명산(智明山) · 형제산(兄弟山)의 이름이 있고 봉우리 중 큰 것은 천왕봉(天王峯) · 비로봉(毘盧峯) · 관음봉(觀音峯) · 묘봉(妙峯) · 수정봉(水晶峯)이다.

※신라(新羅) 때 중사(中祀)을 올렸다.

○문장대(文藏臺) : 속리산(俗離山) 산위에 있는데 쌓여있는 돌이 천연(天然)으로 되어있어 힘차게 공중으로 솟아 그 높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그 넓이는 30명이 앉을 수 있으며 대(臺)위에 구덩이가 있어 가마솥과 같은데 그 가운데 물이 솟아 나는데 가물어도 마르지 않으며 비가와도 불어나지 않으며 세 줄기로 나뉘어 반공(半空)에 흘러내리니 한 줄기는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洛東江)이 되고 한 줄기는 서쪽으로 흘러 금강(錦江)이 되고 한줄기는 서쪽으로 흐르다 북쪽으로 가 달천(達川)이 되어 금천(金遷)으로 들어간다. 산아래에 8교(橋)와 9요(遙)의 이름이 있는데 산의 두 언덕이 구불구불 잇대어 가다가 확 티었고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보면 멀고 멀어서 마치 땅의 끝인 것처럼 의심스럽다가 거기까지 가서 바라보면 또한 멀고 멀어서 이렇게 하기를 아홉 번 하여 법주사(法住寺)에 도착하는 고로 이름을 9요(遙)라 하고 9요(遙) 가운데로 한 줄기 물이 돌고 돌아 구비치며 흐르는데 한 구비마다 다리가 있어 모두 여덟이기 때문에 8교(橋)라 하며 맨 첫다리가 수정교(水精橋)이다. 다리위에 비각(飛閣)이 있어 사람들이 각(閣)속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작은 무너지고 다리만 남아있다.

※신여(信如)라는 승(僧)의 시(詩)가 있는데

“삼청동 돌아드는 아홉 구비  
한 줄기 냇물 위에 여덟 다리  
다리 밑 푸른 물을 시샘하는 붉은 빛  
온 산 단풍 잎이 솔가지랑 엷겼구나” 하였다.

※김구용(金九容) : 자(字)는 경지(敬之)이고 호(號)는 척약재(惕若齋)로 안동인(安東人)이다.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로 시호(諡號)는 문온(文溫)으로 일찍 시(詩)가 있는데

“달마암(達磨岩)가에 등불 하나 밝았는데  
 문열고 향피우니 마음 다시 맑아라  
 혼자 깊은 밤에 앉아 잠 못이루니  
 창 앞에 흐르는 물 솔바람 소리와 섞어 들리네” 하였다.

※유인학(柳寅鶴) : 호(號)가 매산(梅山)으로 본관이 문화(文化)이다. 충경공(忠景公) 양(亮)의 후손으로 시(詩)가 있다.

“들으니 금강산(金剛山)이 좋다 하더니  
 다시 이 곳에도 있구나  
 의로운 소나무는 세조(世祖)를 빛내고  
 줄서있는 봉우리 천왕봉(天王峯)을 보호하네  
 봉우리가 높아 아침해 늦게 뜨고  
 골짜기엔 저녁 연기 자욱하네  
 낙엽이 가는 길에 쌓였으니  
 쓸쓸한 나그네 발걸음만 바쁘구나 ” 하였다.

○구석(龜石) : 속리산(俗離山) 산위에 있다. 천연(天然)으로 이루어져 그 등에는 사람이 50명이 앉을만하고 그 머리는 높다랗게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전해오는 말에 중원(中原)<sup>172)</sup>의 술사(術士)<sup>173)</sup>가 와서 보고 하는말이 “내가 중원(中原)의 채물과 비단이 날마다 동쪽으로 실려오는 것이 누구의 짓인지 몰랐더니 과연 이물건이구나” 하고 그 머리를 잘라 버렸다 한다.

○은폭동(隱瀑洞) : 속리산(俗離山)에 있는 폭포로 땅속에서 쏟아져나와 물소리만 들리고 물은 보이지 않아 이름을 붙였다.

○검단산(儉丹山) : 산외면(山外面) 대원리(大元里)에 있다. 백제(百濟)의 검단(儉丹)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해오는 말에 옛날에 고운암(孤雲菴)이 있었는데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이 강습(講習)하던 곳이라 한다.

172) 中國을 말함  
 173) 占術에 精通한 사람

- 오정산(烏頂山) : 보은면(報恩面)에 있다.
- 구병산(九屏山) : 마로면(馬老面) 관기리(官基里)에 있다.
- 어사대(御史臺) : 보은면(報恩面) 학림리(鶴林里)에 있다. 절의(節義)인 구수팽(具壽彭)이 살 곳을 잡았다 한다.
- 여산(黎山) : 일명(一名) 보습산(寶習山)으로 속리면(俗離面) 장내리(帳內里)에 있으며 산위에 만경대(萬景臺)가 있다.
- 구암천(九岩川) : 마로면(馬老面)에 있으며 수원(水源)은 천왕봉(天王峯)에서 나온다
- 죽천(竹川) : 구암천(龜岩川) 하류(下流)로 본읍(本邑)의 수구(水口)로 흘러서 옥천(沃川)으로 들어간다.
- 봉황천(鳳凰川) : 내북면(內北面)에 있다. 수원(水源)은 문장대(文藏臺)로부터 흘러서 청주(淸州) 미원천(米院川)으로 들어간다.

※이상은 원보은(元報恩)에 있던 것이다.

- 수정봉(繡亭峯)<sup>174</sup> : 회북면(懷北面)에 있으니 옛 회인읍(懷仁邑)의 진산(鎭山)이다.
- 아미산(峨嵋山) : 회북면(懷北面)에 있으니 옛 읍(懷仁邑)의 안산(案山)이다.
- 사제봉(師弟峯) : 회북면(懷北面) 죽암리(竹岩里)에 있다
- 구룡산(九龍山) : 회북면(懷北面)에 있다.
- 호점산(虎岾山) : 회남면(懷南面)에 있다.
- 보리산(甫里山)<sup>175</sup> : 회북면(懷北面)에 있다.
- 차의현(車衣峴) : 회북면(懷北面)에 있다.
- 피반대령(皮盤大嶺) : 회북면(懷北面)에 있다
- 웅현(熊峴) : 회북면(懷北面)에 있다.
- 목감산(牧監山) : 회북면(懷北面)에 있다.
- 국사봉(國師峯) : 회남면(懷南面) 금곡리(金谷里)에 있다.

※양봉환(梁鳳煥) : [유행(儒行)편에 실려있다.]

제영시(題詠詩)는 이러하다.

“국산(菊山)은 가히 수양산(首陽山)만 한데

174) 지금은 松亭峯이라고 부른다.

175) 지금은 當壽峯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이제(夷齊)<sup>176</sup>가 아니니 수양(首陽)이라 부를가  
 발 아래 창강(蒼江)은 세 줄기로 보이고  
 머리 위에 해 떨어지니 하늘이 길구나  
 아득한 노을은 끝이 없고  
 울창한 나무는 향기가 남아있네  
 산수(山水)를 좋아함은 모두 한 이치인데  
 우리나라 모두가 내 고향 일세”

○도산(島山) : 회남면(懷南面) 서탄리(書灘里)에 있다.

※김현복(金顯復) [호(號)는 월정(月亭)으로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춘회당(春回堂)해정(海精)의 후(后)] 제영시(題詠詩)는 이러하다.

“목곡(木谷)<sup>177</sup>이 남으로 오니 도산(島山)이 있고  
 도산(島山) 밖에는 산이 없구나  
 도산(島山) 밖에 차라리 산이 없으면  
 제일 강산이 도산(島山)일세”

○예계소(禮溪沼) : 회남면(懷南面) 신곡리(新谷里)에 있으며 흘러서 풍강(楓江)으로 들어간다.

○풍강(楓江) : 말흘탄(末訖灘)이라고도 부르니 곧 옥천(沃川) 화인진(化仁津)의 하류(下流)이다.

○용추(龍湫) : 회남면(懷南面) 남대문리(南大門里)에 있다.

○웅암천(熊岩川) : 회북면(懷北面)에 있는데 수원(水源)은 구룡산(九龍山)에서 나와서 흘러가 예계소(禮溪沼)로 들어간다.

※이상은 원회인(元懷仁)에 있던 것이다.

### 군세(郡勢)

○면(面) : 10개이다.

○리(里) : 1백 78리이다.

176) 伯夷叔齊로 首陽山에서 고사리를 캐먹다 굶어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177) 서울의 南山을 말한

- 답(畓) : 5천 1백 20정(町) 5반(畔)이다.
- 전(田) : 6천 9백 71정(町) 8반(畔)이다.
- 임야(林野) : 3만 7천 4백 27정(町) 6반(畔)이다.
- 황지(荒地) : 51정(町) 8반(畔)이다.
- 호수(戶數) : 1만 3천 61호(戶)이다.
- 인구(人口) : 7만 5백 50명이다.

### 토산(土産)

목화 · 삼베 · 명주 · 벼 · 보리 · 콩 · 조 · 대추 밤 · 감 · 담배 · 송이버섯 · 천마 · 시호 · 세신(細辛) · 작약(芍藥) · 도라지 · 복령(茯苓) · 택사(澤瀉) · 당귀(當歸) · 강활(羌活)이다.

### 교량(橋梁)

- 삼산교(三山橋) : 보은면(報恩面) 삼산리(三山里)에 있다.
- 장신교(長新橋) : 보은면(報恩面) 장신리(長新里)에 있다.
- 수정교(水精橋) : 속리산(俗離山)에 있다. 산천편(山川篇)을 보라

### 명승(名勝)

- 속리산(俗離山) : 위에 나왔는데 조선8경(朝鮮八景) 중에서 4번째 이다.
- 4증산(四甌山) : 하나는 내북면(內北面) 이원리(泥院里)에 있으니 북증(北甌)이고 하나는 마로면(馬老面) 세종리(世中里)에 있으니 남증(南甌)이며 하나는 마로면(馬老面) 적암리(赤岩里)에 있으니 동증(東甌)이며 하나는 수한면(水汗面) 장선리(長善里)에 있으니 서증(西甌)이다.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이 북주(福州)<sup>178</sup>로부터 청주(淸州)로 거동할 때 머물렀다.

178) 지금의 慶尙北道 安東市

### 형승(形勝)

- 행천침산홀견평야(行穿疊山忽見平野) : 이맹균(李孟詢)이 시(詩)에서 이르기를 “만첩산을 뚫고가니 홀연히 넓은 들이 보이네” 하였다.
- 삼과분류삼산반락(三派分流三山半落) : 유인학(柳寅鶴)이 시(詩)에서 이르기를 “삼과수가 나눠 후르니 삼산(三山)은 반쯤 읍(邑) 중간에 떨어졌구나” 하였다.

### 고적(古跡)

- 오정산성(烏頂山城)<sup>179</sup>) : 보은면(報恩面)에 있다. 신라(新羅) 자비왕(慈悲王 470) 13년 경술(庚戌)에 쌓았는데 쌓은지 3년만에 완공하였다 하여 일명(一名) 삼년산성(三年山城)이라고 부른다.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스스로 장수(將帥)가 되어 이 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청주(淸州)로 행차(幸次)하였다. 산 아래에 군장동(軍藏洞)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오기를 “태조(太祖)가 군사를 주둔시켰던 곳” 이라 한다.
- 마현박석(馬峴礪石) :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일찍이 이 곳에 거동할 때 어로(御路)로 닦은 것이라 한다.
- 함림산성(含林山城) : 내북면(內北面) 산성리(山城里)<sup>180</sup>)에 있는데 백봉산성(柏峯山城)이라고도 부르는데 둘로 쌓은 성이다
- 왕래원(王來院) : 시루산(甌山) 곁에 있으며 공민왕(恭愍王)이 머물렀던 곳이라 부르게 되었다.
- 노고성(老姑城) : 내북면(內北面) 산성리(山城里)에 있으며 언제 쌓은 성인지 알 수 없으며 성안에는 큰 못이 있는데 둘레는 헤아려보니 대략 3백평이다.
- 구인리(求仁里) : 탄부면(炭釜面)에 있다. 옛날에는 귀신교(鬼神橋)라 불렀는데 수촌(睡村) 이여(李畬)가 이성만(李成晩)과 은만(殷晩)이 효우(孝友)한 다하여 구인(求仁)이란 뜻을 따라 이름을 고쳤다.
- 주성(酒城) : 내북면(內北面) 창리(倉里) 곁에 취봉(鷲峯)이 있고 봉우리 아래 바위가 있으며 바위 사이로 술이 솟아 나왔는데 한 사람이 그 구멍이 적다하여 크게 뚫은 뒤로 술이 나오지 않는다 한다.

179) 원문에는 馬項山城이라고 되어있으나 烏頂山城으로 바로 잡았다.

180) 원문에는 俗離面 柏峴里로 되어있으나 內北面 山城里로 바로 잡았다.

○이품송(二品松) : 속리면(俗離面) 상판리(上板里)에 있다 전해오는 말에 “소나무 가지가 땅에 닿았는데 세조(世祖)의 행차(幸次)가 이 곳에 이르러 연(輦)이 지나가지 못하더니 홀연히 가지가 올라가서 어로(御路)가 지나갈 수 있었다하여 2품(二品)의 벼슬을 봉(封)하였다.” 한다.

○백송(白松) : 보은면(報恩面) 어암리(漁岩里)에 있다.

학행(學行)편에 실려 있는 김상진(金相進)이 심었는데 높이가 6장(丈)이고 꺾질이 희며 2백여년이 지났다.

※이상은 원래 보은(報恩) 것이다.

○매곡성(昧谷城) : 회북면(懷北面) 부수리(富壽里)<sup>181</sup>에 있으며 전해오는 말로 “최영(崔瑩)이 쌓은 것” 이라 한다.

○영귀대(詠歸臺) : 회남면(懷南面) 영당(影堂)에 있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쉬며 구경하던 곳인데 뒷 사람들이 유상대(遊賞臺)라 고쳐 부르고 있다.

○공태원(龔台院) : 회북면(懷北面)에 있는데 고려(高麗) 좌상(左相) 공직(龔直)의 출생지(出生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상은 원래 회인 것이다.

### 교궁(校宮)

○보은문묘(報恩文廟) : 보은면(報恩面) 교사리(校士里)에 있다.

○회인문묘(懷仁文廟) : 회북면(懷北面) 부수리(富壽里)에 있다.

### 궁전(宮殿)

○행궁(行宮) : 속리면(俗離面) 장재리(壯才里)에 있다. 세조(世祖)가 속리(俗離)에 거둥할 때 이 궁(宮)을 지었는데 지금은 궁이 무너지고 초석(礎石)만 남아있다.

### 원사(院祠)

○상현원(象賢院) : 속리면(俗離面) 서원리(書院里)에 있다. 명종(明宗) 기유(己酉 1549)<sup>182</sup>에 세웠는데 충암(沖庵) 김정(金淨) · 대곡(大谷) 성운

181) 원문에는 懷南面 巨橋里로 되어있으나 懷北面 富壽里로 바로잡았다.

- (成運) · 중봉(重峯) 조헌(趙憲) · 동주(東洲) 성제원(成悌元) ·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제향한다.
- 병산원(屏山院) : 마로면(馬老面) 관기리(官基里)에 있다.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 ·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 원정(猿亭) 최수성(崔壽暅) 병암(屏庵) 구수복(具壽福)<sup>183</sup>을 제향한다.
- 세덕사(世德祠) : 회북면(懷北面) 애곡리(艾谷里)에 있다. 역동(易東) 우탁(禹倬) · 적성군(赤成君) 우길생(禹吉生) · 단양백(丹陽伯) 우현보(禹玄寶)를 제향한다.
- 후율사(後栗祠) : 회북면(懷北面) 차령(車嶺) 아래에 있다. 중봉(重峯)조헌(趙憲)과 배향위(配享位)20인을 제향한다.
- 흥인사(興仁祠) : 회남면(懷南面) 신곡리(新谷里)에 있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이며 양달해(梁達海)가 세웠다.
- 백봉사(柏峯祠) : 내북면(內北面) 산성리(山城里)에 있다. 괴당(槐堂)<sup>184</sup> 이천계(李天啓)이다.
- 탁청사(濯淸祠) : 보은면(報恩面) 어암리(漁岩里)에 있다. 탁계(濯溪) 김상진(金相進) · 미호(溟湖) 김원행(金元行) · 늑천(櫟泉) 송명흠(宋明欽)이다.
- 추양사(秋陽祠) : 회남면(懷南面) 신추리(新秋里)에 있다. 어당(梧堂) 이상수(李象秀) · 금화(金華) 양주승(梁柱承) · 국하(菊下) 양주학(梁柱學)이다.
- 영정각(影淸閣) : 탄부면(炭釜面) 하장리(下長里)<sup>185</sup>에 있다. 익제(益齋) 이제현(李齊賢)이다.
- 어필각(御筆閣) : 속리면(俗離面) 백현리(柏峴里)에 있다. 숙종(肅宗)이 지은 준천첩(濬川帖)을 효자(孝子)인 나중경(羅重慶)에게 하사(下賜)하였는데 의왕(義王) 강(槁)이 제액(題額)한 것이다.
- 어필각(御筆閣) : 회남면(懷南面) 신곡리(新谷里)에 있다. 영조(英祖)<sup>186</sup>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직제학(直提學) 문명구(文命龜)에게 준 것이다.

182) 원문에는 己丑으로 되어있으나 己酉로 바로잡았다.

183) 원문에 新庵 具壽彭이 있으나 오기임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184) 원문에 槐亭으로 되어있으나 槐堂으로 바로 잡았다.

185) 원문에는 眞味리로 되어있으나 下長리로 고쳤다.

186) 원문에는 英宗으로 되어있으나 英祖로 고쳤다.



“금년 선달 중순 갑술일(甲戌日)에 육아(蓼莪)<sup>187</sup>를 외우네  
 한해동안 풍류(風流)를 감추고 내 뜻을 이루니  
 종이를 대하고 붓을 잡아 천재(千載)에 남긴다” 72세 늙은이가 썼다.

### 단사(壇社)

- 이천(李蕝) : 명신편(名臣篇)에 실려있다. 단(壇)은 보은면(報恩面) 송곡(松谷)에 있다.
- 양을방(梁乙邦) : 명관편(名官篇)에 실려있다. 단(壇)은 탄부면(炭釜面) 벽지리(碧池里)에 있다.

### 사찰(寺刹)

- 속리사(俗離寺) : 속리산(俗離山)에 있다. 대웅전(大雄殿)이 있는데 신라(新羅) 진평왕(眞平王)이 세웠고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증통국사(證通國師)에게 명하여 중수(重修)케 하였으며 전(殿)안에는 삼체대좌불(三體大坐佛)을 안치하였는데 그 높이가 각각 1장(丈) 5척(尺)여나 된다. 전각(殿閣) 서쪽에는 작은 전각이 있어 좌불(坐佛)을 안치하였는데 높이가 7척(尺)이고 허리 둘레가 5척(尺)이며 그 곁에 작은 각이 있어 5백나한(羅漢)이 벌여 앉아 있다. 그 밖에도 돌로 만든 뇌수대(瀨水臺) 석불(石佛) · 쇠가마술 등 모두가 거대하다. 세조(世祖)의 어필(御筆)을 작은당에 봉착(奉著)하였으며 앞에 일주문(一柱門)이 있는데 호서제일가람(湖西第一伽藍)이라고 제액(題額)하였다.
- 법주사(法住寺) : 속리산(俗離山)에 있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신라(新羅) 진흥왕(眞興王) 14년(553) 계유(癸酉)에 의신선사(義信禪師)가 흰노새에 불경을 실고와서 창건(創建)하였다 한다. 성덕왕(聖德王 720) 19년에 중수(重修)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고종(高宗 1891) 28년 신묘(辛卯)에 승(僧) 탄응(坦應)이 다섯 번째로 중수(重修)하였다. 또한 석조(石槽) · 석교(石橋) · 석옹(石瓮) · 석확(石鑊)이 있으며 절 안 산호전(珊瑚殿)에는 금신장육상(金身丈六像)이 있고 문앞에는 구리를 부어 만든 당간(幢竿)이 있는데 매우 높으며 그 일면(一面)에는 통화(統和) 24년(1006)에 만들었다고 새겼으며 또 고려(高麗)의

187) 詩經에 있는 노래제목으로 ‘더부룩한 다복쑥’이라 해석하고 있다. 노래 내용은 백성들이 勞苦함에도 孝子가 그의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양을 다 할 수 없음을 안타까와 하는 것이다.

밀직대언(密直代言)이숙기(李叔琪)가 지은 승(僧) 자정(慈淨)의 비명(碑銘)이 있다.

- 복천사(福川寺) : 속리산(俗離山)에 있다. 절 동쪽에 샘이 있어 돌 틈사이로 솟아나와 부엌과 공양(供養)에 사용함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세조(世祖)가 병풍연(屏風淵)에 머물다가 이튿날 법주사(法住寺)로부터 이 절에 행차(幸次)하여 경치를 두루 보고 따라 온 문신(文臣) 김수온(金守溫)에게 사실을 기록하도록 명하였다.
- 상환암(上歡庵) · 상고암(上庫庵) · 중사자암(中獅子庵) · 탈골암(脫骨庵) · 수정암(水晶庵) · 여적암(汝寂庵) · 여적토굴(汝寂土窟) ; 이상 모두 속리산에 있다.
- 대자재천왕사(大自在天王祠) : 그 신(神)이 매년 시월(十月) 인일(寅日)에 법주사(法住寺)에 내려오면 산중인(山中人)들이 풍악을 베풀고 신(神)을 맞아드려 제사(祭祀)를 드린지 45일간을 머물다가 돌아간다.
- 마전사(麻田寺) : 회남면(懷南面) 조곡리(鳥谷里)에 있다.
- 삼년사(三年寺) : 삼년성(三年城)에 있으며 석불(石佛)이 있다.
- 금화사(金華寺) : 삼승면(三升面) 금적산(金積山)에 있다.

### 학교(學校)

-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 보은면(報恩面) 1곳에 있다.
- 보통학교(普通學校) : 보은면(報恩面), 속리면(俗離面), 마로면(馬老面), 탄부면(炭釜面), 삼승면(三升面), 수한면(水汗面), 회남면(懷南面), 회북면(懷北面), 내북면(內北面), 산외면(山外面)에 각 1곳씩 있다.

### 수비(豎碑)

- 장현광(張顯光) : [청백편(清白篇)을 보라] 청덕비(淸德碑)로서 보은면(報恩面)자무실(紫霧室)에 있다.
- 충암김정유허비(冲庵金淨遺墟碑) : 보은면(報恩面) 성족리(聲足里)<sup>188</sup>에 있다.
- 박충검(朴忠儉) : 본관은 고성(固城), 임진왜란 때 조헌(趙憲)과 함께 금산(錦山)에서 순절(殉節)하였다. 비는 수한면(水汗面) 오정리(梧井里)에 있다.

188) 원문에는 鍾谷리로 되어 있으나 聲足리로 바로 잡았다.

- 상현원묘정비(象賢院廟庭碑) : 위의 원사편(院祠篇)을 보라
- 속리산사실비(俗離山事實碑) : 속리사(俗離寺)앞에 있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지었다.
- 윤경룡(尹敬龍) : [청백편(清白篇)을 보라] 비는 속리면(俗離面) 사내리(舍乃里)에 있다.
- 김진묵(金振默) : [자선편(慈善篇)을 보라] 송덕비(頌德碑)로 보은면(報恩面) 월송리(月松里)에 있으며 비문은 부제학(副提學) 정만조(鄭萬朝)가 짓고 판돈령(判敦寧) 윤용구(尹用求)가 썼다
- 노면청(盧勉淸) : [자선편(慈善篇)을 보라] 송덕비(頌德碑)로서 내북면(內北面) 창리(倉里)에 있다.
- 나상덕(羅相德) : [행의편(行誼篇)을 보라] 송덕비(頌德碑)로서 산외면(山外面) 장갑리(長甲里)에 있다.

#### 정려(旌閭)

- 이씨(李氏) : 구수복(具壽福)의 부인이다. [정열편(貞烈篇)을 보라] 정문은 마로면(馬老面) 관기리(官基里)에 있다.
- 김성원(金聲遠) : [충신편(忠臣篇)을 보라] 정문은 보은면(報恩面) 누청리(樓淸里)<sup>189)</sup>에 있다.
- 구이극(具爾極) 구시영(具始英)<sup>190)</sup> : [같이 효자편(孝子篇)을 보라] 정문은 산외면(山外面) 아시리(牙時里)에 있다.
- 양달해(梁達海) : [효자편(孝子篇)을 보라]
- 김씨(金氏) : 양달해(梁達海)의 부인이다.[효부편(孝婦篇)을 보라] 이상 두 정문은 회남면(懷南面) 영당(影堂)에 있으며 승지(承旨) 송태헌(宋台憲)이 기문(記文)을 지었다.
- 나중경(羅重慶) : [효자편(孝子篇)을 보라] 정문은 속리면(俗離面) 백현리(柏峴里)에 있다.

189) 원문에는 鍾谷리로 되어있으나 樓淸리로 바로 잡았다.

190) 원문에는 具爾英으로 되어있으나 具始英으로 바로 잡았다.

### 석총(碩塚)

- 유약(柳約) : 본관은 문화(文化)로 충경공(忠景公) 양(亮)의 손(孫)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냈다 묘소는 내북면(內北面) 산성리(山城里) 신좌(辛坐)에 있다.
- 김낙현(金洛鉉) : 호(號)가 계운(溪雲)으로 본관이 광산(光山)이다. 은일(隱逸)로 보국(輔國)을 지냈으며 시호(諡號)는 문경(文敬)이다. 묘소는 보은면(報恩面)에 있다.

### 명묘(名墓)

- 김을식(金乙湜) : 본관이 경주(慶州)로 판도판서(版圖判書) 장유(將有)의 손자이다. 벼슬은 판군기시사(判軍器寺事)를 지냈으며 묘소는 보은면(報恩面) 증곡리(鍾谷里) 간좌(艮坐)에 있으며 배위(配位) 이씨(李氏)<sup>191</sup>와 합봉(合封)하였다.
- 이호현(李好賢) : 본관은 전주(全州)로 양령대군(讓寧大君) 제(禋)의 후손이다. 우통례(右通禮)에 증직(贈職)되었으며 묘소는 회남면(懷南面) 분저리(分諸里) 마을 뒤 간좌(艮坐)에 있으며 배위(配位) 연일정씨(延日鄭氏)와 합봉(合封)하였다.
- 유운(柳蘊) : 자(字)는 자대(自待)이고 본관은 문화(文化)로 충간공(忠簡公) 소(沼)의 후손이다. 수직(壽職)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묘소는 산외면(山外面) 산대리(山大里) 해좌(亥坐)에 있다.
- 양위원(梁渭源) : 자(字)가 여중(汝中)으로 훈신(勳臣) 성지(誠之)의 후손이다. 수직(壽職)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으며 묘소는 회남면(懷南面) 국사봉(國師峯) 갑좌(甲坐)에 있다. 어머니 윤씨(尹氏) 묘소는 그 아래에 있다. 아들 이함(以涵)의 묘소는 어머니 묘소 아래에 있고 5대손 경수(景洙) 증손자 흡(滄)의 부인 김씨(金氏)의 묘소는 또 그 아래에 있으며 8대손 재정(在政)의 부인 임씨(林氏)의 묘소는 이함(以涵)의 묘소 왼쪽 인좌(寅坐)에 있다.
- 이정(李晶) : 호가 송재(松齋)이고 본관이 예안(禮安)으로 진사(進士)이다. 묘소는 속리면(俗離面) 오창리(梧倉里) 임좌(壬坐)에 있으며 참판(參判) 윤창섭(尹昌燮)이 지은 비갈(碑碣)이다.
- 김국한(金國翰) : 자가 익지(翼之)로 본관이 경주(慶州)<sup>192</sup>이고 무공랑(務功郎)이다.

191) 원문에는 閔氏로 되어있으나 李氏로 바로 잡았다.

192) 원문에는 金海人이라 하였으나 慶州로 바로 잡았다.

- 묘소는 속리면 독점리(陶店里) 후록(後麓) 묘좌(卯坐)에 있다.
- 김조석(金祚錫) : 본관은 김해(金海)로 묘소는 속리면 장재리(壯才里) 뒤 마티(馬峙)에 있다.
- 김노귀(金魯貴) : 초명(初名)이 귀석(貴錫)이고 자는 공서(公瑞)이다. 원종훈(原從勳) 종주(從柱)의 아들로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묘소는 산외면(山外面) 북상동(北床洞) 뒤 화주봉(花柱峯) 병좌(丙坐)에 부인 영월엄씨(寧越嚴氏)와 합봉(合封)되었다.
- 김기성(金基成) : 자가 춘성(春成)으로 증직(贈職)된 상규(商珪)의 현손(玄孫)이다. 묘소는 수한면 오정리(梧亭里) 뒤 건좌(乾坐)에 있다. 부인 성주배씨(星州裴氏) 묘소는 같은 마을 봉현(蜂峴) 선영(先塋)아래 신좌(申坐)이다
- 이후식(李厚植) : [청백편(清白篇)을 보라] 묘소는 회남면 송포리(松浦里) 뒤 화봉(花峯) 해좌(亥坐)에 있다. 어머니 전의이씨(全義李氏) 묘소는 위 해좌(亥坐)이다.
- 정씨(鄭氏) : 하동(河東)이 본으로 김해(金海) 김광훈(金光勳)의 부인으로 묘소는 회남면 서탄(書灘) 도산(島山) 오좌(午坐)에 있다.
- 박사헌(朴思憲) : 묘소는 보은면 수정리에 있다. 규장각(奎章閣) 부제학(副提學) 동래인(東萊人) 정만조(鄭萬朝)가 지은 비갈명(碑碣銘)에 “선비가 처세(處世)함에는 은거(隱居)하느냐 출사(出仕)하느냐 뿐인데 두 가지가 다 중도(中道)를 행(行)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 벼슬에 오른 사람으로서는 옥(玉)과 같이 아름다움을 도시(都市)에 자랑한다든가 백성의 민의(民意)인양 권문세가(權門勢家)에 글을 보내는 등 조금하게 고관(高官)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자(隱者)로서도 삼태기를 메고 바가지를 지고 소장사를 한다든가 개잡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행위(行爲)는 과시(果是)망신(忘身)이요 군자(君子)로서 취할 바가 아니다. 벼슬자리에 있게 되면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하고 때에 따라 적당한 행동을 취할 것이요 은거(隱居)하는 선비라면 수신(修身)하여 의(義)로운 행동으로 세상사람 본보기가 됨으로써 가히 선비로서의 중용지도(中庸之道)라 일컬을 것이다. 그런데 근자(近者)에 운와(雲窩)박공(朴公)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하겠다 공(公)의 휘(諱)는 사헌(思憲)이요 자(字)는 태진(泰鎭)이요 운와(雲窩)는 별호(別號)이다. 밀양이 본관으로 신라왕(新羅王)의 후예(後裔)이다. 밀직군(密直君) 휘(諱) 언인(彦仁)을 상조(上祖)로 하고 누대전(屢代傳)하여 휘(諱) 시용(時庸)에 이르러 조선(朝鮮)의 직강(直講)벼슬을 하고 대제학(大提學)에 증직(贈職)되

니 시호(諡號)는 문간공(文簡公)이다.

다시 전(傳)하여 휘(諱) 흥생(興生)에 이르러 일찍이 대소과(大小科)에 발탁(拔擢)되었고 지극한 효행(孝行)이 있어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贈職)되었으며 정려(旌閭)의 특명(特命)이 있어 향인(鄉人)들이 영동(永同)에 고당서원(高塘書院)을 세우고 제향(祭享)하며 학자들이 국당선생(菊堂先生)이라 칭하니 곧 공(公)의 11대조(代祖)이시다 증조(曾祖)의 휘(諱)는 덕고(德古)요 조(祖)의 휘(諱)는 영구(靈龜)요 고(考)의 휘(諱)는 선령(善鈴) 세상에서 칭찬 받는 훌륭한 행동과 숨은 미덕(美德)이 있었다. 비(妣)는 영산김씨(永山金氏) 익환(益煥)의 여(女)로서 괴애공(乖厓公)의 후(后)이시니 여자로서 사대부가(士大夫家)의 풍도(風度)가 있었다. 공(公)이 철종(哲宗)기미(己未) 12월 18일에 생(生)하니 타고난 천성이 강직하여 흔들림이 없고 성장하면서 문학(文學)하는 선비와 더불어 교류(交遊)하니 언어행동(言語行動)이 예의에 어긋남이 없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니 종신(終身)토록 애통해 마지않았고 몸소 농사짓는데 힘을 다하였고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선영위토(先塋位土)를 스스로 마련하였다. 부모의 기일(忌日)을 당하면 며칠간 술이나 고기를 먹지 않고 눈물을 흘려 애통하며 제사음식을 지극히 정중하고 정결함으로써 제용에 선무다소(羨無多少)를 가늠하였다. 빈번히 궁핍(窮乏)한 사람을 구휼(救恤)하니 이로부터 향리(鄉里)사람들은 그 덕에 감복하고 그 은애(恩愛)를 칭송하였다. 광무(光武) 6년 영능참봉(英陵參奉)에 제수(除授)되었는데 시국(時局)의 불가(不可)함을 헤아렸으나 마침내 응징(膺懲)하지 못하고 10년이 채 못되어 경술지변(庚戌之變)을 만난지라 문을 닫고 스스로 편히 지내는 듯하나 나라에 대한 근심과 일본에 대한 분한 마음이 병이 되어 25년만인 갑술(甲戌) 정월5일 졸(卒)하니 향년(享年) 76이다. 수정리 선영하 해좌원(亥坐原)에 안장(安葬)되었다. 배(配)에 김해김씨(金海金氏) 삼식(三植)의 여(女)로서 2남(男)을 낳으니 재명(在明)과 재영(在永)이요 손(孫)에 정흠(政欽) · 기흠(琦欽) · 성흠(誠欽)이니 재명의 소생(所生)이고 성흠(聖欽)은 재영의 소생이며 나머지는 다 기록(記錄)하지 않는다. 명(銘)하여 이르기를

시색(時色)을 살피고 세상(世上)을 피하니 명석(明皙)함이요

관직(官職)을 사퇴하고 조심으로 생활하니 정염(貞廉)함이요

봉선(奉先)함에 유한(遺恨)없고 우국(憂國)에 힘을 다하였으니 성직(誠直)함이라

천추(千秋)토록 민멸(泯滅)되지 않는 것은 현인(賢人)의 이름이라 돌을 깎아 효자의

정(情)을 기록하노라

- 원임규장각직각시강원시독(原任奎章閣直閣侍講院侍讀) 청송(靑松) 심주택(沈周澤) 쓰다.
- 박씨(朴氏) : 밀양(密陽)이 본으로 춘선(春先)의 딸이며 개성(開城)방사진(龐四珍)의 부인이다. 묘소는 수한면 후평리 뒤 병좌(丙坐)이다.
- 방봉섭(龐奉燮) : [효자편(孝子篇)을 보라] 묘소는 수한면 후평리 건좌(乾坐)로 부인 경주이씨(慶州李氏)를 합부(合祔)하였다.
- 최영학(崔泳學) : 자는 우안(禹安)이고 호가 춘보(春甫)로 경주(慶州)가 본관이다. 고운(孤雲)치원(致遠)의 후손이다. 묘소는 회남면 신곡리 사좌(巳坐)에 있고 부인 경주김씨(慶州金氏)를 합봉(合封)하였다.
- 최영우(崔泳禹) : 자가 인백(仁伯)이고 호는 인산(仁山)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고운(孤雲)치원(致遠)의 후손이다. 내북면 봉평리 외사막(外士幕)에 있는데 부인 경주이씨(慶州李氏)와 쌍봉(雙封)이다.
- 백찬수(白纘洙) : 본관이 수원(水原)이다. 묘소는 수한면 산척리 계좌(癸坐)에 있으며 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와 합봉(合封)이다.
- 백낙주(白樂周) : [유행편(儒行篇)을 보라] 묘소는 내북면 봉평리 외사막 경좌(庚坐)에 있다.
- 이홍열(李洪烈) : 자는 성범(聖範)이고 호가 하산(霞山)으로 본관이 예안(禮安)이다. 고종(高宗) 때 군수(郡守)를 지냈으며 묘소는 탄부면 덕동리 임좌(壬坐)에 있으며 직각(直閣) 조병집(趙秉輯)이 비갈(碑碣)을 짓고 아우 정열(貞烈)이 전(篆)하고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가 썼다.

## 누정(樓亭)

- 객관(客館) : 보은 읍내에 있다.
- 영창재(永昌齋) : 탄부면 송곡리(松谷里)에 있다.  
이명익(李命益)과 이협(李莢)이 강습(講習)하던 곳으로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가 기문(記文)을 썼다.
- 월파정(月波亭) : 속리면 백현리에 있다. 효자(孝子) 나중경(羅重慶)이 살던 곳으로 후손인 상덕(相德)이 뜻을 이어 세웠고 오산(梧山) 김녕한(金寧漢)이 기문(記文)을 짓고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가 제액(題額)하였다.

○송석정(松石亭) : 회남면 금곡리에 있다. 양주승(梁柱承)이 지었으며 승지(承旨)송종규(宋鍾奎)가 기문(記文)을 지었다.

※송도순(宋道淳) [호는 풍남(豊南)으로 은진(恩津)이 본관으로 동춘(同春) 준길(浚吉)의 후(后)로 문과(文科)급제로 판서(判書)를 지냈다.]

시(詩)가 있는데

“서쪽산 한 모퉁이 곡성(谷城)이 있고  
서까래 두어개를 돌에 걸쳐 관평(寬平)을 점치었다.  
골짜기에 봄이 깊으니 모두가 꽃기운이고  
비가 임원(林原)을 지나가니 물소리 뿐  
서리 바람 벽에 차니 단풍잎 곱다  
뜰에 가득한 설월(雪月)은 부질없이 밝았네  
산수에 노닐 겨울 넉넉하게 있으니  
비로소 이 늙은이 세정(世情)을 멀리하네” 하였다.

### 제영(題詠)

○이맹균(李孟畧) [호는 한재(漢齋)로 한산인(韓山人) 목은(牧隱) 색(穉)의 후손으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냈다.] 시(詩)가 있는데

“새벽밥 먹고 회인을 떠나오니  
만첩산을 뚫고 왔네  
갑자기 평평한 들 보이니  
널찍하여 내 마음에 드네  
관사 집은 굉장하고  
여러 봉우리 모두 절하는 것 같다  
기름진 땅 천 이랑을 연했으니  
백성들 살기 편안하네  
또 듣건데 풍속이 순후하여  
청하고 불러 음식을 서로 대접한데네



황홀하게 도원에 노는 것 같아서  
 다시 찾을 때 길 잃을까 두려우네  
 신라 때 삼년성은  
 당시에 몇 번이나 습격당했던가  
 고려 말년에 바다 도적<sup>193)</sup>이 잦아서  
 전쟁이 오랫동안 쉬지 않았네  
 지금은 임금의 덕택 깊거니  
 안심하고 살면서 세월을 즐기네  
 왕명 띠고 와서 무엇하였나  
 부질없이 길을 달리네 ” 하였다.

○유인학(柳寅鶴) : [윗편을 보라] 의 시(詩)는  
 “세갈래로 나뉜 물이 좌우로 흐르니  
 삼산은 읍 중간에 반은 떨어졌구나  
 삼년성 밖에서 묵은 나그네  
 산수를 바라보며 차례(次第)에 도라가네 ” 하였다.

### 선정(先正)

○조헌(趙憲) :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 본관은 배천(白川)이다 . 목사(牧使) 환(環)의 후손으로 명종(明宗)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벼슬이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학문에 힘쓰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으며 모친을 효성을 다하여 모셨다. 나라에 대한 걱정을 자신의 몸 다친 것 같이 하면서 임진왜란에 의병을 일으켜 금산(錦山)에서 순절(殉節)하였다.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贈職)되고 시호가 문열(文烈)이고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 유현(儒賢)

○김정(金淨) : 자는 원충(元冲), 호가 충암(冲庵)으로 유일(遺逸) 광(光)의 아우다. 중

193) 倭寇을 말함. 고려말에 報恩은 왜구에게 함락된 일이 있었다.

종 때 문과(文科)에 장원(壯元)으로 급제하여 형조판서(刑曹判書)와 양관제학(兩館提學)을 지냈다. 정암(靜庵)조광조(趙光祖)와 더불어 삼대지치(三代之治)를 도모하다가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제주(濟州)로 귀양가서 졸(卒)하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고 영의정(領議政)에 증직되었고 부조(不祧)의 은전을 받았다.

○성운(成運) : 자는 건축(健叔), 호는 대곡(大谷). 본관은 창령(昌寧)이다. 청송(聽松)수침(守琛)의 종제(從弟)<sup>194</sup>로 힘써 배워 성현(聖賢)을 사모하였으나 형 우(遇)가 을사사화(乙巳士禍)에 화(禍)를 입는 것을 보고 이때부터 세상과의 뜻을 끊었다. 명종(明宗) 때 여러 번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벼슬은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좌승지(左承旨)<sup>195</sup>에 추증되었다.

○성제원(成悌元) : 자는 자경(子敬), 호는 동주(東洲) 본관은 창령(昌寧)이다. 서봉(西峯)유우(柳藕)의 문인(門人)이며 은일(隱逸)로 현감(縣監)을 지냈다. 성리학(性理學)을 깊이 얻어 문장이 넓은 바다 같았고 의학(醫學) · 복술(卜術) · 지리(地理) 등 막히는 것이 없었다. 충현서원(忠賢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 학행(學行)

○이언(李彦)<sup>196</sup> : 본관이 예안(禮安)으로 익양공(翼襄公) 천(薦)의 후손이다. 대곡(大谷)성운(成運)과 중봉(重峯)조헌(趙憲)의 문하(門下)에서 놀며 넓게 배워 경서(經書)에 밝아 사림(士林)의 존중(尊重)을 받았다. 성제원(成悌元)과 안당(安塘)과 함께 상현서원(象賢書院)을 창건하였다.

○김장(金樟) : 자는 대이(大而), 호는 몽재(蒙齋). 본관은 금산(金山)이다. 태자태사(太子太師) 중구(仲龜)의 후손으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문인(門人)이다. 학문과 행동이 순독(淳篤)하였으며 ‘훈몽서(訓蒙書)’ ‘지행방편(知行方編)’을 저술하였으며 송환기(宋煥箕)가 지은 묘갈(墓碣)이 있다.

○이명익(李命益) : 명신(名臣) 천(薦)의 후손으로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 문인(門人)이다. 역리(易理)를 깊이 연구하여 선생의 사랑을 받았으며 태극도(太極圖)를 받았다.

194) 원문에는 聽松守琛從姪로 되어있으나 聽松守琛의 從弟로 바로잡았다.

195) 원문에는 右承旨로 되어있으나 左承旨로 바로잡았다.

196) 원문에는 李彦禮로 되어있으나 李彦으로 바로잡았다.

기사사화(己巳士禍)197)가 일어나자 세상에 뜻이 없어 산수를 방랑하고 술과 시(詩)를 즐기었다.

○이협(李莢) 호는 양졸당(養拙堂)으로 명신(名臣)천(蒧)의 후손이며 수암(遂庵)권상하(權尙夏) 문인(門人)이다. 태극도(太極圖)를 받았으며 선생이 그의 당(堂)을 단암(丹岩)이라 이름하였고 민진원(閔鎭遠)이 제액(題額)하였다. 영조(英祖)198)때 교관(敎官)에 증직(贈職)되었다.

○김상진(金相進) : 자는 사달(士達), 호가 탁계(濯溪)로 장(樟)의 후손이다.

늑천(櫟泉) 송명흠(宋明欽)과 미호(溪湖) 김원행(金元行)을 종유(從遊)하여 학덕(學德)이 더욱 높았으며 도천(道薦)으로 참봉(參奉)이 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탁청사(濯淸祠)에 제향(祭享)되었다.

○이상수(李象秀) : 자는 여인(汝人) 호가 어당(晤堂)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덕천군(德泉君) 후생(厚生)의 후손으로 은일(隱逸)로 진선(進善)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회인(懷仁)에 은거(隱居)하여 유풍(儒風)을 진작(振作)하여 학덕(學德)과 문장(文章)이 세상에 저명(著名)하게 되었다. 추양사(秋陽祠)에 제향(祭享)되었다.

### 유일(遺逸)

○이준(李僑) : 호가 농산(龔山)으로 효자편(孝子篇)에 실려있는 이동욱(李東旭)의 아들이다. 고려 충목왕(忠穆王) 때 중서령(中書令)으로 여러번 형정(刑政)으로 윤강(倫綱)을 상소(上疏)하다가 본군(本郡)으로 귀양을 왔다. 정신(廷臣)들의 변호하는 소(疏)로 풀려났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김봉수(金峯壽) : 호가 기산정(箕山亭)이고 본관은 경주(慶州)로 한성판관(漢城判官) 천부(天富)의 손자이다. 대곡(大谷)성운(成運)의 문인(門人)으로 선생이 칭찬하기를 “근세(近世)에 독학(篤學)하는 사람은 군(君)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하였다. 을병(乙丙)의 화(禍)를 보고 덕(德)을 숨기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김광(金光) : 자는 희실(希實), 호가 장암(壯庵). 본관은 경주(慶州)로 판도판서(版圖判書) 장유(將有)의 후손이다. 성종(成宗) 때 생원(生員)과 진사(進士)에 급제하고 참

197) 원문에는 己巳禍로 되어 있으나 己巳士禍로 바로잡았다.

198) 원문에는 英宗으로 되어 있으나 英祖로 바로잡았다.

봉(參奉)이 되었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둔세(遯世)할 것을 결의하고 자주 부름을 받았으나 “포슬학궁경(抱膝學躬耕 : 무릎을 안고 배우며 힘써 농사를 짓는다)” 다섯 자를 써 붙이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최흥림(崔興霖) : 자는 현좌(賢佐), 호는 계당(溪堂) 본관은 화순(和順)으로 해(垓)의 아들이다. 명종(明宗) 때 세상을 피하여 금적산(金積山)에 들어가 폭포위에 집을 짓고 대곡(大谷)성운(成運) · 남명(南冥)조식(曹植) · 동주(東洲)성제원(成悌元)과 토론하고 시(詩)를 읊었다. 뒤에 늑천(櫟泉) 송명흠(宋明欽)과 미호(溪湖)김원행(金元行)이 그 유적(遺蹟)을 표시(表示)하였다.

○노일원(盧一元) : 자는 이백(灑伯) 호는 죽헌(竹軒) 본관은 교하(交河)로 경원군(慶原君) 은(崧)의 후손으로 진사(進士) 경기(景麒)의 아들이다.

본심을 잃지 않도록 덕성(德性)을 기르고 예의를 갖추어 근신하는데 마음을 두었으며 학문과 사변(思辨)의 공(功)이 진실하였으며 부모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길 자나 깨나 게을리 아니하고 세 형과 함께 모두 효학(孝學)으로 저명(著名)하니 선조(宣祖)가 간상(嘉尙)히 여겨 부사직(副司直)을 제수(除授)하였으나 취임하지 않음으로 체화당(槎華堂)이라고 어제(御題)를 하사(下賜)하였다.

○송규옥(宋奎煜) : 자는 명중(明仲), 호는 영경당(永慶堂), 본관은 은진(恩津)으로 송담(松潭) 남수(楠壽)의 후손이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의 문인(門人)으로 학문(學文)과 행의(行義)가 있어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올랐다고 ‘존주록(尊周錄)에 등재되었다.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贈職)되었다.

○유경진(柳景辰) : 자는 조경(朝卿), 본관은 진주(晋州)로 숙옹(塾翁) 흥룡(興龍)의 손자이다. 은덕(隱德)과 지행(至行)이 있으며 용계(龍溪)와 두산(斗山)사이에 살았는데 학자(學者)들이 모두 처사(處士)라 불렀다. 나이 93세요 벼슬이 동추(同樞)로 말년의 정월 초하루 아침에 스스로 읊으니

“초하루 아침에 또 입춘이 되니  
내 나이 벌써 구순(九旬)이구나  
세상살이 억울한 일 많은데  
앞으로는 지기(志氣) 좀 펴고 살고 싶네” 하였다

수시첩(壽詩帖)도 있다.

- 최인수(崔麟壽) : 자는 덕보(德甫), 호는 야당(冶堂) 본관은 경주(慶州)로 고운(孤雲) 치원(致遠)의 후손이다. 학문과 행실이 뛰어났으나 임천(林泉)에서 살았다. 정조(正祖) 때 우승지(右承旨)에 추증(追贈)되었다.

## 유행(儒行)

- 송상억(宋相億) : 자는 사종(士宗) 호는 영안재(永安齋),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독서를 좋아하고 소학(小學)에 전심하였으나 출세할 기회를 구하지 않았다.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으며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추증(追贈)되었다.
- 송필융(宋必隆) : 자는 맹겸(孟謙), 호는 풍곡헌(楓谷軒)이고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숙부 위와(韋窩) 상윤(相允)에게 배워 문학(文學)을 크게 성취하여 세상에서 추대(推戴)를 받았다.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으며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추증(追贈)되었다.
- 윤대승(尹大昇) : 자는 사언(士彦), 호는 한서재(寒棲齋)이고 본관은 칠원(漆原)으로 충효공(忠孝公) 환(桓)의 후손이다.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의 문인(門人)으로 일찍 부모를 잃고 전심으로 공부에 독실하여 학업을 크게 이루고 덕(德)과 재능을 성취하니 선생이 장려(獎勵)하였다. 또 예(禮)에 밝아 '의리총록(義理總錄)'을 저술(著述)하였으며 고을에서 도(道)에 천거(薦舉)하였다.
- 박상점(朴商漸) : 자는 계홍(季鴻), 호가 석노(石老)로 원종훈편(原從勳篇)에 있는 박진(朴晉)의 증손(曾孫)이다.  
효제(孝悌)를 독실하게 실천하고 경사(經史)를 넓게 읽어 이학(理學)과 예절(禮節)에 밝았으며 제가(齊家)에 법도(法度)가 있어 집안이 화목하였다. 유고(遺稿)가 있다.
- 윤홍재(尹弘載) : 자가 경범(敬範), 호는 검재(儉齋)로 파평(坡平)이 본관이다. 공간공(恭簡公) 형(炯)의 후손으로 어당(晤堂) 이상수(李象秀)의 문인(門人)이다. 문장에 능하고 행동이 방정(方正)하여 호남(湖南)의 여러 유림(儒林)이 따랐다.
- 구문호(具文鎬) : 자는 사욱(士郁), 호가 우헌(愚軒)으로 절의(節義) 수복(壽福)의 후손이다. 강재(剛齋) 송치규(宋穉圭)의 문인(門人)으로 문학(文學)과 덕행(德行)으로 저명(著名)하였다.

- 황심현(黃心顯) : 초명(初名) 종하(宗河)로 자는 대심(大深), 호가 매산(梅山)이다. 본관이 회천(懷川)으로 회천위(懷川尉)의 아들 방(芳)의 후손이다. 세상에서 견줄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재주가 있어 일찍이 향천(鄉薦)이 있었으나 늦도록 과거를 포기하고 유술(儒術)을 독실하게 믿으니 제자들이 사일계(事一契)를 만들었다. 유고(遺稿)가 있다.
- 최석근(崔奭根) : 자는 선지(善之), 호가 화석(華石)으로 본관은 화순(和順)이다. 계당(溪堂)흥림(興霖)의 후손으로 임번(林樊)에 숨어살며 강학(講學)하고 수기(修己)하였다. 철종(哲宗) 때 도천(道薦)으로 강능참봉(康陵參奉)을 제수(除授)하였다.
- 양주승(梁柱承) : 자는 경소(擎霄) 호는 금화(金華)로 훈신편(勳臣篇)에 있는 양성지(梁誠之)의 후손이다. 천성(天性)이 크고 풍부하며 도량이 엄각(儼愨)하였다. 어당(晤堂) 이상수(李象秀)를 스승으로 섬기며 경례(敬禮)와 성리학(性理學)을 배웠다. 만년에는 송석정(松石亭)을 짓고 세월을 보내며 후진을 가르쳤다. 유고(遺稿)가 있으며 추양사(秋陽祠)에 제향(祭享)되었으며 승지(承旨) 송규헌(宋奎憲)이 묘표(墓表)를 지었다.
- 양주학(梁柱學) : 자는 필성(必成) 호가 국하(菊下)로 지족당(止足堂) 경수(景洙)의 아들로 어당(晤堂) 이상수(李象秀) 문인(門人)이다. 안으로 엄한 아버지가 계시고 밖으로 어진 스승을 얻어 널리 경례(經禮)에 통하고 깊이 문장도 얻었다. 유고(遺稿)가 있으며 추양사(秋陽祠)에 제향(祭享)되었다.
- 박용호(朴龍鎬) : 자는 자운(子雲), 호가 울산(栗山)으로 본관은 영해(寧海), 영해군(寧海君)제상(堤上)의 후손이다. 문장(文章)과 덕망(德望)이 일군(一郡)의 으뜸이었다. 유고(遺稿)가 있다.
- 양주하(梁柱河) : 자는 경립(景立), 호가 경제(經齋)로 주승(柱承)의 아우다. 어당(晤堂)이상수(李象秀) 문인(門人)으로 경례(經禮)를 들어 얻었고 부친병환에 10년간 약수밭에 게을리 아니하니 고을의 이웃들이 효자라 불렀다. 머리가 희도록 경서(經書)를 궁리하여 마침내 해석하였다. 유고(遺稿)가 있다.
- 백낙주(白樂周) : 자는 문보(文甫), 호가 연재(然齋) 수원(水原)이 본관이다. 휴암(休庵)인걸(仁傑)의 후손이다. 글을 읽고 그 뜻을 밝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고 벼슬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임천(林泉)에 숨어 살며 책을 즐겼다.
- 송문철(宋文喆) : 자는 순명(舜明), 호가 청파(淸坡)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수종재(守宗齋) 문인(門人)으로 재주가 탁월하여 일찍이 경사(經史)를 통달하고 후진을 권장

- (勸獎)하다가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다.
- 양주오(梁柱五) : 자는 건중(建中), 호가 늑하(櫟下)로 자선편(慈善篇)에 있는 양주천(梁柱天)의 아우로 어당(晤堂) 이상수(李象秀)의 문인이다. 천자(天資)가 성실하고 효성과 우애가 순독(淳篤)하였다.
- 종족형(宗族兄)인 금화(金華) 주승(柱承)과 국하(菊下) 주학(柱學)에게 문학(文學)을 바르게 배웠다. 승지(承旨) 유인철(柳寅哲)이 행장(行狀)을 짓고 승지(承旨) 송규헌(宋奎憲)이 묘갈(墓碣)을 지었다.
- 오덕영(吳德泳) : 자는 성훈(聖訓), 호가 소당(疏堂) 해주(海州)가 본관으로 완월당(玩月堂) 후손이다. 어당(晤堂) 이상수(李象秀)의 문인(門人)으로서 부모를 성실히 섬기니 고을에서 효자라 불렸다. 학문(學文)은 경리(經理)를 연구하고 행실은 충신(忠信)을 주장하였다. 가난한 사람을 구하여 여러 사람이 그 은혜를 입었다.
- 유고(遺稿)가 있다.
- 양승환(梁升煥) : 자가 경현(景賢) 호가 석담(石潭)으로 효자편(孝子篇)에 있는 양달해(梁達海)의 후손이다. 참봉(參奉)으로 일찍이 부친을 잃고 배우기를 열심히 하며 박용호(朴龍鎬)와 사귀어 매우 두터웠다. 유고(遺稿)가 있고 죽사(竹史) 이동제(李東濟)가 행장(行狀)을 지었다.
- 봉인근(奉寅根) : 자는 숙보(肅甫), 호가 경암(綱庵) 본관은 강화(江華)이다. 강성군(江城君) 석주(石柱)의 후손으로 농은(農隱) 원도(源道)의 아들이며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문인(門人)이다. 성리학(性理學)을 힘써 연구하고 강학(講學)을 종신(終身)토록 하였다.
- 이우현(李佑鉉) : 자가 도범(道範), 호는 낙운(樂雲) 본관은 인천(仁川)이다. 진락공(眞樂公) 자현(資玄)의 후손으로 직장(直長)재계(在桂)의 아들이다. 순종(純宗) 정미(丁未)에 문묘(文廟)가 병화(兵火)를 입었는데 단독으로 재물을 진설하고 선성(先聖)을 위안(慰安)하고 유림(儒林)들과 널리 상의하여 전우(殿宇)를 다시 세우고 명륜회(明倫會)를 설립(設立)하여 윤강(倫綱)을 부식(扶植)하니 선비들이 감동하여 칭찬하였다.
- 이용빈(李用斌) : 호가 종석(鍾石)이고 예안(禮安)이 본관이다. 명신편(名臣篇) 실려있는 천(薦)의 후손으로 계운(溪雲) 김낙현(金洛鉉)과 운창(芸窓) 박성양(朴性陽) 문하(門下)에 종유(從遊)하여 박학(博學)하고 경서(經書)에 밝았다. 스승이 돌아가시자 종

신(終身)토록 혼자 스승의 묘소에 제사를 지냈다.

- 봉선근(奉善根) : 자는 사성(思誠), 호가 경재(綱齋) 본관은 강화(江華)로 강성군(江城君) 석주(石柱)의 후손으로 매사(梅史) 원행(源行)의 아들이며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문인(門人)이다. 성리학(性理學)을 깊이 연구하였으나 불행하게 일찍 죽었다. 이재(履齋) 조장하(趙章夏)가 그의 묘소에 제(題)하기를 처사(處士)라 하였으며 유고(遺稿)가 있다.
- 양봉환(梁鳳煥) : 자가 기강(岐岡), 호는 오현(梧軒)으로 주하(柱河)의 아들이다. 가정 교육을 이어받아 근검(謹儉)하고 경사(經史)를 널리 섭렵(涉獵)하였으며 문사(文詞)에도 정통하였다 유고(遺稿)가 있다.
- 백남로(白南老) : [효자편(孝子篇)을 보라] 학문(學文)이 순수(純熟)하고 의리(義理)가 정확(精確)하며 경례(經禮)를 질의(質疑)할 때는 일을 처리함에 구차(苟且)함이 없었다.

### 문행(文行)

- 김광정(金光珽) : 자는 중팔(仲八) 사마편(司馬篇)에 있는 김현(金鉉)의 증손이다. 경서(經書)에 잠겨 열심히 공부하고 효우(孝友)를 독실하게 행하였다. 시대(時代)가 불리(不利)함을 보고 은둔하여 벼슬을 구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임천(林泉)에서 늙었다.
- 김광수(金光秀) : 자는 국빈(國彬) 광정(光珽)의 종제(從弟)이다. 명리(名利)를 멀리하고 산수에 뜻을 두고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입을 삼아 이 곳에 살면서 선조들의 뜻이 이어 받아 자손에게 전해 주었다.
- 김우태(金遇泰) : 자는 성화(聖化), 호는 농은(農隱)으로 명관편(名官篇)에 있는 김응서(金應瑞)의 아들이다. 통덕랑(通德郎)을 지냈으며 성품이 어질고 후하였다. 임천(林泉)에 숨어 살며 행실이 돈독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효우(孝友)가 순지(純至)하였다. 재물(財物)을 가볍게 보고 의(義)를 중히 여겼다.
- 김흥식(金興植) : 자는 창서(昌瑞) 호가 운곡(雲谷) 본관은 김해(金海)로 흥무왕(興武王) 김유신(金庾信)의 후손이다. 벼슬이 돈녕도정(敦寧都正)으로 문명(文名)이 뛰어났고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가 독실하였다.
- 유세남(柳世男) : 자는 낙현(洛軒), 효자편(孝子篇)에 있는 유만필(柳萬弼)의 아들이다. 천성이 어질고 효행(孝行)이 지극하였으며 학식이 크고 넓어 자손을 훈도하여 집안이



화목하니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다.

- 양문수(梁玟洙) : 자는 성란(聖瀾) 호가 몽정(夢亭) 훈신편(勳臣篇)에 있는 양성지(梁誠之)의 후손이요 종화(鍾華)의 아들이다. 효도와 우애를 타고 났으며 자애(慈愛)로 모든 사물(事物)을 대하였으며 시경(詩經)·예기(禮記)와 학령(學令)의 학문으로 고을에 소문이 났다.
- 김창식(金昌植) : 자는 사선(士善), 호가 명암(明庵) 무과편(武科篇)에 있는 김제생(金濟生)의 아들이다. 철종(哲宗) 때 진사(進士)로 세상의 번거로움을 피하여 소전(蘇田)에 숨어 살면서 농사와 독서로 일생을 즐겼다.
- 박치수(朴致洙) : 자는 성유(聖有), 호가 석암(石庵) 본관은 면천(沔川)으로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박술희(朴述希)의 후손이다. 철종(哲宗) 때 금부도사(禁府都事)로 천성이 정직하고 근검(謹儉)으로 살면서 선조를 받들고 후손들을 훈도하여 모두가 본보기가 되어 추앙(推仰)을 받았다.
- 김영수(金永壽) : 호는 난포(蘭圃) 유일편(遺逸篇)에 있는 김봉수(金峯壽)의 후손이다. 학문을 좋아하고 행실이 독실하였으며 성현(聖賢)을 받들어 사모하여 문묘직원(文廟直員)과 서원재임(書院宰任)을 역임하여 그 명망(名望)으로 천거(薦舉)되어 박사(博士)와 유교학사(儒敎學士)가 되었다.
- 조동우(趙東祐) : 자는 정칠(正七). 호는 봉은(蓬隱) 효자편(孝子篇)에 있는 조이직(趙裏直)의 손자이다. 벼슬은 돈령도정(敦寧都正)을 지냈다. 효행(孝行)을 타고 났으며 항상 부모를 간절하게 생각하여 언행(言行)이 정직하며 몸에는 시례(詩禮)가 배여 있었다.
- 김성현(金聖鉉) : 자는 성권(盛權), 호가 속은(俗隱)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죽강(竹岡) 보(甫)의 후손이다. 품계(品階)가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천성이 어질고 모친 섬기기를 지극한 효성으로 하면서 임천(林泉)에 은거(隱居)하였다. 신의가 독실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재물을 탐하지 않고 의(義)를 중히 여기고 안빈(安貧)으로 수신(修身)하니 세상에서 사문(斯文)의 큰 그릇이라 하였다.
- 이종응(李鍾應) : 자는 치원(致遠), 본관은 완산(完山) 임영대군(臨瀛大君)구(璆)의 후손이다. 품성이 너그럽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깊고 이웃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며 임천(林泉)에서 살며 서적(書籍)을 즐겼다.
- 이규원(李圭元) : 자는 진화(振和), 호는 시암(時庵) 본관은 경주(慶州)로 익재(益齋)

체현(齊賢)의 후손이다. 천성이 원만하여 생업(生業)에 종사하지 않고 과장(科場)에만 다니었으나 운명에 맞지 않아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늦게 글읽기를 좋아하고 이웃돕기를 힘쓰니 향리(鄉里)가 감복(感服)하였다.

- 양주송(梁柱宋) : 자는 몽우(夢尤), 호는 죽헌(竹軒), 어당(晤堂) 이상수(李象秀)의 문인(門人)이다. 농사를 짓고 글을 힘써 읽었다. 고기를 잡고 나무를 하는 사이에도 반드시 글자를 바위돌에 쓰고 받을 때는 틈에도 시(詩)를 나뭇잎에 쓰기도 하더니 나이 30에 문명(文名)을 크게 떨쳤다.
- 한우현(韓禹鉉) : 자는 여구(汝九), 호는 용포(龍浦), 본관을 청주(淸州)로 충간공(忠簡公) 리(理)의 후손이다. 임천(林泉)에 은거하면서 학문연구를 즐겼다. 문행(文行)으로 천거되어 문묘(文廟)의 직원(直員)을 지냈다.
- 송원수(宋元洙) : 자는 경택(敬宅), 호는 세은(世隱), 본관은 은진(恩津), 쌍청당(雙淸堂) 유(楡)의 후손으로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教)의 문인(門人)이다. 타고난 바탕이 예스러워 아버이를 항상 같이하고 생사장제(生死葬祭)에 정성을 다하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 유경혁(柳敬赫) : 자는 성은(聖殷), 호가 만오(晩悟), 효자편(孝子篇)에 실려있는 유동욱(柳東郁)의 아들이다. 한결 같이 가훈을 지켜 조상들의 뜻을 이어받고 효성과 우애로 집안을 다스리고 충신(忠信)으로 몸을 지켰다.
- 양장환(梁章煥) : 자는 규백(奎伯), 호는 중산(重山), 유행(儒行)편에 있는 양주승(梁柱承)의 아들이다. 성품이 굳세고 정직하며 배움은 가훈(家訓)을 성실하게 이어받아 선조(先祖)를 정성으로 받들고 문호(門戶)를 의(義)로 이끄니 이름이 일향(一鄉)에 떨쳐 추천을 받아 문묘(文廟)의 직원이 되었다.
- 어병선(魚秉善) : 자는 사직(史直), 호가 호은(湖隱), 본관은 함중(咸從), 문정공(文貞公) 세겸(世謙)의 후손으로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教)의 문인(門人)이다. 벼슬은 교관(敎官)을 지냈으며 문명(文名)이 뛰어나 고을에 저명하였다.
- 서상범(徐尙範) : 자는 문성(文星), 호가 간석(澗石), 본관은 이천(利川)으로 사인(舍人) 호(皐)의 후손이다. 가훈(家訓)을 이어받아 언행(言行)이 순직(順直)하고 부모를 섬김에 지(志)와 체(體)를 갖췄으며 자녀를 교육함에 의(義)로서 하고 사람을 대하기를 예(禮)로서하니 고인(古人)의 풍채(風采)가 있었다.

○김기진(金基珍) : 자는 윤택(潤澤), 호가 증암(甌庵), 원종훈편(原從勳篇)에 실려있는 김종주(金從柱)의 후손으로, 주사(主事)를 지냈으며 문명과 행의(行誼)로 문묘(文廟)의 직원(直員)이 되었다.

### 훈신(勳臣)

○양성지(梁誠之) : 자는 순부(純夫), 호가 놀재(訥齋), 절의편(節義篇)에 실려있는 양우(梁祐)의 증손이다. 세종(世宗)때 진사(進士)로 문과(文科)에 장원(壯元)으로 급제하였다. 성종(成宗)때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록되고 이조판서(吏曹判書) 양관제학(兩館提學)으로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지고 봉조하(奉朝賀)가 되고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경학(經學)과 문장(文章)이 일세에 뛰어나 고려사(高麗史), 동국통감(東國通鑑), 문선(文選), 치평요람(治平要覽), 여지승람(輿地勝覽), 오륜삼강(五倫三綱)과 사략(史略)등을 저술(著述)하였다.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이 화상찬(畫像贊)을 지었다.

○홍윤성(洪允成) : 자는 수옹(守翁)으로 본관은 회인(懷仁)이다. 증영의정(贈領議政) 제년(齊年)의 아들로 젊은시절에 뜻을 이루지 못하여도 실망하는 일이 없었다. 문종(文宗) 때 문과(文科<sup>199</sup>)에 급제하여 세조(世祖)때 정난공신(靖難功臣)에 책록되고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에 봉해지고 영의정(領議政<sup>200</sup>)에 올랐으며 시호는 위평(威平)이다.

### 원종훈(原從勳)

○이춘영(李春榮) : 본관은 인천(仁川)으로 고려(高麗) 중서령(中書令) 준(僞)의 후손이다. 인조(仁祖) 때 호서지변(湖西之變<sup>201</sup>)에 참여한 공으로 영국공신(寧國功臣)에 책훈되고 호조판서(戶曹判書)가 되었다.

○박진(朴楮) : 자는 진숙(進叔), 절의편(節義篇)에 실려있는 박광우(朴光祐)의 후손이다. 벼슬은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숙종(肅宗) 때 보사원종공신(保社原從公臣) 2등으로 책훈되었다.

○김종주(金從柱) : 초명(初名)이 종필(從弼)로 자는 문욱(文郁), 본관은 경주(慶州). 상

199) 원문에는 武科로 되어있으나 文科로 바로잡았다.

200) 원문에는 贈領議政으로 되어있으나 領議政으로 바로잡았다.

201) 仁祖24년(1646) 湖西賦 柳濯, 權大用等의 謀叛事件

촌(桑村) 김자수(金自粹)의 후손이다. 영조(英祖)<sup>202</sup> 때 이인좌(李麟佐) 난이 일어나자 토벌에 협력하여 양무2등공신(揚武二等功臣)이 되고 품계(品階)는 절충장군(折衝將軍)이 되었으며 녹권(錄券)이 있다.

### 명신(名臣)

- 공직(龔直) : 신라(新羅) 말에 매곡(昧谷)의 장군(將軍)으로 견훤(甄萱)을 섬기다가 흰(萱)의 무도함을 보고 아들 영서(英舒)와 함께 고려(高麗) 태조(太祖)에게 가서 붙으니 태조가 좌상(左相)을 삼았다. 시호는 봉의(奉義)이다. 아들 직달(直達)은 동생 금서(金舒)와 같이 인질(人質)로 후백제(後百濟)에 있었는데 직(直)이 태조(太祖)에게 붙자 흰(萱)이 죽었다.
- 이천(李蕝) : 호는 백곡(柏谷), 본관은 예안 세종(世宗) 때 문과(文科) 급제하여 판서(判書)로 처음 활자를 만들어 동국경사(東國經史)를 인쇄하였으며 야인(野人)을 토벌(討伐)하여 천리(千里)의 땅을 개척(開拓)하였다.
- 김영정(金永貞) : 자는 일지(一之), 본관은 김해(金海) 고려(高麗) 시중(侍中) 보(普)의 후손이다. 성종(成宗) 때 진사시(進士試)와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함흥(咸興)과 전라(全羅) 관찰사(觀察使)를 역임하였는데 다스림이 으뜸임으로 대사헌(大司憲)에 올랐다. 연산(燕山)때 고관(高官)들이 화(禍)를 입자 직언(直言)하다가 파직되었다. 중종(中宗) 때 벼슬이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이르고 시호는 안경(安敬)이다.

### 명환(名宦)

- 양을방(梁乙邦) : 효자편(孝子篇)에 실려있는 양천용(梁天龍)의 손자이고 훈신편(勳臣篇)에 실려있는 양성지(梁誠之)의 재종(再從)이다. 문종(文宗) 때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로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되었다.
- 이덕우(李德祐) : 자는 문중(文仲) 본관은 전주(全州), 증우통례(贈右通禮) 호현(好賢)의 아들이다. 벼슬이 한성우윤(漢城右尹)으로 치적(治績)이 으뜸이라 칭찬을 받았다.
- 문명구(文命龜) : 본관은 남평(南平), 강성군(江城君) 익점(益漸)의 후손이다. 영조(英祖) 때 문과(文科) 급제하여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임오지변(壬午之變)에 늑천(楸泉)

202) 원문에는 英宗朝로 되어있으나 英祖으로 고쳤다.

송명흠(宋明欽)이 극간(極諫)할 때 감찰(監察)로 역시 상소하였으나 불가(不可)하다하여 귀양갔다. 뒤에 다시 부름을 받아 비인(庇仁)과 은산(殷山) 등지에 현관(縣官)에 제수(除授)되었고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다.

- 이종목(李鍾穆) : 자는 유청(維淸) 본관은 전주(全州) 순화군(順和君) 보(土)의 후손이다. 순조(純祖) 때 문과(文科) 급제로 교리(校理)가 되었고 외직(外職)으로 덕천(德川)·정주(定州)를 받았고 우승지(右承旨)에 이르렀다. 문학과 덕행으로 세상에 칭찬을 받았고 관인(寬仁)과 청간(淸簡)으로 정사(政事)를 펴 이민(吏民)을 편안케 하였다.
- 김명훈(金炳薰) : 자는 치운(致雲)으로 호가 추암(湫庵) 정헌공(定獻公) 계행(係行)의 후손으로 승지(承旨) 희순(喜淳)의 손자이다. 벼슬은 교리(校理)와 시종원부경(侍從院副卿)을 지냈다. 학행과 은덕이 있었으며 봉화(奉化)에 '진진재(進進齋)'를 짓고 본군(本郡)을 떠나가 살았다 유고(遺稿)가 있어 가문(家門)에서 보관하고 있다.
- 이정열(李貞烈) : 자는 군서(君瑞), 호는 회당(晦堂) 명신편(名臣篇)에 있는 이천(李蕝)의 후손으로 아버지 명(命)으로 위암(巍岩)이간(李柬)의 5세손 이상규(李相逵)의 후(后)로 출계하였다. 문과(文科) 급제 후 직각(直閣)이 되었고 참판(參判)에 이르렀다. 고종(高宗) 경자(庚子 1900)이후 시사(時事)가 잘못됨을 보고 면전(面前)에서 극간(極諫)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취를 감추었다. 임금이 퇴호거사(退湖居士)라는 호를 지어 주었다.

## 명관(名官)

- 김윤(金潤) : 호가 회재(懷齋) 본관은 함안(咸安). 함안군(咸安君) 정신(正臣)의 후손이다. 인조(仁祖) 때 교리(校理)를 지내고 부안현감(扶安縣監)으로 나가 치적(治績)을 올렸다.
- 김성율(金聲律) : 자는 여경(汝敬), 호가 농포(農圃) 본관은 김해(金海)다 춘회당(春回堂) 해정(海精)의 후손이다. 현종(顯宗) 때 남포현감(藍浦縣監)으로 군민들이 비를 세워 송덕(頌德)하였다. 군자감정(軍資監正)에 추증(追贈)되었다.
- 김응서(金應瑞) : 호는 송암(松庵) 본관은 경주(慶州) 판도판서(版圖判書) 장유(將有)의 후손이다. 정조(正祖) 203) 때 과거에 급제하고 외직(外職)으로 순천(順天)에 나가 많은 치적(治績)을 올려 거사비(去思碑)가 세워졌다.

- 최달수(崔達洙) : 자는 성원(聖源), 호는 광하(廣霞) 본관은 화순(和順)이다. 계당(溪堂) 흥림(興霖)의 후손으로 순조(純祖) 때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 · 주부(主簿)를 지내고 외직(外職)으로 강령(康翎)으로 나가 많은 치적(治績)을 세웠다.
- 이재철(李載喆) : 자는 지여(止汝), 청백편(清白篇)에 실려 있는 이후식(李厚植)의 손자이다. 헌종(憲宗) 때 무과(武科)에 급제 후 흥양현감(興陽縣監)을 지내며 맑은 정사를 펴고 효우(孝友)도 겸비하여 고위 관료들의 모범이 되었다.
- 이홍열(李洪烈) : 호는 하산(霞山), 명신편(名臣篇)에 실려있는 이천(李蕝)의 후손이다. 계운(溪雲)김낙현(金洛鉉)과 운창(芸窓)박성양(朴性陽) 문하(門下)에 교류하여 크게 도움을 받았다. 고종(高宗) 때 군수(郡守)가 되어 강학(講學)을 흥설(興設)하여 사풍(士風)을 크게 일으켰으나 시국(時局)이 천이(遷移)함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직각(直閣) 조병집(趙秉輯)이 묘갈(墓碣)을 지었다.

### 청백(清白)

- 장현광(張顯光) : 호는 여헌(旅軒), 본관은 인동(仁同) 우리 군(郡)의 현감(縣監)으로 와서 치적(治績)을 세웠다
- 성제원(成悌元) : [유현편(儒賢篇)을 보라] 육행(六行)을 겸비하여 우리 군(郡)의 현감(縣監)으로 천거(薦擧)되었다. 치정(治政)할 때 남명(南冥) 조식(曹植) · 대곡(大谷)성운(成運) ·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 ·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이 약속도 없이 와서 상(床)을 펴고 연일 대화하니 그때 사람들이 말하길 “덕성(德星)이 응(應)함이라” 하였다.
- 윤경룡(尹敬龍) 우리 군(郡)의 현감(縣監)으로 거사비(去思碑)가 세워졌다.
- 이후식(李厚植) : 자는 지서(趾瑞) 본관은 전주(全州)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초(妣)의 후손이다. 벼슬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일찍이 회인현감(懷仁縣監)으로 와서 청간(淸簡)한 정사(政事)를 펼쳤다.
- 문창석(文昌錫) : 본관은 남평(南平), 삼우당(三憂堂) 익점(益漸)의 후손이다. 일찍이 회인현감(懷仁縣監)으로 와서 만인(萬人)의 우산(雨傘)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203) 원문에는 正宗으로 되어있으나 正祖로 고쳤다.

**문원(文苑)**

- 이동제(李東濟) : 자는 명초(命初) 호는 죽사(竹沙) 본관은 경주(慶州) 초려(草廬) 유태(惟泰)의 후손이다. 문학과 행의(行義)로 유림들의 추중(推重)을 받았으며 후진들을 지도하여 사람들의 표준이 되었다. 유고(遺稿)가 있다.
- 정면호(鄭勉鎬) : 호는 금치(錦痴), 본관은 연일(延日) 포은(圃隱) 몽주(夢周)의 후손으로 어당(晤堂)이상수(李象秀) 문인(門人)이다. 문장과 필법(筆法)으로 이름났다.
- 윤명학(尹命學) : 자는 만여(晩汝) 호가 창계(蒼溪) 본관은 칠원(漆原)으로 대제학(大提學) 수상(守尙)의 후손이다. 지행(至行)이 순박하고 인정이 두터웠고 글과 지식이 크고 넓었으나 “우연히 때를 못 만나 시골 구석에서 굴욕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한탄하였다.

**선시(善詩)**

- 이용화(李用華) : 자는 중협(重協), 호가 백운(柏雲) 명신편(名臣篇)에 실려있는 이천(李蕺)의 후손이다. 고종(高宗) 때 참봉(參奉)으로 시(詩)를 잘 썼다. 또한 아우 용기(用琪)와 함께 가난한 이웃돕기를 좋아하여 마을이 잘 살았다. 유고(遺稿)가 있다.

**선화(善畵)**

- 송정수(宋貞洙) : 은진(恩津)이 본관으로 쌍청당(雙淸堂) 유(愉)의 후손이다. 그림을 잘 그려 사람들이 용(龍)이 호랑이 머리에서 잔다고 비유하였다.

**행의(行誼)**

- 이소구(李韶九) : 자는 순일(順一), 호는 도담(桃潭) 본관을 연안(延安) 연능군(延陵君) 만원(萬元)의 후손이다. 효성으로 부모를 섬기고 자녀 교육은 끈고 올바르게 시켰다 또 품성이 착하여 두루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니 고을에서 문묘(文廟)의 직원(直員)으로 추대하였다.
- 최병윤(崔炳允) : 자는 윤옥(允玉), 호가 농포(農圃) 유일편(遺逸篇)에 실려있는 최인수(崔麟壽)의 증손이다. 성품이 너그럽고 몸가짐에 근신하여 성심으로 조상을 받들고 자손을 가르침에 끈고 바르게 하였다. 재물을 가볍게 보고 의(義)를 중히여겨 모든 처사가 공정하였다.

- 박래필(朴來弼) : 자는 성우(性友), 본관은 밀양(密陽), 국당(菊堂) 흥생(興生)의 후손이다. 성품이 본래 강직하고 몸가짐이 근검(勤儉)하며 예법(禮法)을 지키고 재물을 가볍게 보고 의를 중히여겨 고을에 모범이 되었다.
- 이병하(李丙夏) : 자는 성우(聖禹), 호가 오정(梧亭) 양녕대군(讓寧大君) 제(禋)의 후손으로 난수(蘭秀)의 아들이다. 부모를 섬김을 지극한 효도로 양지(養志)와 양체(養體)로 하고 자식을 의(義)로서 가르쳤으며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였다.
- 김수보(金秀甫) : 자는 순보(順甫) 본관은 경주(慶州), 충암(沖庵) 정(淨)의 후손이다. 성품이 너그럽고 몸가짐이 근검(勤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재물을 가볍게 보니 인아친척(姻婭親戚)이 모두 그 은혜를 입었다.
- 나상덕(羅相德) : 자는 윤옥(潤屋), 호는 국사(菊史) 효자편(孝子篇)에 있는 나중경(羅重慶)의 후손이다. 벼슬이 박사(博士)로 뜻과 의지가 굳고 확실하였으며 효우(孝友)가 독실하고 정성으로 위선(爲先)하였다. 각(閣)과 정자(亭子)를 짓고 사람을 사랑하여 두루 불쌍한 이들을 도우니 면민(面民)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 선행(善行)

- 신원휴(申元休) : 자는 원중(元仲), 호가 세은(世隱) 본관은 고령(高靈), 보한재(保間齋) 숙주(叔舟)의 후손인 증구(曾求)의 아들이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자식을 올바르게 키웠다.

### 명망(名望)

- 김춘배(金春培) : 자는 동보(東甫), 호가 송곡(松谷) 본관은 김해. 효자편(孝子篇)에 실려있는 김현모(金顯謀)의 아들이다. 벼슬은 의관(議官)으로 도량이 활달하고 집안을 예(禮)로서 다스리며 처세가 바르다.
- 김현석(金顯碩) : 자는 춘명(春明) 호가 초은(樵隱) 문행편(文行篇)에 있는 김창식(金昌植)의 아들이다. 고종(高宗) 때 숙능참봉(叔陵參奉)으로 가정을 근검(勤儉)으로 다스리고 자식을 의(義)로 가르치고 처사가 공정하니 사람 모두가 칭찬하였다.
- 장훈상(張薰相) : 자는 두환(斗煥), 호는 경운(耕雲) 본관은 인동(仁同) 여현(旅軒) 현광(顯光)의 후손이다. 천성이 너그럽고 효성으로 양친을 섬기고 자식을 바르게 가르쳤



고 널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여 시혜비(施惠碑)가 거리에 세워졌다.

- 심원서(沈元西) : 자는 국서(國西), 호가 송암(松岩) 본관은 청송(靑松) 청헌공(淸獻公) 택현(宅賢)의 후손이다. 종족(宗族)간에 화목하고 친구 간에 신의가 있었으며 있는 것을 풀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 김찬희(金燦熙) : 본관이 경주(慶州)로 효자편(孝子篇)에 실려있는 김인서(金麟瑞)의 손자 · 몸가짐이 근검(勤儉)하고 성현(聖賢)을 높이 사모하여 명망(名望)이 있어 문묘(文廟) 직원(直員)에 천거(薦舉)되었다.
- 김형권(金滢權) : 자는 성구(聲九) 호는 간월(澗月) 본관은 금녕(金寧), 백촌(白村) 문기(文起)의 후손이다. 몸가짐이 정직하고 일을 처리함이 공정하고 맑았으며 유풍(儒風)을 크게 진흥시켜 윤리와 강상(綱常)을 바로잡았다.
- 윤현채(尹賢采) : 호는 현암(賢庵) 유행편(儒行篇)에 있는 윤홍재(尹弘載)의 증손이다. 몸가짐이 공손하고 검소하였으며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 김영호(金榮浩) : 자는 자중(自仲), 호가 농은(農隱) 명관편(名官篇)에 있는 김윤(金潤)의 후손이다. 덕스러움이 뛰어났고 근검(勤儉)으로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식 교육과 사람을 대접함에 각각 법도가 있어 남의 표준이 되었다.

### 진목(賑睦)

- 김상교(金商敎) : 자는 우락(禹樂), 본관은 경주(慶州), 상촌(桑村) 자수(自粹)의 후손이다. 천성이 너그럽고 근검으로 일을 하고 형을 아버지같이 존경하고 인아친척(姻婭親戚)이 혜택을 보지 않은 이가 없고 관혼상제(冠婚喪祭)에도 일일이 도움을 주었다.
- 김현수(金顯秀) : 자는 덕춘(德春), 명신편(名臣篇)에 있는 김영정(金永貞) 후손이다. 성품이 본래 자선(慈善)하여 인아(姻婭)와 친척(親戚)을 애휼(愛恤)하지 않은 이가 없고 시골에 가난한 이는 꼭 혜택을 베풀어 집안이 화목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의(義)에 감복하였다.
- 이정삼(李禎三) : 자는 사현(士賢), 호는 서암(西庵) 본관은 경주(慶州), 익재(益齋) 제현(齊賢)의 후손으로 벼슬은 통정대부(通政大夫)이다. 천성이 어질고 너그럽고 친척과 화목하게 지냈다. 넓은 것과 좁은 것을 결단하기를 좋아하여 갖지 못할 곳에도 많이 베풀어 주었다.

## 자선(慈善)

- 신석오(申錫五) : 자는 원서(元瑞), 호가 애일당(愛日堂), 본관은 평산(平山), 화당(花堂) 민일(敏一)의 후손이다. 벼슬은 주사(主事), 천성이 본래 인자하여 집이 비록 넉넉하지 않았으나 마을에 부과된 호세(戶稅)를 23년간이나 보조하여 완납토록 하였다. 아들 태완(泰完)도 뜻을 이으니 고을 사람들이 비(碑)를 세워 기념하였다. [효자편(孝子篇)을 보라]
- 양주천(梁柱天) : 자는 경일(擎一), 훈신편(勳臣篇)에 있는 양성지(梁誠之)의 후손으로 본래 성품이 어질고 너그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좋아해 집이 넉넉지 않았으나 두루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더욱 교육(教育)을 좋아해 가난하여 배울 수 없는 사람에게 종이와 붓과 먹을 사주며 권장하였다. 승지(承旨) 유인철(柳寅哲)이 묘갈(墓碣)을 지었다.
- 송덕첨(宋德添) : 호는 송은(松隱), 본관은 은진(恩津), 쌍청당(雙淸堂) 유(愉)의 후손이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니 사람들이 은혜를 칭송하였다.
- 최익근(崔翊根) : 자는 인보(仁甫), 호는 지암(芝庵), 명관편(名官篇)에 있는 최달수(崔達洙)의 아들이다. 순조(純祖) 때 검서관(檢書官)을 지냈고 아버지를 지극한 효로 섬기고 성품이 자선(慈善)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한 고을이 은혜를 칭송하였다.
- 김진묵(金振默) : 자는 성학(聖學), 호는 용계(龍溪), 본관은 김해(金海), 절효(節孝) 극일(克一)의 후손이다. 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고 자식을 의(義)로서 가르쳤다. 성품 또한 자애로워 가난하고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고 종자(種子)를 나누어 주어 농사(農事)를 권장하고 노적(露積)가리를 허트려 대여(貸與)해주니 혜택이 한 지방에 미쳤다. 고을 사람들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고종(高宗) 때 비서승(秘書丞)을 지냈다.
- 노치수(盧致洙) : 자는 천일(天一), 호는 송헌(松軒), 본관은 교하(交河), 서암(西庵), 덕원(德元)의 후손이다. 근검(勤儉)으로 재산을 모아 가난한 친구와 일가에게 화목하게 은혜를 베푸니 군(郡)과 면(面)에서 모두 포창하였다.
- 노면청(盧勉淸) : 자는 천일(千一), 호는 하청(河淸), 유일편(遺逸篇)에 있는 노일원(盧一元)의 후손이다. 벼슬이 의관(議官)으로 품성이 온량(溫良)하고 학문이 깊으며 본디 의술(醫術)에 밝아 무료로 대중을 구제하니 마을과 인근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다.

비(碑)를 세워 칭송하였다.

- 양종환(梁宗煥) : 자는 여해(汝諧) 호가 심재(心齋) 훈신편(勳臣篇)에 있는 양성지(梁誠之)의 후손이다. 종숙(從叔)인 국하(菊下)양주학(梁柱學)과 호산(壺山)박문호(朴文鎬)에게 배워 칠서(七書)를 대략 통달하고 나이 약관에 부친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품달하여 실행케 하였다. 뒤에 지방에 책임자인 면장(面長)이 되자 봉급을 덜어 세금을 감해주니 고을 사람들이 돌을 세워 은혜를 칭송하였다.

### 충신(忠臣)

- 김희철(金希哲) : 호는 검덕정(儉德亭), 유일편(遺逸篇)에 있는 김봉수(金峯壽)아우이다. 중봉(重峯)조헌(趙憲)의 문인(門人)으로 임진왜란에 중봉(重峯)을 따라 금산(錦山)에서 함께 순절(殉節)하였다. 월정(月汀)윤근수(尹根壽)<sup>204</sup>가 비문(碑文)을 지었다. 후율사(後栗祠)에 제향(祭享)되었다.
- 김성원(金聲遠) : 자는 경구(景九), 호는 송촌(松村) 유현편(儒賢篇)에 있는 김정(金淨)의 증손<sup>205</sup>으로 중봉(重峯)조헌(趙憲)의 문인(門人)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중봉(重峯)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청주(淸州)에서 크게 이기고 금산(錦山)에서 동시에 순절(殉節)하였다. 현종(顯宗) 때 도사(都事)로 추증(追贈)되고 정문을 세웠다.
- 김함(金諫) : 자는 극부(克孚), 호는 쌍행당(雙杏堂). 본관은 경주(慶州), 제숙공(齊肅公) 균(楸)의 후손으로 염계(剡溪)이잠(李潛)의 문인(門人)으로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고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중봉(重峯)조헌(趙憲)과 같이 의병을 일으켜 금산(錦山)에서 순절(殉節)하였다. 후율사(後栗祠)에 제향(祭享)되었으며 서계(西溪)이득윤(李得胤)이 행장(行狀)을 지었다.
- 구항(具恒) : 자는 상중(常仲) 호는 모정(茅亭). 절의편(節義篇)에 잇는 구수팽(具壽彭)의 아들이다. 본래 중봉(重峯)조헌(趙憲)과 도의(道義)로 사귀었으며 임진왜란에 함께 의병을 일으켜 청주에서 크게 이기고 금산(錦山)에서 순절(殉節)하였다.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追贈)되고 시호는 충장(忠壯)이고 후율사(後栗祠)에 제향(祭享)되었다.
- 이진행(李震行) : 호는 서봉(西峯), 명신편(名臣篇)에 있는 이천(李藏)의 후손이다.

204) 원문에 月汀尹斗壽로 되어있으나 尹根壽로 바로 잡았다.

205) 원문에는 孫으로 되어있으나 증손으로 바로 잡았다.

선조(宣祖) 때 진사(進士)로 박학(博學)으로 천거(薦擧)되어 참봉(參奉)에 제수(除授)되었다. 인조(仁祖) 병자호란(丙子胡亂)에는 사직령(社稷令)으로 사직(社稷)신주(神主)를 모시고 강화(江華)<sup>206</sup>에 들어갔다가 순절(殉節)하였다.

### 절의(節義)

- 최홍재(崔弘載) : 본관은 경주(慶州), 고운(孤雲) 치원(致遠)의 후손으로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참판(參判)에 올랐으나 고려 공양왕(恭讓王) 신미(辛未 1391)에 벼슬을 버리고 공주(公州) 동산(東山)에 숨어 살면서 채미가(採薇歌)를 지었는데

“동산의 고사리 아름답구나

여기가 나의 수양산(首陽山)일세

아침에 캐고 저녁에도 캐누나

나의 죽음이여 무엇이 상할까” 하였다. 인하여 벼슬하지 않았다.

- 최청(崔淸) : 자는 직재(直哉), 본관은 경주(慶州)고운(孤雲)치원(致遠)의 후손이다. 고려(高麗)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시랑(侍郎)을 거쳐 정승(政丞)에 이르렀다. 일찍이 장백(張伯)과 같이 명(明)나라 조정(朝廷)에 입조(入朝)하고 돌아왔다. 조선(朝鮮) 태조(太祖)가 좌찬성(左贊成)으로 불렸으나 나아가지 않고 풍양(豐壤)으로 물러나자 태조(太祖)가 친히 찾아가 산을 어래산(御來山)이라 하고 정자를 관가정(觀稼亭)이라 하였다. 송도(松都)를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스스로 송은거사(松隱居士)라 호(號)를 지었다. 충의록(忠義錄)에 실려있고 참판(參判) 권익상(權益相)이 묘비문(墓碑文)을 지었다.
- 양우(梁祐) : 자는 구인(求仁), 호는 묵재(默齋), 본관은 남원(南原), 벼슬을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다. 태조(太祖) 때 세 번 불렸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태조(太祖)가 “동국(東國)의 백이숙제(百夷叔齊)”라 하였으며 죽으니 3일간 벼락이 진동하였다.
- 박광우(朴光祐) : 자는 국이(國耳), 호는 필재(畢齋) 본관은 상주(尙州), 상산부원군(尙山府院君) 려(侶)의 후손이다. 중종(中宗) 때 생원시(生員試)와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교리(校理)를 거쳐 사간(司諫)을 지냈다. 기묘사화(己卯士禍)에 대궐에 들어가 호곡하면서 정암(靜庵)조광조(趙光祖)를 신구(伸救)하였으며 을사사화(乙巳士禍)에 왕 앞

206) 원문에는 江都狗節로 되어있으나 江畢로 고쳤다.

에 나아가 굳세게 간(諫)하다가 때 맞아 죽었다. 울곡(栗谷)이이(李珥)가 신원(伸冤)할 것을 상소(上訴)하여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추증(追贈)되었고 시호는 정절(貞節)이다. 문집(文集)이 있고 송천서원(松泉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이천계(李天啓) : 자는 형백(亨伯)<sup>207</sup>, 호는 괴당(槐堂) 본관은 신평(新平), 문간공(文簡公)덕명(德明)의 후손이다. 중종(中宗)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사인(舍人)을 거쳐 지평(持平)에 이르렀다.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이기(李芑)를 논척(論斥)하는 상소(上疏)를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권물재(權勿齋)·정황(丁璜)과 같이 올렸다가 삭탈관직(削奪官職)되었으며 언각의화(彦愨의禍)<sup>208</sup>로 영해(寧海)로 귀양가서 모친의 상(喪)을 당하였으나 갈 수 없으므로 절식(絶食)하다가 죽었다.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가 묘갈문(墓碣文)을 지었고 유집(遺集)이 있다.

○구수복(具壽福) : 자는 백응(伯凝) 호는 병암(屏庵) 본관은 능성(綾城), 문정공(文貞公)위(禕)의 후손이다. 중종(中宗) 때 생원시(生員試)와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호당(湖堂)에 발탁되었다.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전랑(銓郎)에서 폐고(廢固)되어 이 곳에 방귀(放歸)되었다. 정조(正祖) 때 부제학(副提學)에 추증(追贈)되었고 병산서원(屏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묘갈(墓碣)을 지었다.

○구수팽(具壽彭) : 자는 기옹(耆翁)<sup>209</sup> 호는 신암(新庵), 수복(壽福)의 아우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문인(門人)이다. 중종(中宗) 때 선교랑(宣敎郎)이다. 기묘사화(己卯士禍)에 형과 함께 쫓겨나서 문을 닫고 단정히 앉아 옛 학문을 찾아 배웠다.

명종(明宗) 때 이조참판(吏曹參判)<sup>210</sup>에 추증(追贈)되었다.

○이정(李晶) : 호는 송재(松齋), 명신편(名臣篇)에 있는 이천(李戡)의 후손이다. 선조(宣祖) 때 진사(進士)로 울곡(栗谷) 이이(李珥)와 우계(牛溪) 성혼(成渾) 양현(兩賢)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상소(上疏)하였고 광해군(光海君) 때 정인홍(鄭仁弘)의 폐모론(廢母論)을 물리치고 즉시 고향에 돌아왔다.

○김정환(金政煥) : 자는 중민(仲敏), 호는 경초(耕樵) 본관은 김해(金海) 절효(節孝)극일(克一)의 후손이다. 옥사(屋社)<sup>211</sup>이후 절개를 지켜 흔들리지 않고 여러 번 고초를

207) 원문에는 亨伯으로 되어있으나 亨伯으로 바로잡았다.

208) 양재역벽서사건을 말함

209) 원문에는 耆翁으로 되어있으나 耆翁으로 바로 잡았다.

210) 원문에는 贈吏參享屏山院이라고 되었으나 贈吏參으로 바로 잡았다.

당하였으나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 효자(孝子)

- 이동욱(李東旭) : 본관은 인천(仁川), 진낙공(眞樂公) 자현(資玄)의 후손이다. 고려(高麗) 충선왕(忠宣王) 때 문하시랑(門下侍郎)을 지냈다. 양친을 효도로 섬겼으며 상(喪)을 당하여 산지(山地)를 구할 때 호랑이가 와서 상복을 물어당겨 장지(葬地)를 구해주었으며 여묘(廬墓)할 때는 호랑이가 묘 옆에서 젓을 먹이고 제수(祭需)로 쓸 가축(家畜)등을 물어다 주는 이적이 있었다.
- 양천룡(梁天龍) : 절의편(節義篇)에 있는 양우(梁祐)의 아들로 고려(高麗)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대방군(帶方君)에 봉해졌다. 효도로 정려되었으며 정문이 남원군(南原郡)에 있다.
- 막동(莫同) : 남의 종이였다. 집에 불이나서 어머니와 딸이 모두 불속에 있었는데 뛰어 들어가 어미를 업고 나와 딸 죽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어미 살린 것만 기뻐하였다. 중종(中宗) 때 정려되었다.
- 이우(李祐) : 효(孝)로 정려되었다.
- 이창경·원경·명경(李昌慶 元慶 鳴慶) : 삼형제(三兄弟)이다. 강도(強盜)가 쳐들어와서 아버지를 해치려고 할 때 창경(昌慶)은 나이 23세, 원경(元慶)은 17세, 명경(鳴慶)은 15세로 몸을 날려 아버지를 몸으로 가로막으며 칼날 앞에서 죽기로 저항하니 온몸에 상처를 입어 유혈이 낭자하였으나 “차라리 우리들을 죽이고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하니 도적들이 감동하여 그냥 돌아갔다. 창경(昌慶)과 명경(鳴慶)은 좌랑(佐郎)으로 추증(追贈)하고 원경(元慶)은 녹용(錄用)하여 현감(縣監)이 되었으며 모두 정려되었다.
- 나중경(羅重慶) : 자는 명경(明卿), 호는 비목헌(卑牧軒) 본관은 안정(安定) 참의(參議)만엽(萬葉)의 손자. 하늘이 낸 정성스런 효자로 부모 병환에 전후 세 번이나 손가락을 끊었고 호랑이가 물어온 말고기와 개가 물어온 여우고기를 부모님께 해 드리는 이변을 이루웠고 단(壇)을 모아 북극성에 기원하였으며 상(喪)을 당하자 4년간 시묘살이를 살았다 문장과 경학이 시대에 이름을 얻어 도천(道薦)으로 감역(監役)에 제수되었으나

211) 한일합방을 말함

취임하지 않았다. 숙종(肅宗)이 준천첩(濬川帖)을 하사(下賜)하였고 철종(哲宗) 때 정려되었다. 문집(文集)이 있다.

- 구이극(具爾極) : 자는 건중(建中), 충신편(忠臣篇)에 있는 구항(具恒)의 현손(玄孫), 숙종(肅宗) 때 효(孝)로 정려되었다.
- 구이상(具爾尙) : 자는 상경(尙卿), 이극(爾極)의 아우로 효(孝)로 복호(復戶)되었다.
- 구시영(具始英) : 이극(爾極)의 조카로 효(孝)로 정려되었다.
- 김익수(金益粹) : 자는 수숙(秀淑) 충신편(忠臣篇)에 있는 김함(金誠)의 후손으로 벼슬이 대호군(大護軍)을 지냈다. 문예(文藝)가 뛰어나고 정성스런 효도가 출천하여 호조참판(戶曹參判)겸 제주(祭酒)<sup>212)</sup>에 증직(贈職)되고 효로서 정려되었다.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가 행장(行狀)을 지었고 아들 태주(泰胄) · 득주(得胄) · 성주(聖胄)도 함께 효로서 정려되었다.
- 양달해(梁達海) : 자는 호연(湖然), 호는 치재(嗤齋) 본관은 남원(南原) 절의편(節義篇)에 실려있는 양우(梁祐)의 후손이다.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의 문인(門人)으로 어려서부터 효도를 알아 양지체(養志體)를 갖추어 섬겼고 상(喪)을 당하여 죽으로 연명하며 시묘할 때 서초(瑞草) 두 줄기가 묘 옆에 나니 읍재(邑宰) 최도흥(崔道興)이 와서 보고 “효에 감동한 것”이라 하여 감영(監營)에 보고 하였다. 영조(英祖)<sup>213)</sup>가 빈천(賓天)하자 소식(素食)하면서 망곡(望哭)하니 군(郡)과 도(道)에서 추천(推薦)하였다. 고종(高宗) 때 교관(敎官)에 추증(追贈)하고 정려하였다. 탁계(濯溪)김상진(金相進)이 행장(行狀)을 지었고 유고(遺稿)가 있다.
- 이성만 · 은만(李成晩 · 殷晩) : 명신편(名臣篇)에 실려있는 이천(李蕝)의 후손으로 형제이다. 효도와 우애가 지극하여 여러 차례 고을에 천거(薦擧)되었으며 수촌(睡村)이여(李畬)가 정승(政丞)으로 있을 때 크게 칭찬하고 살고 있는 곳 지명(地名)을 구인(求仁)으로 고쳐 주었다. [고적편(古跡篇)을 보라]
- 양수하(梁受河) : 자는 도백(圖伯). 명환편(名宦篇)에 실려있는 양을방(梁乙邦)의 후손이다. 영조(英祖)<sup>214)</sup> 때 등과(登科)하였다. 부모 섬기길 지극한 효도로 하여 어름 속

212) 성균관의 벼슬로 한문으로 祭酒 제주라 쓰고 ‘제주’라 불렀다.

213) 원문에는 英宗으로 되어있으나 英祖로 바로 잡았다.

214) 원문에는 英宗으로 되어있으나 英祖로 고쳤다.

에서 잉어를 얻는 이변이 있었고 시묘살이를 3년간하였다.

- 조이직(趙裏直) : 자는 일득(一得). 호는 초은(樵隱) 본관은 한양(漢陽) 양경공(良敬公) 연(涓)의 후손이다. 나이 17세에 부친의 상(喪)을 당하자 3년간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고 머리도 빗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 온몸에 이와 서캐가 퍼져도 고치지 않았으며 62세에 어머니 상(喪)을 당하여서도 전과같이 하니 향리(鄉里)에서 칭송하였다.
- 양석정(梁錫定) : 자는 여현(汝賢) 호는 노은(老隱) 수하(受河)의 증손(曾孫)<sup>215</sup>이다.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섬겼으며 병이 들어 약 수발을 할 때는 허리띠를 풀지 않고 노심초사하여 날을 보냈으며 상(喪)을 당하자 애통해하며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 김인서(金麟瑞) : 자는 군선(君善)<sup>216</sup> 본관은 경주(慶州) 판도판서(版圖判書) 장유(將有)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지성을 다하여 효도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병환에 의원(醫員)이 호랑이가 먹던 고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울면서 집으로 오다가 호랑이가 토끼를 먹다가 남겨놓고 가는지라 이를 구하여 드렸더니 차도가 있었다. 문망(文望)이 있었으며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 유병욱(柳秉旭)<sup>217</sup> : 자는 운서(雲瑞) 호는 하암(霞庵) 본관은 문화(文化) 충간공(忠簡公) 소(沼)의 후손이다. 유복자(遺腹子)로 홀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하여 칭송을 받았으며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일가들과 화목하게 지냈다. 윤명학(尹命學)이 행장(行狀)을 지었다.
- 유만필(柳萬弼) : 자는 사국(士國) 본관은 문화(文化) 충경공(忠景公) 양(亮)의 후손이다. 어머니가 종기를 앓으니 환부를 입으로 핥고 빨아 반년만에 고쳐드렸고 아버지가 학질(瘡疾)로 고생하자 허벅지를 도려서 드렸고 약을 구하여 밤중에 돌아올 때는 호랑이가 길을 호위해 주었고 잉어가 좋다는 말을 듣고 겨울에 잡아 봉양하니 모두가 지극한 효성의 결과라 하여 사림(士林)이 정장(呈狀)하였다.
- 문태원(文台源) : 자는 성술(聖述), 명환편(名宦篇)에 있는 문명구(文命龜)의 후손이다. 벼슬은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 병환에 약을 정성껏 썼으나 효험이 없었고 의원(醫員)의 말이 삼부탕(三鮒湯)이 좋다하자 설중에 붕어를 얻고자 하였

215) 원문에는 受河子로 되어있으나 증손으로 바로 잡았다.

216) 원문에는 君兼으로 되어있으나 君善으로 바로 잡았다.

217) 원문에는 柳東旭으로 되어있으나 柳秉旭으로 바로 잡았다.



- 으나 얼음이 두꺼워 구하기 어려운데 연못에 간지 3일만에 잡아 시탕하여 효력을 보았다. 군(郡)과 도(道)에서 천거(薦舉)되었다.
- 방봉섭(龐鳳燮) : 자는 흥문(興文) 본관은 개성(開城)으로 경후(景厚)의 아들이다. 아버지 병으로 7개월이나 누우니 똥맛을 보아가며 시탕(侍湯)하고 북극성에 기도하여 노루 한 마리를 얻어 약효를 보았으며 병세가 위독하자 팔을 베어 피를 먹었다. 상(喪)을 당하자 3년간 옷을 벗지 않고 치상하니 향리의 칭송이 있었다.
- 박용락(朴鏞樂) : 자는 성소(聖韶) 호는 금은(錦隱) 유행편(儒行篇)에 있는 박상점(朴商漸)의 증손이다. 어머니 병환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였고 아버지 부스럼에 고름을 빨아내었으며 불쌍하고 곤궁한 사람을 도와주고 올바르게 자식을 교육하였다. 성품이 순독하고 문학(文學)이 크고 넓어 후진을 교도(教導)하였다.
- 이재계(李在桂) : 자는 여백(汝伯) 유일편(遺逸篇)에 실려 있는 이준(李儁)의 후손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조부모 밑에서 성장하였다. 형제간에 우애가 두터웠고 아내 윤씨(尹氏)와 같이 계모를 지성으로 섬기니 50여년을 하루같이 하였다. 중년에 상처하니 사람들이 재취를 권하나 그 계모에게 불효할까 염려하여 감히 장가를 가지 못하다가 계모보다 24년 앞서 죽었다.
- 고중원(高重遠) : 자는 등오(等五) 호는 심재(心齋) 본관은 제주(濟州) 영곡(靈谷) 득종(得宗)의 후손이다. 일찍 부친을 사별하고 모친을 지성으로 모시더니 불행하게도 모친이 풍환으로 전신이 마비되고 눈마저 안 보이게 되니 음식과 의복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찾아 드리는 한편 대소변까지 받아냈으며 외출을 원하시면 업고 출입하는 등 효성이 지극하여 향리의 칭송을 받았다.
- 신태완(申泰完) : 자는 문약(文若) 호는 청농(靑農)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화당(化堂) 민일(敏一)의 후손이다. 벼슬은 군수(郡守)를 지냈다. 부모를 효로 섬기었고 부친이 7년간 병중에 있었는데 하루같이 시탕(侍湯)하고 부친의 명(命)을 어겨본 일이 없었다.
- 황정석(黃鼎錫) : 자는 영서(永書) 호는 농은(農隱) 홀어머니를 효로 받들고 뜻을 조금도 어기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나 성심으로 대하여 행실이 모범적이었다.
- 이수완(李洙完) : 원종훈편(原從勳篇)에 실려있는 이춘영(李春榮)의 후손으로 동선(東善)의 아들이다. 부모를 섬김에 첫째 뜻을 받드는 것을 먼저하고 식사(食事) 때는 꼭 술과 고기를 차렸으며 매달 아버지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려 하루 종일 즐기도록

하는 것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시행하였다.

- 김현모(金顯謀) : 자는 학노(學老), 문행편(文行篇)에 있는 김광수(金光秀)의 증손이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지효하여 부인 고씨(高氏)와 함께 힘을 다하여 자식의 도리를 극진히 하였고 상사(喪事)를 당해서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묘하여 곡하고 우니 묘 앞에 잔디가 벗겨져 풀이 나지 않았다 한다. 지극한 효성으로 인하여 면(面)과 군(郡)에서 표창하였다.
- 이정익(李廷翼) : 자는 경실(景實) 호는 하석(霞石) 명신편(名臣篇)에 있는 이천(李蕝)의 후손이다. 고종(高宗) 때 학행(學行)으로 추천되어 도사(都事)에 제수(除授)되었다. 부친의 병환 12년 간 정성을 다하여 간호했으며 부인박씨(朴氏) 역시 효부(孝婦)라는 칭찬을 받았다.
- 박영권(朴永權)<sup>218</sup> : 초명(初名)은 재명(在明) 자는 춘대(春大) 호는 해월(海月) 은천(隱川) 본관은 밀양(密陽), 국당(菊堂) 흥생(興生)의 후손이다. 효성으로 부모를 섬기었고 뜻에 순종하여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 아버지 병중에는 몇 년간 게으름 없이 간호하고 상(喪)을 당하자 여묘(廬墓)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니 사람들이 그 효성스러움에 감복하였다.
- 이재선(李在善) : 자는 문옥(文玉) 호는 송심(松心) 본관은 인천(仁川) 진락공(眞樂公) 자현(資玄)의 후손이다. 80세 된 홀어머니를 봉양하여 매일 품팔이로 받은 품삯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장날마다 반찬을 준비하여 조석공궤를 착실히 행하였다. 어머니가 노망으로 밖에 나가면 찾아서 업고 돌아오며 5년간 지성으로 시탕(侍湯) 간호하니 향리에서 포상하였다.
- 송헌태(宋憲泰) : 자는 망녀(望汝) 호는 양곡(陽谷) 본관은 은진(恩津) 천성이 효성스러워 부모님 병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이기도 하고 백일동안 기도를 올렸다. 고을에서 추천이 있었으나 영리(榮利)를 구하지 않고 산수를 즐기며 어당(晤堂)이상수(李象秀)와 교류하였다.
- 이원근(李源根) : 자는 종근(鍾根) 본관은 전주(全州) 선성군(宣城君) 무생(茂生)의 후손이다. 천성이 효성스러워 부모가 병들면 약 수발을 게을리 않고 6년을 하루같이 하였

218) 원문에는 朴在明으로 되어있으나 朴永權으로 고쳤다.

으며 돌아가시자 예(禮)에 따라 거상(居喪)하여 향리에서 포상하였다.

- 백남욱(白南旭) : 자는 도길(道吉) 호는 금석(錦石) 증직편(贈職篇)에 있는 백낙인(白樂仁)의 아들로 벼슬은 참봉(參奉)으로 비서승(秘書丞)을 지냈다. 성품이 지효(至孝)하여 부모를 받들고 할아버지를 섬김에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리며 겨울에는 따스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지(志)와 체(體)를 함께 봉양하고 상사(喪事)를 당하자 서러워하면서 예(禮)를 다하니 윤강록(倫綱錄)에 실려있다.
- 백남로(白南老) : 자는 학수(鶴壽) 호는 수근당(守謹堂) 유행편(儒行篇)에 있는 백낙주(白樂周)의 아들이다.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홀로된 아버지를 효성(孝誠)으로 모시고 좌우로 봉양길에 나아가 부지런히 순종하고 덥고 찬 음식을 때 맞춰 해드리고 상사(喪事)를 당하여 서러움이 지극하여 날마다 무덤을 찾아가 절하니 무릎자리에 구덩이가 생기었다. 유림의 천거가 있었다.
- 고주화(高周和) : 자는 성범(聖凡) 호는 건재(健齋) 본관은 제주(濟州) 영곡(靈谷) 득종(得宗)의 후손이다. 효행이 출천하였으니 어머니가 종기로 고생하니 입으로 빨아 낳았고 그 후 병이 들자 똥을 맛보아가며 시탕(侍湯)하고 하늘에 기도하며 손가락을 잘라 피도 먹였다. 재학(才學)과 명망(名望)으로 선비들이 존경하였다.
- 김중대(金鍾大) : 자는 찬술(燦述) 호는 은초(隱樵) 본관은 당악(唐岳)이다. 충장공(忠壯公) 낙(樂)의 후손이다. 성효(誠孝)가 출천하여 아버지 뜻을 어기지 않았으며 극진히 즐겁게 해드리니 향리에서 포상하였다.
- 윤세훈(尹世勳) : 호는 은암(隱庵) 본관은 파평(坡平) 공간공(恭簡公)형(炯)의 후손이다. 어머니 병환이 위중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목숨을 4일간 연장시켰고 유언(遺言)을 혈서(血書)로 써서 간직하였다.
- 이경렬(李竟烈) : 자는 성녀(聖汝) 호는 화산(花山) 본관은 전주(全州) 장천군(長川君) 보생(寶生)의 후손이다. 천성이 효성이 지극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아버지를 잃고 슬픔이 정도를 넘었으며 편모(偏母)를 받들때 정성을 다하여 맛있는 반찬이 떨어지지 않으니 고을에서 포상하였다.
- 노병하(盧秉夏) : 자는 응칠(應七) 호는 이정(梨亭) 본관은 교하(交河) 서암(西庵) 덕원(德元)의 후손이다. 부모를 효도로 섬기되 술과 고기와 보약을 떨어지는 일이 없었고

아버지가 풍증(風症)에 걸리자 3년을 곁에서 모시고 오줌을 받아냈다. 상사(喪事)를 만나 초상을 치를 때 모두 예제(禮制)에 따르니 향리에서 포상하였다.

### 효부(孝婦)

- 김씨(金氏) : 본관은 안동(安東) 진주(震柱)의 딸로 효자 남원(南原) 양달해(梁達海)의 아내이다. 시집가기 전에도 효녀(孝女)라 칭찬을 받았으며 시집 와서도 시부모를 정성껏 섬기고 남편을 공경하고 동기간과 친척에게 화목함이 남달리 두터워 향당이 모두 칭송하였다 고종(高宗) 때 정려되었다.
- 고씨(高氏) : 본관은 제주(濟州) 봉양(鳳陽)의 딸로 남원(南原) 양사혁(梁思赫)의 아내이다 시아버지 병환에 의원(醫員)의 말이 오(烏)와 인어(鱗魚)를 쓰라하니 때가 엄동임에도 불구하고 찬물로 목욕하고 지성껏 기도드리고 다음날 새벽 물길러 가다가 가마귀와 인어를 얻어 끓여드려 효력을 보았다. 유림(儒林)들의 장계(狀啓)가 있었다.
- 안씨(安氏) : 본관은 순흥(順興) 한양(漢陽) 조자명(趙咨明)의 아내이다. 시할머니가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는데 약과 영양 있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공양하였고 시아버지가 오랜 학질에 백약이 무효하자 손가락을 잘라 국을 끓여드려 고쳤다 향리에서 포상하였다.
- 송씨(宋氏) : 본관은 은진(恩津)으로 수옹(睡翁) 갑조(甲祚)의 후손인 병락(秉洛)의 딸이며 화천군(花川君) 안동(安東) 권감(權臧)의 후손인 왕(汪)의 아내이다. 30여세에 남편이 죽고 홀시아버지가 살아 있어 마음이 상할까하여 억지로 슬픈 기색을 감추고 어머니가 기뻐하시도록 지성으로 봉양하다가 죽자 비로소 애통하였다.
- 김씨(金氏) : 본관은 김해(金海) 탁영(濯纓) 일손(駟孫)의 후손이다. 경주(慶州) 김수민(金秀民)의 아내로서 시아버지가 등창에 걸렸는데 3년간 빨아서 고쳤으며 돌아가시자 예절(禮節)에 따라 치상(治喪)하고 제삿날에는 반드시 평생에 좋아하던 음식을 차렸다.
- 육씨(陸氏) : 본관은 제주(濟州)로 종원(鍾元)의 딸로 상촌(桑村) 경주(慶州) 김자수(金自粹)의 후손인 인제(仁濟)의 아내이다. 시부모를 효로 섬기되 지(志)와 체(體)를 갖추어 봉양하니 향리에서 포상하였다.
- 조씨(趙氏) : 본관은 풍양(豐壤), 효자편(孝子篇)에 있는 평산(平山) 신태완(申泰完)의 아들 식균(軾均)의 아내로서 3년간 시어머니 병중에 약다리기와 반찬장만에 정성을 다하여 간병하니 유림(儒林)들이 표창하였다.

## 정열(貞烈)

- 이씨(李氏) : 본관은 전주(全州) 단산수(丹山守) 수(穗)의 딸로 절의편(節義篇)에 있는 능성(綾城) 구수복(具壽福)의 아내이다. 중종(中宗) 때 열(烈)로 복호(復戶)해 주고 정려되었다.
- 김씨(金氏) : 이영간(李榮幹)의 아내로서 남편이 죽어 염습(殮襲)할 때 동서들에게 말하길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후사(後事)를 이을 것이요 자손(子孫)들이 모두 있으니 시부모를 모실 수 있으니 나는 죽어 남편의 뒤를 따라갈 것이다.” 하고 약을 마시고 죽었다. 정려되었다.
- 옥랑(玉娘) : 관비(官婢)다 남편이 죽자 그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어머니는 세 아들이 있으니 내가 죽어도 무엇이 한(恨)이 되겠소 그러나 내 자식들은 겨우 강보(襁褓)를 면했으니 보살펴 길러야만 무후(無後)를 면할 것이니 어머니는 잘 건우시오” 하고 독약을 마시고 따라 죽었다 정려되었다.
- 윤씨(尹氏) : 참군(參軍) 척(摭)의 딸로 원종훈편(原從勳篇)에 있는 박진(朴摺)의 첩이다. 나이 17세에 서울에서 남편이 죽자 고향으로 운구(運柩)하여 3년간 시묘(侍墓)할 때 아침저녁으로 절하고 곡을 하면서 서러움이 지나쳐 여러 번 기절하였고 상(喪)을 마치자 묘 옆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담(性潭)송환기(宋煥箕)가 전(傳)을 지었다.
- 신씨(申氏) : 본관은 평산(平山) 수직편(壽職篇)에 있는 남원(南原) 양신도(梁信道)의 아내로서 남편이 죽자 따라서 죽었다.
- 안씨(安氏) : 본관은 순흥(順興) 통덕랑(通德郎) 세근(世根)의 딸이며 효자편(孝子篇)에 있는 김익수(金益粹)의 손자 상경(尙敬)의 아내로서 남편의 병세가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었으나 마침내 사망하자 자결하여 순종하였다. 순조(純祖) 때 복호(復戶)되었다.
- 전씨(田氏) : 본관은 연안(延安) 야은(野隱) 녹생(祿生)의 후손인 재화(再燁)의 딸로 남원(南原) 양지환(梁智煥)의 아내이다. 남편의 병이 위급하자 손가락을 씹어 피를 내어 먹이고 똥을 맛보며 간호했으나 나이 28세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자 종족(宗族)들이 그 정절(貞節)을 불쌍히여겨 집안 조카로 계자(系子)를 삼아 주었다.
- 김씨(金氏) : 본관은 금녕(金寧) 동추(同樞) 의조(宜祚)의 딸로 문화(文化) 유상록(柳相祿)의 아내이다. 나이 22세에 남편이 죽었으나 임신중이었으므로 삼종(三從)의 뜻을

생각하고 슬픔을 머금고 아픔을 참아가며 친정에서 정절(貞節)을 지켰다 다행히 아들을 낳아 성가(成家)하였다.

- 김씨(金氏) : 전주(全州) 이윤명(李倫明)<sup>219</sup>의 아내로 나이 18세에 남편이 죽자 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시부모가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마음을 고쳐먹고 힘을 다하여 봉양하니 향당(鄉黨)에서 정효(貞孝)라 칭하고 상부(上府)에서 표창하였다.
- 황씨(黃氏) : 본관은 장수(長水), 덕운(德潤)의 딸로 익재(益齋) 경주(慶州) 제현(齊賢)의 후손인 주영(周榮)의 아내이다. 나이 21세에 남편의 병이 심하여 손가락을 깨물어 사흘동안 목숨을 희생시켰으나 기절함으로 다시 깨물었으나 죽자 따라 죽고자 하였으나 시부모가 의탁할 곳이 없어 정성을 극진히 하여 시종여일하게 봉양하였다.
- 주씨(周氏) : 본관은 초계(草溪)성무(聖武)의 딸로 문행편(文行篇)에 있는 박치수(朴致洙)의 아들 재환(載煥)의 아내이다. 나이 24세에 남편이 죽었으나 정절(貞節)을 굳게 지켜 힘써 문호(門戶)를 지키는 50여년 동안 여러번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뚝하게 여사(女士)의 풍채(風彩)를 잃지 않았다.
- 남씨(南氏) : 본관은 의령(宜寧)으로 효원(孝元)의 딸이며 증직편(贈職篇)에 나오는 이승규(李承奎)의 손자 병익(丙翼)의 아내이다. 나이 28세에 남편이 죽고 홀시아버지를 효도로 섬기고 정절(貞節)을 굳게 지키면서 종질(從侄) 덕기(德基)를 양자(養子)하여 가정을 굳게 지켰다.
- 유씨(柳氏) : 본관은 문화(文化) 경주(慶州) 김기홍(金基洪)의 아내이다. 어린 나이에 남편이 죽으니 시부모 앞에서 슬픈 기색을 감추고 예(禮)로서 초상(初喪)을 치르고 굶은지 9일만에 조용히 따라 죽으니 유림(儒林)이 관영(官營)에 장계(狀啓)하였다.
- 정씨(鄭氏) : 본관은 연일(延日) 송담(松潭) 은진(恩津) 송남수(宋柟壽)의 후손인 헌룡(憲龍)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따라 죽으니 그때 나이가 24세였다. 향리에서 포상하여 줄 것을 천거(薦舉)하였다.
- 박씨(朴氏) : 본관은 영해(寧海) 달성군(達城君) 영(穎)의 후손인 호순(鎬淳)의 아내이다. 천성이 순수하고 착하여 제사를 정성으로 받들고 시부모를 효도로 봉양하더니 남편이 죽는날 약을 먹고 죽으니 향리에서 추천(推薦)하여 보고하였다.

219) 원문에는 李明倫으로 되었으나 李倫明으로 바로 고쳤다.

○김씨(金氏) : 본관이 경주(慶州)로 상옥(商玉)의 딸이다. 경주(慶州) 최영학(崔泳學)의 아내로 남편이 죽자 즉시 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유복(遺腹)에게 생각을 돌려 애통함을 참고 구차하게 살아 아들을 낳아 잘 길러서 문호(門戶)를 이루니 사람들이 여사(女士)의 행실이 있다고 하였다.

### 여행(女行)

- 김씨(金氏) : 본관은 경주(慶州) 상촌(桑村) 자수(自粹)의 후손인 교설(敎契)의 딸로 경주(慶州) 이수영(李秀榮)의 아내이다 남편이 정신(精神)을 잃고 인사(人事)를 몰랐으나 여자의 도리(道理)를 다하여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 최씨(崔氏) : 본관은 경주(慶州) 고운(孤雲) 치원(致遠)의 후손인 춘일(春日)의 딸로 예의범절의 모범으로 맑고 착하였다. 남편이 항상 외지로 나돌면서 생업을 돌보지 않아 곤란하였으나 시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고 자녀 교육에 힘쓰더니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다.

### 문과(文科)

- 이천(李蕝) : [명신편(名臣篇)을 보라]
- 김영정(金永貞) : [명신편(名臣篇)을 보라]
- 김타(金沱) : 급제(及第)하여 청주목사(淸州牧使)에 이르렀다.
- 김정(金淨) : [유현편(儒賢篇)을 보라]
- 김여해(金汝諧) : 호는 송당(松堂) 명관편(名官篇)에 있는 윤(潤)의 아들로 효종(孝宗)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을 지냈다.
- 문명구(文命龜) : [명환편(名宦篇)을 보라]
- 김응서(金應瑞) : [명관편(名官篇)을 보라]
- 이근춘(李根春) : 호는 죽하(竹下) 명신편(名臣篇)에 실려있는 천(蕝)의 후손으로 고종(高宗) 때 문과(文科)에 급제 교리(校理)가 되었으나 임오정변(壬午政變) 후 시사(時事)가 날로 잘못 되어감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병이되어 진도(珍島)에서 죽었다. 직각(直閣) 조병집(趙秉輯)이 묘갈(墓碣)을 지었다.

### 사마(司馬)

- 한유문(韓有紋) : 본관은 청주(淸州) 조선(朝鮮) 태종(太宗)과 함께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벼슬이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다.

○김광(金光) : [유일편(遺逸篇)을 보라]

○이언(李彦)<sup>220</sup> : [학행편(學行篇)을 보라]

○김현(金鉉) : 자는 명재(命在) 호는 모암(茅庵) 춘회당(春回堂) 해정(海精)의 후손이다. 영조(英祖)<sup>221</sup> 때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고 예조참의(禮曹參議)를 지냈다. 문장(文章)과 덕행(德行)이 세상에 표준이 되었으며 문집(文集)이 있다.

### 무과(武科)

○최상정(崔尙貞) : 절의편(節義篇)에 있는 최홍재(崔弘載)의 손자이고 사성(司成) 예(沂)의 아들이다. 세조(世祖) 때 무과(武科)에 급제 훈련원(訓練院) 참군(參軍)을 지냈다.

○김제생(金濟生) : 자는 심록(深錄) 호는 농은(農隱) 본관은 김해(金海) 흥무왕(興武王) 유신(庾信)의 후손으로 헌종(憲宗) 때 무과(武科)에 급제 부사용(副司勇)을 거쳐 도사(都事)를 지냈다.

○이위소(李暉沼) : 자는 중휘(中輝) 명환편(名宦篇)에 있는 이종목(李鍾穆)의 아들이다. 철종(哲宗) 때 무과(武科) 급제로 선전관(宣傳官) · 첨사(僉使) · 중군(中軍)을 거쳐 내금위장(內禁衛將)을 지냈다.

○이재명(李載明) : 자는 중백(仲伯), 명관편(名官篇)에 있는 이재철(李載喆)의 아우이다. 철종(哲宗) 때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고종(高宗) 때 청주참사(淸州參事)와 영사(領事)를 지냈다. 편모(偏母)를 효성으로 모시고 지체(志體)로 봉양했으며 형(兄)을 아버지와 다름없이 섬겼다. 벼슬살이 할 때는 사람을 충신(忠信)으로 대하였다.

○김만희(金萬喜) : 자는 경락(慶樂) 본관은 경주(慶州)로 상촌(桑村) 자수(自粹)의 후손이다. 고종(高宗) 때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효도와 우애를 겸비하였고 일가와 인척에게 화목하고 제가(齊家)와 교자(教子)에 각각 그 도리(道理)를 다하였다.

220) 원문에는 李彦禮로 되어있으나 李彦으로 바로 고쳤다.

221) 원문에는 英宗으로 되어있으나 英祖로 바로 잡았다.



## 음사(蔭仕)

- 백학수(白鶴洙) : 자는 치장(致長) 본관은 수원(水原)으로 휴암(休庵)인걸(仁傑)의 후손이다. 벼슬이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과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을 지냈다. 효도와 우애가 순지(純至)하여 사우(士友)들이 존경하였다.
- 황은호(黃殷鎬) : 자는 승광(勝光) 호는 추암(秋庵) 유행편(儒行篇)에 있는 황심현(黃心顯)의 손자이다. 벼슬이 온릉참봉(溫陵參奉)으로 관후(寬厚)하며 덕망(德望)이 있어 향리에서 추대(推戴)를 받았다.
- 김수진(金秀珍) : 자는 중광(中光) 호는 덕촌(德村) 명관편(名官篇)에 있는 김응서(金應瑞)의 손자이다. 천성이 관후(寬厚)하며 양친(兩親)을 효도로 섬기고 자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형제간에 우애있고 종족(宗族)간에 화목하였다. 고종(高宗) 때 강릉참봉(康陵參奉)을 지냈다.
- 최현주(崔鉉珠) : 자는 석보(錫甫) 호는 석당(石塘) 무과편(武科篇)에 있는 최상정(崔尙貞)의 후손으로 궁내부주사(宮內府主事)를 지냈다. 중후(重厚)하여 문(文)을 적게 쓰며 공검(恭儉)하여 언제나 의(義)를 높이었다.
- 김경희(金慶熙) : 자는 건춘(建春) 호는 죽당(竹堂) 수진(秀珍)의 아들이다. 고종(高宗) 때 내부주사(內部主事)와 비서승(秘書丞)을 지냈다. 천성이 지효(至孝)하여 조금도 명(命)을 어기지 않았으며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도(道)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
- 구승조(具承祖) : 자는 경무(景武) 호는 연농(硯農) 수직편(壽職篇)에 실려 있는 구철희(具哲喜)의 아들로 사예박사(司藝博士)이며 문행(文行)이 있다.

## 수직(壽職)

- 양신도(梁信道) : 효자편(孝子篇)에 있는 양천룡(梁天龍)의 후손이다. 영조(英祖) 222) 무신난(戊申亂) 223) 때 의병(義兵) 수백(數百)을 일으켜 청주(淸州) 북문(北門)을 지켰으며 그 일이 소문이 나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222) 원문에는 英宗으로 되어있으나 英祖로 바로 잡았다.

223) 영조 4년(1728) 일어난 李麟佐의 亂을 말함

- 고운청(高雲靑) : 초명(初名)은 복균(復均) 자는 여일(汝一) 호는 신은(新隱) 본관은 제주(濟州) 영곡(靈谷) 득종(得宗)의 후손이다. 정조(正祖) 때 수직(壽職)으로 승정대부(崇政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제수하고 쌀과 고기를 하사(下賜)하는 은전을 받았다. 효행(孝行)도 있다.
- 구철희(具哲喜) : 자는 문명(文明) 호는 학송당(學松堂) 충신편(忠臣篇)에 있는 구항(具恒)의 후손이다. 수(壽)가 98세임으로 고종(高宗) 때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세(三世)를 추증(追贈)하였다. 효우(孝友)를 독실하게 행하여 세상의 추중(推重)을 받았다.

### 증직(贈職)

- 김필(金弼) : 호는 봉암(峯岩) 문과편(文科篇)에 있는 김여해(金汝諧)의 아들이다. 현종(顯宗) 때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증직되었다.
- 김상각(金商珪) : 유일편(遺逸篇)에 있는 김광(金光)의 후손으로 정조(正祖) 때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증직되었다.
- 최익원(崔翼源) : 자는 화경(華景) 절의편(節義篇)에 있는 최청(崔淸)의 후손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증직되었다.
- 최난주(崔蘭柱) : 자는 순서(順瑞) 익원(益源)의 아들이다. 순조(純祖) 때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증직되었다.
- 이희무(李希茂) : 자는 성중(盛仲) 본관은 예안(禮安) 순조(純祖) 때 아들 영인(榮仁)이 귀(貴)하게 됨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에 증직되었다.
- 이원조(李元祚) : 자는 성윤(聖允) 명환편(名宦篇)에 있는 이덕우(李德祐) 후손이다. 고종(高宗) 때 통정대부(通政大夫) 부호군(副護軍)으로 증직되었다.
- 이승규(李承奎) : 초명(初名)은 육(煜) 자는 광일(光日) 원조(元祚)의 아들이다. 고종(高宗) 때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증직되었다.
- 백낙인(白樂仁) : 자는 경수(敬秀) 호는 호은(湖隱) 음사편(蔭仕篇)에 있는 백학수(白鶴洙)의 아들로 운창(芸窓) 박성양(朴性陽)의 문인(門人)이다. 벼슬이 참봉(參奉)에서 참판(參判)으로 증직되었다. 묘갈(墓碣)은 부제학(副提學) 이병관(李炳觀)이 지었다.

## 부록(附錄)

忠北學研究所 刊『100년 전 충북의 옛모습』보은군 편에 韓末의 報恩郡과 懷仁郡의 現況을 살필 수 있는 資料가 있어 그 中에서 “管轄區域現況” “邑과 面·里間의 거리” “面別戶口現況” “寺院의 財産現況” “主要道路現況” “橋梁現況” “쌀·보리·콩의 耕作現況” “堰堤” “堤防” “泐” 등을 발췌하여 『1910年代의 報恩·懷仁郡의 모습』으로 編輯하고 1914年 日帝에 의하여 統合된 이후의 行政地名을 日本人 越智唯七이 編纂한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을 함께 묶어 附錄으로 만들었다.



## 一. 1910년대의 보은·회인의 모습

### 1. 보은군(報恩郡)

#### (1) 면의 관할구역

군수	신태완(申泰完)												
임명 월일	광무(光武)11년(1907)7월10일												
면명	읍내	산내	산외	내북	수한	서니	속리	삼승	마로	탄부	왕래	사각	주성
면장	이길의	김양희	최익창	이병욱	이동제	김대현	유일용	송옥현	박창빈	이상낙	윤양선	송흠준	이승우
주소	읍내	안양	아시	산성	교암	금굴	불목	서원	세중	덕곡	갈평	운현	엽동
읍과의 거리	0리	1리	2리	1리	1리	1리	2리18정	2리18정	4리	2리	3리	2리	3리
임명 월일	1908 융희 2년8월	1908 융희 2년6월	1907 융희 1년 10월	1898 광무 2년6월	1907 융희 1년8월	1908 융희 2년4월	1907 융희 1년8월	1904 광무 8년3월	1906 광무 10년4월	1908 융희 2년1월	1908 융희 2년3월	1907 융희 1년8월	1908 융희 2년10월
동수	14	26	20	31	29	21	28	22	17	18	10	22	19
호수	114	423	749	835	621	410	870	693	581	581	325	591	671
인구	448	1732	3142	3619	1348	1776	3965	2665	2452	2452	1435	2400	2842

#### (2) 읍과 면·리간의 거리

##### 1) 읍내면(邑內面): 14개리

동변(東邊): 0리	서변(西邊): 0리	하장(下獐): 1리
정현(旌峴): 2리	교동(校洞): 3리	사례(士禮): 3리
보촌(洑村): 2리	신촌(新村): 1리	장신(長新): 1리
피촌(皮村): 1리	죽전(竹田): 1리	광암(廣岩): 1리
잠곡(蚕谷): 2리	이평(梨坪): 2리	

##### 2) 산외면(山外面): 20개리

대암(大岩): 10리	하신(下新): 15리	아시(牙時): 15리
상신(上新): 15리	구치(九峙): 20리	문암(門岩): 20리
지동(池洞): 25리	백석(白石): 25리	장갑(長甲): 30리

여동(汝洞): 30리	암동(岩洞): 30리	탁주(濯洲): 25리
동화(東華): 25리	삼부(三富): 30리	원평(院坪): 30리
신흥(新興): 30리	오대(五大): 30리	가고(加古): 30리
어온(於溫): 30리	이식(梨息): 30리	

3) 산내면(山內面): 26개리

감동(甘東): 5리	풍취(風吹): 5리	강산(江山): 5리
구함(舊舍): 10리	신함(新舍): 10리	함림(舍林): 10리
팔유(八柳): 10리	하동(下東): 5리	을지(栗枝): 10리
산직(山直): 5리	상동(上東): 5리	강신(江新): 5리
안양(安良): 10리	종동(鍾東): 10리	강청(江淸): 5리
종서(鍾西): 10리	상와(上瓦): 5리	하와(下瓦): 5리
종남(鍾南): 10리	누저(樓底): 5리	신기(新基): 3리
백인(百忍): 5리	주지(注之): 5리	성족(磬足): 5리
월안(月岸): 5리	중동(中東): 5리	

4) 내북면(內北面): 31개리

소지(小池): 3리	대비(大庇): 5리	내동(內洞): 3리
모정(毛丁): 3리	하초(下草): 5리	중초(中草): 5리
상초(上草): 10리	두평(斗坪): 15리	이원(泥院): 20리
백운(白雲): 25리	서지(西枝): 15리	산성(山城): 10리
구이목(九二目): 10리	송정(松亭): 5리	노치(老峙): 10리
송우(松隅): 10리	용암(龍岩): 5리	상궁(上宮): 20리
중궁(中宮): 20리	하궁(下宮): 20리	을성(栗成): 20리
웅장(熊掌): 20리	탕동(湯洞): 25리	중치(中峙): 25리
천산(天山): 30리	길동(吉洞): 25리	산대(山大): 30리
수남(水南): 5리	내사막(內土幕): 5리	외사막(外土幕): 5리
도촌(道村): 3리		

## 5) 수한면(水汗面): 29개리

운천(云川): 2리	와야(瓦冶): 3리	후평(後坪): 5리
병원(並院): 10리	교암(教岩): 10리	거묵(巨墨): 10리
묘서(畝西): 15리	묘동(畝東): 15리	중리(中里): 20리
거신(巨新): 20리	문치(文峙): 20리	거현(巨峴): 20리
양기(良基): 15리	광촌(光村): 20리	묘북(畝北): 10리
소계(筓溪): 10리	우항(牛項): 10리	말곶(末串): 10리
발산(鉢山): 5리	성리(星里): 10리	질곶(秩串): 20리
질신(秩新): 20리	장선(長善): 20리	평포(坪浦): 15리
마문(馬門): 20리	오정(梧亭): 20리	동정(桐亭): 20리
은로(隱路): 20리	산척(山尺): 20리	

## 6) 서니면(西尼面): 21개리

은사(隱士): 10리	금굴(金掘): 10리	연촌(硯村): 10리
구량(九良): 10리	우진(右陣): 15리	황토(黃土): 15리
사각(思覺): 15리	선곡(仙谷): 15리	선동(仙東): 15리
선서(仙西): 15리	한천(寒泉): 15리	천곡(泉谷): 10리
내수정(內水井): 3리	외수정(外水井): 3리	홍개(洪介): 5리
지산(芝山): 10리	둔덕(屯德): 10리	양지(陽地): 10리
개경(開慶): 10리	송죽(松竹): 15리	두지(斗之): 5리

## 7) 삼승면(三升面): 22개리

달산(達山): 20리	중가(中可): 20리	상가(上可): 20리
송촌(松村): 30리	막은(幕隱): 20리	월촌(越村): 30리
상탄(上彈): 20리	하탄(下彈): 20리	망월(望月): 30리
죽망(竹望): 30리	하가(下可): 20리	각동(角洞): 30리
삼승(三升): 30리	시촌(市村): 30리	중촌(中村): 30리
익동(益洞): 30리	온야(溫夜): 30리	상원암(上元岩): 30리

서원(西原): 30리	이목(梨木): 30리	상석남(上石南): 30리
하석남(下石南): 30리		

8) 마로면(馬老面) : 17개리

쌍암(雙岩): 30리	성지(城池): 30리	대양(大陽): 30리
오천(梧川): 35리	금동(金洞): 35리	점동(店洞): 35리
모동(牟洞): 40리	월남(月南): 35리	세중(世中): 40리
내동(內洞): 40리	세동(細洞): 40리	신기(新基): 40리
갈전(葛田): 45리	증산(甑山): 45리	변둔(下屯): 45리
한중(閑中): 50리	백록(白鹿): 50리	

9) 탄부면(炭釜面) : 18개리

경상(京祥): 20리	장암(壯岩): 20리	석화(石花): 20리
지덕(至德): 20리	상장(上長): 20리	하장(下長): 20리
상벽(上碧): 20리	하벽(下碧): 20리	상관(上官): 25리
중관(中官): 25리	하관(下官): 25리	신당(新塘): 20리
구암(九岩): 25리	덕동(德洞): 20리	기대(箕大): 30리
하소(下所): 30리	중소(中所): 30리	상소(上所): 30리

10) 왕래면(旺來面) : 10개리

임한(林閑): 20리	방하곡(方下谷): 20리	갈벌(葛伐): 30리
수문(水門): 20리	사여(士余): 15리	관기(官基): 15리
수영(水永): 30리	송현(松峴): 30리	적암(赤岩): 40리
임곡(壬谷): 40리		

11) 속리면(俗離面) : 28개리

오심(悟心): 10리	오봉(五峰): 10리	오룡(五龍): 10리
장재(壯才): 10리	사창(土倉): 10리	황곡(荒谷): 20리



애평(艾坪): 20리	서평(鋤坪): 20리	하개(下開): 20리
장내(帳內): 20리	봉비(鳳飛): 20리	불목(佛目): 20리
서원(書院): 25리	안돌(岸堦): 30리	삼가(三街): 30리
구병(九屏): 30리	대목(大木): 30리	묘막(墓幕): 40리
사랑(士良): 20리	갈목(葛木): 20리	상판(上板): 20리
신기(新基): 30리	사내(舍乃): 30리	하판(下板): 20리
중판(中板): 20리	궁점(宮店): 20리	북암(北岩): 20리
백현(栢峴): 20리		

## 12) 사각면(思角面) : 22개리

용촌(龍村): 3리	용주(龍舟): 3리	월송(月松): 10리
고승(高升): 10리	사직(社稷): 15리	운현(雲峴): 15리
모곡(茅谷): 15리	매화(梅花): 15리	나부(羅浮): 15리
상평(上坪): 15리	신동(新洞) : 10리	어암(漁岩): 10리
만지(晩旨): 5리	성저(城底): 5리	성신(城新): 5리
성주(城舟): 5리	탁동(濯洞): 5리	관동(官洞): 10리
구인(求仁): 10리	길상(吉祥): 10리	대야(大也): 10리
하평(下坪): 15리		

## 13) 주성면(朱城面): 19개리

사평(沙坪): 40리	봉황(鳳凰): 40리	도엽(桃葉): 40리
성암(聖岩): 40리	백동(栢洞): 40리	천곡(泉谷): 30리
창상(倉上): 40리	아곡(峨谷): 30리	성치(星峙): 40리
대안(大岸): 30리	창리(倉里): 40리	신기(新基): 30리
엽동(葉洞): 30리	평동(平洞): 40리	묵동(墨洞): 35리
수평(水坪): 30리	염둔(塩屯): 35리	내저(內底): 35리
외저(外底): 35리		

(3) 각면별 호구 현황

면명		산외	산내	내북	수한	서니	삼승	마로	탄부	왕래	속리	사각	주성	읍내	계	
농업	호수(戶)	730	410	811	601	393	678	577	565	318	848	574	662	68	7,235	
	인구 (名)	남자	1,630	874	1,938	1,306	891	1,383	1,385	1,271	759	2,096	1,238	1,446	142	16,362
		여자	1,421	806	1,583	1,209	818	1,227	1,164	1,120	645	1,777	1,099	1,353	124	14,346
		계	3,051	1,680	3,521	2,517	1,710	2,610	2,549	2,391	1,404	3,873	2,337	2,799	266	30,708
상업	호수(戶)	19	13	14	20	17	15	4	16	7	22	17	9	34	207	
	인구 (名)	남자	48	25	47	40	34	28	13	28	14	47	31	23	69	447
		여자	43	27	51	42	32	27	9	33	17	45	32	20	68	446
		계	91	52	98	82	66	55	22	61	31	92	63	43	137	893
기타	호수(戶)													3	3	
	인구 (名)	남자													24	24
		여자													21	21
		계													45	45
합계	호수(戶)	749	423	835	621	410	693	581	581	325	870	591	671	114	7,464	
	인구 (名)	남자	1,678	899	1,985	1,348	926	1,411	1,398	1,299	773	2,143	1,269	1,469	235	16,833
		여자	1,464	833	1,634	1,251	850	1,254	1,173	1,153	662	1,822	1,131	1,373	213	14,813
		계	3,142	1,732	3,619	2,599	1,776	2,665	2,571	2,452	1,435	3,965	2,400	2,842	448	31,646

(4) 보은군 관아공해(報恩郡官衙公廢)

원래 명칭 (原廳名)	칸수 (間)	현재상태 (現狀態)	현재용도 (現用廳)	비고
객사정전(客舍正殿)	6	완전함	궐패봉안(關牌奉安)	
동대청(東大廳)	8	"	완명학교(完明學校)	1909년 12월 25일 대어
서대청(西大廳)	8	반쯤 기울어짐	완명학교강습소(完明學校講習所)	
향교대성전(鄕校大成殿)	10	완전함	문묘(文廟)	1908년 신축
향교명륜당(鄕校明倫堂)	10	"	재임숙직소(齎任宿直所)	
동제방(東齊房)	3	반쯤 기울어짐		1907년 9월 -被燒半頽
서제방(西齊房)	3	"		
군아(郡衙)	21	완전함	헌병분견소(憲兵分遣所)	1909년 2월 29일 入處
양명학교(養明學校)	21	"	수비대(守備隊)	1909년 6월 13일 入
양명학교 부속익곽 (養明學校 部屬翼廓)	6	반쯤 기울어짐	군수관사(郡守宿舍)	
서기청(書記廳)	15	약간 기울어짐	우편취급소(郵便取扱所)	1906년 11월 1일 入
"	4	반쯤 기울어짐	헌병분견소(憲兵分遣所)	1909년 6월 1일 入
"	5	완전함	경찰주재소(警察駐在所)	1906년 11월 1일 入
장청(將廳)	5	"	"	
향청(鄕廳)	4	"	수비대(守備隊)	1909년 6월 13일 入
관노청(官奴廳)	4	반쯤 기울어짐	군사무실(郡事務室)	
사령청(使令廳)	12	완전함	사용방(使備房)	12칸 중 2칸은 巡查駐在所에서 使用

## (5) 보은 지방 금융조합

- 설립년월일 : 1909년 8월 30일
- 조합사무구역 : 보은·회인·청산
- 조합장 이름 : 최연수(崔練洙)
- 이사장 이름 : 산기수청(山崎秀淸)
- 업무 범위 : 농업자금대부, 기타 일반지방금융조합업무
- 자본금 : 10,000원

## (6) 보은·회인군 지역소재 사립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설립자	교장명	수업 년한	교원수	학생수	경 비 예 산	인 가 년월일
광명학교 (光明學校)	보은군 산내면 백인리	김기찬 (金基瓚)	김기찬 (金基瓚)	4년	1	34	375,600	1909년 6월 16일
광흥신숙 (廣興新塾)	산외면 남악	김규한 (金奎漢)	김규한 (金奎漢)	4	3	34	294,000	1909년 6월 16일
완명학교 (完明學校)	보은군 읍내	서병승 (徐丙昇)	서병승 (徐丙昇)	4	2	42	400,000	1909년 6월 16일
진명학교 (進明學校)	회인군 읍내면 교동	우정순 (禹廷淳)	정태로 (鄭泰魯)	4	1	30	400,000	1909년 5월 26일

## (7) 보은 사원(寺院)의 현황

사찰명	대법주사(大法住寺)		복천암(福泉庵)	
소재지명	속리면 속리산		대법주사경내	
승려수	승려 32명 비구니 7명		승려 4명	
재산	토지	경내 짚 265두락 田 110두 5 승락 경외 짚 198두 5승락 田 15두락	짚 23두락 田 3두락	
	건물	대웅보전(大雄寶殿) 28칸 오회팔근전(五會八根殿) 36칸 능인전(能仁殿) 6칸 영각(影閣) 6 대로전(大爐殿) 16칸 사리각로전(舍利閣廬殿) 9칸 극락요(極樂寮) 22칸 남별당(南別堂) 8칸 후당(後堂) 4칸 원통보전(圓通寶殿) 9칸 천왕문(天王門) 10칸, 칠성각(七星閣) 2칸	요사법당(寮舍法堂) 23칸 영산전(靈山殿) 6칸 대웅전(大雄殿) 93칸 산신각(山神閣) 1칸	

		선희궁원실(宣喜宮願室) 9칸 삼문(三門) 3칸, 염불당(念佛堂) 28칸 우화루(雨花樓) 10칸, 별관(別館) 16칸 후면루(後面樓) 12칸 고방(庫房) 14칸 수정암(水晶庵) 10칸	
	기타	대송 500주 중송 500주 소송 알수없음 큰상수리나무 200주 중간상수리나무 200주 작은상수리나무 및 새로운 나무 알수없음 나한상 17 금불 19 분불(粉佛) 19 천왕존상 4 대종 1 중종2 금고2 대고1 불기30 축대10 와룡축대1 요령1 향로10 다기10 대부1 중부1 식정4 유종1 유주발10 유대접10 유접시50 유화로1 시자50 대철확1 대석조1 대석옹1 연리석준1 석사자광명태1 석광명태2 영묘조어필금자병풍8 증송천문도병풍1 불전금탁의3 불전홍사침장5	금불4 나한16 소송1 불기3 향로1 다기1 축대1 유분1 식정2 시자5

사찰명	중사자암(中獅子庵)		상환암(上歡庵)
소재지명	상동		상동
승려수	승려 2		승려 1
재산	토지	畓 60두락 田 20두락	畓 15두락
	건물	요사법당(寮舍法堂) 18칸 원종대왕어실각(元宗大王御室閣) 6칸 삼문(三門) 3칸 산신각(山神閣) 1칸 후료사(後寮舍) 2칸	요사법당(寮舍法堂) 10칸 칠성각(七星閣) 1칸 산신각(山神閣) 1칸
	기타	금불3 중종1 불기5 향로1 다기1 축대1 식정2 유다기3 유정1 시자5 어필병풍1 침장1 단의1	금불1 소종1 불기3 다기1 시자5

사찰명	상고암(上庫庵)		여적암(汝寂庵)
소재지명	상동		상동
승려수	승려 1		승려 1
재산	토지	畓 10두락	畓 15두락
	건물	요사법당(寮舍法堂) 6칸 산신각(山神閣) 1칸	요사법당(寮舍法堂) 8칸 법당(法堂) 3칸 행랑(行廊) 2칸
	기타	금불1 소종1 향로1 축대1 유증1 다기1 식정2 시자5	금불1 소종 1 향로1 다기 1 축대1 요령1 식정2 광쇠1 시자5

## (8) 주요도로 및 거리

〈보은 지역의 주요도로 현황〉

도로명		거리
출발지	도착지	
본읍	청주읍	3리 00정
본읍 상지구티(上至九峙)	청주군 미원	2리 00정
본읍 상지괴산군(上至槐山郡)	경상북도 상주군	3리 00정
본읍 상지왕래면(上至旺來面)	경상북도 상주군 화령	3리 00정
본읍	속리산	3리 00정
본읍	청산읍	3리 00정
본읍	옥천읍	2리 00정
본읍 차령(車嶺)	회인읍	1리 18정
본읍	회인읍	2리 10정
합계		22리 18정

## (9) 보은지역의 교량 현황

교량소재지		교량길이	교량 소재지		교량길이
읍내면	남교	240	삼승면	대천	222
	동교	126	마로면	쌍암	240
	서신촌	48		대양	180
	서피촌	54		행동	180
산외면	일암	78	탄부면	월남	180
	효죽평	78		심대	180
	은점	48	왕래면	수문	90
	삼부	78		관기	60
	오대리	102		속리면	장내
원평	102	북두연	60		
산내면	강산리	60		서원	60
내북면	길동	180		석장	48
	천산리	180		안돌	48
	소지리	36		봉비	42
	모정리	36		속리사	60
	사가리	36	사각면	하관	60
	두평리	42		용천	150
수한면	오리정	36	주성면	사평	150
	병원	36		도엽	180
	소동	36			
	교암	42			
	산척리	42			
	질꽃리	36			
	평포리	36			
합계			44		4,116

(10) 중요 작물 생산현황

〈보은지역 쌀 경작 현황〉

면명	경작면적(坪)	수확량(石. 斗)	면명	경작면적(坪)	수확량(石. 斗)
산외면	189,500	379.00	탄부면	337,000	674.00
산내면	297,000	594.00	왕래면	159,000	319.08
내북면	315,000	630.00	속리면	359,500	674.00
수한면	312,000	624.00	사각면	395,000	790.00
서니면	139,500	279.00	주성면	156,000	312.00
삼승면	353,000	706.00	읍내면	9,000	18.00
마로면	154,900	309.16	합계	3,177,100	6,379.04

〈보은지역 보리 경작 현황〉

면명	대맥(大麥:쌀보리)		소맥(小麥:밀보리)	
	경지면적(坪)	수확량(石)	경지면적(坪)	수확량(石)
읍내면	121,800	187	32,147	40
산외면	391,020	599	72,884	124
산내면	236,600	189	82,600	45
내북면	383,440	637	139,020	234
수한면	642,460	530	333,540	137
서니면	220,360	252	61,320	55
삼승면	439,600	1,152	180,460	188
마로면	207,760	582	39,060	75
탄부면	249,200	487	171,360	196
왕래면	73,640	290	21,560	24
속리면	360,920	862	140,840	249
사각면	348,810	318	1301,502	101
주성면	176,890	520	54,110	131
합계	3,852,500	6,605	1,460,400	1,599

## 〈보은지역의 콩 경작 현황〉

면명	경지면적(坪)	수확량(石, 斗)
산외면	85,000	85.00
산내면	62,000	62.00
내북면	110,000	110.00
수한면	155,000	155.00
서니면	69,000	69.00
삼승면	78,000	78.00
마로면	85,000	85.00
탄부면	125,000	123.00
왕래면	86,000	86.00
속리면	120,000	120.00
사각면	95,000	95.00
주성면	97,000	97.00
읍내면	5,000	5.00
합계	1,172,000	1,170.00

## (11) 관개

## 〈보은지역의 언제 현황〉

면명	리명	제언명	면적	관개두락수	기원
서니면	둔덕리	둔덕제언	8,532	417	
삼승면	신둔	신둔제언	302	185	
	달산리	달산제언	10,147	175	
	망월리	망월제언	3,721	63	
속리면	애평리	애평제언	7,330	56	
사각면	평각리	평각제언	1,298	75	
	월송리	월송제언	1,724	63	
합계		7	33,054	1,034	

## 〈보은 지역의 제방 현황〉

하천소재지	하천명	제방연장	수축방법	기원	
읍내면	서변리	서변천	2,508	공동	開國五百六十二年
	신촌리	서변천	1,188	"	"
	죽전리	남교천	1,564	"	"
	피촌리	광암천	442	"	"
합계	4	5,702			

〈보은 지역의 보 현황〉

면명	리명	보명	연장	관개두락수	수축방법	기원
수한면	교암리	후평보(後坪洑)	168	288	공동	每一斗落租 上田金 三錢五厘 中田金 三錢 下田金 二錢五厘
읍내면	광암리	은사평보(隱士坪洑)	320	741	"	全 上田米三畝 下田 二畝
	이평리	종가보(種可洑)	311	191	"	全 金 十錢
주성면	외저리	사평보(沙坪洑)	240	155	"	
산외면	대암리	대마보(大馬洑)	192	718	"	全 上田米一畝
내북면	산성리	동한중보(東汗中洑)	104	1,091	"	全
	송정리	동한신보(東汗新洑)	108	783	"	全
산내면	강산리	장몽평보(長夢坪洑)	158	1,056	"	全
마로면	쌍암리	대양보(大陽洑)	725	314	"	七斗落以上作農者 每一斗落米五畝
속리면	장내리	장사평보(長沙坪洑)	92	336	"	
산외면	신흥리	오대보(五大洑)	160	85	"	
	장갑리	검암보(鈞岩洑)	152	104	"	
서니면	구량리	가습보(可習洑)	2,500	560	"	每一斗落 上田米四畝 中田米三畝 下田米二畝
속리면	애평리	원앙보(元央洑)	848	699	"	每一斗落 租米二畝
서니면	은사리	고승보(高升洑)	258	2,013	"	全 上田米二畝 下田米一畝
내북면	길동리	탕동보(湯洞洑)	480	98	"	全
	산대리	길동보(吉洞洑)	434	94	"	全
탄부면	장암리	석화보(石花洑)	1,600	714	"	每一斗落租 上田米二畝 下田米一畝
합계		18	8,850	10,040		
개인경영보		없음				



## 2. 회인군(懷仁郡)

### (1) 면의 관할구역

군수	권병필(權丙弼)					
	융희(隆熙) 3년(1909) 2월 26일					
면명	읍내	동면	남면	서면	북면	강외
면장	박기남	우석원	심계관	한성근	신서우	심주성
주소	눌곡	신문	판장	거교	지경	산수
읍과의 거리	7정	1리	2리	1리 18정	3리	3리
입명 년월일	1904 광무8년3월	1907 융희1년9월	1904 광무8년10월	1904 광무8년3월	1904 광무8년3월	1907 융희1년9월
동수	18	21	17	16	4	5
호수	608	692	447	644	206	139
인구	2,480	2,425	1,750	2,288	807	595

### (2) 읍과 면 · 리간의 거리

#### 1) 읍내면(邑內面) : 18개리

사동(社洞): 1리	마근(馬斤): 1리	평창(坪昌): 1리
눌곡(訥谷): 3리	죽암(竹岩): 5리	자송(紫松): 5리
황평(黃坪): 5리	건천(乾川): 10리	애치(艾峙): 10리
종산(鍾山): 3리	지산(池山): 3리	교동(校洞): 2리
보고곡(甫古谷): 7리	입석(立石): 5리	고초천(高草川): 10리
신촌(新村): 3리	개동(介洞): 3리	용상(龍上): 5리

#### 2) 동면(東面): 21개리

오동(梧桐): 10리	신문(新門): 10리	계암(桂岩): 10리
능암(能岩): 15리	초개동(草介洞): 15리	법주(法注): 20리
염둔(塩屯): 20리	수적(壽積): 20리	용흥(龍興): 20리
갈치(葛峙): 10리	세촌(世村): 15리	궁평(宮坪): 15리
신평(新坪): 15리	울성(栗城): 15리	산척(山尺): 15리
차령(車嶺): 15리	후율(後栗): 15리	동정(東井): 15리
노성(老城): 20리	지경(地境): 30리	언목(彦目): 30리

3) 서면(西面): 16개리

가정자(佳亭子): 10리	명곡(鳴谷): 10리	용두(龍頭): 10리
거교(巨橋): 15리	남대문(南大門): 20리	거구(巨九): 20리
후곡(後谷): 20리	신읍(新邑): 20리	양중지(陽中旨): 20리
어성(漁城): 35리	만지(晩旨): 15리	염치(塩峙): 20리
묘암(妙岩): 15리	동막(東幕): 20리	마구(馬九): 15리
마장(馬場): 15리		

4) 남면(南面): 17개리

신대(新垓): 10리	하추(下楸): 10리	상추(上楸): 10리
금곡(金谷): 15리	지승(地承): 15리	조곡(鳥谷): 15리
사담(沙潭): 15리	판장(板藏): 15리	탕산(宕山): 18리
풍계(楓溪): 20리	영승(永承): 20리	용호(龍湖): 20리
분저곡(分諸谷): 20리	사탄(沙灘): 35리	송포(松浦): 35리
검탄(儉灘): 35리	서당평(書堂坪): 30리	

5) 강외면(江外面): 5개리

사음(舍音): 30리	매산(梅山): 30리	산수(山水): 30리
행정(杏亭): 30리	법수(法水): 30리	

6) 북면(北面): 4개리

계산(桂山): 20리	수곡(首谷): 20리	등곡(登谷): 35리
지경(地境): 30리		

## (3) 각면별 호구 현황

면별		읍내	동면	남면	서면	북면	강외	합계	
농업	호수(戶)	582	684	435	613	200	134	2,648	
	인구 (名)	남자	1,313	1,346	939	1,213	443	313	5,567
		여자	1,112	1,056	781	960	351	272	4,532
		계	2,425	2,402	1,720	2,173	794	585	10,099
상업	호수(戶)	23	7	11	28	5	3	77	
	인구 (名)	남자	28	11	13	51	6	3	13
		여자	21	9	14	49	4	2	99
		계	49	20	27	100	10	5	122
기타	호수(戶)	3	1	1	3	1	2	11	
	인구 (名)	남자	4	2	1	8	2	3	20
		여자	2	1	2	7	1	2	15
		계	6	3	3	15	3	5	35
합계	호수(戶)	608	692	447	644	206	139	2,736	
	인구 (名)	남자	1,345	1,359	952	1,272	451	319	5,699
		여자	1,135	1,066	797	1,016	356	276	4,646
		계	2,480	2,425	1,749	2,288	807	595	10,345

## (4) 회인군 관아공해 (懷仁郡官衙公廨)

원래명칭 (原廳名)	칸수 (間)	현재상태 (現狀態)	현재용도 (現用廳)
동헌(東軒)	9	반쯤기울어짐	군사무실
관노청(官奴廳)	3	새로이 수리	雇員室
사령청(使令廳)	5	완전함	留眞間
형리청(刑吏廳)	6	"	순사주재소
길청(吉廳)	10	"	헌병분견소
순교청(巡校廳)	8	"	"
동청직실(東廳直室)	3	"	헌병보조원실
고인실(雇人室)	3	반쯤기울어짐	雇人室

## (5) 회인지역 사원의 현황

사찰 명		마전사(麻田寺)
소재지 명		남면 조곡리(南面 鳥谷里)
승려수		-
재산	토지	-
	건물	-
	기타	비어있음(空虛)

(6) 회인지역의 주요도로 현황

도로명		거리
출발지	도착지	
본읍	문의읍	1리 18정
본읍	청주읍	3리 00정
본읍-점촌	보은읍	2리 00정
"	"	1리 18정
"	옥천읍	3리 00정
"	충청남도 회덕군	3리 00정
합계		14리 00정

(7) 회인지역의 교량 현황

교량 소재지		교량길이	교량 소재지		교량길이
읍내면	평창리	120	서면	용두리	130
	사동	75		거교리	100
	동수외	100		후곡리	100
	눌곡리	85		양중지리	135
남면	신대리	120			
	조곡리	135			
	사담리	100			
합계			11		1,200

(8) 도선(渡船)

소재지	장	폭원
풍강(楓江) 남면 사탄리(沙灘里)	14.0	8.0
합계	1	

(9) 회인지역의 쌀 경작 현황

면명	경작면적(坪)	수확량(石. 斗)	면명	경작면적(坪)	수확량(石. 斗)
읍내면	83,300	250.00	강외면	26,700	80.00
동면	33,300	100.00	북면	83,300	250.00
서면	66,600	200.00			
남면	50,000	150.00	합계	343,200	1030.00

## (10) 회인지역의 보리 경작 현황

면명	대맥(大麥:쌀보리)		소맥(小麥:밀보리)	
	경지면적(坪)	수확량(石)	경지면적(坪)	수확량(石)
읍내면	180,000	600	24,000	60
동면	210,000	700	22,000	55
서면	135,000	450	18,000	45
남면	135,000	450	16,000	40
강외면	51,000	170	6,000	15
북면	39,000	130	4,000	10
합계	750,000	2,500	90,000	225

## (11) 회인지역의 콩 경작 현황

면명	경작면적(坪)	수확량(石. 斗)
읍내면	50,000	75.00
동면	100,000	150.00
서면	66,600	100.00
남면	50,000	75.00
강외면	33,300	50.00
북면	33,300	50.00
합계	333,200	500.00

## (12) 관개

## 〈회인지역의 언제 현황〉

면명	리명	제언명	면적	관개두락수	기원
읍내면	신촌리	신촌지	100	13	수 십년전에 땅주인들이 축조
합계		1	100	13	

〈회인지역의 제방 현황〉

하천소재지		하천명	제방연장	수축방법	기원
읍내면	신촌리	신촌천(新村川)	150	단독	
	늘곡리	율소천(栗召川)	273	"	
	"	오가천(五家川)	330	"	
남면	신대리	마로천(馬路川)	130	공동	
	"	용두천(龍頭川)	320	단독	
	사담리	사담천(沙潭川)	120	"	
서면	용두리	독갑천(獨甲川)	100	"	
	거교리	청용천(靑龍川)	80	"	
	"	거교천(巨橋川)	60	"	
합계		9개소	1,563		

〈회인지역의 보 현황〉

면명	리명	보명	연장	관개두락수	수축방법	수세
읍내면	신촌리	신촌보(新村洑)	110	80	공동	
	사동리	상수보(上藪洑)	80	60	"	
	평리	남수보(南藪洑)	120	40	"	
	"	운교보(雲郊洑)	85	60		
남면	신대리	신대보(新垆洑)	150	80	"	
	판장리	판장보(板藏洑)	125	30	"	
	탕산리	탕산보(宕山洑)	130	60	"	
서면	용두리	용두보(龍頭洑)	125	60	"	
	거교리	거교보(巨橋洑)	105	50	"	
북면	지경동	태봉보(胎峰洑)	190	320	"	
합계		10	1,220	840		

(13) 회인지역의 경작선(耕作船) 현황

소재지	장	폭원
서당평진(書堂坪津)	13.0	7.0
어성진(漁城津)	13.0	7.0
합계	2	

## 二. 1914년 통폐합된 이후의 행정지명

여기에 실린 보은군 면·리·동 명칭은 1914년 일제에 의하여 행정구역 통폐합이 실시된 후 그들에 의하여 지어진 것으로 1914년 5월 일본인 관서대학교우 월지유칠(越智唯七)이 편찬한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서 전제한 것이다. 앞의 1910년대의 報恩·懷仁의 모습 편의 「읍과 면·리간의 거리」에 실린 報恩郡과 懷仁郡의 行政區域의 名稱과 比較해 보면 行政區域의 變更과 명칭 變更의 實相을 알 수 있다.

### 報 恩 郡

(面數: 10, 里洞數: 178) 邑內面 三山里

#### 1) 읍내면(邑內面): 22개리

▲삼산리 (三山里)	보은군 報恩郡 읍내면 邑內面	동변리 서변리 하장리 東邊里·西邊里·下獐里
교사리 (校士里)	同	교동 사례리 정현리 보촌리 校洞·士禮里·旌峴里·湫村里
이평리 (梨坪里)	同	이평리 梨坪里
죽전리 (竹田里)	同	죽전리 잠곡리 광암리 竹田里·蠶谷里·廣岩里
장신리 (長新里)	同	장신리 신촌 피촌 운천리 일부 長新里·新村·皮村·수한면水汗面·云川里·一部
종곡리 (鍾谷里)	同 산내면 山內面	종동리 중서리 종남리 월안리 鍾東里·鍾西里·鍾南里·月岸里
학림리 (鶴林里)	同	내함리 외함 울지 대암리 內舍里·外舍·栗枝·산외면山外面·大岩里
풍취리 (風吹里)	同	풍취리 주지리 산직리 신기리 風吹里·注之里·山直里·新基里
신함리 (新舍里)	同	신함리 구함리 감동리 新舍里·舊舍里·甘東里

중동리 (中東里)	同	상동리 중동리 하동리 上東里·中東里·下東里
강산리 (江山里)	同	강산리 江山里
강신리 (江新里)	同	외평리 안양리 강신리 일부 瓦坪里·安良里·江新里·一部
성족리 (聲足里)	同	성족리 백인리 강신리 일부 聲足里·百忍里·江新里·一部
누저리 (樓底里)	보은군 報恩郡 산내면 山內面	누저리 강청리 樓底里·江淸里
수정리 (水井里)	同 서니면 西尼面	내수정리 외수정리 內水井里·外水井里
금굴리 (金掘里)	同	금굴리 은사리 구량리 金掘里·隱士里·九良里
지산리 (芝山里)	同	지산리 천곡 두지 홍개 문경 芝山里·泉谷·斗之·洪介·聞慶
대야리 (大也里)	同 사각면 思角面	대야리 大也里
성주리 (城舟里)	同	성주리 성저리 城舟里·城底里
어암리 (漁岩里)	同	어암리 성신리 탁동 만지리 漁岩里·城新里·濯洞·晚旨里
월송리 (月松里)	同	월송리 용천 용주 고승리 일부 月松里·龍川·龍舟·高升里一部
길상리 (吉祥里)	同	길상리 관동 吉祥里·官洞

2) 산외면(山外面):18개리 :

대원리 (大元里)	보은군 報恩郡 산외면 山外面	여동 汝洞
신정리 (新正里)	同	암동 巖洞
장갑리 (長甲里)	同	장갑리 일부 長甲里 一部
백석리 (白石里)	同	백석리 장갑리 일부 白石里·長甲里 一部
문암리 (文岩里)	同	문암리 文岩里



▲구티리 (九峙里)	同	구티리 九峙里
아시리 (牙峙里)	同	아시리 牙峙里
봉계리 (鳳谿里)	同	상신리 중신리 上新里·中新里
탁주리 (濯洲里)	同	탁주리 지동 동화리 일부 濯洲里·池洞·東華里 一部
동화리 (東華里)	同	동화리 삼부평리 각일부 東華里·三芙坪里 各一部
원평리 (院坪里)	同	원평리 삼부평리 일부 院坪里·三芙坪里 一部
오대리 (五大里)	同	오대리 신흥리 五大里·新興里
어온리 (於溫里)	同	어온리 가고리 일부 於溫里·加古里 一部
가고리 (加古里)	同	가고리 일부 加古里 一部
이식리 (梨息里)	同	이식리 천산리 梨息里·내북면內北面·天山里
산대리 (山大里)	내북면 內北面	산대리 山大里
중티리 (中峙里)	同	중티리 中峙里
길탕리 (吉湯里)	同	길동 탕동 吉洞·湯洞

## 3) 내북면 (內北面) : 21개리

서지리 (西枝里)	보은군 報恩郡 내북면 內北面	서지리 西枝里
두평리 (斗坪里)	同	두평리 웅장리 斗坪里·熊掌里
▲중초리 中草里	同	상초리 중초리 하초리 上草里·中草里·下草里
노티리 老峙里	同	노티리 老峙里
산성리 山城里	同	산성리 구이목리 송정리 山城里·九二目里·松亭里

장속리 獐俗里	同	모정리 내동 소지동 毛丁里·內洞·小池洞
봉평리 鳳坪里	同	내사막리 외사막리 도촌리 內土幕里·外土幕里·道村里
용암리 龍岩里	同	용암리 상용리 대비리 수남리 龍岩里·上龍里·大庇里·水南里
이원리 泥院里	同	이원리 백운동 泥院里·白雲洞
상궁리 上弓里	同	상궁리 중궁리 일부 上宮里·中宮里 一部
하궁리 下弓里	同	하궁리 울성리 회인군 懷仁郡 신평리 울성리 일부 下宮里·栗城里· 동면 東面 新坪里·栗城里 一部
성터리 星峙里	보은군 報恩郡 주성면 朱城面	성터리 星峙里
대안리 大安里	同	대안리 엽동 일부 大安里·葉洞 一部
창리 倉里	同	천곡리 창리 엽동 일부 泉谷里·倉里·葉洞 一部
적음리 積蔭里	同	내저리 외저리 內底里·外底里
성암리 聖岩里	同	성암리 백동 聖岩里·栢洞
봉황리 鳳凰里	同	사평리 도엽리 봉황리 일부 沙坪里·桃葉里·鳳凰里 一部
동산리 東山里	同	창상리 신기리 일부 倉上里·新基里 一部
화전리 花田里	同	묵동 수평리 염둔리 회인군 懷仁郡 염둔리 각 일부 墨洞·水坪里·塩屯里 동면 東面 塩屯里 各 一部
도원리 桃源里	同	평동 신기리 일부 坪洞·新基里 一部
아곡리 峨谷里	同	아곡리 회인군 懷仁郡 용흥동 일부 峨谷里 동면 東面·龍興洞 一部

4) 속리면(俗離面) : 19개리

백현리 (栢峴離)	보은군 報恩郡 속리면 俗離面	백현리 栢峴里	장갑리 일부 長甲里 一部
북암리 (北岩里)	同	북암리 北岩里	



▲탄금리 彈琴里	보은군 報恩郡 삼승면 三升面	탄금리 막은리 서원리 각 일부 彈琴里·幕隱里·西原里 各 一部
달산리 達山里	同	하가리 달산리 일부 下可里·達山里 一部
상가리 上可里	同	상가리 중가리 막은리 일부 上可里·中可里·幕隱里 一部
원남리 元南里	同	송촌 중촌 월촌 상원암리 익동 온야리 시촌 옥천군沃川郡 옥산리 각 일부 松村·中村·越村·上元岩里·益洞·溫夜里·市村 안남면安南面玉山里 各 一部
서원리 西原里	同	이동 서원리 황토리 각 일부 梨洞·西原里·서니면 西尼面 黃土里 各 一部
둔덕리 屯德里	서니면西尼面	둔덕리 양지리 한천리 屯德里·陽池里·寒泉里
선곡리 仙谷里	同	선곡리 선동리 선서리 사각리 황토리 일부 仙谷里·仙東里·仙西里·思覺里·黃土里 一部
송죽리 松竹里	同	송죽리 황토리 일부 松竹里·黃土里 一部
우진리 右陣里	同	우진리 황토리 달산리 각 일부 右陣里·黃土里·삼승면 三升面 達山里 各 一部

6) 탄부면 (炭釜面): 14개리

장암리 壯岩里	보은군 報恩郡 탄부면 炭釜面	장암리 경상리 壯岩里·景祥里
덕동리 德洞里	同	덕동 석화리 德洞·石花里
벽지리 碧池里	同	벽지리 碧池里
하장리 下長里	同	하장리 下長里
구암리 九岩里	同	중관리 하관리 구암리 일부 中官里·下官里·九岩里 一部
▲상장리 上長里	同	상장리 지덕리 에평리 上長里·至德里 속리면 俗離面 艾坪里
대양리 大陽里	마로면 馬老面	대양리 大陽里
성지리 城池里	同	성지리 쌍암리 城池里·雙岩里
구인리 求仁里	사각면 思角面	구인리 일부 求仁里 一部

평각리 坪角里	同	신동 평각리 일부 新洞·坪角里 一部
고승리 高升里	同	고승리 일부 高升里 一部
사직리 士直里	同	사직리 평각리 신동 각 일부 士直里·坪角里·新洞 各 一部
매화리 梅花里	보은군 報恩郡 사각면 思角面	매화리 나부리 운현리 梅花里·羅浮里·云峴里
임한리 林閑里	왕래면 旺來面	임한리 林閑里

## 7) 마로면(馬老面) : 14개리

한중리 閑中里	보은군 報恩郡 마로면 馬老面	한중리 백록동 閑中里·白鹿洞
변둔리 卞屯里	同	변둔리 세동 卞屯里·細洞
갈전리 葛田里	同	갈전리 증산리 葛田里·甌山里
세중리 世中里	同	세중리 내동 世中里·內洞
오천리 梧川里	同	오천리 금동 梧川里·金洞
원정리 猿汀里	同	모동 점동 월남리 牟洞·店洞·月南里
적암리 赤岩里	보은군 報恩郡 왕래면 旺來面	적암리 赤岩里
임곡리 壬谷里	同	임곡리 갈평리 일부 壬谷里·葛坪里 一部
갈평리 葛坪里	同	갈평리 일부 葛坪里 一部
송현리 松峴里	同	송현리 수영리 松峴里·水永里
수문리 水門里	同	수문리 방하리 불목리 구암리 일부 水門里·方下里 佛目里 탄부면炭釜面 九岩里 一部
관기리 官基里	同	관기리 사여리 구암리 일부 官基里·士余里 탄부면 炭釜面 九岩里 一部

▲기대리 箕大里	탄부면 炭釜面	기대리 箕大里
所余里 소여리	同	상소리 중소리 하소리 上所里·中所里·下所里

8) 수한면(水汗面) : 14개리

후평리 後坪里	보은군 報恩郡 수한면 水汗面	후평리 와야리 운천리 일부 後坪里·瓦冶里·云川里 一部	
발산리 鉢山里	同	발산리 운천리 일부 鉢山里·云川里 一部	
▲교암리 教岩里	同	교암리 거목동 教岩里·巨墨洞	
병원리 並院里	同	병원리 並院里	
성리 星里	同	성리 星里	
소계리 小溪里	同	소계리 말곶리 묘북리 소界里·末串里·畝北里	
묘서리 畝西里	同	묘서리 묘동리 중리 畝西里·畝東里·中里	
거현리 巨峴里	同	거현리 거신리 문터리 巨峴里·巨新里·文峙里	
광촌리 光村里	同	광촌리 양기리 光村里·良基里	
질신리 秩新里	同	질신리 일부 질곶리 秩新里 一部·秩串里	
장선리 長善里	同	장선리 궁기리 長善里·弓基里	
오정리 梧亭里	同	오정리 梧亭里	
동정리 桐井里	同	동정리 평포리 회인군懷仁郡 桐井里·坪浦里 동면 東面	차령리 일부 車嶺里 一部
산척리 山尺里	同	은로리 산척리 同 隱路里·山尺里	산척리 각 일부 山尺里 各 一部

## 9) 회북면(懷北面) : 25개리

건천리 乾川里	회인군 懷仁郡 읍내면 邑內面	건천리 乾川里		
송평리 松坪里	同	자송리 황평리 일부 紫松里·黃坪里 一部		
죽암리 竹岩里	同	죽암리 신대리 일부 竹岩里 남면 南面 新垆里 一部		
고석리 高石里	同	고초천리 입석리 계암리 일부 高草川里·立石里 동면東面 桂岩里 一部		
용촌리 龍村里	同	개동 용상동 신촌리 介洞·龍上洞·新村里		
▲중앙리 中央里	同	마근동 사동 눌곡리 평창리 각 일부 馬斤洞·社洞·訥谷里 坪昌里 各 一部		
부수리 富壽里	同	교동 종산리 지산리 평창리 사동 눌곡리 일부 校洞·鍾山里·池山里·坪昌里 社洞 訥谷里 一部		
눌곡리 訥谷里	同	눌곡리 황평리 각 일부 訥谷里·黃坪里 各 一部		
애곡리 艾谷里	同	보고곡리 애곡리 甫古谷里·艾谷里		
마구리 馬九里	서면 西面	馬九里		
마동리 馬東里	同	마장리 동막리 가정자리 일부 馬場里·東幕里·佳亭子里 一部		
묘암리 妙岩里	회인군 懷仁郡 서면 西面	묘암리 일부 妙岩里 一部		
용곡리 龍谷里	同	명곡리 용두리 가정자리 일부 鳴谷里·龍頭里·佳亭子里 一部		
쌍암리 雙岩里	동면 東面	초개리 능암리 계암리 일부 草介里·能岩里·桂岩里 一部		
신문리 新門里	同	신문리 新門里		
오동리 梧桐里	同	오동 梧桐洞		
염둔리 鹽屯里	同	염둔리 법주리 鹽屯里·法注里	보은군報恩郡 주성면朱城面·	염둔리 각 일부 鹽屯里 各 一部
법주리 法注里	同	법주리 일부 法注里 一部		

용수리 龍壽里	회인군 懷仁郡 동면 東面	수적동 용흥동 壽積洞·龍興洞	보은군報恩郡 내북면 內北面	상궁리 일부 上弓里 一部
세촌리 世村里	同	세촌리 갈티리 각 일부 世村里·葛峙里 各 一部		
신궁리 新宮里	同	궁평리 세촌리 신평리 宮坪里·世村里·新坪里	보은군報恩郡 내북면內北面	상궁리 중궁리 각 일부 上弓里 中弓里 各 一部
갈티리 葛峙里	同	갈티리 일부 葛峙里 一部		
울산리 栗山里	同	울성동 산척리 栗城洞·山尺里	보은군報恩郡 수한면水汗面	산척리 각 일부 山尺里 各 一部
차정리 車井里	同	후율리 차정리 차령리 일부 後栗里·車井里·車嶺里 一部		
신대리 新垔里	남면 南面	신대리 일부 新垔里 一部		

10) 회남면(懷南面) : 20개리

신추리 新秋里	회인군 懷仁郡 남면 南面	상추동 하추동 上楸洞·下楸洞		
금곡리 金谷里	同	금곡리 지승동 金谷里·地承洞		
▲조곡리 鳥谷里	同	조곡리 鳥谷里		
판장리 板藏里	同	판장리 사담리 일부 板藏里·沙潭里 一部		
용호리 龍湖里	同	탕산리 영승동 풍계리 용호리 宕山里·永承洞·楓溪里·龍湖里	양중지리 일부 서면西面 陽中旨里 一部	
분저리 分諸里	同	분저곡리 分諸谷里		
사탄리 沙灘里	同	사탄리 沙灘里	양중지리 일부 서면西面 陽中旨里 一部	
송포리 松浦里	회인군懷仁郡 남면 南面	송포리 松浦里		
서탄리 書灘里	同	검단리 서당평리 옥천군沃川郡 대촌 儉灘里·書堂坪里·북일소면北一所面 大村	충남회덕군忠南懷德郡 주안면周岸面	오동령리 일부 梧洞嶺里 一部
은운리 隱雲里	동면東面	언목리 지경리 광성리 彦目里·地境里·光城里	옥천군沃川郡 안내면安內面	용촌리 각 일부 龍村里 各 一部
노성리 老城里	同	노성리 老城里	옥천군沃川郡 안내면安內面	용촌 각 일부 龍村 各 一部



사읍리 舍岫里	강외면江外面	사읍리 舍岫里	충남회덕군忠南懷德郡 주안면周岸面	하창리 일부 下倉里 一部
매산리 梅山里	同	매산리 梅山里		
산수리 山水里	同	산수리 행정리 山水里 · 杏亭里		
법수리 法水里	同	법수리 法水里	충남회덕군忠南懷德郡 주안면周岸面	하창리 일부 下倉里 一部
거교리 巨橋里	서면西面	거교리 巨橋里	사담리 일부 沙潭里 一部	
염티리 鹽峙里	同	염티리 일부 鹽峙里 一部		
어성리 漁城里	同	어성리 漁城里		
남대문리 南大門里	同	남대문리 만지동 거구리 후곡리 일부 南大門里 · 晚旨洞 · 巨九里 · 後谷里 一部		
신곡리 新谷里	同	신읍리 후곡리 양중지리 각 일부 新邑里 · 後谷里 · 陽中旨里 各 一部		

※ ▲ 表示는 面所在地 里洞 임

## 報恩郡地理誌

---

인쇄일 || 2008년 12월 10일

발행일 || 2008년 12월 15일

國 譯 || 金秉直

校 閱 || 金建植

발 행 || 報恩文化院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75번지

전화 (043) 544-2314

팩스 (043) 543-2314

인 쇄 || 디자인&인쇄전문회사 일광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446-45

전화 (043) 221-2948

팩스 (043) 222-8461

이메일 2212948@hanmail.net

등록 2002-1001-118

---

비매품 ISBN 978-89-92335-36-2 93090

이 책은 보은군의 군비를 지원 받아 발간되었습니다.